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2019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1 휴

2019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1 흙

자기학설로 명량해지는 지역학의 시작을 알리며

흔히 20세기는 과학기술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곤 한다.

“역사는 문화를 이해하는 실마리이다” 라는 명구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를 이해할 때 역사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체성을 지닌 역사보다 추상성과 다원성을 지닌 문화를 다룰 때가 더 난해하고 어렵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지역학 또한 지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학술적 개념을 가지다 보니, 실제 지역학 내부에서도 현재의 지역학을 완성된 지역학이 아닌 “지역사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노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이는 공동체성, 삶의 질, 새로운 가치 체계처럼 고차원적인 공공성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직접 획득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임시 설비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듯 한 지역학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오르그 짐멜은 수단이 목적에 의해 압도되는 이 같은 현상을 모든 고등문화의 근본적인 특성이자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돈의 실제 가치를 찾아가는 예비고찰인 「돈의 심리학에 대하여」에서 짐멜이 제기한 목적론적 전도과정과 심리학적 기제의 연관성을 지역학의 전도과정에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객관화, 정보화되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 않는 현대 실증주의와 근대적 세계관은 사회적 심리를 결정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단

이 되어야 할 역사와 결합된 심리작용은 변형된 목적을 개입치 않도록 만들며 적극적인 유통을 돕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사료의 객관성과 해석의 엄정함을 강조하는 강단사학에 대한 두터운 사회적 믿음과 신뢰가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역사학을 지역학의 전면에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고도화된 목적 달성의 지연을 고민하는 지역학이 공인된 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안전한 우회로로 삼고는 있지만, 임시방안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한 편이다.

역사학이 대행하고 있는 지역학의 문제는 첫 번째, 지역만의 특징이 반영된 역사정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찰사료만을 강조할 때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는 지역사의 비어있는 시간의 틈을 중앙사 체제를 가져다 메울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사료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통공간에서 이미 분화된 복수의 지자체들은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상당부분 동일한 역사연혁을 공유하거나 한국사 연대기에 따라 비슷한 스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록만을 가지고는 지역의 특징과 고유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 첫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 정립에 필요한 지역정보의 양적 증가에 비해 유기적인 해석이 동반되는 질적 성장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기록이 중요하다는 지역내부의 각성은 전통시대 관찰사료 이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적기록물로 눈을 돌리게 하거나, 마을조사 기록 등 물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단편적인 정보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보완되어야 하며, 한국사 전반에 대한 고찰가운데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향토사 안에서도 이제 전문연구자와 향토사연구자를 구분할 때가 되었다는 학문적 위계화 조짐이 보이는 점이다. 역사학으로 대행되는 지역학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는 역사를 전공한 지역연구자들의 석·박사 학위소지가 일반화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연구풍토에서 무르익게 된다.

이 같은 자격기준의 강화는 학술적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지

만, 관료화라는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악조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인된 연구방법에 확신이 강한 전공자일수록 자기방식과 다른 접근방법을 의미 절하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폐쇄적 학문주의는 여러 관점으로 지역문화를 읽어야 하는 지역학이 본 궤도를 찾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더 이상 근대적 세계관의 가치인 ‘경계두기’를 멈추고 ‘융합과 창조’라는 세기적 대전환에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들의 동참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역사를 기본으로 삼는 지역학의 최근 경직화를 바라보면, 시대와 다소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은 역사학의 방법만을 재현하거나, 단편적 기록, 학문적 권위화로써 지역학의 본래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에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공모 방식으로 뜻을 같이하는 개인연구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 연구모음집은 그 성과에 대한 기록물로서 시대변화에 맞춰 지역학의 범주와 활로를 넓혀가고, 공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번 공모의 목표는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범위를 넓혀 지역밀착형 연구주제를 찾고, 전공주의를 벗어난 일상학문으로서 지역학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학자와 학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에게 제안한 주제는 각주달기의 최소화, 과거보다 현재의 조망, 비판과 문제제기, 주관적 서술의 강조였다. 중심테마를 ‘토지’로 정한 이유는 개념화된 일상 공간에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용과 반응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상황적 개요와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 주제를 통해 연구자들은 관찰자이자 당사자로서 과거 역사와 지금시대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기술해 주었다. 동일한 주제로 수집된 이 결과들은 향후 경기지역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주의 이론화에 쓰이는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향후 제도적 실천 논리보다 경기문화의 전형, 법칙, 본질과 의미를 찾고, 물질에 포함된 상상을 키워가는 부문으로서 경기지역학을 강조하기 위해 명랑경기학 연구모음집 1의 테마는 토지에서 ‘흙’으로 바뀌 표기하였다.

이 연구모음집에는 연천, 수원, 시흥, 이천 등 9개 지역에 대한 총 16개 주제의 지역연구가 수록되었다. 통시성, 현장성, 공시성, 새로운 지역단위 역사성 등 지역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목차의 구성과 순서를 정했는데, 이는 큰 틀에서의 구분일 뿐 분량과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학문이란 현실과의 끊임없는 교호속에서 변화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사실을 살아있는 생명처럼 다룰 수 있는 변수를 쫓는 직관적인 인간이 학자이다.(에밀뒤르켐)

객관이 정확한 거라고 가정하면 정확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에릭호퍼)

학문에 있어 엄밀하고 논리적인 진술체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회학과 철학적 진리관에 따르면, 지역학은 지역과 지역민을 향해 이로움을 주는 학문으로서 지역이 존재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학술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전공수련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인된 증서를 받은 기술지식군들은 아도르노가 말한 도구적 이성의 위험인자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 중 한 부류인 역사학자들의 노고가 불모지와도 같은 한국적 상황의 지역사 연구와 정립에 큰 기여를 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지역학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지역과 지역민을 향한 열린 연구보다 한치의 오류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연구자 중심의 닫힌 연구로 언제든지 퇴보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학이 지금보다 생기를 얻으려면 역사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상력, 주관, 문제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만의 사실에 파고드는 자기학설의 창안’이 활발해져야 한다. 역사를 수단으로 새로운 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명랑경기학의 첫 공모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학문적 생기를 배양시킬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학연구센터의 새로운 시도에 기꺼이 동참해준 16명의 지역학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1 흔



목 차

CONTENTS



서 문


1. 시흥시의 어제와 오늘-간척을 중심으로 이병권	09
2.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조경철	31
3. 1914년 이천군 읍면 행정구역 변천 양경직	51
4. 고양의 일산신도시와 군사용 방벽 개수로 김우규	71
5. 마장면 관리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 정해경	83
6. 통일로 따라 고양테마기행 송낙영	105
7. 군포 대야미지역 개발로 사라지는 자연마을 연구 도형래	125
8.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한 생활상 변화와 전망 최진순	145
9. 민족시인 노작露雀 홍사용의 고향, 동탄의 오늘과 미래 허행윤	157
10. 구리문화, 그 흔적의 어제와 오늘 김명희	181
11. 수원 산드래미 마을의 변화와 삼성전자 양훈도	195
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 조사 이재범	219
13. 경기도 지역 석탑의 조영 특징과 전개과정 이서현	241
14. 연천 지역의 금석문에 관한 연구 고희상	265
15. 경기만의 고려벚길唐人島 ~ 龍骨 답사보고 임종삼	291
16. 정제두 사상과 현대사회 정원철	319



01

시흥시의 어제와 오늘 -간척을 중심으로-

이병권

1. '시흥'의 의미와 시흥시
 2. 호조벌, 바다를 막아 농지로
 3. 바다를 메워 염전으로(군자, 소래염전)
 4. 폐염전과 도시화
 5. 맺음말
- 

1. ‘시흥’의 의미와 시흥시

시흥시(始興市)는 전근대 북부가 인천(仁川), 중남부는 안산(安山)에 속했다. 서해안 경기만(京畿灣)의 내만 갯골과 드넓은 간사지가 펼쳐져 있어, 일찍부터 어업(漁業)과 염업(鹽業)이 발달하고 간척(干拓)을 통한 개간도 매우 활발하였다. 조선 후기 호조벌 등 곳곳에 농경지가 만들어졌고, 일제시기 대규모 염전건설, 현대에는 시화방조제와 대단위 공단(시흥스마트허브)도 들어섰다. 이처럼 시흥시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큰 동력은 간척에서 비롯되었다.

시흥시의 연혁은 4세기 말까지 백제의 영역에서 475년(장수왕 63) 고구려의 남진으로 중남부에 장항구현(獐項口縣), 북부에 매소홀현(買召忽縣)이 설치되고 신라 때 장항구현이 장구군(獐口郡), 매소홀현은 소성현(邵城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高麗)에 와서 장구군은 안산현·안산군, 소성현은 경원군(慶源郡)·인주(仁州)·경원부로 변천하였다. 조선에서는 안산군이 설치되고 이중 초산(草山)·마유면(馬遊面) 전 지역과 잉화(仍火)·대월면(大月面)의 일부가 시흥시 영역이었다. 경원부는 인천군·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가 되었고, 시흥시 경내는 신현(新峴)·황등천(黃等川)·전반면(田反面)이다.

‘시흥’은 지명(地名)으로 시흥시를 이르는 말로 널리 통용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도 시흥을 사용한다. 『고려사(高麗史)』에 금천구의 옛 지명인 금주(衿州)를 “별호(別號)는 시흥(始興)이다. 성묘(成廟) 때 정하였다.”¹ 또한 「열전(列傳)」 강감찬(姜邯贊, 948-1031)전에도 “시흥은 즉 금주이다”라고 나온다. 시흥이 정식으로 행정명칭이 된 것은 1795년(정조19) 2월 정조(正祖)가 아버지 장헌세

자의 원칙인 현릉원 행행(行幸)을 위해 ‘수원별로’를 새로 내고 금천현감을 현령, 읍호를 시흥현(1895년 시흥군 승격)² 으로 하면서이다.

시흥시가 금천의 옛 지명인 ‘시흥’을 쓰게 된 것은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1914년 4월1일 부군면 통폐합 때, 시흥군을 중심으로 안산군과 과천군을 합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산군의 군내·초산·잉화 3개면이 수암면으로 나머지 와리·마유·대월의 3개면은 군자면으로 합쳤다. 인천부의 신현·황등천·전번면은 소래면으로 합쳐 부천군에 속하였다. 이후 시흥군은 1936년 영등포읍과 북면이



『동여도(東輿圖)』에 표시한 오늘날 시흥시 영역(19세기). 시흥시의 영역은 조선시대 인천부와 안산군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시흥시청 향토자료실)

서울로 편입되고 1963년에는 동면의 시흥리(금천구 일원)까지 서울로 편입되었다. 이어서 부천군의 소래읍이 시흥군에 편입되고(1973) 안양, 광명, 과천, 반월(안산), 군포, 의왕이 시로 독립하면서 시흥군의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이 1989년 1월, 시흥시로 승격하였다.

바람 깃발 휘날리며 해문을 돌아오니
소래산 좋은 경치에 눈이 번쩍 뜨이네
높다란 군자봉을 서로 가리켜 보이어라
혹 그 안에 숨은 인재가 있지 않을까³

정조가 8월 16일 김포 장릉(章陵)을 참배하고 부평을 지나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읍어 인천부사 황운조(黃運祚)로 하여금 쓰게 하여 부아(府衙)에 걸도록 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지역이 하나의 경관으로 노래된 가장 이른 기록이다. 정조의 1797년 8월 행행(行幸)은 수원 현릉원(顯隆園)을 찾은 제10차 원행(園行)으로 시흥지역을 경유했던 기념비적 사건이다. 당시 인천과 안산의 명승인 소래산(蘇萊山, 299.4m)과 군자봉(君子峯, 198m)의 경치를 아우르면서 다른 두 지역을 하나의 경내(현재 시흥시 경내)로 바라보고, 지역의 인재를 찾는 시를 남긴 사실과 지역민을 직접 만났던 것은 지역민들에게 조선 왕조 중흥의 주역이라는 정신적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2. 호조벌, 바다를 막아 농지로

시흥해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어염(魚鹽)이 발달하여 이를 알리는 신석기 오이도 유적과 조선의 안산어소 사용원 분원(안산시 신길동)이 있다. 김홍도(金弘道, 1745~?)의 「매해파행도(賣蟹婆行圖, 어물을 팔러가는 포구의 여인들)」를 통해 시흥해역의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매해파행도」는 안산과 연고가 있던 김홍도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참여하여 이들이 봐왔던 일상을 담은 풍속화이다. 그림은 너비 3.5m정도 되는 길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광주리와 향아리를 이고 어물을 팔러가는 모습이다. 강세황은 발문에서

“내가 일찍이 바닷가(海畔-안산)에 살 때, 아이를 업고 광주리를 인 십여 명의 젓갈 파는 아낙들이 무리를 지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 바닷가 하늘에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 갈매기와 물새들이 다투어 날아오르고, 거칠고 차가운 풍물이 한 무리를 이룬 것이 또한 필묵의 밖에 있고, 바야흐로 도도히 흐르는 속세의 티끌 속에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돌아가고픈 생각이 일게 한다.”⁴

장소에 대한 논란⁵을 떠나 강세황이 안산 살 때의 갯가 사람들의 일상을 말해준다. 또 이 그림과 빼닮은 국립박물관 소장 『행려풍속도병』, 「매해파행」에도 강세황은 “성계, 새우, 소금으로 광주리와 향아리에 그득 채워 포구에서 새벽에 출발한다. 해오라기 놀라서 날고 한 번 펼쳐 보니 비린내가 바람에 코를 찌르는 듯하다.”⁶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이 쓴 풍속화 「매방녀(賣螃女, 게 파는 여인)」의 평에는

“소성(인천)과 계양(부평, 부천) 사이는 땅이 바다에 가까워서 방계가 나니, 봄과 여름의 교체기에 갯가 아낙들이 이 게를 주워 무리를 지어 한양에 들어와 해진 옷을 바꾸어 돌아간다. 이는 소성, 계양의 습속이다.”⁷

이러한 시흥해역 주민들의 생활풍속은 현대까지 이어졌다.

“옛날에 어려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주변의 모든 섬에는 배가 있어도 오

이도 주민들은 배가 없었다. 오이도 사람들은 배로 조업하는 어선 어업이 아니라 갯벌에 살을 설치해서 조업하는 건강망(建干綱) 어업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조부이신 박은봉(朴恩奉) 할아버지도 건강망을 하셨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밀물에 든 고기를 썰물에 잡았다. 당시에는 고기가 워낙 풍부해서 민어, 농어 등 일본사람들이 회로 먹기 좋아하는 것들만 잡아서 팔아도 살림살이가 풍족했다. 잡은 고기를 쪽지게에 지고 서울역 인근의 중림동에 있던 시장에 가서 팔았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오이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오가셨다.”⁸

어살 같은 정치어업(定置漁業)으로 살아가던 시흥해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 이루어진 간척이다. 안산 첨성촌(瞻星村)의 실학자 이익(李瀾, 1681~1763)은 「해거방축(海居防築)」이란 시를 써서 간척 사업을 통한 농지 확장을 노래하였다.⁹ 그 꿈이 실현된 것이 호조벌 간척이다.

시흥시 중간에는 포동과 하중동 사이에 넓은 평야가 있다. 이곳을 호조벌이라고 부른다. ‘호조(戶曹)’는 조선시대 6조의 하나로서 국가 경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한 관청이다. 석장둔(石場屯)으로도 불린 호조벌은 원래 은행천과 보통천이 긴 갯고랑(흔개)을 이루던 바닷가로, 당시 인천부 신현면 포동과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 돌장재(석장포[石場浦]) 사이의 바다에 ‘一’자 모양의 방죽(길이 약 720m)을 쌓고 물막이로 육지가 된 곳이다.(약 5km²[150만 평]) 수문을 두어 하천의 배수(排水), 해수 역류를 막는 방조(防潮)와 위로 나무를 심어 방죽을 튼튼히 하고, 도로의 구실도 하였다. 해언(海堰)인 호조방죽은 정조가 현릉원에 행차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쌓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안산과 인천 두 읍의 경계에 제방을 쌓아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감관(감독관)을 정하고 군정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 하였습니다. 가까운 경기지역 내에 수백 석의 논을 얻어 실로 다행입니다…¹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21년(경종 원년) 경종(景宗) 때 호조방죽을 완공한 기사이다. 경종은 영조(英祖)의 이복형이고 정조에게 큰할아버지다. 진휼당상(賑恤堂上)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을 1720년(숙종46) 총책임자로 유덕기(俞德基), 이세영(李世榮), 장진도(張震燾)를 감독 관리로 하여 군인을 고용해 축조

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인천부 지도에는 포촌리(浦村里, 현 포동) 남쪽에 ‘진청신언(賑廳新堰)’이 표기되어 진청은 진휼청(賑恤廳)이므로 호조의 임시관청인 진휼청에서 방죽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 제작된 『안산군지도』에는 호조방축으로 표기하였다.

호조방축을 축조한 이유는 “지금 이 방축을 쌓은 것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곡을 거두어서 진자(賑資)에 보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¹¹ 라고 진자 고갈에 따라 진휼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듯 호조방축의 축조는 백성의 구휼을 위해 간척한 위민(爲民)정책의 상징으로 당시 권력자들의 진전(陳田)개발과는 대비된다.

당시 진휼청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재정이 악화되어 세수 확보가 시급하였다. 진휼청은 백성 구휼을 위한 관청이지만 제언의 축조와 관리도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 제언사(堤堰司)가 설치되어 선조 이후 폐지되고, 1662년(현종3) 복설(復設)하여 비변사에 속하였으나 제언사를 실제로 담당한 것은 호조판서와 진휼당상이다. 따라서 진휼청은 제언의 축조와 관리는 물론 경작지에 둔전(屯田)을 경영하여 소출(곡식)을 진휼에 활용하였다.

호조별의 개간(경작 가능한 언전[堰田]은 제언 축조 후 10년 이상 걸림)은 『승정원일기』 1726년(영조2) 5월 16일 진휼청 장계에서 관둔전을 설치하고, 지난해 석장포 별장 유성서(柳星瑞)가 임명되어 백성들을 모아 개간·경작¹² 됨이 보고되었다. 또한 1728년(영조4) 3월 11일 장계에 인근 사대부의 토지 침탈과 원답 경작민들의 횡포가 보고되어 진휼청은 1740년(영조16) 4월 5일 절목을 작성하여 실제 경작자를 주인으로 조처하고 10월 12일 현재 70여 호 200여 섬지기를 보고하였다.



『안산군지도(安山郡地圖)』의 호조방축. 1872년(고종 9)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지도(彩色地圖). 지도 왼쪽 끝 중간에 '호조방축'이 표기되어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호조벌의 전설 ‘포동 걸뚝 설화’¹³

포동 걸뚝 설화는 호조방죽 축조 설화이다. 방죽 공사가 난항을 겪자 스님이 나타나 해결책으로 인신공양을 제시하자 고을 원이 금부도사에게 부탁하여 죄인 셋을 방죽에 묻어 어렵던 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평범한 서사 구조이다. 에밀레종 설화와 같은 인신공양 설화이다. 이러한 설화로는 인근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한들방죽 설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울포리 ‘도깨비방죽 설화’ 등이 있다. 차이점은 ‘한들방죽 설화’는 어린아이를 바치라는 스님을 제물로 바쳤고 ‘도깨비방죽 설화’는 거지(장쇠)를 제물로 바친 것으로 걸뚝 설화와 내용은 같다.

이 이야기가 처음 채록된 『시흥군지』상(1988)에는 정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정조에 관한 사적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한기(필명 이승언)가 시흥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시흥향토총서』3(1995)에 처음 인용하고 있다. 정조사적은 『권농편(勸農篇)』¹⁴ 과 『시흥시 신현동지』(1999)에도 전하는데, 이는 시흥지역에서 위민정치로 백성의 지지를 받던 정조가 시흥지역을 거쳐간 1797년 8월 행행을 기념하고 자부심으로 여겼던 당대 지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정조를 향한 지역민의 관심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2) 호조방죽 인근 간사지를 개간하고 정착한 서울 문인 백상형

백상형(白尙瑩, 1705~1789)은 자가 순보(純甫), 호는 오현(傲軒),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약관도 되기 전에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정주(定州)로 유배된 아버지를 따라가 귀양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천릿길로 모시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시묘살이 한 효자였다. 85세로 장수하였으며 일생 동안 경서(經書) 연구와 시가 짓기를 좋아했다. 청려장(淸려杖, 종려나무 지팡이) 짚을 나이에도 이름난 곳이나 경치 좋은 곳을 듣기만 하면 멀어도 수레를 타고 가서 보고는 기행문과 시를 남겼다.

회사에서 굴욕을 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고, 이미 서울의 변화한 곳이 즐겁지 않아, 퇴연하게 돌아와 연성의 호숫가에서 쉬었다. 땅을 개척하여 정자를 지어 면포정이라고 편액을 걸었고, 그 정자 앞에는 작은 연못 두 개를 파서 하나는 피라미를 기르고, 다른 하나는 연꽃을 심어 물물의 자

연을 실험하였다. 연못의 좌우 수 십 무에 빙 둘러 푸르른 병풍을 이루어 천만종의 풀과 꽃으로 기이한 향기를 풍기게 하며, 심지어 앓은 것이 없어 진실로 우리 고을의 제일가는 누대이다.¹⁵

이처럼 백상형은 서울에서 살았으나 해안가인 지금의 하중동 셋말에 정착했다. 호조방축의 서남측으로 이곳 해변을 간척하여 면포정(面圃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적하며 살았다. 이러한 백상형의 사례에서 조선 후기 서울의 사대부들 중 벼슬이 막히자 경제 활로로 해안가 진전개발에 나섰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국가 주도의 호조벌 간척과 함께, 민간에서도 사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넓히고자 간척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으로 백상형은 만년에 이르러 당시 안산의 남인 및 소북계 사대부들과 사로사(四老社)라는 시사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문집 『오헌집(傲軒集)』에 이들은 시와 문장이 뛰어난 당대 문인이나 서화가(書畫家)들로 강세황과 의암(蟻庵) 조중보(趙重普, 1705~?), 석가재(夕可齋) 이태길(李泰吉, 1709~?)은 안산의 4대 문장가이고, 뒤에 포동의 학산(鶴山) 엄경응(嚴慶膺, 1696~1784), 현재(弦齋) 최창헌(崔昌憲), 권요성(權堯性), 김춘용(金春容)이 함께 하면서 ‘안산팔문장(安山八文章)’으로 불렸다. 특히 인천부 포동 엄경응과의 교류는 당시 호조방축이 안산의 문인들과 지리적으로 연결 되었던 교통로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밖에 백상형의 후학 조영경(趙榮慶)이 쓴 「오헌선생행장」에서 “정종(正宗) 기유(己酉) 11월 20일 밤에 병을 만나지 않고 연성(蓮城) 관곡(官谷)에서 향년 85세로 죽었다.”고 하여 ‘연성’이 안산군의 별호¹⁶이고, ‘관곡’은 지금의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官谷池)¹⁷ 주변을 이르던 지명이므로, 시흥에서 여생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3. 바다를 매워 염전으로(군자, 소래염전)

1917년 시흥해역 지형도¹⁸에는 호조방축 말고도 해안가를 따라 방축¹⁹을 쌓아 만든 농경지들이 즐비하다. 간척과 개간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만든 논을

‘방죽논’ 또는 ‘해답(海沓)’이라고 한다. 시흥지역의 간척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더욱 활발하였다. 특히 호조벌의 간척에도 민원(民怨)²⁰이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일제 강점 이후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농경지는 부호 등의 차지라서 소작을 하는 대다수 지역민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간척과 농경지 개간은 지역민들에게 큰 고역이었다.



시흥해역 지형도(1917).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시흥해역에서는 전통염업도 발달하였다. 염업은 보편적인 서해안 제염과정인 전오제염(煎熬製鹽)과 천일제염(天日製鹽)이 있다. 시흥해역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전오염, 화염(火鹽), 혹은 자염(煮鹽)이라 부르는 제염법이 주류였다. 자염은 일제에 의해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전까지 생산되던 전래소금이다.

불거리 풍성한 농촌의 생활
추흥이 저절로 유연하게 일어나네
가까운 이웃끼리 마을마다 술잔치
여기저기 따비밭 태우는 연기
서리 맞은 오이 덩굴 거꾸로 매달리고
빛물 흥건한 국화 가지 한 쪽으로 처져 있네
고목나무 매미 소리 잠잠해지고
싸늘한 하늘엔 기러기 그림자 걸렸어라
조수(潮水) 물 빠지는지 살펴보는 어부들
마을 공터 물색하는 봇짐장수들
해변가는 대부분 소금이 주업(主業)
길다란 제방 덕에 염전 쉽게 일궈지네
가난한 시골 마을 세금 독촉 시달리고
변방에선 계속해서 북소리 뚝뚝 울리는데
거친 밥 달게 먹는 촌로(村老)의 생활
초가집에 편히 누워 낮잠을 즐기노라²¹

이 시는 효종(孝宗)의 국구(國舅)가 되는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 신평부 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 1587-1638)²²가 현재의 장곡동에 살며, 쓴 것이다.

시흥해역 주민들이 염전에서 자염을 생산하던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관찬『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안산군 조의 토산(土產)에 소금을 첫 번째로 꼽고, 인천·부평도호부 조에도 소금이 등장한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각종 읍지류와 『택리지(擇里志)』에도 비슷하다. 이를 통해 시흥해역에서 자염이 일찍부터 널리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장곡동 주민 장경창의 구술에 따르면 ‘자염 생산에는 바닷물이 계속 차면 만들 수 없어 지대가 높고 갯벌이 길다라니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 바로 장현, 장곡, 월곶, 정왕동이다. 비도 적게 내렸기 때문에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동네였다. 소금 굽는 동네라서 부촌으로 불렸다.’ 장곡동과 이웃한 서쪽 월곶동 자연마을 벌말도 본래 넓은 갯벌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경주최씨가 처음 터를 잡아 촌락을 이루고 벌말, 범말로 불렸는데, 주민 남문현과 방연근의 증언에 의하면 자염을 굽던 벋(가마)이 있어서 벋말인데 벌말로 불렸다고 한다. 또 정왕동 봉화마을 앞에는 자염 염밭 흔적인 반원형의 논이 남아있다. 이처럼 군자, 소래염전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자염과 관련된 이야기나 자취를 쉬이 찾을 수 있다.²³

자염의 생산 방식은 바닷물을 직접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해수직자식(海水直煮式)과 해안의 갯벌을 갈아서 염분이 달라붙은 흙(鹹土)을 생산하고 이 흙을 해수를 침투시켜 염도를 높이는 채함(採鹹: 염분의 농도를 높이는 작업)하여 함수를 끓여 소금을 만드는 무제염전식(無堤鹽田式)이 서남해안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자염을 끓이는 솥은 개흙과 조개껍질로 만든 토부(흙으로 만든 솥)가 주로 사용되고, 도중에 비가 오면 소금을 생산하지 못해 가격은 금값이었다.

자염은 자본주인 '벗주'가 큰 쇠솥, 장작, 일꾼들의 식비 등 돈을 대고 구워진 소금의 40%를 가져갔다. 염전 한 자락을 경영하는데 대체로 소 1마리, 염부 4~5명이 있었다. 땀감마련과 아궁이 불 지피기 담당은 '염한이', 소금물을 염벋까지 저나르는 일꾼은 '간장이(간쟁이)'라 부르는데, 가장 고돼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이 힘들었다. 염전 대부분은 소작이라 염부들의 삶은 어려웠다. 시흥해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주업이 농업이고 부업으로 염업에 종사하였다.

개항이후 자염은 일본염과 청국염의 수입으로 가격경쟁에서 도태되어 큰 타격

을 입었다. 더욱이 자염은 일본이 인천 주안(朱安)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천일제염의 소금생산보다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일제의 통감부는 1907년 염업조사를 통해서 염세를 부과하여 제정수입의 확대와 종래의 한국인 제염업자를 해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염업정책은 식민지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증가정책으로, 염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조선염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²⁴

일제가 펴낸 『한국수산지』²⁵에 “안산군 연안에는 염전개발을 위해 적당한 곳이 적지 않다. 이미 조성된 염전이 약 30정보인데, 1년 생산액은 약 336만근이다.”, “마유면 연안에는 염전개척에 적당한 곳이 많고 이미 조성된 염전은 20정보 가량 되었으며, 1년 생산액이 230만 근에 달한다”고 하여 소금생산의 최적지임을 파악하였다. ‘채함시기는 봄·가을로 3~5월, 8~10월로서 1년에 6개월 동안 가능했다. 생산된 소금은 중매인이 배를 통해 마포로 이출했으며, 1표(俵)운임은 35전(錢)이었다.’²⁶

일제는 천일염 생산에 관심이 높았다. 당시 화학공업의 원료로써 천일염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일본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조선은 천일염을 생산하기 마땅한 기후와 일본과도 거리가 가까워 천일염의 원료 생산지로서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일제는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장래와 조선 천일제염의 장래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천일염 생산에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일제는 1907년 인천 주안시험염전을 시작으로 관영염업 방침을 확정하고 총 4기에 걸쳐 천일염전 축조가 이루어졌다.²⁷ 시흥해역은 간석지를 간척하여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을 축조하였다. 군자염전은 시흥군 군자면 일대의 넓은 간석지에 조성하였다. 소래염전은 부천군 소래면을 중심으로 시흥시 포동, 방산동 일대의 간석지를 간척한 후 호조방죽 외곽까지 확대되었다.

『동아일보』에 이마무라(今村) 전매국서무과장(專賣局庶務課長)이 군자염전을 ‘약 90여만원으로 공사하여 면적이 575정보(5,685,950m²)이며, 완료되면 생산량이 무려 4~5천만근에 달하고 인천과도 가까워 수송(일본)에도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다. 군자염전은 1921년 11월 착공하여 1925년 3월(3년 5개월)에 완공하였다. 군자면 앞바다 5km내 해상의 옥구도와 오이도를 두 개의 제방으로 연결하여

時 日本文化の中心

五千萬斤

군자염전 축조에 대한 「채염증가 오천만근」, 『동아일보』 1924년 10월 21일 기사

“포크레이가 무슨 포크레이 드문드문 여기다 해요 뭐 별거 다 했죠 목도
로 돌 저 날르라고, 중국 사람은
그런 걸 안 쫓어요 위험한데 데꼬
가서 물 들오른 터져 나가는데 그
냥 중국 사람만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째에도 하루 20전
쫓대니까”²⁸

군자염전 공사도면.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 6, 2007, 223쪽)

고 1980년대까지 호황을 이뤘다.

일제는 천일염 관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원염(原鹽)의 확보를 위한 증산 계획으로 공업발전을 위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 관동주를 잇는 천일염 생산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원염은 소다공업³⁰의 중요한 원료로 일제의 공업 발달을 위해서는 값싼 원염의 대량 생산이 필요했다. 따라서 4기로 대규모 천일염전을 조성하는데, 소래염전이 포함되었다.

총독부 전매국은 1934년 소래염전을 기공(「58만원으로 대염전 기공-부천군 소래면에서」, 『동아일보』 [1934.7.11.])하여 1937년 완공하였다. 549정보(4,925, 619m²)의 면적에 공사비 60만원, 연인원 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공사였다.³¹ 소래염전의 축조에도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1937년에는 수인선(水仁線) 철도를 개통하여 군자·소래염전의 소금을 수송하였다. 수인선은 착공한 지 1년 2개월 만인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하였다. 총연장 52km의 협궤선(挾軌線)으로 17개의 정차장과 임시정류장을 설치하고 수원-인천 간 1시간 40분에 연결하였다. 수인선은 1995년 12월 31일 폐선될 때까지 58년간 수원, 화성, 안산, 시흥, 인천을 연결하여 인적·물적 교류에 기여하였다. 철도부설과 운영은 사설철도(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로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라 시행되었다. 수려선(水驪線, 1930~1972)을 연결하여 곡물(이천쌀 등)과 원목(강원도) 등을 일본으로 빼돌리는 중계 수송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종착지인 제물포항에는 대형 창고가 계속 들어서며, 일본으로 반출될 날을 기다리는 물자들이 차고 넘쳤다.

4. 폐염전과 도시화

시흥시에 또 한 번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된다. 바로 시화(始華)방조제건설이다. 1987년 4월 착공하여 6년 7개월 만인 1994년 1월 24일(14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시흥시 오이도와 오진군 대부면 방아머리를 잇는 12.7km가 완공되었다. 총사업비 4,800억, 현대건설이 맡아 31만 명의 고용효과와 간척지·배후

지 총 244.3km²를 확보하였다.

시화방조제는 조선 후기 호조벌, 일제강점기 군자·소래염전에 이어 3번째로 이루어진 대규모 간척 사업이다. 국가 주도의 근대적인 간척사업은 한말에 태동하여, 192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본격 추진되었다. 해방 이후 국제연합재건단(UNKRA)과 수리·간척사업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1961년 이후 ‘공유수면매립법’의 제정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등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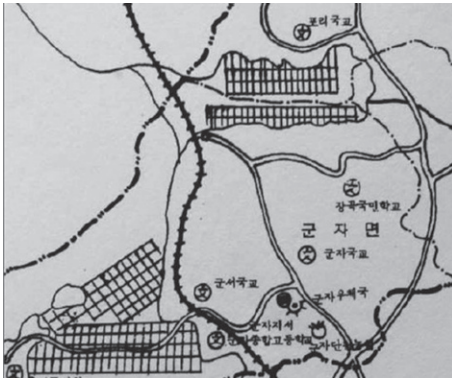
시흥해역에서 이루어진 간척사업은 주로 해면간척으로 만조 때는 해수면이고 간조 때 간석지가 되는 곳을 방조제로 막아 바닷물을 막고 내부의 물을 배수갑문 등으로 빼낸 후 토지로 이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해면의 낮은 지반을 메워 자연배수를 하는 매립간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군자매립지 등)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은 1960년대에 면적이 각각 6백만m² 내외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정부의 부족한 소금을 채우기 위해 민간염전의 개발에 적극 나서자 공급 과잉과 소금 값 폭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1961년 염전매법 폐지 및 염관리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민영화가 진행되어 1971년 대한염업주식회사의 정부소유 주식 매각을 통해 완전 민간기업으로 전환(1992년 주식회사 성담 상호변경)하였다. 그러나 염전업의 불황과 도시화로 군자염전은 1987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업용지(시화공단)로 전용되었다.

소래염전은 1996년 폐업하고 폐염전 부지의 일부는 향토기업 (주)성담에서 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 시흥시도 일부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만들어 보존 습지로 등록(2012)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흥시와 주소유자 (주)성담의 입장이 달라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시흥시가 폐염전을 보존하고자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문화재청 심의(2007.6.7.)를 앞두자 (주)성담에서 무단으로 37개



시화방조제 완공을 알리는 『한겨레신문』
1994년 1월 25일 기사



군자와 소래염전 시흥군 관내도(198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 6, 2007, 279쪽)

(2002년 완공 총면적 16,568m²)가 들어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 ‘시화공단 명칭 논란 격화 조짐’(1992.8.6.)에 따르면 건설부가 공단의 이름을 87년부터 시흥군의 ‘시’와 화성군의 ‘화’를 따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세워 공단을 조성하였는데, 89년 시로 승격된 시흥시가 공단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단 이름을 ‘시흥공단’으로 바꿀 줄 것을 1992년 초 상공부에 요청하자 공단 면적의 30%가 있는 안산시가 반발하였다. 시흥시는 전국 대부분의 공단이 지역이름을 붙이고, 한때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했던 시흥군이 7개 시로 쪼개져 시 승격 뒤 왜소한 점을 감안해 시흥시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애당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였다. 시화호 공사 완료 1년도 안되어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자 각종 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특히 『동아일보』(1997.7.8.)는 ‘하루 평균 오폐수 11만톤이 유입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도 해결 못하고 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길 촉구하였다. 결국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시화호를 방류하였는데, 인근 시흥해역에 폐수로 인해 어패류 폐사 등 추가 오염이 심각하였다. 『동아일보』(1997.9.29)에 “오이도 앞 개펄 2km

소의 소금창고를 기습적으로 헐어버렸다.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벌어진 문화유산 훼손(반달리즘vandalism)이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반월공업단지 내 공장부지가 포화상태가 되자 1986년 시화지구건설사무소가 설치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군자염전 일대 22.4km²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시화공업단지



시화공단 명칭 논란을 전하는 『한겨레신문』 1992년 8월 6일 기사

가 오염으로 폐죽음당한 동죽조개들로 자갈밭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하여 시화호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여러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수 유통만이 실질적 대안으로 방침을 세운 정부는 ‘시화호연안 특별관리해역 종합계획’을 세워 해수유통을 확대(『인천일보』, 2001.6.19) 하여 시화호의 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화호의 오염 문제는 그간 간척이라는 개발 중심 논리가 환경과 보전이라는 논의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앞 거울 2바가 오염으로 폐죽음당한 동죽조개들로 자갈밭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이도 개펄 동죽 폐사를 알리는 『동아일보』 1997년 9월 29일 기사

시화공단은 2011년 9월 시흥스마트허브로 명칭을 바꿔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07년 시화북측을 간척하여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조성하였다. 특히 거북섬(인공섬) 일대 33만 m^2 는 2017년부터 시흥시와 경기도, K-water와 공동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인공서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자매립지는 (주)한화건설이 1997년에 정왕동 일대 간척지 4,859,504 m^2 를 매립하여 군용 화약류 종합시험장으로 사용한 간척 유희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시흥시에서 단독개발을 추진하여 시흥시와 (주)한화건설 사이에 약 410만 m^2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06.6.23)하고 1만 5,000가구의 아파트와 상업, 레저단지 등을 포함한 친환경해양도시로 배곧신도시³²를 개발하였다.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에 무상부지를 제공하여 향후 연구교육시설과 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화간척 이후 시흥시는 1992년 5월 20일 소래염전하구 561,900 m^2 를 매립하여 해상공원과 여항대체시설을 조성하고 93년부터 98년까지 오이도 일대 6,545,400 m^2 의 해안을 연차적으로 1백만 m^2 가량씩 매립하여 소래염전하구에 ‘월곶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오이도에는 이주민 단지와 관광포구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이도 신석기 패총³³을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9년 구제발굴로 뒷살막 유적을 조사하고 철강단지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오이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오이도 유적 보존운동’을 벌였다. 결국 2002년 4월 1일 사적 제441호로 ‘시흥 오이도 유적’이 지정되었다. 개발에 맞서 문화유산을 주민들의 힘으로 보

존시킨 중요한 사례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흥시는 2012년 계획을 세워,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개장 2018.4.10)과 오이도 박물관을 건립(개관 2019.8.30)하였다.

이렇듯 시흥해역은 늘 역사적 변동과 함께, 일찍이 ‘농경지염전산업·도시단지’ 변동의 중심에 있었다. 시흥해역은 너른 갯벌이 발달한 곳이다. 한때 간척사업의 부작용으로 개발이나 보존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군자·소래 폐염전은 도시화(공단) 과정에 중심에 섰다. 군자염전은 시화공업지구의 건설(1986)로 모두 공단과 배후 택지로 개발되었고, 현재 시흥시의 도시공간(정왕, 배곧)으로 변모하였다. 소래염전 역시 월곶신도시(1992)로 일부는 내만갯골의 보전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들은 하나의 시흥시를 지향하며, 변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이면 호조벌이 간척 된지 300년이 된다. 자연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역사적으로 인천과 안산이라는 두 지역을 연결하였던 호조방죽으로 호조벌은 현재의 시흥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호조벌은 현대 시흥시의 지역통합의 상징이자 간척이라는 인위적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현대의 시흥시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 시작이었다.

—————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종실록(景宗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오헌집(傲軒集)』
- 『연지사적(蓮池事跡)』, 1846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 1871

『동아일보(東亞日報)』

김현선 외,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시흥문화원), 2018

시흥시 군자동, 『소담소담 군자옛이야기』, 2018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달월 열두 마을 이야기』, 2015

시흥역사문화연구회 흔개, 『군자염전 이야기』(시화넷), 2012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자연과 역사」1, 「현대 안산의 변화와 발전」6, 『안산시사』, 2011

시흥문화원, 『호조별 강연회 자료집』, 200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1, 「시흥의 전통시대」2,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5,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6, 『시흥시사』, 2007

시흥문화원, 『始興市地名由來』, 2006

이병권, 「시흥지역 역로(驛路) 연구 -1797년 8월 행행(行幸)을 중심으로-」, 『2018 경기도역사문화 탐방로[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연구논문집』(경기문화재단), 2018, 「시흥시(始興市) 장시(場市)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京畿鄉土史學』제22집, 2017, 「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正祖史蹟) 고찰(考察)-시흥지역을 중심으로-」, 『京畿鄉土史學』제19집(京畿道文化院聯合會), 2014

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디지털시흥문화대전 siheung.grandculture.net/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주석

- 1 別號始興(成廟所定)-「금주」, 『고려사』권56
- 2 陞黔川縣監爲縣令 改邑號爲始興 用舊號也-『정조실록』권42, 정조 19년 윤2월 1일 계미
- 3 風旂獵獵海門廻, 秀色蘇來眼忽開, 君子峰高入指點, 儻非中有隱淪才-『홍재전서(弘齋全書)』권7 시3
- 4 余嘗居海畔 慣見賣醢婆行徑 負孩戴筐 十數爲群 海天初旭 鷗鷺爭飛 一段荒寒風物 又在筆墨之外 方在滾滾城塵中 閱此 尤令人有歸歟之思 豹菴

- 5 그림의 바닷가 마을을 두고 김홍도의 고향에 대해서 오주석은 김홍도의 호가 서호(西湖)라서 고향을 마포 강가라고 추정했고, 변영섭은 안산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산이라는 주장은 강세황의 『표암유고(豹菴遺稿)』, 「단원기(檀園記)」 등에서 어려서 김홍도가 자신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고 하였는데, 강세황이 안산에 살았던 시기라는 것이다.
- 6 栗蟹蝦鹽 滿筐盈缸 曉發浦口 鷗鷺驚飛 一展看 覺腥風鼻
- 7 邵城桂陽之間 地濱海產螃蟹 春夏之交 浦女拾此蟹 群入京師 易弊衣以歸 此邵城桂陽之俗也
- 8 박용덕 구술, 1944년생으로 시흥시 오이도 토박이다. 조상 대대로 600년을 살았다.
- 9 도랑 내고 밭 옮겨서 방조제를 쌓으면 소금기 줄어들어 벼가 자라 풍성하리, 새로 취락 조성하여 주거를 정돈하고, 농기구를 활용하면 잡초 걱정 없으리 그 누가 이 산천에 남김없이 이익 주어 풀 무성한 저 평원 버리지 않게 할까 푸른 바다 뽕밭으로 쉬 바꿀 수 있나니 백성에게 좋은 계책 말해 주려 하노라(穿渠移圃築防潮 鹹減禾生盡沃饒 聚落仍成居井井 鋤耰何患莠驕驕 誰教山澤無遺利 可見平蕪免浪拋 碧海桑田容易變 良謀輸與訪芻蕘)-『성호전집(星湖全集)』권4, 시(詩) 화포잡영(花浦雜詠) 17수(首)
- 10 又以賑恤廳言啓曰 本廳用度浩繁 蓄積匱竭 而元無稅入之物 牽補推移之際 極其苟簡 安山·仁川兩邑之境 有可以築堰作畝之處 故別定監官 雇軍始役 今已完畢 近畿之內 得此數百石缺畝 誠爲多幸-『승정원일기』535책, 경종 원년 12월 6일 호조방축의 축조에 대한 문헌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은 지역향토사가인 심우일(훈개)이다.
- 11 今此築堰 專出於爲民蒙利 而收其稅穀 以爲添補賑資之計矣-『승정원일기』598책, 영조 1년 8월 9일
- 12 호조별 주변으로 입향조가 300년 정도 된 마을(집성촌)이 미산(米山)동 : 월촌·파평윤씨, 창동(倉洞)-금녕김씨, 연안차씨, 연일정씨, 나주정씨, 매화동 : 바티돌(田反谷)-전주·경주이씨, 섬말·새릿말(新基村)-강릉함씨, 물왕동-경주김씨 등 모민입경(募民入耕)과 관련된다. 또 도창동 이 전 조선 인천부 전반면(田反面)의 뜻이 토지 변화를 뜻하므로 호조별 간척과 밀접하다.
- 13 신현동과 관련된 대표적 설화이다. 『시흥군지』上, 1988, 1163~1164쪽에 수록되어 있고 제보자는 포리 거주 이병인 씨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시흥시, 『시흥문화유산』, 2013, 72쪽이다.
- 14 권농편. 1891년, 21.5*30cm,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소장. 안산군 초산면(현 시흥시 하중동) 일대 주민들이 ‘권농사(勸農社)’라는 조직을 재결성한 동기를 기록하고, ‘권농사’의 임원 명단을 수록한 자료이다. 서문에 해당하는 「역농문(力農文)」과 1891년 당시의 임원명단, ‘권농사’의 창설 경위를 적은 「권농사창설연보」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5 見屈於會園者數矣 既已不樂於京師繁華之地 退然歸臥於蓮湖之上 闢地爲亭 扁其額曰面圃 而亭前鑿兩小池 一以種荷 一以種魚 以驗物物之自然 而池之左右數十武 環以翠屏 萬卉千葩 奇香異馥 無物不栽(栽) 眞吾鄉之第一樓臺也-유한형 역주, 「오헌선생행장(傲軒先生行狀)」, 『오헌집』
- 16 안산의 별호인 ‘연성’은 『연지사적(蓮池事蹟)』(1846)과 『안산군읍지』(1871)에서 강희맹의 연

지고사(1463)를 밝히고 있다. 이는 1797년 8월 행행에서 정조가 행행별시의 과제(科題)로 시제(詩題)를 내려 관곡지가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안산김씨 김정경(金定卿)이 제2차 왕자의 난(1400)에서 태종을 도와 난을 진압하여 좌명공신 4등에 책록 되고, 연성군(蓮城君)으로 군호를 받았다. 작호는 해당자의 출신지역으로 하는 특성에 따라 당시 안산이 ‘연성’이란 별호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17 관곡지는 조선 초기 이숙번의 소유에서 그 사위 진주 강씨 강순덕에 전해지고 그 아들 강희맹, 그리고 사위인 사헌부 감찰 권만형(權曼衡)에게 이어져 현재 안동권씨 화천군파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곡지는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이다.(시흥시 하중동 208)
- 18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韓國 五萬分之一地形圖)』, 대정6년(大正, 1917) : 축척 1:50,000 / 인천, 군포장, 남양, 대부도 합본
- 19 호조방축 이후 축조된 것으로 안산 대월면 석곡리 조자언(鳥堰)과 인천 신현면 장둔귀자(簞屯貴字), 황등천면 송우송서자(松又松西字), 전반면 무지내임자(無知乃口字), 소교기자(召橋氣字)가 확인된다. 『경기도각읍제언도결성책(京畿道各邑堤堰都結成冊)』, 1848
- 20 "혜청에서 축조한 인천·안산의 해언은 재화만 허비하고 백성들의 전답에 피해만 끼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즉시 허물어 버리고 그 일을 맡은 자를 잡아 가두어 엄형하게 하소서."하니, 최석항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호소가 사실이 아니니, 다시 적간함이 마땅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단지 그 일을 맡은 자만 가두어 치죄하라고 명하였다.(惠廳所築仁川 安山海堰 徒費財貨 貽害民田 請卽毀破 任事者囚禁嚴刑 錫恒言 民訴非實 宜更摘奸 上只命囚治任事者)-『경종실록(景宗實錄)』권12, 경종 3년 5월 계묘
- 21 田家饒物色 秋興自悠然 逼社村村酒 燒畬處處煙 迎霜瓜蔓倒 帶雨菊枝偏 古樹蟬聲歇 寒空雁影懸 漁人候潮落 估客趁虛前 近海多鹽戶 長堤護鹵田 窮閭井稅急 絕塞鼓鞞連 野老甘疏糲 茆齋穩晝眠-「전원 생활의 감흥을 읊은 팔운(田居漫興 八韻)」,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권29, 오언배율(五言排律) 37수
- 22 본관이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다. 1612년 김직재의 무욕에 연루되어 고조부 장욱의 장원인 안산(현 시흥시 장곡동 산 68번지)으로 낙향하여 집을 해장정사(海莊精舍)라 하고 「기(記)」를 남겼다. 이때 친구들의 권유로 사부(詞賦), 운문(韻文), 고문(古文)을 모아 4권의 『묵소고갑(默所稿 갑)』과 많은 시를 남겼고, 장선징(張善徵)과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를 낳았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병자호란(1636)이 나자 공조판서로 최명길(崔鳴吉)과 더불어 강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어머니의 부음(訃音)으로 안산으로 내려와 지내면서 1637년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18차례 사직소를 올려 끝내 사퇴하고, 장례 후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다. 묘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산1-5번지(장군재)로 원래는 상양산 자락인 덕수장씨세장지(世葬地, 장곡동 산 69-2)에 썼는데, 현종의 명으로 1664년(현종 5) 이장하였다. 시흥시 향토유적 제2호(1986.3.3)이다.
- 23 이형수 1937년생 군자동 구지정 토박이, 장경창 1951년생 장곡동 토박이
- 24 통감부는 1907년 염업에 관한 전면적 조사를 하여 1911년에 완료한다. 당시 경기도는 부옥

- (釜屋) 815개, 염정(鹽井) 3,527개, 제조인원 1,770명, 소작 667명, 종업자 5,725명, 염전면적 525.57정보, 생산량 5,248만 1,264근이다.(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專賣史』第3卷, 1936, 276쪽) 전국적으로 전남이 1위, 경기도·충청도 순으로 염업이 발달하였다. 통계수치로 인천, 시흥, 화성, 안산 등지가 주요 생산지고 1936년의 자료에 자염은 급격히 쇠퇴하여 경기도의 경우 수원지역, 오늘의 화성해안가 정도에 일부 남았다.-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6, 2007, 275쪽
- 25 19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한국수산지』에는 염업 말고도 1910년대 어업·어촌·어민·어종현황이 조사되어 안산군에는 총 548가구, 2,324명이 거주하였는데, 그 중 어업은 105가구였다. 군내면의 성곶포를 비롯하여 와리면의 원당포·이목동·성두리·적길리와 현재 시흥시에 속하는 마유면 오이도·정왕포 등이 주요 어촌이었다. 조기·새우·민어·송어·밴댕이·조개·굴·낙지 등이 잡혔고, 판매지는 군포·수원·마포 등지였다.-조선총독부농상공부, 『한국수산지』제4집, 1911, 75~79·85~92쪽
- 26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업조사보고』제편, 1908, 234~248쪽
- 27 제1기 1907~1913년 : 주안(99정보), 광양만(廣梁灣, 934정보), 제2기 1919~1920년 : 주안(139정보), 덕동(德洞, 226정보), 제3기 1921~1924년 : 남동(南洞, 300정보), 귀성(貴城, 149정보), 남시(南市, 217정보), 군자(君子, 575정보), 제4기 1934~1945년 : 연백(延白, 1,250정보), 귀성(1,036정보), 소래(蘇萊, 549정보)
- 28 정왕동 박갑록 구술, 1917년생으로 오이도 토박이-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사』6, 2007, 286~287쪽
- 29 장시 초산면에 광석장시가 있었으며, 읍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장시에 거래되는 물화가 부족하여 상인들이 오지 않아 저절로 없어졌다. 대월면에 산대장시가 있으며, 읍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장시가 벽처에 있어 달리 유통되는 물화는 없고 단지 토산물만 교역되다가 한낫에 파시가 된다. 가히 바닷가 구석진 곳의 순박한 풍속을 볼 수 있다.(場市 草山面有廣石場市 自邑西距十里 此市不足爲物貨賣買之地 故商賈不來 而自廢 大月面有山垞場市 自邑西南距二十里 市在地僻處 別無通貨 只以土產交易 日中旋罷 可見海曲淳風.)-『안산군읍지』, 1871
- 30 소금을 원료로 하는 알칼리(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와 염소를 생산하는 화학공업이다. 황산공업과 함께 18~19세기에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에서 산업혁명을 주도한 섬유공업의 관련 부문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현재는 염료, 화학비료, 합성수지 등에 중간원료를 제공하는 부문 산업이다.
- 31 「소래염전공사」에 사십만인부사역-공비는 60만원이나 들어」, 『동아일보』, 1934년 10월 11일
- 32 1914년 주시경이 조선어강습원을 ‘한글 배곧’으로 하였는데, 배곧은 배우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 33 1960년 윤무병이 안말 패총을 발견하였고, 1988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전면 발굴 조사하였다.



02

군포 수리산 수리사의 역사와 그 가치

조경철

1. 머리말
2. 수리사의 일반 이해
3. 수리사의 역사
4. 맺음말



1. 머리말



경기도 군포 수리사 대웅전

수리사란 절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절이다. 수리사에 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은 고려 고종 4년(1217)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충헌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다. 수리사를 비롯한 여러 절들이 일을 꾸

몫지만 결국 실패하고 관련된 인물 8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수리사에 관련된 여러 사전류나 설명 중에 위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대신 조선시대 광재우가 중창했다는 비역사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어디에도 관련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군포에 살고 있는 글쓴이는 수리사에 몇 번 오갔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수리사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침 10년 전 수리사 근처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이 발견되기도 해서 더욱더 그러했다. 이 글을 통해 수리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수리사가 고려시대는 물론 신라시대까지 역사가 올라가는 유서 깊은 절일 가능성도 타진해 보았다.

2. 수리사의 일반 이해

수리사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서인 <<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두산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참고로 위키피아에는 아직 ‘수리사’란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리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창건자는 미상이나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하였으며, 그 뒤 여러 차례의 중건·중수를 거쳐 수리산 유일의 고찰로 이어오다가 6·25 때 소실된 뒤 1955년에 중건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을 한 대웅전을 중심으로 산신각·철성각·종각·요사채 등이 있으며, 앞마당에는 삼층석탑 1기가 있는데, 초층 탑신에는 검은 대리석에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새겨놓았다. 현재 이 절은 비구니의 수도처이다.



수리사 인근 출토 금동불상
(통일신라 추정)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리산

수리산의 지명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리사 [修理寺] (두산백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하였는데 창건자는 알 수 없다. 어느 왕손(王孫)이 이 절에서 기도하던 중 부처를 친견하였다고 하여 산 이름을 불견산(佛見山)이라고 했다가, 1940년대에 절 이름을 따서 수리산으로 바꾸었다. 전성기에는 대웅전 외 36동의 건물과 12개의 부속 암자가 있는 거찰(巨刹)이었다. 임진왜란 때 절이 파괴되자 광재우가 입산하여 재건하고 말년에 이곳에서 수도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중건·중수를 거쳐 수리산 유일의 고찰로 이어져왔다.

위 세 설명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민백을 줄임)의 설명이다. 민백의 수리사 항목은 1996년 서술이지만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 기록을 종합하면 수리사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파괴된 절을 광재우고 재건하였다고 한다. 수리사가 있는 절을 수리산으로 부르다가 어느 왕손이 부처를 친히 보았다고 해서 견불산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절 이름을 따서 수리산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처음 수리산이었다가 왕손이 부처를 보았다고 해서 견불산 혹은 불견산이라고 했다가 조선시대 왕손이 수도했다고 하여 **李**씨 성이 들어간 수이산(修李山)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위 설명 중 진흥왕이 수리사를 창건했다거나 광재우가 재건했다는 기록은 18세기 이전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광재우는 한때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에 임명된 적이 있어¹ 수리사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맺을 수도 있지만 그는 실제로 부임하지도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²과 <<범우고>>(1799)에 수리산을 견불산이라고 부르



수리사 주변 지도. 수리사와 관련하여 나오는 지명은 안산, 수주[수원], 과주[과천]등이다.

기도 했지만 그 유래에 대해서 왕손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수리산이 보인다. 여러 사전에 수리사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믿을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수리사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한편 수리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소 혼란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무신정권기의 반란으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사원세력의 반란이다. 최충헌이 집권하기 이전에도 명종 4년(1174)에 중광사(重光寺)·홍호사(弘護寺)·귀법사(歸法寺)·황화사(弘化寺) 등의 승려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켜 이의방을 죽이려 하였고, 명종 8년에는 흥王寺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최충헌이 집권하고 나서는 신종 5년(1202)에 대구의 부인사와 동사화(桐華寺)의 승려들이 경주 별초군의 반란에 가담하였고, 그 이듬해에도 영주 부석사와 대구 부인사의 승려들이 반란을 꾀하다가 잡히어 귀양갔으며, 고종 4년(1217)에는 흥왕사를 비롯하여 홍원사(弘圓寺)·경복사(景福寺)·왕륜사(王輪寺)와 시흥(始興)의 안양사(安養寺)·광주(廣州)의 수리사(修理寺) 등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최충헌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원세력의 반란은 무신정권의 성립으로 불교를 보호하여 오던 왕실과 문신귀족이 무력화 내지 몰락한 데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무신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³

사실 수리사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위 내용이다. 이 위 내용에 대해서는 곧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서술에서 수리사를 ‘광주(廣州)’ 수리사라고 하였다. 혹시 광주의 수리사와 군포의 수리사가 별개의 절이라 생각하고 군포 수리사의 역사적 설명에 고려시대의 수리사를 누락시켰는지 모르겠다. 광주 수리사에 대한 설명도 곧 이어지겠지만 위 서술의 ‘광주 수리사’는 고려시대 수주 수리사를 말하며 현재 군포 수리사를 말한다.

3. 수리사의 역사

1) 신라시대

신라시대 수리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최근 통일신라 추정 금동불상이 발견되어 수리사가 통일신라 절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물론 금동불상이 소형이라 고려시대 수리사에 반입되었을 수도 있다. 신라시대 수리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증은 이 지역의 세력가들과의 관계다.

신라 말 고려 초 수리사는 수주[안산 포함] 관할이었다. 수주 지역은 수주 최씨의 세력 근거지이기도 했다. 신라말 고려초 김철, 최승규 등이 고려 왕건을 도와 수성군에서 수주로 승격되었다.⁴ 수주 최씨는 고려 현종 때 최사위(961~1041)가 현화사 창건의 총 감독을 맡는 등 전성기를 누린다. 최사위의 선대는 최서천 - 최한용 - 최용예를 거쳐 최사위로 이어지는데⁵ 최승규와 최서천의 직접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말 여초 수주 수리사가 존재했다면 수주 최씨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고려 현종 때 최사위가 지었거나 중창한 절이 수주 자복사(資福寺)였고 최사위의 현손인 법상종 승려 관오(1096~1158)가 주지로 있던 절이 수주의 수리사였다. 물론 최사위의 자복사가 관오의 수리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주 지역의 또 다른 세력가는 안산 김씨다. 안산은 수주의 관할이었다. 지금 수리산도 안산에 걸쳐있다.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해 나주로 갈 때 가다오다 공주를 들렀었는데 그때 수주 안산현 사람인 공주절도사 김은부(~1017)의 돈독한 도움을 받았다.⁶ 맏딸로 하여금 현종의 옷을 지어 바쳤다. 맏딸은 후에 원성태후가 되었고 두 자매도 왕비가 되었다. 김은부의 세 딸이 모두 현종의 왕비가 되었다.⁷

김은부는 현종 8년(1017)년 죽었지만 안산 김씨의 권세는 현종 - 덕종 - 정종 - 문종 때까지 이어졌다. 안산 김씨가 누렸던 외척의 권위는 이자연 - 이자겸의 인주 이씨로 넘어가지만 이자연의 외조모가 김은부의 부인이었으므로 인주 이씨가 권세를 누렸을 때도 안산 김씨의 위세는 남아있었다. 김은부의 아들 김난원[경덕국사, 999~1066]은 외조카인 대각국사 의천의 스승이기도 했다. 의천에게 화엄교관을 가르쳤다. 김은부의 가계에 대해서는 그의 부가 김공필[원성왕후의 조부]

이라는 것 밖에는 알 수 없다.⁸

수주의 대표적인 호족 세력인 최사위 집안과 김은부 집안은 불교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두 세력은 각 집안의 원찰격인 사찰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주의 대표적 사찰인 수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리사가 법상종 계열의 사찰이므로 김은부 집안보다는 최사위 집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라 말 수리사가 두 집안과 관련이 없다가 김은부나 최사위 때 그들의 권세를 업고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리사가 신라 말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말해 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 형승조에 따르면 ‘땅이 큰 바다에 접했다고 하였다’⁹ 수리산은 서해를 거쳐 한성에 이르는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진흥왕 이래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반면 남쪽으로 백제와 접했기도 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존재했다. 백제가 서해를 통해 상륙하여 한성으로 쳐들어올 때 수리산은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나말여초 수리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왕건 편을 들었고 그 대가로 수주란 지명을 얻기도 하였다. 이때 최승규가 돕기도 하였다. 수리산은 현대에 들어와 6.25 때 수리산 전투로 유명했다. 서해에서 육로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수리산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수리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이 산에 오래 전 신라 때부터 절이 들어섰을 가능성은 높다. 향후 수리사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추정 금동불상 등 관련연구가 깊어지면 수리사의 창건 연대도 고려시대가 아니고 신라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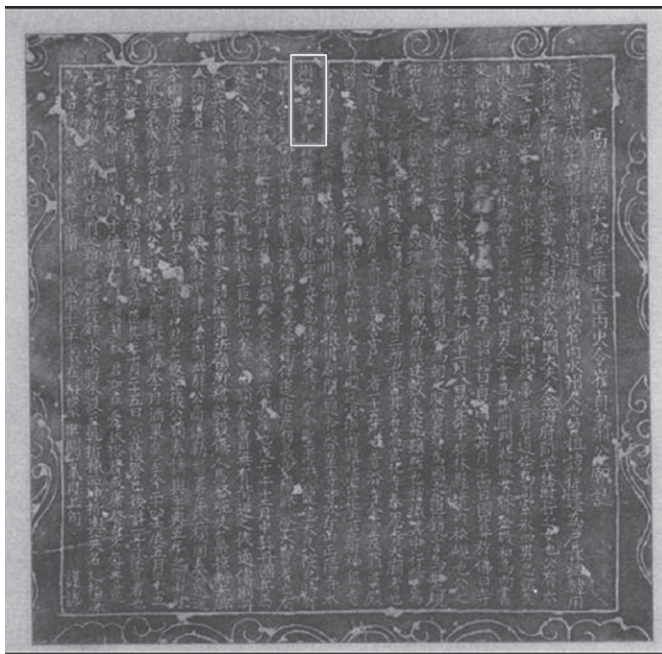
2) 고려시대

(1) 최사위와 수주 자복사

최사위는 김치양이 난을 일으켜 목종을 폐하려고 했을 때 궁문을 폐쇄하고 국왕을 호위하였고 현종 때 최고의 권력자로 현화사 창건의 주역을 맡았다. 현종은 아

버지가 안종 왕욱으로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씨였다. 경종이 죽은 후 둘의 사통(私通)에 의해서 태어났다. 김치양과 천추태후에 의해 죽을 고비를 맞은 적이 있는데 최사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현종의 아버지 왕욱의 어머니 곧 현종의 외할머니는 신라 경순왕의 큰 아버지 김억렴의 딸이었다. 현종 이후 고려 왕계는 신라 왕실의 외손으로 이어졌다.

현화사는 현종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이후 현화사는 왕실의 가장 중요한 원찰이 되었다. 현화사는 대자은현화사라고 하는데 자은(慈恩) 중국 법상종의 대가인 규기를 말하는 것으로 현화사가 법상종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화사 창건의 총 책임을



최사위 묘지명. 표시 부분은 水州 資福寺의 ‘州資福寺’

맡은 이가 최사위다. 최사위는 현화사뿐만 아니라 여러 절을 창건하거나 중창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주 자복사다.

“왕의 명을 받들어 지은 절과 궁실은 3개소로 현화사, 봉은사, 대묘이고 주청하여 새로 창립하거나 중수경영한 절과 궁실이 15개소이다. 보제사의 금당과 나한전, 의왕사의 사중원, 서경의 사천왕사, 서경의 장락궁의 태조진전, 연주의 진복사와 영화사¹⁰, 선주의 신중사, 진구현의 점찰원, 시진현 경내 포천의 미륵원, 남천군의 개통사와 계성사, 개차근산의 정양사, 수주의 자복사, 송림현의 보제관 등이다.”(최사위묘지명)¹¹

자복사는 고려시대 군현에 하나씩 세운 국가사찰로 수주 자복사도 국가사찰이라고 하였다.¹² 그런데 최사위묘지명에 보이는 최사위 후원 사찰은 보제사, 의왕

사, 자복사 등 15개소이다. 다른 절들이 특정 지역의 절이고 고유명사이므로 수주의 자복사도 국가 사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을 비는 자복사찰일 가능성도 있다.¹³ 고려사 현종 9년 6월조에는 현화사의 창건목적을 ‘시창대자은사현화사 이자 고비명복(始創大慈恩玄化寺 以資考妣冥福)’- 처음 자은종의 현화사를 창건한 것은 고와 비[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이라고 하였다. 최사위가 창건에 참여한 현화사는 왕실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었고, 최사위가 후원한 수주 자복사도 국가사찰의 이름이 아닌 고유명사의 절이라면 최씨 집안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수주(水州)는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매홀군(買忽郡)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다. 태조(太祖)가 남쪽 지역을 정벌할 때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명이 귀순하여 힘을 다하니, 그 공을 감안하여 승격시켜 수주(水州)가 되었다. 성종(成宗) 14년(995)에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 목종(穆宗) 8년(1005)에 <도단련사>를 없앴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지주사(知州事)로 회복시켰다. 원종(元宗) 12년(1271)에 착량(窄梁)을 방어하던 몽고(蒙古) 병사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와 거주민들을 침략하자, 섬사람들이 분개하여 몽고 병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부사(副使) 안열(安悅)이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을 감안하여 승격시켜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가 되었다. 뒤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水州牧)이 되었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여러 목(牧)들을 도태시키면서 수원부(水原府)로 강등되었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에 홍건적(紅賊)이 선봉군을 보내 양광도(楊廣道)의 각 고을에 항복을 권유하자 수원부에서 가장 먼저 적들을 맞이해 항복하였으므로, 마침내 군(郡)으로 강등시켰다. 고을 사람들이 재신(宰臣) 김용(金鑰)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다시 부(府)가 되었다. 별호(別號)는 한남(漢南)【성종(成宗) 때 정하였다.】이며, 또 수성(隋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속현(屬縣)이 7개이다.(<<고려사>>권56 수주, 국사편찬위원회 번역인용)

수주는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다.¹⁴ 940년(태조 23)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군민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00명이 귀순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로 승격시켰고 원종 때 수원도호부가 되었다. 소속된 현은 안산현(安山縣), 영신현, 쌍부현, 통성현, 정

송현, 진위현, 양성현을 비롯한 7개 현이다.¹⁵

최사위 묘지명에는 최사위의 출신을 한남도 광주목 관내의 수주인이라고 하였다.¹⁶ 위 인용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수주는 양광도 소속이다. 양광도(楊廣道)도 양주와 광주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수주는 광주목 관할이라 최사위 묘지명에 ‘광주목관내수주(廣州牧管內水州人)’라고 한 것이다.

최사위 집안과 관련된 수주의 사찰은 수주 자복사와 다음에 살펴볼 수주 수리사이다. 수리사는 최사위의 현손 최관오가 주지로 있던 절이다. 수주 최씨와 관련 있는 수주 자복사와 수주 수리사가 같은 절 일 수도 있지만 추정할 뿐이다. 수주 최씨가 아니라면 안산 김씨와 관련 있는 사찰 일수도 있다. 김은부의 아들 난원이 대각국사 의천의 스승일 정도면 김은부 집안도 일찍이 불교와 연관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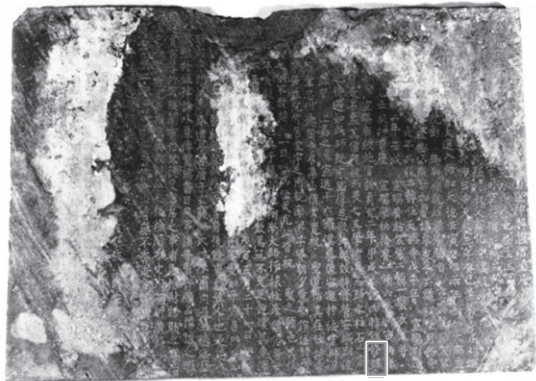
그런데 최사위의 수주 자복사와 최관오의 수주 수리사와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삼국~고려 초에 활동한 갈양사¹⁷ 혜거국사비에 의하면 ‘수주 갈양사’라고 하였다. 비문에 ‘개보 3년 경오년(970, 광종 21) 봄에 국사가 이르기를, ‘수주부 갈양사가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국가 만대의 복된 터전이 되니 떼어서 복을 비는 장소로 삼기를 바랍니다’¹⁸ 라고 하였다. 수주에 갈양사가 있고 그 절이 국가의 복을 비는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하였다. 비문에 ‘자복사’란 언급이 없지만 갈양사가 나라의 자복사 역할을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혜거가 통일신라 때 세워진 갈양사를 970년 나라의 복을 비는 사찰로 증건한 이후 최사위(961~1041)가 100년이 지난 뒤 ‘창립수영(創立修營)’한 절 가운데 하나인 수주 자복사가 바로 갈양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사위의 수주 자복사는 수주 수리사라기보다는 수주 갈양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최사위가 언급한 15개의 절 들이 모두 구체적인 절 이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자복사도 절 이름이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최사위의 수주 자복사는 최사위 집안 즉 수주 최씨의 원찰일 수도 있다. 고유명사 수주 자복사가 나중에 수주 수리사로 절이름이 바뀌었고 이 절에 최사위의 현손인 관오가 주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2) 승려 관오 수좌와 수주 수리사

수리사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은 고려시대 승려 관오 수좌(首座)¹⁹가 수리사의 주지로 임명된 것이다. 관오는 수주 최씨 사람이다. 최사위의 현손이고 최계방의 둘째 아들이다. 숙부인 현화사 승통 상지에게 머리를 깎고 승통 영찬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고 불일사에서 계를 받았다. 숭교사(崇敎寺) 성복선(成福選)에 합격하고 봉은사 대선(大禪)에 합격하였다. 월악사, 천흥사, 법천사 주지를 거쳐 정원 2년(의종 8년, 1154) 수주 수리사 주지를 맡았다.²⁰

관오는 현종 때 명신인 최사위의 손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현손이다. 최사위의 손자는 호방시랑 최유서이고, 최유서의 아들은 어사대부 최계방이며, 최계방의 아들은 호형부판사(戶刑部判事) 최함과 수리사 주지 최관오이다. 수주 최씨는 최사위-최00-최유서-최계방-최함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관직을 역임했다.



최관오 묘지명[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아래 표시한 부분은 修理寺의 '修理'

또한 불교계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최사위는 숙인으로 현종의 원찰인 현화사 창건의 총책임을 맡았고, 최계방은 사경원(寫經院)의 판관을 역임했다. 현화사 승통 상지는 최계방의 동생이고, 관오는 수리사 주지를 하였다. 최관오의 머리를 깎은 현화사 승통 상지는 법상종 승려로 관오 또한 법상종 승려이고 수리사 또한 법상종 사찰로 추정된다.

관오가 수리사의 주지로 내려간 12세기 중반은 의종 때로 고려 문벌귀족이 권세를 잡고 있던 시기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은 인종 때 이미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결국 1170년 무신 정변에 의해 문벌귀족세력의 권세는 무신으로 넘어갔다. 수주 수리사 또한 무신시대 변화를 맞게 된다.

(3) 최충헌과 수리사

1170년 무신 난에 의해 정권이 문벌귀족에서 무신으로 대체되었다. 불교도 문벌귀족의 교종 중심에서 선종 중심으로 바뀌었다. 무신의 집권은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을 거쳐 최충헌에 이르러 안정되었다. 이후 무인정권은 최충헌 - 최우 - 최항 - 최의 등 최씨 집안으로 이어졌고 이후 김준 - 임연 - 임유무로 혼란을 겪다가 1270년 막을 내렸다. 물론 무인정권에 반대하는 여러 난도 있었다. 조위충의 난(1174~1176), 망이 망소이 난(1176~1177), 만적의 난(1198)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계 내에서도 반란이 있었다. 1174년 귀법사의 중 1백여명이 이의방 형제를 죽이려고 하였다. 여기에 중광사, 홍호사, 황화사 등 사찰의 2천명이 합세한 적이 있다. 30년 뒤 수리사도 반란에 가담했다. 1217년 (고종 4) 수리사를 비롯한 여러 절들의 승려가 최충헌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홍왕사, 홍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로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거짓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하면서 새벽에 도성의 선의문에 이르러 ‘거란 병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외쳤다. 문지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승도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빗장을 부수고 문지기를 죽이고[斬關] 들어갔다. 낭장 김덕명의 집을 먼저 쳐들어갔다. 김덕명은 일찍이 음양의 잡설로 최충헌에게 아부하고 여러 번 요역을 일으켜 여러 절들을 황폐화시켰다. 곧 최충헌의 집으로 가려고 시가에 이르렀다가 순검군에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신창관까지 달아나다 싸움이 붙었다. 최충헌이 가병을 보내 협공을 가했다. 승려들의 괴수가 날아다니는 화살에 맞았다. 승도들은 달아나 선의문에 다다랐다. 그러나 현문이 내려져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최충헌의 군대가 추격해서 300여명의 승려를 베었다. 그 무리들을 붙잡아 신문하다가 원수 정숙침이 연관되었음이 밝혀졌다. 최충헌 성문을 닫고 도망간 승도들을 살살이 수색하여 모두 죽였다. 마침비가 내려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또 승려 300명을 남계사 천변에서 참하였다. 앞뒤로 죽인 사람이 800여명 이나 되었다. 시체가 산을 이뤄 사람이 몇 달 동안 지나갈 수가 없었다. 대창(大倉)을 열어 서울 5령

군과 최헌헌의 가병에게 5일치의 양식을 주어 주야로 지키게 하였다. 정
숙침을 소환하고 지문하성사 정방보로 대신케 하였다.”²¹

최충헌의 불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
리사 등의 승려들이 난을 일으켰다. 흥왕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교장도감을 두고
교장을 간행한 곳이고, 흥원사의 구조당은 화엄 9조를 모신 건물이고, 왕륜사는
교종의 총관단(總官壇)으로서 5교종 승려들의 전시장(選試場)이었고, 수리사는
유가종의 관오가 주지로 있던 절이다. 경복사와 안양사의 불교적 성격은 알 수 없
다. 수리사를 비롯한 모든 절이 교종 사찰로 추정된다.

이들 교종 사원의 승려들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직접 무력충돌이 있었고 승려를 포함하여 총 800명이 죽은 적지 않은 사건이었다.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는 개경 근처의 사찰이고 안양사와 수리사는 현 안
양과 군포의 절로 추정된다. 모의에 참여한 여러 절들의 위상으로 보아 수리사도
무인정권 당대 영향력이 있었던 교종[법상종]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1) 태종 때 수리산이 무너져 승니(僧尼)가 압사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리사(修理寺)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수리산(修
理山)으로 검색하면 3번 정도 등장한다. 태종 3년 안산군의 수리산이 무너졌다.
태종 13년(1413) 果州[과천]²²의 수리산이 무너져 승(僧) 3명 니(尼) 1명이 압사하
였다. 단종 2년 단종이 안산 소릉(昭陵)²³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리산
에서 사냥을 하였다. 등등이다.²⁴

안산군의 수리산, 과천의 수리산으로 수리산의 관할이 안산과 과천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안산과 과천의 경계는 수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조선시대 수리사
는 안산에 있었을까? 과천에 있었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수리산
은 안산과 과천에 모두 나온다. 그런데 둘 다 수리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
데 수리사는 廣州에 나온다. 광주의 수리사는 과천의 수리사 곧 지금의 수리사다.

따라서 태종 3년의 안산군의 수리산과 태종 13년 과주의 수리산에서 수리사는 과주의 수리산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자료는 태종 13년의 ‘과주 수리산퇴 승삼니일압사(果州 修理山頽, 僧三尼一壓死)’이다. 비구승 3명과 니승 1명이 압사했다는 것은 수리산에 위치한 절의 승려가 4명 죽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태종까지 수리산에 있다고 문헌에 전하는 절은 수리사 뿐이다. 물론 수리산에 수리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절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수리산이 무너져 승 4명이 죽었다는 것은 수리산에 있는 여러 절, 즉 각기 다른 절에 거주하는 승 4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비구승 3명 니승 1명이었을 때 비구와 비구니와 비구니가 같은 절에 있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에는 승니가 같은 절에 거주할 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니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수리산에 있는 한 곳의 절이 무너져 그 절에 있었던 승 4명이 압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절을 수리사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 지리지에 의하면 수리산에 소재한 사찰로 원당사, 정수암, 송천사, 수리사가 보인다. 원당사와 정수암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 불우조에 보인다. 따라서 태종 13년 과주 수리산에 위치한 사찰은 아니다. 태종 13년 과주 수리산에 있었을 사찰은 송천사(松泉寺)와 수리사다. 송천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과천현조에 수리산에 있는 사찰로 나온다. 수리산 송천사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다. 태종 13년 때 수리산에 있었던 사찰이 아니고 그 이후 세워졌다가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수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보이고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다가 18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리지 자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범우고>>(1799)에 수리사가 수리봉(修理峰)²⁵에 있다고 하였다.²⁶

태종 13년 수리산이 무너져 승 4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절에는 큰 타격이고 사람이 죽을 정도면 건물의 상당수도 파손을 당했을 것이다. 수리사는 태종 13년 이후 절의 규모가 축소되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성종 때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에 보이는 수리사는 군포의 수리사

조선 성종 때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리사가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공식기록이다. 광주목 불우조에²⁷ 수리사가 수리산에 있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따라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고려의 수리사를 광주 수리사라고 하고 조선시대에도 광주의 수리사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고려와 조선시대 현군포 수리산과 수리산이 광주목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의 총론에 “(광주목은) 과천현, 안산현과 경계를 이룬다고 했다. 또한 광주목 산천조에²⁸ ‘수리산이 주 서쪽 60리에 있다고 하면서 과천현에 있다고 하였다. 과천현, 산천조에 수리산은 현 남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안산군, 산천조에는 수리산은 군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으며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수리산의 위치를 광주목 서쪽 60리, 과천현 남쪽 25리, 안산군 동쪽 1리라고 하였으므로 그 위치는 바로 지금의 군포 수리산이다. 이런 이유로 광주목 불우조에 수리사가 수리산에 있다고 한 것이다. 마치 수리산의 수리사가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광주목 수리사를 인용할 때는



대동여지도. 수리산, 안산, 수원, 과천, 광주

광주 수리사가 아니라 ‘수주 수리사’ ‘과천 수리사’ ‘군포 수리사’등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현 행정구역에 따르면 수리사가 군포시에 속하므로 ‘군포 수리사’가 가장 적합하다.

(3) 조선 중기 허진동과 이응희 시문집에 보이는 수리사

조선 중기의 허진동(1525~1610)은 중종 때 태어나 광해군 2년에 졸하였다. 그의 시문집인 <<동상집(東湘集)>>에 수리사가 보인다.²⁹

조선 중기의 이응희(1579~1651)는 선조 때 태어났고 효종 초까지 활동한 인물이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할 때 반대 상소를 올리고 낙향하여 경기도 과천 수리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이때 수리사를 오가며 남긴 시가 남아있다. 그의 <<옥담시집>>에 실려 있는 시를 통해 수리사에 기생을 데리고 간 적도 있으며, 절의 백발의 승려 법려(法侶)와 담소를 나눈 사실도 알 수 있다.³⁰

수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한 이래 허진동과 이응희의 시집에 등장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조선후기 <<대동지지>>나 여러 지방지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수리산의 절로 원당사(元堂寺), 정수암(淨水菴), 송천사만이 보일 뿐이다. 수리사는 고려시대 전성기를 누리다가 조선전기까지 어느 정도 사세를 유지하다가 조선 중기 쇠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맥은 유지하여 1899년 <<범우고>>³¹에 수리봉(수리산)에 수리사가 있다고 나올 뿐이다.

4) 현대

한국전쟁 때 수리사와 수리산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수리사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청운이 중건하였고 1988년 전통사찰 제 85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가람



군포 수리사 앞 전경

은 1997년 중창 당시의 건물을 헐고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새로 지운 건물들이다. 2010년 육군 제 51사단 전사자유해발굴단은 수리산 일대에서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10월 27일 수리사 대웅전 뒤편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 1기를 발견하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군포 수리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리사가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거나 조선시대 광재우에 의해서 중창되었다고 하는 등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설명이 많았다. 최근 수리사 인근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이 통일신라 불상으로 추정된다면 수리사의 창건 연대를 통일신라시대까지 끌어 올릴 수는 있다. 다만 소형불상이라 원래 수리사에서 만든 불상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수리사가 확실한 기록으로 보이는 건 1154년 관오 수좌가 수주 수리사의 주지로 임명된 것이다. 관오는 숙부인 법상종의 현화사 승통 상지에게 출가했다. 수리사도 법상종 사찰로 추정된다. 한편 이보다 앞서 관오 수좌의 고조부인 현종 때 명신 최사위가 중건한 수주 자복사가 수리사라면 수리사의 창건연대는 앞당겨 질 수 있다. 하지만 수주 자복사는 수리사가 아니라 수주 갈양사로 추정된다.

수리사의 고려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시기는 무인정권 최충헌 시기였다. 1217년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들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승속을 포함해 800여명이 죽었다.

조선시대 수리산의 비구 3명과 비구니 1명이 산이 무너져 압사했다고 하는데 수리산의 승려들로 추정된다. 수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에 수리산에 있는 절로 나오는데 실은 과천현 수리산의 수리사를 말하고 현 군포의 수리산을 말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1937년 지적도에 수리사가 등장한다. 해방 이후 1950년대 건물을 새로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01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정에서 통일신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이 발견되었다. 수리사의 확실한 창건연대는 고려시대이지만 금동불상의 발견으로 통일신라까지 소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갈양사혜거국사비>, <최사위묘지명>, <관오수좌묘지명>
<<범우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玉潭詩集>>, <<東湘集>>
<<두산백과>>,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편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권상로, 1994, <<한국사찰사전>>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역주나말여초금석문>>(상하), 1996
김용선, 2001,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김혜완, 2002, <고려 현종 때 최사위의 건축활동>, <<박물관지>>9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자복사의 성립과 존재양상>, <<민족문화논총>>49
김창현, 2012,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문자>>12

각주

-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재우
- 2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현, “修理山 在郡東一里 一名見佛山
- 3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n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nh_018_0010
- 4 <<고려사>>권56, 수주
- 5 <최사위묘지명>,”曾祖諱徐遷爲戶長 祖韓用爲檢校工部侍郎 父融藝爲大尉”
- 6 <<고려사>>권94 김은부전, “김은부는 수주 안산현 사람이니~”
- 7 원성태후는 제 9대 덕종과 제 10대 정종을 낳고 현종 19년(1028)에 죽었고, 원혜태후는 제 11대 문종을 낳았고 현종 13년(1022) 죽었다. 원평왕후는 효경공주를 낳았다.
- 8 <<고려사>>권88 후비전1 현종 원성왕후 김씨조, “~ 조부 金肯弼에게 尙書右僕 上柱國 安山縣 開國侯 食邑 一千 五百戶를 추증하였으며 ~
- 9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 형승, 地濱大海. 金守溫詩 地濱大海 --【형승】 땅이 큰 바다에 접했다 김수온(金守溫)의 시에, “땅은 큰 바다에 접했고 또 산에 의지하였는데, 고을 성에 사는

백성은 아득한 안개 사이로다.” 하였다.

- 10 진북영화사를 하나의 절로 보기도 한다.
- 11 김용선, 2001, 『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 <최사위묘지명>, “夫公諱士威字動寰漢南道廣州牧管内水州人也 曾祖諱徐遷為戶長 祖韓用為檢校工部侍郎 父融藝為大尉 --- 貴承王命獨斷時宜造立三寶并宮室者三所也審其名焉玄化寺奉恩寺大廟者也 況又自陳奏牘使奉曰俞創立修營寺舍宮■者一十五所也 普濟寺金堂及羅漢殿醫王寺寺衆院西京四天王寺其京長樂宮 大祖眞殿延州境內鎮北靈化寺宣州神衆寺珍嶋縣占察院市津縣境內布川彌勒院狼川郡開通寺啓星寺皆次斤山正陽寺水州資福寺松林縣境內普賢鏡館等也“
- 12 한기문, 2011, <고려시대 자복사의 성립과 존재양상>, <<민족문화논총>>49
- 13 김혜완, 2002, <고려 현종 때 최사위의 건축활동>, <<박물관지>>9. 김창현, 2012,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문자>>12
- 14 <<삼국사기>>,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 15 <<고려사>> 권56, 수주, “安山縣 本高句麗算項口縣, 新羅景德王, 改爲算口郡. 高麗初, 改爲安山郡.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忠烈王三十四年, 以文宗誕生之地, 陞知郡事. 永新縣【一云五朶, 一云永豐.】顯宗九年, 來屬. 雙阜縣古六浦. 顯宗九年, 來屬. 龍城縣 本高句麗上忽縣【一云車忽.】新羅景德王, 改名車城, 爲唐恩郡領縣. 高麗初, 改今名. 顯宗九年, 來屬. 貞松縣古松山部曲. 顯宗九年, 稱今名, 來屬.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古淵達部曲, 一云金山縣, 又松村活達.】新羅景德王, 改今名, 爲水城郡領縣. 至高麗, 仍屬. 明宗二年, 置監務, 後陞爲縣令官. 陽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新羅景德王, 改名赤城, 爲白城郡領縣. 高麗初, 更今名. 顯宗五年, 來屬. 明宗五年, 置監務.
- 16 최사위묘지명, “漢南道廣州牧管内水州人也”
- 17 조선후기 갈양사 자리에 현 화성 용수사가 세워졌다.
- 18 <갈양사혜거국사비>, “開寶三年庚午春 國師奏曰 水州府葛陽寺 山明水麗 爲國家萬代福祉 願以劃爲祝釐之所.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주나말여초금석문>>(상하), 1996, 해안
- 19 고려시대 승려의 法階 가운데 하나. 국가에서 주재하는 승과의 敎宗禪에 합격하면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승통을 거친다. 수좌에게는 국사(國師) 및 왕사(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20 김용선, 2001, 『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 <관오수좌묘지명>, “修理寺住持慈應了圖定慧通炤圓證神解證智首座墓誌銘并書 --- 貞元二年甲戌共議四轉住修理寺”
- 21 <<고려사절요>>권15, 고종 4년, “興王弘圖景福王輪安養修理等寺僧之從軍者謀殺忠獻, 佯若奔潰, 曉至宣義門, 急呼曰, “丹兵已至矣.” 門者不納. 僧徒鼓譟, 斬關而入. 有郎將金德明者, 嘗以陰陽之說, 阿附忠獻, 數興徭役, 侵耗諸寺. 故僧徒怨之, 先毀其家. 將指忠獻家, 纔至市街, 爲巡檢軍所逐. 奔至新倉館, 與戰. 忠獻遣家兵, 夾擊之. 僧魁中流矢而仆. 其徒奔至宣義門, 懸門下, 不得出, 遂皆散走. 忠獻軍追斬三百餘僧, 擒其黨, 鞠之, 辭連元帥鄭叔瞻. 忠獻閉城門,

大索僧徒之逃者, 皆殺之. 會大雨, 流血成川. 又斬僧三百餘人於南溪寺川邊. 前後所殺幾八百餘, 積尸如山, 人不得過者數月. 發大倉, 給留京五領軍及忠獻家兵五日糧, 晝夜戒嚴. 召還叔瞻, 以知門下省事鄭邦輔代之“. <<고려사>>도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다.


- 22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초에 광주, 현종 9년 광주, 태종 13년 과천으로 나온다.
- 23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능. 문종의 세자빈 때 단종을 낳았으며 나중에 왕후로 추존.
- 24 <<태종실록>> 태종 8년 12월 5일, “戊寅/安山郡 修理山 稊巖頽, 長三十尺, 廣二十五尺” <<태종실록>> 태종 13년 5월 25일, “果州 修理山頽, 僧三尼一壓死. 京畿損傷之田, 共七百八十四結許” <<단종실록>> 단종 2년 10월 1일, “祭昭陵, 還, 沿途打獵, 晝停于甫川里, 驅獵修理山. 日暮, 至果川, 次于飛乙每里”
- 25 수리산의 한 봉우리를 말하는 듯. 지금도 수리봉이 있다.
- 26 권상로, 1994, <<한국사찰사전>>에 수리사가 3곳에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있다. <<태고사법>>을 인용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건불산의 수리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한 경기도 광주군 수리산의 수리사, <<범우고>>를 인용한 수리봉의 수리사 등이다. 그러나 이 세 수리사는 같은 수리사를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불우, “修理寺在修理山”. 광주목, 【불우】 신복선사(神福禪寺) 이곡(李穀)이 지은 중영기(重營記)가 있다. 봉수사(奉水寺) 모두 한산에 있다. 수리사(修理寺) 수리산에 있다. 약정사(藥井寺) 한산에 있다. 백종사(百種寺) 주 북쪽 20리에 있다.
- 28 <<신증동국여지승람>>, 廣州牧, 山川, 修理山 在州西六十里 又果川縣
- 29 <<玉潭詩集>>, [幸州舟中 次湖曲韻] “同棲修理寺. 共事聖賢中. 爲別年何記. 相看變舊容”
- 30 <<東湘集>>, [與韓堤川携琴妓遊修理寺 名德及]. [次安十九秀才遊修理寺韻 名處行], 欣然見法侶 皓首其言嘯. 안십구 수재가 수리사에 노닐며 지은 시에 차운하다. 안십구 수재는 이름이 처행이다. 흐뭇한 마음으로 승려를 만나니, 호호 백발로 말이 수다스럽네(고전번역원 번역)
- 31 권상로, 1994, <<한국사찰사전>>, 수리사조



03

1914년 이천군 읍면 행정구역 변천

양경직

1. 들어가는 말
 2. 음죽군(陰竹郡) 연혁
 3. 1914년 이천군에 통폐합되면서 사라진 음죽군의 면리(面里)
 4. 읍면(邑面)의 주요 지명유래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필자의 고향은 이천시 울면 신추리 속칭, 용당이(龍堂里)이다. 이곳에서 생장(生長)하여 본죽국민학교와 배영중학교까지 다녔다. 그런 만큼 울면은 늘 가슴 속에 있다. 그런데 명색이 향토문화 연구를 하면서 정작 울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려고 한다.

각설하고, 現,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울면 일대는 본래 조선시대 음죽군(陰竹郡) 지역으로 매우 작은 군이었다. 그렇지만 용케도 다른 고을에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오랜 세월 존속해왔다. 음죽군은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노음죽현(奴音竹縣)’을 설치한 이래 1,439년 동안 존속하다가 1914년 이천군에 통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곧 이천인(利川人)으로 살아온 날보다 음죽인으로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독자적으로 존속하다가 사라지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적잖이 혼동이 왔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수백 년 세거하고 있는 문중들의 족보를 보면 1930~40년대까지도 묘소 위치를 음죽(陰竹)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천(利川)으로 기록한 문중은 별로 없다. 필자 집안만 해도 그렇다. 1928년과 1957년에 발간한 『청주양씨족보』를 보더라도 ‘음죽 하울면 추동(楸洞)’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음죽인으로 살아왔으니 죽어서라도 음죽인으로 남고 싶다는 얘기다.

해서 말이지만 옛 음죽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죽(陰竹)’에 더 애착을 가져야 한다. 지명은 곧 역사이기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음죽인의 후예로써 생장(生長)하면서 보고 들은 소리가 음죽인데, 어느 한날 이천으로 부

르라고 하니 어색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만, 옛 음죽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등이 전반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 최남단의 구석진 변방이다 보니, 이천 시내에서 이 일대를 조사하려면 직선거리만 해도 30km 가까이 되다 보니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유명한 장호원장과 무극역에 딸린 돌원장(厓院場)이 있었다. 모두 영남대로 상의 주요한 길목에 위치했던 역원시(驛院市)로서 조사 및 연구 가치가 무궁한 역사문화이다. 또한 1927년 개통하여 장호원-안성을 오가던 경남철도 경기선(안성선)이 있었다. 지금도 교각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예전의 철길 98%가 현재 일반 도로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지』(2018)에서 여주-이천-용인-수원을 오가던 수여선(水驪線)만 거론하였다. 이 지역이 이천시내 부근에 있었다라면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무쪼록 앞으로 모든 인문학적 소양을 모두 쏟아, 옛 음죽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하는데 작으나마 힘을 쏟고자 한다.

2. 음죽군(陰竹郡) 연혁 - 現,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지역

음죽군은 과거 천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음죽군으로 존속하다가 1914년 이천군에 통합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이천인이 된지가 겨우 105년 밖에 안 된다. 음죽군은 마한 54소국(小國) 중 노람국(怒藍國)으로, 온조왕 27년(서기9)에 백제에 병합되었다가, 고구려 장수왕 62년(475)이 함락하고 노음죽현(奴音竹縣)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 8월 충청도의 음죽현, 여흥현, 안성현, 양성현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후 음죽현은 1895년 1월 11일 이천에 이속(移屬)되었다. 곧 이천부에 소속된 음죽현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천부이속음죽현읍지(利川府移屬陰竹縣邑誌)』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천시 역사에서 현재까지도 누락되어 있다. 1895년 5월 26일 전국을 23부제로 나눌 때 음죽군이 되어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이

듬해 1896년 8월 4일 경기도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하여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음죽군 무극면의 관촌리(館村里), 무수동(無愁洞), 진동(陳洞), 도관리(道貫里), 신촌(新村), 생탕동(生湯洞), 병산리(屏山里), 곤지암(昆池巖)이 충북 음성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館星里), 도신리(道新里), 병암리(屏岩里)가 예전의 무극면이었다. 이때 무극면이 ‘두입지(斗入地)’ 대상이 되어 음성군으로 편입된 것이었다. 두입지란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도 일컫는다. 곧 조선시대에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개의 이빨처럼 서로 엇물리어 들어가, 다른 고을과 마을의 경계를 빼죽 넘어 들어간 지역을 말한다.

또한 1910년 음죽군 북면(北面)을 원북면(遠北面)과 근북면(近北面)으로 나누었다. 지금의 이천군 설성면 지역이다. 이렇게 음죽군의 지명 연혁부터 듣성듣성이 빠져 있다 보니, 뒷사람이 인용을 하더라도 늘 오류가 나는 것이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음죽군 남면+동면+군내면을 통합하여 이천군 청미면이라 하였고, 음죽군 서면+원북면+근북면을 통합하여 이천군 설성면이라 하였고, 음죽군 하울면+상울면을 통합하여 이천군 울면이라 하였다. 이후 1941년 10월 1일 청미면을 장호원읍으로 개칭하고 19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1914년 이천군에 통폐합되면서 사라진 음죽군의 면리(面里)¹

新, 이천군(利川郡)	舊, 음죽군(陰竹郡)
청미면 나래리(淸溪面 羅來里)	동면 나래동(東面 羅來洞)
청미면 노탑리(淸溪面 老塔里)	동면 탑촌 거물리 개자동 노평리 (東面 塔村 巨勿里 開子洞 老坪里)
청미면 풍계리(淸溪面 豐界里)	동면 풍토리 적계리(東面 豐土里 赤界里)
청미면 이황리(淸溪面 梨黃里)	동면 이목정 황정포 노동(東面 梨木亭 黃庭浦 蘆洞)
청미면 와현리(淸溪面 瓦峴里)	동면 와동 호현리(東面 瓦洞 皓峴里)
청미면 방추리(淸溪面 方楸里)	남면 지촌(南面 砥村) 군내면 방각동 구추동(郡內面 方角洞 舊楸洞)

新, 이천군(利川郡)	舊, 음죽군(陰竹郡)
청미면 선읍리(淸溪面 善邑里)	군내면 읍리 선흥리 원하리(郡內面 邑里 善興里 院下里)
청미면 대서리(淸溪面 大西里)	남면 대정리 근서리(南面 大井里 近西里) 일부
청미면 송산리(淸溪面 松山里)	남면 필현리 산대리 송곡리(南面 筆峴里 山垞里 松谷里)
청미면 어석리(淸溪面 於石里)	남면 어석동 석당리(南面 於隱洞 石堂里)
청미면 오남리(淸溪面 梧南里)	남면 오창리 남천동(南面 梧倉里 南川洞)
청미면 장호원리(淸溪面 長湖院里)	남면 평촌 석교촌(南面 坪村 石橋村) ★面所在地
청미면 진암리(淸溪面 珍巖里)	남면 진촌 계암리(南面 珍村 階巖里)
설성면 금당리(雪星面 金堂里)	서면 금성동 당전리(西面 金城洞 堂前里)
설성면 신평리(雪星面 新筆里)	서면 세필리(西面 細筆里) 군내면 신추동(郡內面 新楸洞)
설성면 제요리(雪星面 諸蓼里)	서면 제갈촌 요곡리 신흥동(西面 諸葛村 蓼谷里 新興洞) 남면 근서리(南面 近西里) 일부
설성면 행죽리(雪星面 行竹里)	서면 행심촌 분죽리 흥록동 주두촌 조목동 일부 (西面 行尋村 分竹里 興綠洞 舟頭村 烏木洞)
설성면 장릉리(雪星面 長陵里)	서면 장수동 장율리 능동(西面 長水洞 長栗里 陵洞)
설성면 대죽리(雪星面 大竹里)	원북면 대산동, 효죽촌(遠北面 大山洞 孝竹村)
설성면 수산리(雪星面 樹山里)	원북면(遠北面) 수곡리 앵산동(樹谷里 鶯山洞) 일부
설성면 장천리(雪星面 長泉里)	원북면 한천동, 장각리(遠北面 寒泉洞 長角里)
설성면 상봉리(雪星面 上峰里)	근북면 상팔계, 고봉리(近北面 上八界 高峰里) 이천군 월면 상군량(利川郡 月面 上郡梁) 일부 이천군 가면 평촌 군량(利川郡 加面 坪村 郡梁) 일부
설성면 송계리(雪星面 松界里)	근북면 하팔계 직산동 송동(近北面 下八界 直山洞 松洞) 이천군 월면 상군량(利川郡 月面 上郡梁) 일부
설성면 암산리(雪星面 巖山里)	근북면 수암리, 구산리(近北面 垂巖里 九山里)
설성면 자석리(雪星面 白石里)	근북면 흑석리, 자은동(近北面 黑石里 自隱洞) 여주군 소개면 흑석동(驪州郡 召開面 黑石洞) 일부 여주군 가서면 자은동(驪州郡 加西面 自隱洞) 일부
울면 본죽리(栗面 本竹里)	상울면 본율리 죽율리(上栗面 本栗里 竹栗里)
울면 북두리(栗面 北斗里)	상울면 북두리(上栗面 北斗里)
울면 석산리(栗面 石山里)	상울면 석교촌 하산동(上栗面 石橋村 下山洞)
울면 오성리(栗面 五城里)	상울면 척오리 장성동(上栗面 尺五里 長城洞)
울면 산성리(栗面 山星里)	상울면 상산동 팔성리(上栗面 上山洞 八星里) 충북 음성군 법왕면 석원리 (忠北 陰城郡 法旺面 石院里 河川 北) 일부
울면 산양리(栗面 山陽里)	하울면 양아리, 용산동(下栗面 陽阿里 龍山洞) 충북 음성군 두의면 용산리(忠北 陰城郡 豆衣面 龍山里) 일부

新, 이천군(利川郡)	舊, 음죽군(陰竹郡)
울면 고당리(栗面 高塘里)	하울면 고척동 지동(下栗面 高尺洞 池洞) ★面所在地
울면 신추리(栗面 新楸里)	하울면 상추동 하추동(下栗面 上楸洞 下楸洞)
울면 월포리(栗面 月浦里)	하울면 도월리 동문리 퇴포리(下栗面 都月里 洞文里 退浦里)
울면 총곡리(栗面 叢谷里)	하울면 총곡리(下栗面 叢谷里)

이 당시 음죽군 땅 일부가 여주군과 음성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음죽군 근북면 흑석리 일부와 자은동 일부가 여주군 가남면에 편입되었다. 둘째, 음죽군 하울면 총곡리 일부와 동면의 노평리 일부가 충북 음성군 감곡면으로 편입되었다. 셋째, 음죽군 상울면의 팔성리 일부와 석교촌 일부가 충북 음성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14년 1월 30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1호에 의하여 충북 음성군 법왕면 석원리 일부(小川以北)와 두의면 용산리 일부가 음죽군 상울면으로 편입되어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4. 울면(栗面)의 주요 지명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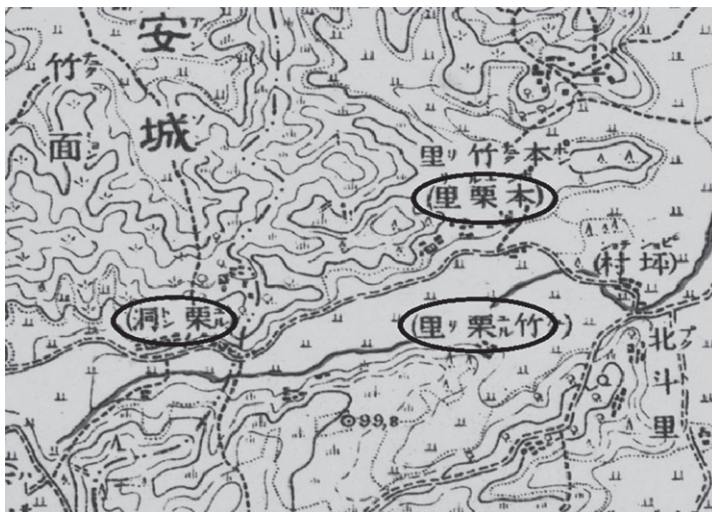
울면의 자연마을

리별(里別)	자 연 마 을 명	옛 명 칭
고당리(高塘里)	1리- 고자골(高尺洞)	고갯골(古栢洞)
	2리- 지동(池洞), 윗못골, 아랫못골	못골(池洞)
	3리- 연화동(蓮花洞)	새터(新垔)
신추리(新楸里)	1리- 원터(院垔), 벌터, 참새골, 산밑에, 발가운데집	상추동(上楸洞)
	2리- 조제(釣堤), 중텃말, 안말(內谷), 새텃말(新垔)	하추동(下楸洞)
	3리- 비누꾸미(飛鷺洞), 용댕이(龍堂里), 넘말	
북두리(北斗里)	1리- 연촌, 우영말, 못안말, 샘말	북두리(北頭里) 두두촌(斗頭村)
	2리- 지시랭이(芝村), 용머리	용머리(龍頭里)
산양리(山陽里)	1리- 용산동	용산동(龍山洞)
	2리- 양아리(陽阿里)	양야촌(陽也村)

리별(里別)	자 연 마 을 명	옛 명 칭
석산리(石山里)	1리- 바깥부래미(外傳岩), (벌부래미·너머부래미)	부래미(下山洞)
	2리- 안부래미(內傳岩)	
	3리- 석교촌(石橋村)	석교촌(石橋村)
산성리(山星里)	1리- 돌원(石院)	팔성리(八星里) 돌원리(厓院里)
	2리-산골, 정문말(旌門村)	산골(上山洞)
오성리(五城里)	1리- 장성골	장성골(長城洞)
	2리- 윗자오리, 아랫자오리	자오리(尺五里)
본죽리(本竹里)	벌말, 점말, 동넢말, 중터말, 대전모텡이, 건너말, 터고개, 두집말, 음달말, 아랫모통이, 윗모통이	방골(本栗里) 죽울동(竹栗洞)
월포리(月浦里)	1리- 안도달미, 바깥도달미	도달미(都月里)
	2리- 옥야촌	옥야촌(玉野村)
	3리- 무지기,골무니	골문이(洞門里)
	4리- 토깨(퇴포)	토깨(退浦里)
총곡리(叢谷里)	포기실, 윗샘골, 성황당이, 도티미	포기실(叢谷里)

울면은 본래 조선시대 음죽현 하울면(下栗面)과 상울면(上栗面)으로 나뉘었다. 이후 1895년 5월 26일 충주부 음죽군이 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다시 경기도로 복구하였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상울면과 하울면을 통합하여 이천군 울면(栗面)이라 하였다. 울면은 이천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의하면 면적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수는 1,464戸에 인구수는 총 3,119명 중, 남자가 1,559명이고 여자는 1,560명이고 외국인은 총 362명 중 남자가 164명이고 여자가 198명이다. 법정리는 10개 리이고, 행정리는 24개리이고 41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상기 지명 중에서 오류가 심각하거나 지명유래가 불분명하게 알려진 ‘본울동(本栗洞)과 울면, 고갯골(高尺洞), 부래미(傳岩里)’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였다. 지면 관계 상 10개 마을의 지명유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조선총독부, 1918년 1:50,000 『장호원』 지도

① 본죽동(本栗洞)과 죽면(栗面)

본죽리는 조선시대 음죽군 상죽면 ‘본죽동(本栗洞)’과 ‘죽울리(竹栗里)’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두 마을 합하여 이천군 죽면 본죽리(本竹里)라 하였다. 현재 본죽리는 밤나무와 관련한 지명유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천 최초의 지명 유래집인 『이천군 향토문화자료총람』 제3집(1984.7)에는,

“글자 그대로 우리말 명칭은 ‘밤골’이며 옛날에는 ‘열 두 밤골’이라 하여 12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동넙말·중터말·학교말·터고개·아랫모퉁이·점말·두집말·응달말’의 아홉 개가 남아 있을 뿐으로 이를 통털어 ‘밤골’이라 부르고 있다. 옛부터 안동김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옛날 이 김씨문중에 고부간에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집이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어느 날 지나간 중이 매일, 밤 다섯 알씩을 조석으로 삶아 시어머니에게 드리면 일 년이 못가서 죽게 되리라고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나가자 죽을 것이라던 시어머니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찌고 며느리의 지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지극히 위하게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는 전설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5개월 뒤 『이천군지』(1984.11)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듬해 『이천군 향토유적총람』(1985) 제4집(전설편)에서 「본죽리 열 두 밤골 유래」란 제목을 달고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인천편)(1986)에서 다시 누락되고 있다. 아마도 신빙성이 없어서 배제한 듯하다. 상기 전설편에 나온 유래를 유심히 보면 본죽리나 울면의 유래가 되었다는 말이 없다. 그저 사이가 안 좋았던 고부(姑婦) 사이에 밤(栗)으로 인하여 화목해졌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런데 『이천시 읍면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1997.5) 전설편에서 앞의 유래를 그대로 인용하고, 맨 마지막 문장에 뜬금없이, “그래서 ‘밤 울(栗)’ 자를 따서 읍면이라 했다고 한다.(제보자:김교식)”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문헌 고증 없이 상기 전설을 바탕으로 ‘읍면’이라 했다는 유래설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이로 인하여 『이천시지』(2001,10) 지명유래편 본죽리에서 “밤골(本栗里, 방골)은 본죽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하여 이름 붙여짐”이라고 유래설을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문헌을 상고해 보면 『호구총수』(1789)에는 음죽현 상읍면 본율동(本栗洞)은 나타나는데 죽산부 천남일면에는 율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죽산읍지』(1832)에서야 ‘율동리(栗洞里)’가 나타나고 『죽산부읍지』(1891)와 『죽산군읍지』(1899)에는 ‘율동(栗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1911)에도 죽산군 남일면 산전리(山田里)에 ‘금옥동(金玉洞)’과 ‘밤골(栗洞)’이 기록되어 있는데, 1914년 세 마을을 통합하여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金山里)라 하였다.

재미난 것은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율동과 경계하고 있는 아랫마을이 같은 지명을 쓰는 이천시 읍면 본죽리의 본율동(本栗洞)이란 점이다. 지명 유래상 군면리(郡面里)를 달리하는데 같은 지명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시 읍면 본죽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순구(57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안성시 금산리의 율동을 ‘윗방골(上栗洞)’ 이천시 본죽리의 ‘본율동’을 ‘아랫방골(下栗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일본 육군 육지측량부에서 1895~1896년에 측량한 『약도(略圖)』 일칭, 『구한말 한반도지형도』를 보면 현재의 안성 금산리 율동을 ‘상율동(上栗洞)’으로 표기하

고, 우리말 지명을 가타가나로 ‘ウシバンコル(웃방고루)’로 표기하였고, 현재의 이천 본죽리 본울동을 ‘하울동(下栗洞)’으로 표기하고, 우리말 지명을 가타가나로 표기를 하기는 하였는데 ‘ハバン(하방)’까지만 표기하고 ‘코르(고루)’를 누락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1911)에는 음죽군 상울면 ‘本栗里(방골), 竹栗里(죽울리)’로 기록하였고, 죽산군 남일면 ‘栗洞(밤골)’으로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울동의 ‘本’ 자에 방점이 찍힌다. ‘本’ 자만 빼면 두 마을은 똑같은 ‘울동’이 되기 때문이다. 지명에서 ‘本’ 자가 붙었다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지명이나 사연이 있다는 얘기이다. 본울동은 『호구총수』(1789)에 기록될 당시부터 ‘本’ 자를 달고 나온 지명임으로 분명 관련된 무엇이 있을 것이다.

‘밤골(栗洞)’ 유래를 기록한 문헌을 발견하다

위에서 보았다시피 두 마을은 모두 밤골인데 ‘방골’이라 표기한 것은 ‘밤골’이 ‘방골’로 변한 것뿐이다. 무엇보다도 ‘아랫방골’인 본울동에 ‘本’ 자가 붙어있다는 것은 이 마을이 본래의 ‘밤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헌 조사가 더 필요했다. 문헌을 조사해보니 『안성이씨세보』(1861) 이부시랑공파(吏部侍郎公派) > 돈령공파(敦寧公派 參議公系) 15세 이안민(李安民, 1539~?)의 행적(行蹟)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밤나무를 손수 천 그루를 심어 대비하여 그것으로 공양하니, 후세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밤골(栗洞)이라 불렀다. 옛 사람들이 대추와 죽순(竹筍)을 공양하는 뜻도 합하여 칭했다 (至孝以親之嗜栗手種千樹備其供養後人名其洞曰栗洞稱合古人供羊棗竹筍之義)”

이에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안성이씨대종회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무섭(1944년생) 회장님에게 ‘밤골’ 유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아, 그거는 우리 선대께서 밤나무를 심어서 유래한 것이고, 이천 본죽리 아랫방골 매봉재에 우리 문중의 산소가 있었다.”고 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로써 밤골 유래의 단서를 찾게 되었고 뜻하지도 않게 죽율리(竹栗里)의 의미도 더붙어서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안민(李安民)이 밤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유래한 안성 금산리의 울동에 ‘本’ 자를 붙여야 하는데, 정작 아랫마을인 이천 본죽리에 ‘本’ 자를 붙여 ‘본울동(本栗洞)’이라 명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성이씨세보』(1861)를 보면 이안민의 장손 이계선(1574~1635)과 그의 동생 이계후(1576~1647)가 1619년 향리로 돌아와 이계선은 울동(栗洞)에서 거주하고, 이계후는 부래미(傅岩里, 현재 석산2리)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장손 이계선의 묘소가 ‘울동 화현(化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이천 읍면 본죽리 본울동 매봉산(鷹峰山)에 있는 가파른 고개를 지칭한다. 이후 그의 후손 23세 이사본(1848~1905)의 묘소를 ‘울동 화현’으로, 25세 이태건(1803~1831)은 ‘음죽 울동 화현’으로, 27세 이종우의 부인 원주원씨(1809~1841)는 ‘하울동 화현’으로, 29세 이상은(1919~1938) 등은 ‘울면 본죽리 화현’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 금산리 옷방골에 거주하고 있는 안성이씨 문중의 종손 31세 이기봉(李基鵬, 1952년생)씨에게 물어보니, 본죽리 매봉재에 선대로부터 종손가로 전해오는 산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묘소 3基를 이장하고 팔았다고 하였다. 또한 본죽리에서 수백 년 세거하고 있는 안동김씨 문중의 후손 김문식(57세)씨에게 물어보니, 매봉재에 주인을 모르는 안성이씨네 목묘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화현(化峴)’은 우리말로 ‘된고개’라고 부른다. 가파른 고개를 넘어갈 때 되게 힘들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으로, 일이 몹시 힘들 때 ‘되다’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 ‘되 化(化)’ 자를 빌려다가 표기한 차자지명(借字地名)이다. 실제로 이 고개는 무척 가파르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벌써 고개 이름을 잃어 버렸다. 다만 『이천시 읍면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1997.5) 지명유래편에 “대전모탕이(화현)는 매봉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채록되어 있었다. 다행히 밑에 붙인 ‘(화현)’은 ‘화현(化峴)’이 변형된 것으로 이렇게나마 겨우 생명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보아 이계선의 할아버지 이안민(李安民)이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은 위치는 이천 본죽리의 본울동 매봉산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곳을 본래의 밤골이란

의미로 ‘본울동(本栗洞)’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안민이 살았던 울동에서 실제로 밤나무를 심은 위치는 약 900m 가량 떨어진 현재 이천 땅에 있다 보니, 이를 구분 짓기 위하여 ‘本’ 자를 붙여 본울동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군면리(郡面里)는 다르지만 두 동네가 워낙 붙어 있다 보니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밤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수령이 대략 20~30년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의 아들 대쯤에는 가을이면 주렁주렁 많이 열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이순구(57세)씨와 김문식(57세) 씨에게 물어보니, 가을이면 매 봉산에 벌건 밤이 바닥에 짝! 깔릴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밤나무 고목이 바람에 퍽퍽 쓸려졌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 이천 읍면 지명 유래에 나오는 안동김씨 관련설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어쨌든 읍면 본족리에 수백 년 세거하고 있는 『안동김씨대동보』(1980)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 안원군파(安原君派)를 보니 12세 김선(金銑, 1631~1701) 형제들이 본족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여, 영조대왕이 친필 ‘일실사효(一室四孝)’ 사액(賜額)을 내려 더욱 칭송 받은 문중은 틀림이 없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여지도서』(1760), 『음죽현읍지』(1842/1871), 『음죽읍지』(1899.11)에 실려 있다.

곧 이들의 아버지 11세 김익기(1599~1663)와 어머니 평양조씨(1599~1663) 때부터 본족리에 거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8세 김주(1512~1563) 때부터 이 마을에 거주했다고는 보기 힘든 몇 가지 사안이 있다. 우선 그는 여주 인물이다. 조선 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꼽혔을 만큼 학식과 벼슬이 높았던 화산군(花山君) 김주(金澍)가 이 동네에 살았다면 『음죽현읍지』에 당연히 실려야 하는데 일체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반면에 김주는 『여주읍지』(1898), 『여주군지』(1989), 『여주군사』(2005)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주는 본족리에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살지도 않았고 묘소조차도 없음에도 단지, 후대에 본족리에 김주의 사당을 지었다고 해서 그 지역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곧 「본족리 열 두 밤골 유래」는 그저 흔한 전설로 남아 있어야 했고, 고유한 지명유래까지 연결된 사안은 더더욱 아니었다. 무엇보다 본족리 안동김씨 문중은 안

성이씨 이안민(1539~?)이 밤나무를 심고, 이미 마을 이름이 ‘밤골(栗洞)’로 불린 뒤에야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니 안동김씨로 인하여 지명 유래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본죽리 안동김씨 김선(1631~1701)의 아버지 김익기(1599~1663)의 연대로 계산해도 이안민보다 60년이나 늦다. 사실 안동김씨 문중에서 본죽리 ‘아랫방골’에 묘소를 처음으로 쓰는 인물은 김선의 두 아들이다. 김성부(1661~1690)는 ‘화현(化峴)’에, 김성수(1669~?)는 ‘음죽 울동’ 곧 ‘아랫방골’인 매봉재(鷹峰)에 묻히고 있다. 그리고 김성발(1664~1704)은 ‘죽산 울동’ 현재의 금산리 ‘웃방골’에 묻히고 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이천시 울면 본죽리의 본울동과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울동은 이안민(1539~?)이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은 이후에 ‘밤골’로 부르기 시작한 마을임을 족보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헌이 나타난 이상 「본죽리 열 두 밤골 유래」와 본죽리와 울면의 지명유래를 연결하는 설은 자동적으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2015년 9월에 울면행정복지센터 앞에 세운 ‘울면유래비’이다. ‘팔성(八星)’으로 써야 할 것을 ‘팔성(八城)’으로 오기한 것도 오기한 것이지만, 울면의 지명 유래만큼은 반드시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에 자료를 조사할 때 일죽면 금산리 ‘웃방골’에 들어가서 안성이씨 문중의 종손 이기봉(1952년생)씨를 비롯하여, 이 마을 어느 누구라도 만나서 물어보았으면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래성의 조사는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향토사 연구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웃방골’에 사는 사람들은 안성이씨 선조가 밤나무를 심어 ‘밤골’이 유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고갯골(高尺洞)

고당리는 조선시대 음죽군 하울면 고척동(高尺洞)과 지동(池洞)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두 마을을 합하여 이천군 울면 고당리(高塘里)라 하였다. 이때 ‘못 지(池)’ 자를 ‘못 당(塘)’ 자로 바꾸어서 부른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지리지』

료』(1911)에도 ‘高尺洞(고작골)’과 ‘池洞(못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고당1리를 ‘고자골’이라 부르고, 고당2리는 ‘못골(池洞)’이라 부르고 고당3리는 조선시대 음죽군 하울면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새터(新垔)’라 부르다가 멀리서 보면 마을이 연꽃처럼 생겼다고 하여 ‘연화동(蓮花洞)’으로 부르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재의 울면사무소가 건너편에 새로 설치되었다.

‘고작골’의 지명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고당리에서 오백 년 넘게 세거하고 있는 『고령박씨족보』(1900)를 보면 고당리 입향조 20세 박자환(朴自菴)² 이하의 후손을 ‘충주 고백동파(古栢洞派)’로 분류하였고, 묘소를 ‘음죽 하울면 고백동(古栢洞)’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古栢洞’ 세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고(古) + 잣(栢) + 골(洞)’로 읽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골 새김이 ‘고작골 ⇨ 고자골 ⇨ 고작골’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척동(高尺洞)은 옛날(古)의 잣골(栢洞)을 우리말 지명으로 ‘고작골’로 부르던 새김을 따라, 발음 나는 대로 한자를 빌려다가 지은 차훈지명(借訓地名)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29세 박술인(1780~1829)의 묘소를 ‘백동(栢洞)’으로, 29세 박원인(1777~미상)의 묘소를 ‘척곡(尺谷)’으로 그리고 『풍양조씨세보』(1978)를 보니 조의운(1641~1719)의 경우에는 ‘충주 고작동(高柞洞)³으로 기록하였는데 역시 모두 ‘잣골’을 표기한 지명들이다.

아마도 조사를 나온 관리에게 마을 사람들이 ‘고작골’이라고 알려준 것을, 발음나는 그대로 ‘고작골(高尺洞)’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천 출신 유달영(1911~2004) 선생이 193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現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연찬 논문인 『농촌조사연구-이천군 울면 고당리』(1936.3)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 큰말과 못말을 둘러싼 작은 산에는 조선 잣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도 수 십 그루의 노목(老木)이 남아 있었으며, 오늘 날에도 역시 샘물 옆에 한 그루의 노목(老木:조선 잣나무를 栢이라고 쓴다)이 서 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 고작골이라는 말을 결부시켜 생각하면 곧바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 즉 고는 古의 의미이며,

жат은 栢을 뜻하고, 골은 洞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가면 고작골은 고작골로부터 변화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교적 새로운 기록에는 ‘古尺里’라고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고작골’을 ‘고자골’이라고 발음을 해서 고를 古, 자를 尺으로 이두식(吏讀式)으로 차용(借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지금부터 83년 전 마을의 지명유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 본관이 진주인 강규환(1697~1731)의 『비수재집(賁需齋集)』(1781년 이후)에 보면 강규환은 1697년 충주 고백동리(古栢洞里)에서 태어났다고 하였고, 본관이 한양인 조인(趙訥, 1555~1631)⁴ 역시도 충주 고백동(古栢洞)에서 은거하였다고 했다.

또한 병조판서 등을 지낸 조상경(1681~1746)의 『학당유고(鶴塘遺稿)』에는 1717년 충청도로 암행어사를 떠날 때, “저녁에 고백동에 들어와 조연산 댁에서 여성(汝成) 및 여러 친족들과 이야기 하다가 잤다. …고백동에 들어와 연산(連山) 큰 아버지와 여러 친족을 뵈고 여성(汝成) 집에 머물면서 잤다(夕宿于古栢洞趙連山宅與汝成諸族相叙…入古栢洞見連山大父及諸族汝成家留宿)”라고 하였다.

『풍양조씨세보』(1978)를 보면 조상경이 말하는 큰아버지는 17世 조훈보(?~1726)이고, 그가 잠을 자고 잤다고 언급했던 여성(汝成)은 사촌동생 조상수(1684~1727)의 자(字)이다. 당시 그의 큰집이 고백동(現 울면 고당리)에 세거하고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세거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조상경이 지방을 오고갈 때마다 이 마을에서 자고 간 것이다.

현재 고척동은 여러 원인에 따라 지명이 변해 왔지만, 고백동(古栢洞)으로 불렸던 다양한 성씨 문중의 단일한 기록을 통해 잣(栢)이 많아서 ‘고작골’로 불렸던 지명 기원을 상정해 볼 수 있게 되었다.

③ 부래미(傅岩里)

울면 석산리(石山里)는 본래 음죽군 상울면 하산동(下山洞)과 석교촌(石橋村)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두 마을을 통합하여 이천군 울면 석산리(石山里)라 하였다. 석산리에서 400년 가까이 세거하고 있는 『안성이씨

세보』(1861)를 보면 17세 이계후(李繼後, 1576~1647)가 인근의 죽산부 천남일면 울동(栗洞: 現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옷방골)에서, 음죽현 상울면 ‘하산동(下山洞: 現 이천시 울면 석산2리 안부래미)’으로 이주한 이래로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아들 18세 이상백(1610~1659)의 묘소를 부암리(傅岩里)로 기록하였고, 29세 이상옥(1887~1963), 이상덕(1894~1951), 이상우(1895~1951), 이상돈(1911~1956) 등등의 묘소를 모두 ‘부암리’로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이래로 1914년까지 마을의 공식 명칭은 하산동이었고, 1914년부터 현재까지는 석산리인데 족보에는 오로지 ‘부암리’로 기록했다는 것은, 행정지명보다는 고유지명인 부암리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부암리가 어떻게 하여 부래미로 변형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말한 『안성이씨세보』(1861)에 ‘부암리(傅岩里)’로 기록된 이후 『구한말한반도 지형도』(1895)에는 ‘부암곡(傅岩谷)’과 ‘월부암(越傅岩)’이 표기되어 있다. ‘월부암’은 본 마을 너머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다. 현재의 석산1리를 말한다. 보편적으로 본 마을에서 떨어져 마을이 새로 생기면 ‘새터(新垆)’가 되고, 건너에 있으면 ‘건넛말’이 되는 식으로 명명된 마을 이름만 보아도 본 마을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1911)에는 ‘下山洞-부람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곧 행정 지명은 하산동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유지명인 ‘부람이’로 불렸던 당시 정황



조선총독부, 1918년 1:50,000 『장호원』 지도

을 담고 있다. 이때 이미 ‘부암리’에서 ‘부람이’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4년 석산리로 지명이 바뀌었음에도 1918년 1:50.000 『장호원』 지도에는 ‘상부암(上傳岩)’과 ‘하부암(下傳岩)’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고유지명을 일본어가타가나로 ‘ウツ プレミ(웃부레미)’와 ‘アレ プレミ(아레부레미)’로 표기하였다. 이후 『경기도지』(1956) > 명승고적편 > 이천군에 「부암동(傳岩洞)·석교동(石橋洞)의 유래」가 수록되어 있다. 훗날을 위해 아래 원문 그대로 수록한다.

부암동(傳岩洞)

이 부암(傳岩)은 부암동(傳岩洞) 후봉(後峰)에 웅립(龕立)한 거암(巨岩)이다. 그 형상이 마치 전포후용(前抱後容)의 한 노인이 아해(兒孩)를 데리고 글을 가리키는 모양이라 하여 진기하게 여기었더니, 어느 날 포의(布衣)의 한사(寒士)가 이 암상(岩上)에 나타나서 삼간초려를 세우고 독서일매(讀書一昧)로 두문불출을 하는지라, 세인(世人)이 모두 신선으로 대하였다. 그는 일체 속세와의 교섭을 끊고 오직 약수를 마시며 독서만으로 날을 보내나 찾아오는 사람은 반가이 맞아 도를 닦게 하고 사리(事理)를 가리키고 문자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은태사부열행장(殷太師傅悅行狀)」⁵을 조석(朝夕)으로 경독(敬讀)했고 상(像)을 걸어 놓고, 숭배하는지라 세인(世人)들은 그를 부암 선생(傳岩先生)이라고 일컬어 진심으로 모두 경모(敬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암 선생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니 암상(岩上)의 초옥(草屋)도 자연 쓰러지고, 부암(傳岩)만이 동그마니 남아 있어 석일(昔日)의 부암 선생 재세시(在世時)를 추억하는 마음이 새로웠다. 현재의 이 울면 일대에는 피씨성(皮氏姓)이 전무하지만, 300백 년 전에는 피씨(皮氏)가 득세하여 피씨촌이라고까지 전해왔다고 한다. 이 피씨문중에 명석공(名石工)이 있어 하루는 부암(傳岩)을 깨어서 큰 돌집을 짓고, 세상에 한번 자랑하리라는 생각으로 부암(傳岩)에 정(釘)을 대고 메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며칠이 걸려 우선 구멍을 하나 뚫었는바, 의외에도 그 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백구일쌍(白鳩一雙)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날아 나와 창공에 날고 암혈(岩穴)에서는 선혈이 용출(涌出)하여 피씨는 대경실색하고 그 자리에 혼도(昏倒)해 버린 채 절명(絶命)이 되

고 말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로는 피씨문중에 가진 재화(災禍)가 부절(不絶)하고 패가(敗家)하는 집이 날로 늘어 전멸되고 현재 피씨는 이 부암동에만 들어오면 반듯이 패가를 한다고 한다. 부암 선생의 성명은 전해지고 있지 않다.

석교촌은 『호구총수』(1789)에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에 석교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 마을과 피씨(皮氏)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 음죽군 상울면 하산동(下山洞) 토지조사부를 보니 6명의 피씨가 살고 있었다. 이로 보면 적어도 1910년대까지만 해도 피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음이 확인되기는 한다.

또한 한자를 잘못 읽어 ‘부암(傳岩)’을 ‘전암(傳岩)’으로 오독·오기하기도 하고, 1985년에 발행한 『안성이씨세보』를 보면 이때까지도 ‘부암리(傳岩里)’로 기록해 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안성이씨 후손들 입에서 ‘불암(佛岩)’ 운운하는 추측성 지명유래를 말하기도 한다.

정리해보면 ‘부암리(傳岩里) ⇨ 부람이⁶ ⇨ 부레미⁷ ⇨ 부래미⁸ ⇨ 부라미⁹ ⇨ 불암이(佛岩)¹⁰ ⇨ 부래미(富來美)¹¹’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유지명 ‘부래미’는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2002년 마을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마을에 오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富來美’로 아역(雅譯)해서 <부래미 마을>로 브랜드화를 성공시켰다 하니, 참으로 잘 지은 지명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옛 지명’ 하나가 마을을 특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하고 있으니 말이다.

5. 나오는 말

지금 올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천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약 30km의 먼 거리이다 보니, 이천 시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기가 만만찮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필자만 해도 이천을 떠난 지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저서로는 작년에 이천문화원에서

발행한 『관동마을을 말하다』(2018)뿐이다. 앞으로 이천 지역을 조사 연구하여 20권 정도를 펴낼 계획이다.

이렇듯 이제 필자는 음죽인(陰竹人)의 후예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연구해도 옛 음죽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데 힘을 쏟고자 한다. 다만 본래 계획대로 올면 지역의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명 유래를 모두 말하려 했는데 지면 관계상 언급조차 하지 못한 점은 아쉽기만 하다.

차후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조사를 하다보면 올면 지역의 향토문화가 풍부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향토사의 기초는 지명이다. 지명부터 제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지역의 향토문화 조사 및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부락’에 대한 용어이다.

어릴 때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할 때마다 “비누꾸미 부락민 여러분 이장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필자는 지명을 공부하기 전까지 이 형편없는 ‘부락’이라는 말을 아무 의식 없이 썼다. 지금도 시골에 답사를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락이다.

심지어 돌에 새긴 마을 유래비에도 ‘부락’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봤다. 얼른 말해서 ‘부락(部落)’은 일본 에도(江戸, 1603~1868) 시대에 가축공업, 형장일, 백정 등의 천민들이 살던 마을을 차별화 하면서 생긴 지명이다. 곧 신분제도에 아예 끼지 못한 채, ‘히닌(非人, 사람이 아니다)’으로 불리며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부락이라 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조차도 “【부락(部落)】 도회지 외에 여러 민가들이 한 떼를 이루고 있는 동네, 시골의 큰 마을”이라고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의 시사(市史)나 군지(郡誌) 등을 보면 부락제(部落祭)니, 모범부락이니, 부락민이니, 자연부락이니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지식인들조차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몇 예를 들었지만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부락’은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고의적으로 퍼트려서 지금도 무의식중에 쓰고 있는 버려야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이니 앞으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

- 1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1917)
- 2 그의 장손 박유원(朴惟元)이 명종 임술년(1562) 태생임으로 박자환은 1500년경 전후 출생으로 추정된다.
- 3 정호(鄭澍, 1648~1736)의『장암집(丈巖集)』(1756)13권 / 묘지명(墓誌銘) / 좌랑조후묘지명(佐郎趙侯墓誌銘)
- 4 『한양조씨가천재공파보(漢陽趙氏嘉川齋公派譜)』(1979)
- 5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꿈에서 본 현인의 인상 을 그림으로 그려 천하에 물색(物色)을 하여 부암(傅巖) 땅에서 판축(版築) 노동을 하는 부열(傅悅)을 찾아 등용하여 스승으로 삼아 나라 일을 맡겼던 것을 말함. -『서경(書經)』> 상서(尙書) 열명편(悅命篇)
- 6 『조선지리지자료』(1911)
- 7 1:50.000 『장호원 지도』(1918)
- 8 1970년대~현재까지 현지 주민들은 ‘부래미’로 호칭한다.
- 9 『한국지명총람』(1986)18(경기편, 인천편)下
- 10 『이천군 향토유적총람』(1984) 제3집(지명유래편)
- 11 부래미마을 홈페이지(2002)



04

고양의 일산신도시와 군사용 방벽 개수로

김우규

1. 일산신도시 건설
2. 농촌마을이 신도시로 변하다.
3. 도심 속 낙후지역과 군사용 방벽 개수로 시설
4.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흔적들
5. 신도시와 토박이,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기



1. 일산신도시 건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는 명칭으로 통한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억제와 주택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위성도시로 생겨났으며 일산신도시도 그 중 하나이다. 일산신도시는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부의 중심도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경기도 서북쪽의 작은 도시 고양은 농사일과 어업을 하며 살아가는 수도권의 작은 도시였다. 본인이 태어난 송포면 대화리 마을에서 발견된 가와지범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벼농사 지역의 상징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농촌공동체였던 고양의 변화는 1935년 일제강점기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축조된 제방인 ‘대보뚝’이 확장된 자유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흙과 모래로 만들어진 이 제방은 1984년 집중호우 때도 붕괴위험에 직면했다가 군과 주민의 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으나, 1990년 9월 12일 행주대교 남단 1km 지점에서 발생한 붕괴는 고양시 83개 마을, 고양 전체의 65%가 침수되는 대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당초 통일동산 조성계획이 보류되며 착공시기가 늦어



1990년 한강제방의 범람으로 물바다가 된 현재의 일산신도시
(왼쪽의 제방이 한강 뚝, 현재의 자유로이다)

지던 차에 한강둑의 붕괴를 계기로 행주대교~ 고양군 이산포 구간이 우선 착공되었다. 자유로는 기존의 한강둑에 붙여 치수와 도로 기능이 혼합된 도로였고, 1992년 9월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당시 입주가 시작되었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빌딩으로 가득한 현재의 일산신도시

던 일산신도시의 교통량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산신도시는 오늘날 살기 좋은 세계 100대 도시에 속한 고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 농촌마을이 신도시로 변하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도시의 건설은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양의 일산지역은 본래 일산읍과 송포면으로 대표되는데 이 지역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근교농업의 형태를 이루며 살았던 마을이다. 필자는 일산지역의 토박이로서 신도시 건설과 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여 갔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땅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부락의 소멸과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의 터를 떠난다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송포면 대화리 마을역시도 400년이 넘는 문중이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왔지만, 도시의 형성과정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 이 지역은 처음에 일산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주변 마을의 도시화는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마을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보금

자리를 떠났고, 지금은 몇몇 종친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일산신도시가 건설되었을 당시 항간에는 베드타운이니 북한군의 탱크 저지선이니 하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일산신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수공원과 킨텍스 국제무역전시장 등 자족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변모를 하였다.

3. 도심 속 낙후지역과 군사용 방벽 개수로 시설

1990년 5월경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고양군(시)의 일산지역, 성남시의 분당, 군포시의 산본, 부천시의 중동, 안양시의 평촌 등 5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순서와 인과관계를 떠나 결과적으로 대화지구에 속한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거대 계획도시인 일산신도시 사이에는 덕이동 이마트에서 한강 근처 법곶동까지 총길이 4.1km, 폭 60m가량의 거대 인공 수로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거대수로의 용도는 무엇일까? 홍수를 막거나 우수관 기능을 하는 치수시설과 군사용 방벽이라는 관점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군사용 방벽이라는 의심은 산줄기, 물줄기와 연결되지 않아 물의 흐름이 없는 하천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수량부족에 따른 미흡한 하천경관, 게다가 바로 옆 도시로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된다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은 군사적 시설물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었던 때 송포지역에 살았던 필자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거대 수로를 군사적 시설물로 보는 입장이다.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던 즈음 휴전선 20km 지역에 인접한 일산 신도시 지역의 서북 측인 당시 송포면 대화리, 법곶리 지역에서는 탱크 등 중장비의 진격차단시설인 군사 진지공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주요장소마다 설치된 군사용 방벽은 군사작전 통제지역이었던 고양군의 특성상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화지역에 새롭게 들어서게 된 군사용 방

벽이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로 인해 전통 농촌마을 송포지역과 일산신도시가 완전히 격리되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인은 송포면 대화리, 법곶리 지역 주민의 실질적 대표(당시 회장 명칭은 亡 김형상)로 본인 외 청·장년들의 협조와 참여로 전원이 군사용 방벽 개수로 철폐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청와대, 국방부, 당시 건설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개수로 설치에 반대의견을 진정하였다. 그러나 우수배수시설, 홍수방지 하천조성 또는 군사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앞에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못했고, 결국 신도시와의 경계가 설정되었다.

그 당시 이곳 주민들도 이러한 시설이 홍수대비용 하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나버린 지금의 시설물은 치수용 하천도 아니고 탱크를 막아내는 군사방벽도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가 되어 있다. 행정기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질의하면, 담당 주무부서가 서로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명쾌한 대안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수로 공사 당시의 현장모습

많은 고양시민들은 본인의 터전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언제, 왜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관심도 없다. 그러나 본인은 이 지역에서 대대손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지키며 지역의 파수꾼으로 살아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가득하다. 지금 현재 하천의 기능은 무엇일까? 악취가 나더라도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가는 일시적인



일산서구 대화마을에 완성된 현재의 방벽 개수로

하천은 맞다. 그러나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적의 탱크를 막아내는 저지선으로서 역할은 현재의 남북 상황과 최근 진화된 군사작전 개념으로 보면 주민불편만 야기하는 무용지물은 아닐는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4.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흔적들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의구심도 많았다. 장롱 속에 묻혀 두었던 서류뭉치를 꺼내보며 지금의 우리 마을이 있기까지의 여정을 회상해 본다.

1991년 10월 22일

위원회 전원 회의시 당국에 건의 등 활동 상황 내용의 경과보고서

일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방어 개념의 방벽 개수로(토개공과 국방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현시점까지도 고양시 등 관계기관에서 군사시설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원회의 업무 총괄담당 김우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가 신도시와 송포면 경계의 일산 방향 삼거리에서 대화리, 법곶리 지역을 서북측으로 가로질러 이산포의 법곶2리 마을 중심부를 통과, 한강에 자연 유수되는 개수로라 하나 한강물이 불어나면 역류되는 수문이 없는 개수로로 큰 강과 버금가는 하상 폭30m, 상단 폭80m와 방벽 높이가 한강 제방과 같은 8.20m의 배수검용의 방벽으로 신도시 쪽 방벽은 2m를 더 높여 방카를 설치, 고사 기관총 53문을 송포 방향으로 총구가 겨냥되는 군사시설의 제방이라 합니다.

대화, 법곶 주민들은 신도시에 전 재산인 농토를 수용 당하였음에도 신도시에 인접 도시권의 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신도시와 격리됨은 물론 80m 이상의 교량 2개소(대화 1리 와 법곶 1리 앞)로 생활권도 차단되어 교통, 문화, 교육 등 어려움이 많았던 면단위의 농민으로 살아왔는데 새로이 신도시가 건설되는데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농사꾼 후손들에게 군사지역의 그것 밖에 무엇을 물려줄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근래에 송포 지역의 대지가 평당 일백 몇 십만 원씩 거래되었다는데 방



시행 관서의 관계자들은 우리 면민들의 건의 등을 무시 강행 방침으로 일부 공사 구간의 공사를 단행 면민들을 분노케 함은 물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민여러분…!! 황금 들녘의 풍요로운 곡식을 수확하는 때 우리 면민들은 시름에 잠겨 일손을 놓고 명청히 하늘만 바라보며 우리는 힘이 없구나 하며 한탄과 신세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홀연히 일어나 면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뚝뚝 뭉쳐 하나가 되어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권리도 찾고 알 권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면민들의 생존과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합니다.

○1991.8.17 대화 1.2.7.8리 이장님들 회의

1. 대화 1,2,7,8리는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생활권이 달라지고, 우리 송포면은 완전 낙후됨을 면치 못함
2. 생활용수와 폐수로 인하여 악취가 대단할 것임
3. 교량이 단 1개소로 영농 및 교통이 아주 불편하게 될 것임
4. 방어벽 8.20m 설치로 인하여 시계가 완전히 차단됨
5. 군사시설 보호로 인하여 주택 신, 증축 시 군사협의를 득해야 함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6. 현재 남북 교류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남북통일이 임박하였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에 방벽설치 철폐를 주장하는 155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 1차 탄원서를 1991.8.21자 청와대, 국방부, 건설부, 토개공 등 12개 부처에 제출하였으나 청와대는 국방부, 국방부는 육군, 경기도 고양군, 건설부에서는 토개공으로 책임을 전가, 토개공 건설부에서는 순수 우수를 배수시키는 개수로 운운하면서 오히려 면민들에게(위원회) 협조를 당부하는 회신을 보내와 대화 주민들은 분함을 금치 못함

○1991.9.7.17:00

농협 농민회관에서 좌담회를 개최 그때 법곳1,2리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대화, 법곳 이장님과 주민대표 11명을 선임, 투쟁의 목적이 아닌 순수협약체의 모임인 대화, 법곳 지구 자치개발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

○1991.9.9.15:00

주민들의 요청으로 토개공 4-3공구 현장 사무소에서 토개공 사업단장 외 10여명과 좌담회 과정에서 토개공 단장 등은 신도시 방어 개념의 방벽이

아니라며 순수 우수를 유하시키는 개수로라 하여 1, 2안을 제시(보고서 설명)하였으나 우리주민들은 철폐 주장

○1991.9.12.

국방부, 건설부, 경기도, 토개공, 고양군에 민원서로 질의와 청원을 하였던 바 국방부에서는 지역 부대인 9사단 1군단을 거쳐 보고를 받아야 함으로 지연됨을 알려와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건설부와 토개공에서는 신도시 방어 개념이 아닌 순수 개수로 라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하며 경기도, 고양 군에서는 시행청이 아니므로 토개공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다고 함

○1991.9.19.11:00

농협 농민회관에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토개공 본사 부처장 이상원, 개발부장 신중권과 대화, 법곳 주민 100여명이 참석, 2차 설명회와 좌담회 실시. 토개공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 일관하자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김

○1991.9.26.

일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방어 개념의 방벽 대체 시설 개수로 설치사업이라는 토개공과 유관기관의 협조 공문 내용 입수. 대화, 법곳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음

○1991.9.30.10:00

농협 농민회관에서 송포면 23개 이장님들과 위원회 위원들과의 연석회의. 시 대화, 법곳 지구 주민자치 개발위원회를 송포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송포지구 주민자치개발위원회로 개칭하여 송포면 전 주민의 서명 날인을 받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법곳2,3 가좌3, 구산4리 등 4개 행정리의 서명 날인이 늦어져 4개리를 제외한 19개리의 세대주 1,212명의 서명 날인부를 첨부한 탄원서 제출

○1991.10.7자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건설부, 고양군, 군양 군의회에 제출 회신을 기다림

○1991.10.10.10:00

9사단 작전 참모 접견과 1991.10.18. 14:00 1군단 (1992.1.1. 준장 진급 예정 김모 대령) 작전 참모가 김진욱 도의원, 정영진 군의원과 주민대표 8명, 김우규(당신 관계부서 협상주역)에게 내일 620m의 복개공사 시행과 모든 군사 시설을 중단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후 모든 군사시설 공사가 중단됨

○1991.9.16일자 고양신문 9.17일자 경인일보 9.18자 인천일보와 기호신문 10.7일자 고양신문과 10.10일자 동아일보(별첨)에 기사화 되었음

○1991.10.11.

고양군의회 정영진 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 정영진 등 5명의 의원발의로 1991.10.22 방벽설치 철폐 건을 참석의원 전원 일치로 부결 고양군수에게 협조요청 건으로 통보예정

○1991.10.1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군사 시설물 설치 목적과 토개공과의 관계와 대화리, 법곳리 간 2.1km의 수용토지주와 1:1 협상치 말고 토지주 전원 참석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찬, 반에 따라 결정할 것 등과 동일자로 방벽철폐 건과 관련된 토개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뢰

○1991.10.18.10:00

민자당사에서 이택석 위원과 동일 17:00에 고양 군수실에서 고양군수, 부 군수, 이택석 의원, 토개공 부단장, 송포 면장과 위원회 위원들과 대담 시 방벽 개수로로 꼭 설치한다면 아래 사항의 이행과 병행할 것을 요청함

○고양군 조재호 군수께서 상부에 건의사항으로(지휘보고서에 의한 건의서)

1. 송포면을 대화, 가좌, 덕이동 권역별로 쾌적한 전원 도시화로 취락 구조 개선사업
2. 현 설계 선의 개수로 위치 변경 및 대화 법곳에 설치되는 600m를 복개 하는 사업
3. 신도시와 연결된 상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편의 시설
4. 현 송포의 버스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 등

※ 이 경과보고서는 그 간 관계부서와 군부대 등 중심적 활동을 총괄하였던 김우규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내용(우수관, 군사시설을 두고 벌어진)이 허위, 과장, 조작이 아니며 숨겨왔던 비화(秘話)임을 짐작케 될 것이다.

4. ‘경과보고서 파트’는 당시 주민자치개발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고양군 진정서 원본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문맥에 맞게 일부 수정함. 원본은 고양문화원 소장중

5. 신도시와 토박이,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기

이곳의 땅은 본래 내 소유가 아니었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자 흔적이다.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모두의 소중한 터전이어야 했다. 누군가가 선을 긋고, 등기를 내고, 법으로 정하여 토지를 구획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투쟁하며 돌려놓으려 했던 땅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환산을 해보니 방벽 개수로의 전체 가치를 현 시가로 환산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아님)

총 대지면적 : $30\text{m} \times 6200\text{m} = 186,000\text{m}^2$, 평수 : 56,363평

현 시세 토지가액(평균), $3.3\text{m}^2 = 200\text{만원}$ 으로 추정 시

$56,363\text{평} \times 200\text{만원} = 112,726\text{백만원}$ 상당

내 나이 어느덧 80세 중반에 들어서는 요즈음,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는 시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마음으로만 쌓아왔던 지역의 문제를 상기시키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자라고 살아온 지금의 이 터에서 더 많은 고양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05

마장면 관리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

정해경

- I. 사라진 마을 관리
- II. 관리의 마을사람들
- III. 사라진 마을 새로운 사람들



I. 사라진 마을 관리

저는 찾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면 주소들은 남아있지만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밀어내고 새로운 집들이 생겨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은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집도, 유년 시절을 보낸 집도,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이사를 하여 학교도 없습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도저가 도시로 들어온 다음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로 바뀌면서 오랜 시간 정주해 오던 고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어나는 곳은 병원이고, 직장을 찾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노마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이천에 살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였고, 먼저 떠난 이웃 사람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곧 떠나야지.’ 하며 살아온 25년 동안 나는 이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 돌아갈 서울사람이었습니다. 오십이 되어 새로 시작한 공부는 저를 다시 서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곳에도 저의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자주 가던 종로, 필운동, 삼각지, 남영동 어디에도 저의 기억속의 공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천에 나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이 떠도는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이천문화원에서 “마을지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마을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마을이 ‘마장면 관리’였고 최근 군부대가 들어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었습

니다. 마을지에서 저는 그 지역의 <마을투쟁사>를 다루는 작업을 맡게 되었고 여러 분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시대를 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나처럼 고향이 사라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새로운 터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살까?’

마을지에 미쳐 담지 못했던 이 많은 질문들이 아쉬웠던 차에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알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진 마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장면 관리의 인문지리적 환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던 마을 토박이, 군부대 때문에 혹은 관리가 좋아서 이주하신 분들 등 관리에 살고 있는 모두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로 작년 마을지 조사와 올해 새로 진행한 인터뷰 녹취를 그대로 싣거나, 일부를 편집 수정하였고, 신문자료, 구술자로부터 받은 자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수록했습니다.

1. 마장면 관리의 지명 유래



관리의 전경

『조선지지 자료』(1911)을 보면 한자로 ‘관촌’ 또는 ‘관동’으로 쓰고, 우리말로 ‘각골·가골’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지명총람』(1986) 이천군 조에서도 “관리는 양각산 밑이 되므로 각골, 가골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천시 마장

면 문화유적 민속조사보고서』(1998)에서도 14개의 ‘각골’이 채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각산의 생김새가 양 뿔처럼 생겼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양각산 봉우리가 뿔족한 ‘고깔’처럼 보여서 ‘고깔 관’자를

쓴 것으로도 보입니다. 『훈몽자회』(1527)에도 ‘곶갈 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자는 비록 ‘관’자를 썼지만 이 지역 어르신들은 양각산의 ‘뿔각’자를 앞에 붙여서 ‘각골’로 불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리에서 수백 년 세거하고 있는 광주이씨 문경공파(2015)를 보면 19세 이덕래와 22세 이종덕의 부인 여흥민씨 묘소를 ‘각골’로 기록하였습니다.¹

마장면은 이천시 3개동 2읍, 9면의 하나로 본래 이천군의 마전동과 장수왕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장수왕면과 마전동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마전동면은 관동(冠洞). 회교(灰橋), 억만(億萬), 작촌(苟村), 오천(午川), 덕평(德坪)의 6개 동리를 관할하였습니다. 장수왕면은 목동(木洞), 문암(門岩), 장수왕(長壽王), 표교(標橋), 해월(蟹越), 이평(泥坪), 각시(各氏), 평촌(巧村), 이치(梨峙), 토곡(土谷) 등을 관할하였습니다.

1910년(순종4) 마면(廣面)과 장면(長面)으로 다시 개칭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마장면이라 개칭하였으며, 오천(午川)·양촌(陽村)·관(冠)·회억(灰億)·장암(長巖)·목(木)·표교(標橋)·이치(梨峙)·각평(各坪)·덕평(德坪)·이평(泥坪)·해월(蟹越)·작촌(苟村) 등 13개 동리를 관할하였습니다. 이 때 장수왕리와 문암리를 합쳐 장암리로 개칭하였으며, 호면(戶面)의 매작리(梅苟里) 일부를 병합하고 토곡리(土谷里)는 호법면(戶法面)에 편입되었습니다.² 이후 1996년 3월 1일 이천군이 폐지되고 이천시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21일 이천시 마장면 관리, 회억리 지역 약 100만평 부지에 군부대이전이 확정되어 특수전사령부(특전사)가 관동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2017년 특전사 이전이 완료되면서 관리마을 중 웃골, 방아다리, 앞실, 안골, 장자울, 고비울이 사라졌습니다.



관리의 군부대

2. 관리지역의 투쟁 이야기³

1) 마을이장이 하는 관리 투쟁이야기 (원유천)⁴

원유천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부대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주는 바람에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 내려오듯이 별안간 찬성, 반대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그때는 추수할 때 인데 벼도 안 베고 매일 시위를 하러 다녔어요. 각자 돈을 건어서 시청, 국방부로 다녔어요. 우리가 시위한 자리에는 담배꽂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용산 국방부 앞 시위도 합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시위 중간에 바라춤을 추기도 하고 무당이 작두 타는 것도 했어요. 문화적인 행사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신문기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실어주면 좋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하고 싸우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광고비를 준다고 해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아는 동생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도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군부대가 들어와서 발전했다고 하지만 무엇이 발전했나요? 따지면 말을 못해요.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높은 건물이 많아지고, 4차선도로가 뚫리면 발전하는 건가요? 그럼, 나에게서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땅 값이 오른다는 데 땅을 팔 수 있어야 좋은 거지. 그 땅을 팔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땅값이 오른다고 팔 수 있나요?

특전사가 들어올 때 어르신들은 당신들 조상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니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자식들은 보상금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산이나 종종 땅을 팔게 되면 목돈을 받게 되는데 액수가 컸어요.



원유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자주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장을 운영하시기에 동물에게 혹시 영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측정되지는 않지만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천에 신둔면, 장호원, 설성면에 군부대가 있어 흡사 ‘전방’ 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득 이천이 경

기도 남쪽지역이지만 “나는 군부대에 둘러싸여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깃발 꽂아서 밀린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곳 관리만은 국방부가 밀렸죠! 하지만 총소리가 매일 들리죠.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군부대 들어올 때 관리지역 발전을 위한 돈 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인접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직접 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돈이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들의 고향은 사라졌습니다. 지도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에만 있는 사라진 마을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을과 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과 설득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했느냐 아닐까요?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에 치어 챙김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도시도, 시골도 바뀝니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모양이 아닌 일부 자리를 내어주며 공생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라면 사건에 대해서도 변화된 마을의 모습도 주민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군부대 이전 반대 투쟁일지

투쟁의 모습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07년 8월	22일	○ 이천시의회 의원 9명중 8명 군부대 이천시 이전 반대 성명 발표
	24일	○이천시 사회단체장 회의 열림. 결론 도출 못함
	25일	○해당지역 및 이장도 모르는 사이 마장면장이 유치 의사 표명, 관3리 이장이 사실 인지 후 반발
	26일	○관3리 이장이 주민설명회를 열자고 제안 ○9월 1일~2일 관2리, 관3리, 관4리 회역리 주민설명회 열림

9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장면장이 이장단 및 사회단체장 회의 소집 ○주민들이 회의방청을 하려하자 돌연 회의 취소 ○마을 의견 수렴 후 9월 4일 회의 속개하기로 하였으나 마장면장, 이장단 (관3리, 관5리 이장제외), 사회단체장 긴급회의를 진행해 군부대 유치 찬성을 가결함. ○그 시간 관2리, 관3리 이장과 주민들은 관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 중이었음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벽부터 찬성자들이 여타 이장 및 사회단체장 개별 설득 시작 ○관리 주민들, 이천시 군부대 유치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장면 군부대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구성 ○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뜻 재확인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장면 군부대 유치 찬반 투표 ○지역과는 관계없는 이천시 전체 사회단체장 회의 표결로 유치안 통과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문 이천시 홈페이지와 이천뉴스, 이천신문, 연합뉴스, 중앙지(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오마이 뉴스)에 기사제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접수, 국방부 군사시설 담당자와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대표 7일 면담 ○마장면사무소와 이천시청 앞 시위 ○회역리 주민들과 합동 회의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협의회 개최 ○회역리, 관리 현수막 다수 설치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리 합동회의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역리 주민 시위, 이천시청 앞 시위 (시장/유치위원장/마장면장 장례, 달고질 연출) ○이천저널에서 주민 도외시한 추진 문제점 지적
9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천시청 앞 시위. 국방부 앞 1인 시위(6인 교대). ○변호사 면담 ○언론사에 이천시장 고발장 배포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천시청 앞 시위. 국방부 앞 1인 시위(6인 교대)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천시청 시위, 이천 시가지 행진. 국방부 앞 1인 시위(3인 교대)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앞 시위, 이천시청 앞 1인 시위(3인 교대)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면담, 국방부 앞 1인 시위(5인 교대), 이천시청 앞 시위
	19~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앞 시위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최종 결정, 이천시청 앞 시위(이안엽 씨 부상). 행정소송 준비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대책회의 마을별 지역 위원 선출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면담. 국방부에서 시위 자제 요청

	30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10월	1일	○국방부 면담
	4일	○국방부 앞 시위, 국방부 면담.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관4리(압실, 장자울, 고비울)가 군부대 유치에 찬성 의사 밝힘
	8일	○국방부 앞 1인 시위.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9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10일	○국방부 앞 1인 시위.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14일	○국방부 앞 1인 시위.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17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마장면장이 관3리 마을회관 방문
	21일	○국방부 앞 1인 시위.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22일	○마장면사무소에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진행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국방부 앞 1인 시위
	23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회의
	26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마장면 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 회의
10월	28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소송관련 설명회 개최, 소송비용 부담과 승소가 확실하지 않아 소송 망설임
	31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법정 소송 포기 결정
11월	4일	○군부대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이주 대책과 보상 논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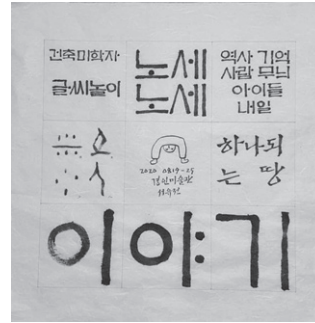
2007년 9월 14일 국방부 시위

II. 관리의 마을사람들

1. 전원생활에서 우연히 만난 시골마을의 사건



김경수(1951생)



김경수 서예작품

1) 이곳에 정착하게 된 동기

2018년 이천 마을지 조사를 하면서 김경수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2리에 사시는 김경수씨는 관리 지역민들과 군부대 반대투쟁을 함께 한 이주민이며, 그의 집은 마을의 가장 끝 법천사 옆에 있습니다. 특전사가 마을에 들어오는 과정을 조사하며 마을지에 실을 수 없어 아쉬웠던 이야기들을 남기고자 합니다. “잊혀진 역사에 대한 전문가라면 되겠네.” 구술조사를 진행하던 나에게 그 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박이 주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급격한 변화의 계기가 생겼던 거지요. 관리 사람들은 상당 부분을 내어주고, 큰 변화로 인해 나간 분들도 계셔서 많은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이웃이 흩어졌고 사회 공동체 자체가 흔들려 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반쯤 이방인인데, 다행히 그 투쟁 과정에서 친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2005년 12월 말에 자리를 찾아서 2006년에 집 짓고 2007년 4월 준공 받았고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7월에 군부대 들어오니 나가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만 해도 그냥 숲속에 조용히 마을에서 좀 떨어진

윗 쪽 전원주택 단지처럼 꾸며둔 곳이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은퇴한 교장선생님, 대학 학장 등 교육자들이 들어와 사셨습니다. 제가 온다니까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곳 분들은 텃세가 없고, 지식인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동네여서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투쟁을 하게 되니 저는 나서는 일을 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그럼 제가 기록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아서 시위 관련 자료정리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2리, 관3리가 같이 싸우면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 서로 더 친해졌죠. 우연히 가까운 곳에 터를 구하게 돼서 제가 이사를 멀리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죠. 관2리 이쪽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 여기서 지내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는 같이 움직이고 자주 만났지요. 그런 외부의 압력이 끊어지고 나니 그 이후로는 다시 조용히 본래의 제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전에는 1년에 한번이라도 동네 풀을 깎으러 나오라고 하셔서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낫을 들고 베는 시늉이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없어요. 관2리가 원래 그런 것이 없는 건지.

하여튼 내 마당 풀베기도 바쁘니까 그런 거 없이 연말에 대동회라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 같이 먹고, 1년 예산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고, 이장 임기 다 되면 ‘다시 뽑읍시다.’ 하는 정도이지요. 그것도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못 갔는데 다시 연말에 외국에 나가니까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마을하고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냥 그러고 나도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혼자 지내는 인생을 즐겨야겠다.’ 생각하고 ‘마을에 피해만 안 주면 최상이다.’ 이라고 있어요.

2) 지금 관2리 에서 사시는 김경수 선생님은?

저는 지금은 논문을 쓰는 일보다는 글을 짓고 붓글씨 쓰고 책보며 지내요. 시간을 내서 딸의 아기를 보러 미국에 가서 함께 놀고 지내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아이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한 격대 교육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열 전시회를 위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글과 글씨를 올리면서 차곡차곡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작은 기대도 하고 있어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배워가며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끔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었다. 그는 이곳에 노년의 시간을 보내려고 들어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기회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다시 그 옆 동네로 옮겨 살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처럼 왕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일 년에 한번 대동회에 식사를 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 넓은 부지에 예쁜 공간에 거미줄이 가득하다. 그 넓은 공간에 마주할 사람들은 없어보였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는 마을 사람의 흔적도 보기 어려웠다. 가득한 책, 그리고 부인의 소일거리였던 도자기들, 미처 치우지 못한 죽은 새.

이주민으로 들어와 우연히 마주친 지역의 핫 이슈는 주민들과의 어울림에 차라리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이 사라지니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더욱 쓸쓸해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가득 찬 책들을 누군가와 함께 읽고, 도자기에 마실 것을 담아 나누어 먹으며 이주민과 원주민 구분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교류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국가의 명령으로 이주한 삶_ 박경려(1981년생)와 그의 이웃 김복순(1979년생)

1) 그녀들을 만나기 전

처음에 마장면하면 가장 먼저 ‘토박이’가 생각났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왔을 것 같은 선입견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더 하다 보니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토박이이야기만 남기려할까? 그곳에 새로 들어온 이주민의 이야기는 없을까? 있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장초등학교의 사서교사에게 부탁해서 박경려씨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사진촬영은 하지 말 것 이었습니다. 모습은 남기지 못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허락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 군부대 이전에 따라 이주한 관리마을의 생활

2016년에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랑 군부대만 있었어요. 기존의 마을을 없애고 들어오면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존마을의 상권들과 여기는 그냥 딱 아파트만 덩그러니, 위쪽에 군부대가 있고 부대 외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후 아파트가 더 들어오고,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고서야 상권들이 생기면서 식당, 마트의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됐죠.

그녀는 직장장교인 남편의 보직변경에 따라 1~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니게 되었다는 결혼 14년차 주부였습니다. 10회 이상 여러 지역의 정서를 경험하다 보니 지금 사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소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사를 자주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사가 익숙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군인남편 만난 후에도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정착 힘든 건 그 지역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3번째 옮기는 건데 아직까지는 막 친구를 사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자녀들의 전학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버지를 따라다니거나 엄마는 정착을 하고 아빠만 혼자 이동을 하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엄마와 합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관리지역의 텃세

저는 이미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남양주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익산, 증평, 구리, 대전 이런 여러 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그렇게 적응이 힘들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무난하고 거기에서는 지역사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 분들과 무난하게 즐겁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것은 지역사회가 되게 강해요. 아이도 느껴요. 아이는 지역사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잘 못하는데 “엄마, 여기는 힘들어.” 여기 와서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다시 전에 다녔던 학교를 다니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해요. 텃세라고 하죠. 그게 되게 강해요. (김복순씨를 가리키며) 저분도 멀리서 인천에서 왔는데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이곳의 여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 마을 사람들과의 부딪힘

저는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살아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지역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부대라는 것이 보안이 철저해야하고 부대 안에 있던 내용은 사소한 것도 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특성을 지닌 직업군인을 이해하지 않고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대의 시설물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느 정도 였냐면, 왜 이 아파트에 군인들만 살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어요.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군인아파트라서 군인들이 이동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가는 곳인데 말이죠...

군매점이나 부대에 있는 여러 편의 시설(수영장, 부대회관)을 지역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부딪혔어요. 저희는 보안의 특수성 때문에 개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학교가 커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관심이 분산이 돼서 싫다. 또 아이들 이동 차량들도 저희는 부대에서 제공되는데 그걸 왜 부대 아이들만, 군인 아이들만 그 차를 이용하게 하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텃세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듣던 중 마을조사 당시 군인시설에 대한 일반주민 이용을 둘러싼 이야기가 떠올라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군인시설을 오픈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

만 완전히 오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적인 것이었어요. 군인아파트에 살게 하거나, 부대 내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 중 군매점, 야외수영장,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위병소 밖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 등이었어요. 지금도 사령부 운동장에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군매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일부 마장면민들이 오셔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갔어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매점이 마트보다 가격이 싸다보니 가격을 덧붙여서 되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위 상권에서 민원이 생겼어요. “군매점에서 팔지 못하게 해라.” 해서 그걸 정지 시켰는데 왜 군매점을 이용 못하게 하느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해놓고 왜 번복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런 항의가 매우 황당했어요. 저는 솔직히 마장에 와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반복적으로 마장면에 와서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로운 지역에 이주해 살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만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 충분히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천에 오래 살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누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물어온 적이 없었기에 터놓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이천에서 20년이나 살았음에도 여전히 저 자신이 지역 안에서 외지인처럼 생각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5) 군인에 대한 선입견

군인가족과 지인 모임이 있었던 커피숍에서 마장 엄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엄마들 왈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영망이 됐다는 거예요. 마을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군인들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군부대 병사들하고 삼촌들이 사령부 쪽에서 쓰레기를 줍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누가 줍고 있냐?”고 묻고 “왜 가만히 있는 군인 탓으로 돌리냐?” 하고 제

가 되물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역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도 무리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학교가 학부 모들의 관계개선과 갈등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는 오히려 원주민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 전체에서 외지인이라고 해봐야 도시전체에 섞여있으니 눈에 덜 띄지만, 원래 주민과 함께 살던 자리를 완전히 갈아엎고 들어온 원주민보다 70%이상 늘어난 군인가족에게 원주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주민들 또한 자의가 아닌 국책사업으로 이주했을 뿐인데, 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를 개인적 차원에서 일일이 응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과 군부대를 둘러싼 선입견을 일소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한계, 지역에 동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등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선입견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어렵사리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마장에 축구부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우승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특전사가 들어오고 특전사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마장이 계속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만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 아빠를 둔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는 이유에는 매우 가정적일 수밖에 없는 아빠를 둔 군인가족들만의 애환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특전사들은 부재가 많아요. 한번 훈련을 나가면 몇 달씩 파병을 나가게 되고, 오래도록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보니 아빠들이 자녀들에 대한 애뜻함이 더 깊어요. 늘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게 되요. 여행을 가고 캠핑을 하고 축구, 수영도 하면서 활동위주 놀이를 하다보니 아이들의 체력이 일반아이들에 비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정이 이런 데도 일부 주민들은 운동 잘 하는 아이들을 길러낸 특전사 군인들이 운동만 잘할 뿐 무식하고 공부도 못한다고들 생각하세요. “힘만 세다”, 배운 것 없이 힘만 세다, 공부 못해서 특전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6) 그녀를 만난 후

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전 제가 처음 이천으로 이사를 왔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어려웠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재미있게 아이를 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아파트에 살면서 가까운 이웃과 서로 아이를 함께 돌보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며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권장하는 미덕을 일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생활이 한편 부러웠지만, 성향과 판단기준이 다른 저로선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힘들어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장면의 그녀는 어떤 선택에 따라 지역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빠른 이주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텃세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남은 사람들은 손 흔드는 인형처럼 떠나는 사람들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공동체는 그녀처럼 지역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에 대해 왜 누구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국책사업이라는 굵직한 변화만 던지고 공동체 내부에 갈등과 불화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공적인 방임도 일종의 무책임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결국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지방정부, 국가가 모두 조정자 또는 협의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유천(1960생)

3. 마장중학교 1회 졸업생이 공동체와 어울려 살아가는 비법

원유천씨는 관리에서 태어나 이천에서 초·중·고를 다니신 토박이입니다. 이천 마을기록 당시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사에 도움을 주시기도 했거니와 마을지 발간 잔치 후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자주 마을에 찾아와 줄 것을 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을지 조사를 하며 과연 저 자신이 얼마나 마을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로 하여금 다시 마을을 찾게 했고 저의 방문에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구술을 제공받았던 장소는 따님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데 마을지 조사 할 때 심어놓은 채소와 야생화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로 남을 지지하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걸 여러 사람과 공감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이나 자기네 집안만 내세우려는 사람들을 보면 좀 속상하죠. 저는 지금 이 곳 농협에 감사를 맡고 있어요. 다른 높으신 분들과 놀러 다니는 것보다 야채담당이나 매장계산원들과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소주 한 잔 먹자.” 하는 스타일 이예요. 저는 누가 꼴통부리면 곁들어서 “형님”, “아저씨” 하면서 쓱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혼자 음식을 하고 있으면 “너는 고기 잘 구우니깐 여기서 고기를 굽자” 라고 일을 배분하거나 또는 “노래해.” 그러면 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판을 벌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요. 종이에 적지는 않아도 처음부터 머릿속에 구상을 해요.

그리고 카페에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과 아가들에게 인사를 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말을 걸어서 불편해 할까봐 주저되기도 하는데, 일단 “아가야, 토마토 따러 갈까? 라고 가볍게 물으면 관심이 있는 엄마들은 더 신나서 같이 하게 되요. 봉다리 하나 주며 “들고 갈 만큼 따가지고 가” 이러면 엄마들이 엄청 좋아해요. 상황을 봐서 눈치껏 해야지 괜히 과하면 안 한만 못해요. 뭐든지 그렇더라구요.

이것이 마을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원유천씨의 소통과 삶의 방식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마을에 남아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농사나 지으러 가면서 산 아래를 왔다갔다 지나가다가 길에 보이면 해” 그렇게 오가며 자신의 마을을 지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마을을 거쳐 갔던 사람들

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소탈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던 분들, 거리두기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옆에 전원마을 단지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느꼈던 서운함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을 느낀 적이 많다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땅값만 오르면 팔고 가격에 맞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가는 것은 무척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자신의 모교를 바라볼 수 있고, 유명 가곡 「가고파」의 가사에 ‘내 고향 남쪽바다’처럼 나에게서는 ‘내 고향 시골’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보니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군인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을까?

어쩌면 “또 와요.” 라며 원유천씨가 저의 손에 쥐어주신 토마토와 참외, 가지에 그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원유천씨가 주신 참외, 가지, 토마토

4.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토박이의 바램



이흥희(1960년생)

이흥희씨는 마장면에서 초·중·고를 나오시고 군 생활 삼년을 제외하고는 마장면을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입니다. 14대 째 마장면에서 살고 계신터라 지역에 대한 애정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사라진 마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곳은 특전사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절차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곳의 주인인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사라진 마을의 기억을 기록해 두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군부대라는 생활환경의 주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업으로 삼는 관리 토박이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관심사는 벼농사 직불금과 쌀의 자급률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간다는 의미는 식량자급률 저하라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잃고 남에게 의지하게 됨으로 마을의 고유성 또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농업환경의 변화가 관리주민들이 근본적인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골마을을 꿈꾸는 토박이



윤석재(1952생)

윤석재씨는 9대째 마을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마장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0년간의 객지생활을 정리하고 관리로 돌아와 어머님을 돌보며 효자상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로니아와 고구마, 벼농사를 지으며 주말에는 도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종종 성지순례를 다니신답니다.

그는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팝나무와 왕벚꽃나무를 심어 산책로와 체험장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찾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사이 나무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나무처럼 우리 마을도 함께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을의 오래된 나무를 쓰다듬으며 내비치는 토박이의 바람을 들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키며 삶을 지속하고 싶은 희망들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II. 사라진 마을 새로운 사람들

마장면 관리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특전사가 들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이주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시골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전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을의 반대투쟁이 있었고 한 차례 거대한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지금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자신들의 오랜 시간을 지우고 들어선 낯설고 새로운 건물들과 원주민 수보다 대폭 늘어난 외지인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고유한 삶이 한쪽 귀퉁이로 내몰렸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역의 이슈가 사라지고 난 후 그저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꿨던 이주민과 원주민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그 전처럼 활발한 교류가 어렵다는 것은 공동체가 새로운 활력을 통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군부대로 인해 유입된 군인가족들과 원주민들이 쉽게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원주민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인가족과 원주민들이 서로의 속상함과 섭섭함을 이야기 할 곳이 없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키고 속히 관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에 공동체 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양쪽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민관이 소통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워가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권리를, 한쪽에서는 의무를 강조하면서 한 치도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공간에 영원한 주인은 없습니다.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지인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언제나 그 공간의 이방인이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그저 같은 시간대에 한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방인일 수 없습니다.

- 1 이천문화원,『양각산 선비마을』 P25, 2018
- 2 이천문화원,『민속조사 보고서 마장면』 P25, 1998.
- 3 2007년 마장면에 특전사 사령부가 들어오고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긴 시간의 투쟁이 있은 후 군부대를 수용하게 되었다.
- 4 원유천씨는 당시 마을이장으로 투쟁을 주도하신 분이셨습니다. 합법적이고 문화적인 시위를 통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언론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 5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녀 손자 세대를 맡아 일로 바쁜 부모 교육의 빈자리를 메우며 양육에 참여한다는 말이다.



06

통일로 따라 고양테마기행

송낙영

- I. 들어가며
- II. 통일로에 형성된 마을의 역사와 문화
- III. 고양의 땅, 그리고 고양사람들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땅 위에 길이 있고 천(川)이 있다. 일부러 내지 않아도 계속 밟고 다니면 평평한 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길로 여기며 이용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다니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인위적으로 길을 넓히고 도로를 만들게 되었다. 길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천은 자연이 먼저 자리를 냈다.

수많은 길이 있고 천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양시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도로 ‘통일로’와 고양으로 흐르는 ‘하천’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II. 통일로(統一路)에 형성된 마을의 역사와 문화

통일로는 1971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계기가 된 서울-판문점 도로건설 종합계획을 통해 조성되었다. 과거 이 길은 중국의 사신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유일한 육로였던 조선시대 의주길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신작로(新作路)로 갱신되어 일본의 만주침략에 전쟁물자 보급로가 되기도 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8월 29일 평양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남과 북의 고위관계자들이 이 길을 통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진행했고, 수많은 실향민들이 휴전선 가까이에 삶의 터전을 잡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길 염원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민족통일의 상징과 염원을 담아 붙여진 이름이 통일로이다.



(좌)2019년 현재 (우)2008년(이서행,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표지석 휘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신원리까지의 통일로 구간은 지금의 1번 국도와 39번 국도, 그리고 307번 지방도에 걸쳐 있다. 기존의 국도 일부 구간을 고속화도로로 만들었으며 197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2년에 완성, 구 의주로 구간과 통합하여 지금의 일반국도가 되었다.

통일로는 전근 현대를 거치며 국가 단위 주요 사건의 통로였고 때론 남북한 체제경쟁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1972년 남북한의 왕래로 6·25 전쟁 이후 남한의 재건과 경제적인 실상이 북한 기자들에게 개방될 수밖에 없게 되자, 낙후된 농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었던 남한은 통일로 주변 가옥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량사업으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현대식 가옥들을 건설하게 되었다. 통일로 주변이 개발되면서 성공적으로 재건된 남한을 상징하는 선전마을로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다.

총 길이 47.6km 통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 사거리에 세워진 통일로 표지석에서 시작된다. 표지석이 세워진 곳은 현재 은평구 진관동이지만, 통일로 건설 당시에는 고양군 신도읍으로 고양시 땅이었다. 현재 주변에 형성된 건축물들과 비교를 하면 그동안 지역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역사문화길’로서의 통일로를 탐방하며 그 길이 의미하는 또 다른 테마기행을 떠나보자.

1. 고양의 설화, 밥 할머니 이야기

서울시 구간의 통일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동네,

고양시와 경계선이 시작되는 덕양구 창릉동에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설화 고양 밥 할머니 공원과 석상이 있다. 고양 밥 할머니 석상은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석불로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행정동인 창릉동 관할) 창릉 모퉁이 공원(밥 할머니 공원)에 세워져 있으며 2006년 11월 고양시 향토 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을 능 모퉁이라 부르게 된 것은 조선시대 많은 왕들이 서오릉 제향 행차 때 이곳 동산동 창릉 모퉁이를 거쳐서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 지명에는 비석거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밥 할머니 석상과 신도비 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북한산 노적봉 아래에 집결한 이여송 장군과 휘하장수들은 밥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짚단과 석회가루를 이용하여 아군의 병력과 군량미가 많은 것처럼 속이도록 지혜를 발휘, 조선군을 위기에서 구출했으며, 후에 마을 사람들이 밥 할머니의 애국심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석상과 비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1993년 통일로 확장사업으로 삼송동 숫돌고개로 옮겨졌다가 지금의 동산동 삼송택지개발지구 밥 할머니 공원에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조 중기 보살상의 모습



고양시 덕양구 능 모퉁이 공원에 세워진 고양 밥 할머니 석상(고양시 향토 문화재 제46호)

으로 세워진 밥 할머니 석상은 일제 강점기 목 부분이 훼손되어 현재는 얼굴과 머리 부분이 결실된 상태이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잃어버린 머리 부분을 새로 만들어 드리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옛 모습 그대로 있어야 민속.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하여 현재의 모습 그대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2. 창릉천 교량 덕수교

통일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창릉천과 만나는 첫 번째 교량인 덕수교가 있다. 이 다리가 있는 창릉천은 조선시대 『여지도서』에는 덕수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덕수교

지금은 창릉천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세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대홍수 때 범람으로 하나의 물줄기로 정비되어 지금은 창릉천만 흐르고 있다.

과거 덕수교에 대한 기록은 동산동 밥 할머니 공원에 교비명으로 남아 있다. 동산동 비석 군에 있는 고양 덕수 자씨 교비명을 살펴보면 총 높이 3.4m의 비석으로 직사각형의 비좌에 비신과 옥개(屋蓋)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비석은 1660년(현종1)에 조선남(趙善南)과 고양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덕수천(현 창릉천)에 돌다리를 만들고 그 내력을 상세히 적은 것이다.



고양 덕수 자씨 교비명
(高陽 德水 慈氏 僑碑銘)

비문에 의하면 석교를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고 임금과 백성들을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축조 목적을 알 수 있다. 비의 앞·뒷면에는 약 1,000여 명의 사람 이름이 한문과 이두문자(吏讀文字) 등으로 적혀있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다리이지만 덕수교라는 다리의 이름을 3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름 하나가 얼마나 오래가고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렇듯 다리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삼송 검문소가 지켜본 과거와 현재

삼송이란 지명은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왕이 묻힌 왕릉으로 가는 입구에는 예부터 커다란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서삼릉으로 가는 입구에 커다란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 한자로 삼송리, 우리말로 세수리라는 지명의 마을이 생겼다. 통일로상에 위치한 까닭에 이러한 전래를 가진 마을에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일반적인 군사요충지 국도들이 그러하듯 군사보안과 간첩색출을 위한 삼송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서울의 군사적 관문이었던 삼송 검문소는 1979년 10.26 때 12.12 반란세력이 청와대로 집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곳으로 제9보병 사단장이었던 노태우가 탱크부대 병력을 서울 시내로 불법 출동시킬 때 지나갔던 곳이다. 만약 그때 탱크부대의 진입을 삼송 검문소에서 막았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역사에 가정은 소용없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는 물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 삼송 검문소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도 서울과 고양·파주를 오가는 차량 검문을 진행했지만 1990년대 초 군사목적의 일반검



현재 검문소의 기능이 사라진 삼송 검문소

문은 폐지되었다. 이후 고양 삼송지구 개발과 통일로 확장으로 현재는 검문소와 대전차 방호벽은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당시의 검문소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설명했던 1972년 통일로변의 대대적인 주택개량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삼송리 지역에도 공무원 주택이 들어섰다. 덕양구 지축동에 조성된 삼송리 공무원 주택은 서울시 은평구와 가까워서 실제로는 서울 생활권이 가능했기에, 당시 통일로 주변에 건설된 마을 중 제법 규모가 컸던 마을로 자리 잡아갔다. 이렇듯 통일로변 마을들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시범풍치조성사업’의 대상 지역이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 신도시 건설공사가 한창 중인 삼성동 모습

내가 어릴 적 자랐던 시골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그곳에서는 빈터나 자투리땅이 있으면 무슨 곡식을 심을까 생각을 하고 항상 생산과 소비, 자급자족에 대하여 고민을 했다. 그러나 도시는 다르다. 땅이 있으면 길을

내고, 집을 짓고 상가와 고층건물을 세워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농촌사람들은 흙이라 생각했고, 도시인들은 땅이라 일컬었다. 그렇다면 흙과 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쩌면 흙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근본을 제공한다면 땅은 영토, 즉 분쟁과 투기, 급속한 도시화로 이어지는 구획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벽제관 숫돌고개에서 벌어진 임진왜란과 6·25

지금의 통일로로는 반듯하게 잘 정리된 도로의 형태를 갖춘 덕에 420년 전 임진왜란, 70년 전 6·25 전쟁의 격전지였다고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사실이다. 숫돌고개는 지금의 삼성동과 오금동, 신원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명나라 이여송이 벽제관전투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바위에 자신의 칼을 갈고 후일을 도모했다 하여 숫돌고개라는 지명유래와 6·25 전쟁에서의 영국군과 중공군이 벌인 일명 “해피 밸리” 전투 등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 일대의 지정학적 가치를 입증해 주는 사건들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통일로를 따라 북한의 전차 및 병력의 서울진입을 막기 위한 군사방어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 왜군이 전투를 벌인 숫돌고개 옆에 조선시대 최고의 역관을 지낸 김지남의 묘소가 있다. 현재 삼성신도시 개발로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이지만 우봉김씨 문중의 선산에 김지남의 묘소는 남아있다.

역관 김지남은 조선조 숙종 때의 인물로 집안이 대대로 중인 역관 집안에서 태

어나 18세에 역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지중추 부사 증직 형조판서를 지냈다. 다섯 명의 아들도 모두 역관을 지내 그야말로 대를 이은 역관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을 수없이 넘나들며 저술한 책자 중 중국 청나라와의 영토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그의 가장 큰 공적이라 하겠다. 60세의 고령에도 백두산을 넘나들며 중국 청나라 관료들을 만나고 설득하여 백두산이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산 백두산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조선 최고의 역관으로 외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그는 죽어서도 조선의 성공외교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선을 왕래하는 사신과 역관들이 잘 보이도록 길옆에 묘를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였으며 훗날 그의 바람대로 많은 중국 사신들이 다니는 의주길 옆에 안장하게 되었다. 지금 역관 김지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후손들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했던 그의 발자취를 찾아서 고양 땅 이곳에서나마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음이 고양시민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한 가지 바람은 이 땅, 이 터가 우리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보존되어 그의 공덕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역관 김지남과 정경부인 박씨의 쌍분으로 자리함(고양시 향토문화제 제51호)

5. 통일로 IC 서울과 고양의 연결 의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90년 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시내교통 혼잡을 완화 시키는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 외곽 도시순환형 고속도로이다. 사패산 터널 공사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전체 128km 구간 중 민자유치구간을 포함 60km도 안되는 구간을 연결하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완공되었다.

경계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자동차와 건물,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고향을 떠나올 때의 다짐은 지금

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까? 그러나 도시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일자리가 많지만 경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내가 사는 이곳 고양시도 처음에는 농촌이었다. 그러나 서울이 가깝다는



통일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통일로IC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주택난과 교통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로를 뚫었다. 그것도 고속도로를... 처음 통일로가 개통되었을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부와 여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통일로는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골길보다도 속도가 느린 정체의 도로로 변하였다. 그래서 빠른 길로 가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을 들여 고속도로를 놓았고 그 길목의 선상에 국도였던 통일로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행운을 얻었다. 보통의 길은 땅 위에 평평하기만 하면 된다. 개천을 만나면 물길을 따라 함께 가고 산을 만나면 계곡을 따라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다리를 놓고 고가도로를 세우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고 빨리 가는 방법을 알아냈다.

통일로 IC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은 1930년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설립하였으나 1970년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위치로 이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변에 위치한 서울시립 승화원(벽제 승화원)

전했으며,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고양의 땅은 경기도의 땅들이 그러하듯 서울의 혼잡을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할당받는다. 기피시

설 화장터가 이전되면서 고양시 주변의 야산들은 공동묘지로 변해갔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난지물재생센터, 벽제 승화원 등이며 서울의 쾌적함이 고양시민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일로가 죽은 망자가 오는 길이라는 오명을 가진 도로로 여기거나,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피시설은 지역정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땅은 이렇듯 인구의 증가와 개발로 인해 우리의 기본생활과 물리적 정서적 생활영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릉천과 처음 만나는 통일로길 벽제교



고양시 대표적 하천인 공릉천이 벽제교 밑을 흐르고 있다

6. 공릉천과 교외선, 의주길 주변 역사와 새로운 도시

통일로를 지나다 보면 고양시를 흐르는 대표 하천 공릉천을 만난다. 공릉천은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恭陵)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이름인 곡릉천이라 불리다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09년에 다시 예전 공릉천을 되찾았다. 공릉천 위에 놓인 벽제교는 통일로 구간 중 가장 규모가 큰 다리이다. 특히 공릉천 벽제교 구간은 깨끗한 수질 덕분에 맑은 물에서만 사는 다슬기와 재첩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통일로와 공릉천을 수직으로 지나는 교외선은 1961년 고양시 최초의 철로 경의선을 간략하게 부르는 이름이다. 교외선은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을 출발해서 경기

도 의정부시까지의 구간이며 처음에는 시종착 역의 앞 글자를 따서 능의선이라 불렀다.

이 노선의 원래 목적은 경기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관광열차 운영이었다. 하지만 벽제, 일영, 장릉, 송추 등 그린벨트나 군사지역에 묶인 고양시 구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처음부터 사업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는 와중에 대중교통보다 개인 운전이 많아지는 도로문화의 변화를 맞이했고,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여객운송 수단으로서의 메리트가 약화되며 상용화되지 못했다.



여객운행이 중단된 교외선 아래 통일로와 공릉천이 지난다.



소실되기 전 고양 벽제관지 모습 (사적 제144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03년 결국은 열차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고양, 양주, 의정부를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통을 꿈꾸고 있다.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길이 경기도 옛길 의주길이다. 청나라 사신들이 한양을 오가며 머물렀던 의주길과 벽제관지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역사성이 있는 장소이다. 의주길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하고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소중한 꿈의 길이 아닌가 싶다. 의주길의 중심에 서 있는 벽제관지는 고양시 벽제에 있었던 역관인 벽제관의 터이다. 지금의 자리는 1625년 고양현 관아를 현재 고양동으로



임진왜란과 6·25 전쟁 때 완전히 소실되고 기단과 주초열만 남아있는 현재의 모습

옮길 때 세운 객관이며 6·25전쟁으로 소실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벽제관터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진 대자동 산기슭에 최영장군묘가 위치해 있다. 고려 말 명장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막지 못하고 부하 장수인 이성계에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73세의 나이로 개경에서 처형된 최영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 고려인들의 우상이자 무속 신앙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최영의 묘가 있는 고양시 대자동은 무속인들에게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고양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고양시 대자동에 위치한 최영장군 묘소

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위령굿을 지내주고 있으며, 동시에 통일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해 주고 있다. 이렇듯 땅이나 길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당이 되고 명소가 된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세워진 필리핀 참전 기념비

교외선 철교에서 옛 의주길을 따라 고양현 관청중심지를 통해 대자동 서쪽에 이르면 통일로와 연결한 필리핀 참전기념비를 만난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필리핀 지상군 1천5백여 명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세워진 기념비이다.

대자동의 서쪽에 공릉천과 통일로가 모두 지나는 관산동은 원래 상류에 보가 있고 농토가 많아 벼농사와 채소를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통일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이 집중된 인근 고양동의 배후마을이었지만, 통일로가 개통되면서 대형마트와 명문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인구유입으로 농업보다 상업, 공업 위주의 도시로 변화해 갔지만, 물질을 품고 있어 생명의 근원인 먹을거리와 자급자족까지 가능한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고양의 대표 도로인 통일로와 주 하천인 공릉천을 모두 가지고 있어 땅이 갖추어야 할 최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행복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미지수이다. 잘 뚫린 도로는 소음과 매연이 뒤따르고 넓은 하천은 홍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생태계와 농업을 함께 이루어낸 보

7.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과 통일로와의 만남

통일로가 남북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확장 개통되었지만,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도로 사이클 경기가 펼쳐진 구간이라는 점은 통일로의 또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사이클 경기를 위하여 임시 포장된 통일로길 위를 역주하는 세계인들의 모습은 통일로의 역사적 가치 위에 새로운 민족의 염원이 더하여졌을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통일로변 기념 비석

8. 통일로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 구간 전차 방어벽

서울을 기준 삼아 북쪽으로 갈수록 군사시설이 눈에 띄게 많다. 물론 군부대도 많고 군사 장비도 즐비하지만, 도로에 터널처럼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아놓은 탱크 저지 시설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여 도로를 통해 탱크를 몰고 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시키기 위한 방어시설이다. 그 옆으로는 사각뿔 모양의 ‘용



통일로에 설치된 전차 방어벽

치'라는 방어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도로나 개천가에 흙물로 남아있지만,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돈을 들여 방호벽을 설치할 만큼 남한과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통일로 구간 최북단 파주시

북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던 통일로는 남북한 화해의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던 도로였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소 때를 신고 북한을 방문할 때 지나갔던 길, 개성공단이 준공되어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고 북한 근로자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들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팔리는 등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자 했던 바로 그 도로이다. 그 길목에는 많은 상징물이 즐비하다. 그중 하나인 통일로 변 통일공원에 조성된 기념탑을 보면서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 선배 전우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빌어본다.



6.25 전쟁 당시 문산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탑

10. 통일로의 끝, 하지만 민족의 염원까지 끝은 아니다.

통일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49.2km의 길을 따라 도착한 이곳, 바로 임진각이다. 통일로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임진각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주로 찾는 장소였으나 지금은 남한과 북한의 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방문하는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임진강의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임진각 건물은 1972년 통일로 개통과 함께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을 위하여 세워졌다. 고향 땅이 지척인 사람들과 고향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가족의 상징적 장소이다.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땅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이다.

무심코 시작한 통일로의 기행은 생각보다 많은 사연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길은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은 길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길은 이렇듯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가고 또 다른 길과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먼 훗날 이 길은 또 어떻게 변하여 갈까 참으로 궁금해진다.



임진강 위에 놓인 통일대교와 구 철교



통일로의 종착인 통일대교 앞

III. 고양의 땅, 그리고 고양사람들

1. 동산동 밥 할머니 공원을 만든 고양동 토박이

서울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고양시의 가장 동쪽 마을 동산동에 의미 있는 공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고양 밥 할머니 공원이다. 1990년대 고양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대형쇼핑몰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적하던 작은 동네에도 개발붐이 일었고 밥 할머니 석상이 있던 자리에는 통일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들어서면서 석상 또한 인근 마을로 이전을 하였다. 이 지역에서 6대째 살고 계시는 김형만 어르신을 만났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연못 공원

올해로 84세를 맞이하신 어르신은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10여 년을 당시의 토지공사와 고양시청을 찾아다니면서 고양시의 역사적 인물인 밥 할머니 석상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번의 이전 끝에 지금의 공원에 자리 잡기까지 한 지역의 주민과 토박이로서 헌신을 다하신 모습은 땅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의 선물이라 할 것이다. 지금의 이곳은 주민 누구라도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행복한 휴식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지역 주민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공원이 자리하기까지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토지에 대한 욕심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는 땅을 가꾸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오늘도 밥 할머니 공원을 지키시는 김형만 보존회장

2. 고양시 집성촌 마을 이야기

고양시 서북쪽 대화리에는 김녕김씨 충의공파 종중이 모여 사는 집성촌 마을이 있다. 약 400여 년 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아오고 있는 이 마을은 1970년대 전성기 시절 약 470여 세대 1,500여 명이 한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왔으나 1988년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80%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고향 땅에 남아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묘소는 인근 지역으로 이장을 하였고 많은 종친들은 뜻하지 않게 뿔뿔이 흩어졌다. 도시의 개발은 토지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와도 직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성촌으로 살아온 전통마을이 붕괴되는 현실을 낳기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온 이곳 김씨 문중은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두 종목이나 받았다.



문중의 장손이 살았던 집터에 들어선 경기도무형문화재 기념비

3. 고양시 최초의 꽃 농사를 시작한 사람

고양시의 대표적 농산물 중에 한때 가장 활발하게 경제를 이끌던 하훼산업에 앞장섰던 故김낙주님은 1960년대 서울 역촌동이 개발되면서 농사지를 땅이 사라지자 고양으로 들어온 이주민이었다. 당시 고양 일산지역은 주로 벼농사나 채소농사 중심이었고, 고가의 사치품인 꽃을 재배한다는 것에 비판적 시선이 우세했다. 지금은 파이프로 된 비닐하우스로 사계절 농사를 짓지만, 그 당시에는 하절기에 농사를 짓고 겨울 농사라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할 때였다. 故김낙주씨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나무로 지은 비닐하우스를 개발하여 카라와 금잔화를 키우셨고 비닐하우스에 공기통을 만들어 온도를 조절하고, 벚짚을 이어 만든 거적을 이용한 보온덮개로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닐하우스

는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잦은 비를 막아주어 꽃의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1974년부터는 연탄난로를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여 온도를 높여 꽃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성장 시기를 앞당기고 제철이 아닌 시기에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故김낙주씨는 국화에 관심이 많았고 국화 키우기에 정성을 쏟았다. 소국으로 자랄 국화의 결순을 따서 대국으로 키워냈다. 전기 불빛과 검은 차광막을 이용하여 빛을 조절하여 꽃의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였다. 제철생산만 가능한 벼농사와 채소 재배의 단점에 비해 꽃은 온도만 맞추면 1년 내내 재배와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특별한 작물이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지역의 화훼농업에 앞장선 결과, 고양에서 생산하는 선인장은 세계 유통 물량의 80%를 차지했고, 고양시의 시화(市花)이자 주력 화훼산업 중 하나인 장미는 국내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었다. 고양시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고 꽃이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이뤄낸 결과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신도시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려오자 농사짓는 흙이 토지로 바뀌는 현실에서 자연의 생명은 콘크리트 건물의 무게에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었다. 농사짓던 그 땅 위에 들어선 고층아파트를 바라보며 지역이 발전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인구와 산업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땅은 정직하다” “꽃은 내 자식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 키워야 한다.” “한 평의 땅이라도 내 땅이 있어야 한



젊은 시절 꽃 농사를 함께 했던 마을 사람들과 故김낙주씨(맨 오른쪽)



1981년 비닐하우스에서(부인 김옥자 여사)

다.”며 50평생을 땅에 대한 애착과 꽃에 대한 정성,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특화와 발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의 투철한 신념과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故김낙주님께 고양시민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IV. 나오며

고양을 지나는 도로와 하천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한 이번 조사결과 내가 알고 있던 길이 아니었고 물길 또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사람만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과 개발중심에서 주도권을 잃은지 오래지만 길도 다른 곳으로 이어져 가길 바랐고 물 또한 합쳐지기를 원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땅과 물,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구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은 원래부터 없었다.



07

군포 대야미지역 개발로 사라지는 자연마을 연구

도형래

들어가며
가마타고 가다가도 인사를 드리던 지체높은 대감이 살던 마을
수리산 한 자락을 배후에 두고 죽암천이 둘러 흐르는 대감마을
청송 심씨 찰방공파가 400년 세거한 대감마을
병풍처럼 두른 산이 도시의 혼탁함을 가리는 안골마을
산신제, 호미걸이 대동회, 천렵...마을 공동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상여를 지는 마을
마을 함께 만든 둔대초등학교
“개발...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할말은 없지만 먹먹하다”
400년의 기억은 어디로?



들어가며

군포 대야미지역은 5000여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부지 내 역사 오랜 자연마을이 사라지게 된다.¹ 대감(죽암)마을, 복개마을, 안골 등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부지로 편입돼 사라지는 자연마을이다.

군포 대야미지역은 군포시가 지난 2017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환경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올해 7월에는 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구계획에 포함된 마을 주민을 이주시키고 올해 초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개 개발계획이 그러하듯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발 사업자인 LH와 주민들 간의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인근 수리산 도립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어 아직 지역 환경단체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을 알려졌다.

주민들은 LH로부터 내년 상반기에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을 마치겠다고 통보받았다. 때문에 주민들은 LH와 보상과 관련한 협상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400년을 넘게 터를 잡아온 마을이 해체되고 삶 터를 옮겨야 한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 대감마을, 안골, 복개마을 등 개발로 사라지는 자연마을은 대대로 자리를 지켜온 집성촌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상실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감마을과 안골은 각각 청송 심씨와 광산 김씨가 400년을 살아온 곳이다. 조상

들의 선영이 마을 뒷산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모내기를 마치고 농사일에 한숨 돌리는 여름 대동회를 하고, 가을걷이를 마치면 함께 산신제를 지내오며 우애를 다져왔다.

가마타고 가다가도 인사를 드리던 지체높은 대감이 살던 마을



죽암마을 표지석



대감마을 전경



대감마을 입구

대감마을은 한자말로 죽암(竹岩)마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마을 입구 표지석에도 죽암마을이라고 쓰여있다. 마을 이름으로 대감과 죽암을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대감’과 ‘죽암’ 가운데 어떤 말이 더 적합한 지명인지 묻자, “대감마을”이라고 답했다. 대감마을 심재각 씨는 지명유래에 대해 “우리 마을에 인망이 높은 분, 즉 대감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셔서 가마를 타고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도 그분께 들러 꼭 인사를 드렸다고 해서 대감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또 심재각 씨는 또 다른 이름인 죽암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앞을 지나가는 대감천의 다른 이름이 죽암천”이라며 “여기에서 유래된 지명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마을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온 지명유래와 군포시사 등 쓰여진 지명 유래와는 차이가 있었다.

1999년 군포시가 발행한 ‘군포시사’는 대감마을 ‘대암마을’이라고 표기하며 “북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바위(大岩)가 있다”고 썼다.² 군포시가 2010년 재발행한 ‘군포시사’는 대감마을을 ‘죽암마을’이라고 표기하며 “둔대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북방면광무안양(1900)에는 죽암(竹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군포시사는 대감마을의 지명유래에 대해 “이곳에 훌륭한 죽림(竹林, 대숲)이 있어서 생긴 지명이라고 한다”면서 달리 ‘대감’이라고도 한다. 대는 죽(竹)을 차자(借字)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³ 2010년 군포시사는 1999년 발행한 군포시사에서 대암이라고 표기한 데 대해 “큰 바위가 있어서 ‘대암(大岩)’이라 불리다

가 대감으로 바뀌었다는 설과 대감들의 행차가 잦아서 ‘대감’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2010년 군포시사가 내놓은 지명유래는 1987년 경기도가 발행한 ‘지명유래집’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를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⁴

반면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가 발행한 ‘군포시의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는 대나무(竹)에서 마을 이름 ‘죽암(竹岩)’의 유래를 찾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는 “이 지역은 대나무 북방한계 자생지의 이북이 된다”고 밝혔다.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는 “대감천의 서쪽 마을로서 큰 바위가 있어서 대암->대감이 되었다는 설과 옛날 대감들의 행차가 잦아서 대감이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고 제시했다.⁵

또 다른 일설로는 대감마을 뒷산에 대나무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죽암마을이 됐다고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포시사 등의 문헌에서 말한대로 큰바위(대암, 大岩)이나, 근처에 대나무 숲(竹), 또는 대나무를 닮은 바위(죽암, 竹岩)가 있는냐는 물음에 뒷산이난 주면에서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찾은 마을 뒷산에는 청송 심씨 선영이 자리잡고 있고 눈에 띄는 바위(岩)나 대숲은 찾을 수 없었다.

대감마을 인근에서도 판서골, 학자골 등의 지명이 전해져 내려온다. 판서골은 대감마을을 휘돌아 흐르는 죽암천 상류 갈치저수지 서쪽을 일컫는 지명이다. 학자골은 현대 없는 지명으로 지역 민담, ‘학자골에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곳이다. 학자골은 대감마을 맞은편에 있었다고 한다. ‘학자골에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는 너무 많은 손님과 그 대접 때문에 골치를 알던 학자골의 부자가 시주 받으려온 스님에게 손님을 그칠 방도를 묻고 ‘학자골로 넘어오는 골짜기에 돌담을 치면 손님이 그칠 것’이라는 답변을 그대로 따랐다 망했다는 내용이다.

대감마을과 학자골, 판서골 등의 지명은 인근 속달마을 정난중 선생 종택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산 한 자락을 배후에 두고 죽암천이 둘러 흐르는 대감마을

대감마을은 죽암천을 앞에두고 수리산과 맞닿은 우래산(雨雷山)의 한 자락을 뒤에 두고 자리를 잡았다. 마을의 자리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 형태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죽암천은 대야미벌(큰베미)을 가로지르고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대대로 논밭을 일궈왔다.

뒷산, 우래산은 지명유래 민담이 전해진다. 옛날 우래산이 지금의 수리산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수리산이 있어서 ‘울고 돌아섰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우래산 지명유래 민담으로는 “천지개벽때 이 산이 반월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태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태미산이 먼저 앉았으므로 울면서 이곳에 앉았다”는 얘기와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월곡동)에 도읍을 정하려고 하는 데 태미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울면서 밀려와 이곳이 앉았으므로 도읍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다”는 등이 내려온다. 우래산은 인근에서는 안산이라고도 부른다. 풍수지리상 배후에 있다는 뜻인 ‘안산(安山)’으로 풀이된다.

대감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대야미벌에서 농사를 지었다. 대감마을을 끼고 흐르는 죽암천은 인근 수리산 자락에서 발원한다. 마을 위치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밑 논베미’를 귀하게 여긴 조선시대 사대부의 터라고 할만 하다. 1984년 죽암천 상류에 갈치저수지가 조성됐다. 이 때문에 대감마을 인근의 농지는 근래 들어서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 수리안전답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대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59집 가운데 40여집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심재각 씨는 “예전부터 농사짓던 마을”이라며 “(도시와 가까워) 다른 마을에서는 주말농장도 내어주고 하면서 농사 안짓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마을은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말했다.

청송 심씨 찰방공파가 400년 세거한 대감마을

대감마을은 청송 심씨 찰방공파 자손들이 15대조 이전부터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다. 입향조 심인기와 조상들의 묘소가 마을 뒷산을 비롯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대감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대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다수가 청송 심씨다. 심재각 씨는 “마을에 현재 59호가 살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0가구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라고 말했다. 심재각 씨는 “들어온 분 가운데도 시집갔던 할머니가 가족과 함께 대감마을로 돌아와 정착한 경우도 있다”면서 “심씨가 아니라고 해서 다 외지인은 아니다”고 전했다.

청송 심씨는 언제부터 대감마을에 정착하게 됐을까? 입향조 심인기는 종손인 87세 심귀일 씨의 15대조다. 대략 400년 전후로 대감마을에 청송 심씨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안골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광산 김씨 종손 김선학 씨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며 “족보를 보면 생물이 나온다. 그걸 보면 선조, 인조 이후에 자리를 잡았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감마을은 청송 심씨가 집성촌이기도 하지만 대야미 일원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심재각 씨는 “군포로 편입되기 이전 대야미역이 들어서면서 이곳을 대감속달지구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대감마을이 인근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8년 수도권 전철 4호선 대야미역사가 들어선 이후로 주변이 개발하면서 인근의 중심지가 역사 주변으로 옮겨갔다. 현재 군포에 ‘대감마을’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별도의 행정구역이나, 법정동은 없다.

병풍처럼 두른 산이 도시의 혼탁함을 가리는 안골마을

대감마을 뒷산 고개를 넘으면 안골마을이 있다. 안골은 그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감마을 너머에 위치한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대야미벌에서 안골로 들어가는 길인 ‘호수로 211번길’은 아직도 1차선 농로길과 다름없다. 양쪽으로 늘어선



대감마을에서 안골마을로 가는 길

계단식 논 사이로 한참을 들어가야 안골마을이 나온다.

안골마을, 대감마을, 복개마을 등을 포괄하는 둔대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오중 씨는 “열두가구가 안골에 산다. 이 가운데서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집이 세 집이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 한 집은 대감마을에서 고개를 넘어온 청송 심씨네 집이다. 북개마을도 청송 심씨가 늘어나면서 대감마을 인근에 새롭게 들어선 마을이다.

안골은 광산 김씨가 세거한 마을이다. 안골 광산 김씨 종손인 김선학 씨는 “농사만 짓고 사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록이 없다”면서도 “족보를 보면 16대, 17대 전에 (안골마을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김선학 씨는 “처음 두 분 할아버지가 길건너 송정마을에 살다가 안골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며 “두분 묘소는 송정마을에 있다”고 말했다.

안골마을은 고개 넘어 대감마을과 같이 우래산은 뒤에 두고 자리를 잡았다. 우래산에 내려온 안골천이 마을 옆을 지난다. 안골천을 사이에 두고 우래산 아래 논들이 나지막한 계단처럼 이어졌다. 반월호수길을 너머로 자리한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소음이 안골에서는 산 사이에 막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병풍 처럼 마을을 두른 산이 외부의 혼탁함을 막아주는 모양새다. 안골마을은 수도권 호젓한 곳에 흔히 보이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없다. 단지 10여 가구가 단출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서울과 먼 농촌 마을을 온 느낌이다. 도시 인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안골마을 김선학 씨는 마을의 지리에 대해 “풍수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좌청룡, 우백호니, 관산이 어떻고, 안배가 어떻고 하는 걸보면 좋은 자리인 모양”이라며 자랑스레 말했다.

산신제, 호미걸이 대동회, 천렵…마을 공동체

대감마을과 안골마을, 북개마을은 농촌 마을의 특성인 공동체 문화가 잘 보존돼 오고 있다. 음력 10월 산신제, 여름 호미걸이 대동회, 천렵 등이 공동체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다. 산본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 5km도 안 되는 곳에 회색 도시와는 상반된 공동체 문화가 있는 농촌마을이 있는 셈이다. 큰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인 만큼 대감마을과 안골마을도 산신제를 지낸다. 한 해 농사를 마친 음력 10월에 지내 왔다.



1970년 '둔대두레농악 길쌈짜기 대동놀이 (군포시민신문)

안골마을 김선학 씨는 “동네 재정이 없고 어려운 시절에는 집집마다 쌀을 한, 두 되씩 걷었다. 어려운 집과 수고로운 집은 뺐다”며 “그걸로 떡하고 조라술(산신제 때 쓰는 술)을 빚었다. 아무리 없어도 소머리 하나는 올렸다”고

말했다.

김선학 씨는 “제관은 동네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집이 평안하고 우환이 없고 정갈한 집을 선정했다”면서 “모두 합해 5~60호 사는 동네에서 그런 집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회상했다.

산신제 제관으로 정해진 사람은 10여일 전부터 집 안에서 근신을 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했다고 한다. 김선학 씨는 “집 앞에 황토흙을 쌓아 놓고 형제지간의 출입도 안했다”면서 “(제관은) 밖으로 나다니지도 않고, 고기나 비린 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학 씨는 준비하는 게 어려워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대개) 안 하려 드는 데 동네에서 정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서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생전 죽을 때까지 한 번 못한 사람도 있다. 지금도 그런 집이 있다”고 답했다.

김선학 씨는 ‘다른 마을은 어떨지 모르겠다’ 면서도 대감마을, 안골, 복개마을 산신제 축문에는 복을 비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학 씨는 “우리 마을 산신제에는 산신령께 한 해 동안 도와줘 고맙고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 복 달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모내기를 마치고 한 여름 풀뽑기가 끝나면 대감, 복개, 안골이 모두 모여 호미걸이 ‘대동회’ 잔치를 벌인다. 김선학 씨는 “벼농사하면서 모내고 여름에 풀 뽑고 나면 한 고비를 넘긴다”면서 “그 때 호미걸이 대동회를 한다”고 말했다. 김석한 씨는 “오래간만에 농사일 접어두고 술도 많이 마시곤 했다”고 회상했다. 대동회는 9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마을을 나가고 어르신들만 자리를

차지면서 대동회가 시들해졌다. 김선학 씨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데, 몇 안된다”면서 “농사 짓다 이사 나간 사람들도 있고, 집을 비운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감마을 심재각 씨는 “안골에 넘어가서 여름에 천렵도 많이 했다”면서 “안골 천에 가면 미꾸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미꾸리라고 부르는 특이한 게 있다. 그 걸 잡아다 천렵을 했다”고 회상했다. 심재각 씨는 “천렵을 하러 갔다가도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또 심재각 씨는 “여름에 비가 오면 솜으로 불방망이를 만들어 마을 앞 죽암천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며 “어린 시절에는 땅벌집을 찾아 애벌레를 볶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골과 대감마을, 그리고 두 마을을 잇는 고개 한편에 있는 복개마을은 예전부터 한 마을처럼 살았다. 대감마을 심재각 씨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안골로 고갯마루에 종이 있었다”면서 “불이 나거나 하는 큰 일이 마을에 생기면 종을 쳐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상여를 지는 마을

대감마을과 안골마을은 모두 집성촌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상례문화가 아직 남아있었다. 지난해 대감마을에서 어르신 한분이 작고하자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대감마을 상여 (사진 제공, 대감마을 심재각 씨)

모아 상여를 졌다. 지금도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상여집이 남아 있다.

대감마을 심재각 씨는 “지난해 마을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상여를 졌다”며 “상여를 지고 마을 돌아 갈치저수지 옆에 있는 선영에 모셨다”고 말했다.

안골마을 김선학 씨는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다 상여를 댔다”면서 “아직도 마을에 상여를 두는 상여집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학 씨는 “상이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 사나흘 동안 일을 했다”면서 “집에서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상주집이 다 못하니 다가서 돕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선학 씨는 “상여는 이제 틀렸다. 상여 한쪽에 4~5명 씩, 모두 열댓 명이 있어야 상여를 지는 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지내고, 화장하고 하니 그런 상여메는 게 드물어 졌다”고 전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1년 발간한 ‘한국인의 일생의례’ 군포시편에서는 대감마을의 상례에 대해 기술하며 “죽암(대감)마을은 청송 심씨 일가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상례와 관련된 조직은 따로 없었다”고 기술⁶했지만 대감마을과 안골마을 사람들은 상조회를 구성하고 상여집을 두어 상여를 관리해왔다. 김오중 이장은 “상조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적어져 그렇지 있을 건 다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가 2008년 발행한 ‘대야동 마을지 ; 주민의 삶과 이야기’는 대감, 안골, 복개마을에서 상조회가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⁷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등이 주민들에게 도로를 넓히기 위해 땅을 내놓으라고 해도 불만이 없었다고 한다. 대감마을 마을회관이 만들어 진 때도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이다. 당시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공급해 주었고, 주민들은 산에 가서 필요한 나무를 베어오고, 벽돌을 찍어서 마을회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재산인 셈이다.

마을 함께 만든 둔대초등학교

[둔대초등학교 개교유래비]
 고개 넘고 징검다리 내를 건너
 먼 길 (반월) 걷는 어린이들 애처로워
 청송 심씨 찰방공 손 심진억 님
 학교 터 주시고
 둔대, 속달, 대야미 온 마을 주민들
 배움 터 닦아 세운 학교



둔대초등학교

고사리 손 돌 줍고 나무 심어
인재배출 이어질 둔대 동산 열었네.

둔대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개교유래비’의 내용이다. 둔대초등학교는 대감마을 청송 심씨 심진억 씨가 기증한 터에 세워졌다. 이전까지는 반월로 걸어서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반월초등학교까지 거리는 3km 가량, 초등학생이 걷기는 힘든 거리다. 둔대초등학교는 1964년 반월국민학교 둔대분실로 시작해 1967년 정식 분교가 됐고, 1970년 둔대국민학교로 독립했다.

김오중 이장은 “둔대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올해 예순둘”이라며 “둔대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반월로 다녔다”고 말했다. 김오중 이장은 “여기서 반월국민학교까지 거리가 2.8km, 3km 정도 된다”면서 “여기서 삼천리골로 해서 논사이를 걸어 걸어다녔다”고 말했다.

둔대초등학교가 지어질 당시 심진억 씨가 땅을 희사했지만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다지는 일은 개교유래비에서 나타나듯 “둔대, 속달, 대야미 온 마을 주민들이 배움 터 닦아 세웠다”고 한다. 대감마을 한 주민은 “아이들은 공부하면 어른들이 모여 운동장에 흠을 메우고 돌을 골랐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에게 둔대초등학교는 일종의 자부심이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한 주민은 “분교가 아니라 정식 국민학교로 인가를 받기위해 마을주민들이 지청(교육지청)에 매일 같이 몰려갔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청송 심씨가 가장 큰 마을인 대감마을을 이루다 보니 지역 사회에서 청송 심씨의 역할 컸던 것으로 보인다. 책 ‘대야동 마을지 ; 주민의 삶과 이야기’는 “둔대초등학교와 노인 회관 토지도 모두 청송 심씨가 희사하였을 만큼 인근에서 청송 심씨 문중의 세가 컸다”고 전했다.⁸

둔대초등학교를 졸업한 심재각 씨는 “(내가 다닐 때) 한반에 56명이었다”면서 “그래도 화성군 체육대회(당시 대야미동 일원은 화성군에 속했다. 1994년 군포시로 편입됐다)를 가면 금메달을 따왔다. 그게 당시에는 큰 자부심이었다”고 회상했다.

중학교부터는 반월로 다녀야 했다. 심재각 씨는 “동네 형님들하고 걸어 다니기도 했고, 하루에 세 번 다니는 6-3번(지금은 없어진 노선) 6시 50분 첫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개발...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할말은 없지만 먹먹하다”

대야미벌에 기대 400년간 땅을 일구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마을이 자리한 곳에 5444세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대감마을 심재각 씨는 “동네가 없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어르신들이 평생의 추억이 없어진다. 그게 아쉽다. 씁쓸하다”고 말했다. 심재각 씨는 “여기서 나고 자랐고, 내 아이들도 여기서 나고 컸다”면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대야미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심재각 씨는 “(현재 대감마을에 살면서) 아이들이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와야 한다”면서도 “정작 떠나야 한다니 처음에 좋아하던 아이들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골마을 김선학 씨는 “마을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말할게 없이 마음이 울컥한다”며 “평생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디를 가겠나”고 탄식했다. 김선학 씨는 이주 계획을 묻는 말에 “갈 곳도 없고, 아직 갈데도 안 정했다”고 답했다.

대감마을, 안골, 복개마을 주민들 가운데 아직 이주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사람은 없다. 이주비나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개발사인 LH와 토지보상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주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개발에 대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하면서도 정작 나고 나란 곳, 평생의 추억이 어린 곳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아 보인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군포시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를 했고, 12월 전량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공고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2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지정고시했다. 현재 토지보상, 이주 계획 등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LH공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LH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과 이주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400년의 기억은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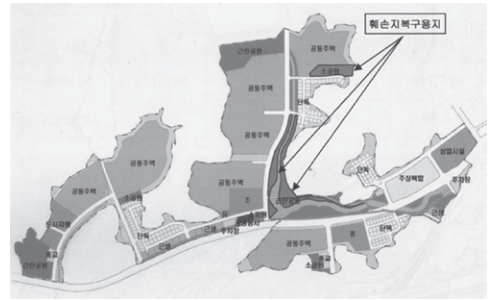
대감마을, 안골, 복개마을 주민들은 LH와 토지보상과 이주 계획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다소 외진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 지난 해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지역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개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수리산 도립공원과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대단위 개발로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상을 받고 이주를 계획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대다.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과연 5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접어두고 주민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으면 이주와 공사 착공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평생을 살아온 손 때 묻은 집과 추억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힘겹다.

주민들을 이해하면서 이들에게 ‘기억에 대한 기록’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이 개발로 사라지지만 있었다는 기록, 마을에서 살았던 추억의 잔재라도 남겨야 주민들의 아쉬움과 탄식을 조금이나마 달래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각 씨는 “어르신들이 평생의 추억이 없어진다. 그게 아쉽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과 마을에서의 삶과 추억의 기록이 남아 남길 수 있게 ‘기록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1일과 29일, 대감마을, 안골마을, 복개마을을 찾았다. 21일에는 대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심재각 씨(46세), 24일에는 안골마을에 살고 있는 김오중 둔대리 이장, 광산 김씨 종손, 김선헌 씨를 만났다.

아래는 심재각 씨와 김오중 이장, 김선헌 씨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감마을 심재각 씨 인터뷰]

“하늘미꾸리 잡아 천렵하던 마을…떠나야 한다니 먹먹하다”

질문: 대감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나?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 알고 있다.

심재각: 마을에 59호 정도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10호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이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다. 지금도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업으로 하고 있다. 주말농장을 내주시는 분은 몇 분 안된다. 마을 크기로 따지면 대감마을 70, 안골 20, 북개마을 10 정도된다. 예전에도 대감마을이 가장 컸다.

질문: 마을 이름 유래가 분분하다. 어느 책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대감마을이라고 했다가 대감마을이라고 변했다고 하고, 대숲이 있어서 죽암마을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죽암, 대나무 닮은 바위가 있어 대암(죽암)마을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어느 게 맞나?

심재각: 마을 어르신들이 잘 아실 것. 내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에서 지체 높은 대감님이 계셨다. 우리 마을에 주변에 인망이 높은 분, 즉 대감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셔서 가마를 타고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도 그분께 둘러 꼭 인사를 드렸다고 해서 대감마을이 됐다고 한다.

죽암마을이라고도 하는데 맞기는 맞다. 마을 앞에 흐르는 죽암천 때문이다.

질문: 마을 입구 표지석에는 죽암마을이라고 돼 있다. 죽암과 대감 어느 이름이 더 적합하고 생각하는지?

심재각: 마을 유래에 따라 대감마을이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질문: 마을 둘러싼 산을 보면 묘소가 많다. 문중 선영인가?

심재각: 마을에 묘가 많은데 청송 심씨 선조들을 모신 자리다. 선조들의 묘는 마을에 종손이 있어 종종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제도 매년 모신다. 지난 해에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매기도 했다. 상여는 대감마을에서 갈치호수까지 돌았다. 돌아가신 분은 선영에 모셨다.

질문: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전할게 있다면?

심재각: 마을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6.25 전쟁으로 수리사 절이 손실이 됐던 적이 있다. 마을 어른들이 나서서 재건사업을 도왔다. 지금은 돌아

가셨지만 마을 어른들 가운데 대목장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수리사를 다시 지었다고 한다. 당시 대목장 어른이 수리사를 짓다 사다 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일도 있다고 한다.

질문: 청송 심씨 문중에서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둔대초등학교도 문중에서 희사한 땅에 지어진 게 아닌가?

심재각: 둔대초등학교는 반월초등학교 분교로 시작을 했다. 부지는 청송 심씨 문중에서 희사했다. 처음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운동장이 없어서 마을사람들이 가서 돌을 고르고, 흙을 매웠다고 한다.

질문: 둔대초등학교를 나왔나?

심재각: 둔대초등학교를 나왔다. 소풍을 가면 항상 수리사로 갔다. 초등학교 때, 딱 한 반만 있었다. 74년생 가운데 졸업한 사람은 모두 56명이다. 그래도 화성군 체육대회를 가면 금메달을 따왔다. 그게 당시에는 그게 큰 자부심이었다.

질문: 중학교는 다들 어디로 갔나?

심재각: 중학교는 반월중학교로 갔다. 형님들하고 삼천리골을 지나 걸어 다녔다. 도시락은 밥과 고추장만 챙겼다. 가는 길에 밭에 있는 깻잎, 상추, 고추를 따다 반찬 삼았다. 버스를 타고 가면 6-3번이 있었다. 하루 세 번 밖에 안다니다 보니 6시 50분 버스를 놓이지 않기 위해 전쟁이었다. 군포로 편입되고도 한 삼년 정도 운행하다 없어진 걸로 기억한다.

질문: 대감마을, 안골마을, 복개마을 세 마을이 한데 뭉쳐있다. 각각 거리가 조금씩 있는 모양새다. 화합은 어떤가?

심재각: 대감마을이나 안골마을이나 집성촌이지만, 여기서 저기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보니 거의 한 마을이나 다름 없다. 대감마을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길 마루에 종이 있었다. 불이 나거나, 마을에 큰일이 일어나면 종을 쳐서 세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종소리가 들리면 마을에 무언가 일이 났구나하는 생각하는 거다.

질문: 대감, 안골, 복개 세 마을 함께 하는 게 있나?

심재각: 음력으로 10월에 산신제를 지낸다. 마을사람들이 모여 천렵도 하고 했다. 안골에 넘어가서 여름 천렵을 많이 했다. 안골에 가면 미꾸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미꾸리’라고 부른다.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종인 것 같다. 그걸 잡아다 천렵을 했다. 천렵을 하러 갔다가도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리를 피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솜으로 불방망이를 만들어 마을 앞 죽암천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땅벌 벌집도 찾아 애벌레를 볶아 먹기도 했고, 어른들에게 팔기도 했다. 안골마을에 웃안골이 있는데 거기에 선녀탕이 있다. 거기서 목욕을 많이 했다. 낮에는 우리가 씻고 밤에는 아줌마들이 씻었다. 지금은 시멘트 길이 나면서 형태만 남아있다.

질문: 개발로 마을이 사라진다.

심재각: 동네가 없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어르신들이 평생의 추억이 없어진다. 그게 아쉽다. 쓸쓸하다. 나도 여기서 나고 자랐고, 내 아이들도 여기서 나고 컸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이주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현재 모습대로 마을이 보존돼 있을 거다.

질문: 이주계획은 있나?

심재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대야미를 떠나고 싶지 않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수용지 밖에 땅을 가진 분들도 많다. 멀리 갈 수 없다.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와야 한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개발이 된다고 하니 이사 가냐며 좋아했다. 이제는 철이 들었는지 좋아하던 아이들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한다.

[안골마을 김오중, 김선헌 씨 인터뷰]

“왜란, 호란 피해 낙향…400년을 지킨 마을”

심재각 씨를 만난 며칠 뒤, 김오중 이장님과 김선헌 씨를 한 자리에서 만났다. 당초 김오중 이장님만 뵙고자 청했지만, 마을에 유래나 얹힌 이야기는 안골마을 광산 김 씨 종손인 김선헌 씨가 “더 잘 아실 것”이라며 모셔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

질문: 안골마을은 몇가구가 사나?

김오중: 열두 가구가 안골에 산다.

질문: 모두가 광산 김 씨인가?

김오중: 외지에서 들어온 집이 세 집이 있다. 그 중에 한 집은 대감마을에서 고개를 넘어온 청송 심씨네 집이다.

질문: 어떤 일을 하시나?

김오중: 거의 다 농사를 짓는다.

김선학: 예전에는 나라에서 양반가에 사패지를 나눠주면 이만치는 내거다 해서 관리를 했다. 그걸 수조권이라고 한다. 양반은 일 안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득 일부를 받아먹었다. 그때는 대대로 선조 모신 자리니까 내꺼, 내가 농사를 지어왔으면 내꺼 했다. 소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 일제가 들어와 1910년 세부측량을 하면서 금을 딱 그어 니꺼 내꺼 소유를 명확히 했다.

질문: 안골에는 광산 김씨가 고개 넘어 대감에는 청송 심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언제부터 모여 살았나?

김선학: 광산 김씨와 청송 심씨들이 언제 낙향을 했는지 기록은 없다. 농사만 짓고 사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남은 기록도 없다. 그래도 족보를 보면 16대, 17대 전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추측하건데 선조, 인조 때 임진왜란과 9년 뒤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낙향을 했을 것 같다. 족보를 보면 돌아가신 날이 나오니 그즈음으로 생각된다.

질문: 선조들이 안골마을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나?

김선학: 여기에 자리잡기 전에는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안골에 오기전 2대가 건너 송정마을에 살았다.

질문: 세 마을이 모여 산신제를 지낸다고 들었다. 다른 마을과 다른 특징이 있나?

김선학: 추수를 하고 음력 10월 산신제를 지낸다. 바로 앞에 있는 우래산에서 지낸다. 산신제는 이어지면서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되는 수도 있다.

우리 마을은 산신령께 올 한해 잘 보내게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산신제를 지낸다. 축문에는 산신령께 한 해 동안 도와줘 고맙고 감사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 내용이 없다. 뭘 기원하거나 복을 빌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마을재정이라는 게 없으니 집집마다 쌀 한 되, 두 되 씩 건었다. 어려운 집과 수고 많은 집은 건지 않았다. 건은 쌀로 떡도하고, 밥도 하고, 조라술도 담았다. 없어도 제사상에 소머리는 올렸다.

동네에서 제일 모범될 만한 사람을 하나 골라 제관을 시켰다. 그 사람은

나쁜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동안 집에서 근신을 했다. 비린 거나 고기도 먹지 않고, 평상시 쓰는 우물이 아닌 깨끗한 곳의 물만 사용해 밥을 짓고 목욕을 했다. 집에는 황토를 쌓아 식구 외에는 일가친척도 드나들 수 없도록 했다.

질문: 제관을 하기 어렵다.

김선학: 그러니 마을사람들이 제관을 잘 안하려 들었다. 그래도 마을에서 정하면 명이라 생각하고 제관을 해야만 했다. 생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하는 집도 있다.

질문: 산신제 말고 세 마을이 같이 하는 게 있나?

김선학: 대동회라고 있다. 벼농사하면서 모내고 여름에 풀뽑고 나면 한 고비를 넘긴다. 그 때 호미걸이 대동회를 했다.

대동회날은 농악을 두드러가며 오래간만에 농사일 접어두고 술도 많이 마시고 했다.

요즘은 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없고 해서 안한다.

질문: 대동회는 언제까지 했나?

김오중: 대동회는 90년대 초까지도 이어졌다.

김선학: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데, 몇 안된다. 농사 짓다 이사 나간 사람들도 있고, 집을 비운 사람들도 있다.

질문: 지난해 상여를 졌다는 말을 들었다. 아직도 그런 상례가 내려오나?

김선학: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다 상여를 댔다. 상이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 사나흘동안 일을 했다. 집에서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상주집이 다 못하니 다가서 도왔다.

마을에 상여를 두는 상여집이 있다. 예전에는 가건물 처럼 허름했는데 지금은 콘테이너에 넣어뒀다. 그런데 상여는 이제 틀렸다. 상여 한쪽에 4~5명, 열댓명이 있어야 상여를 지는 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지내고, 화장하고 하니 그런 상여메는 게 드물어 졌다.

김오중: 마을에 상조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적어져 그렇지 있을 건 다 있다.

질문: 둔대초등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오중: 초등학교는 반월국민학교 둔대분교가 3~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1970년에 인가를 받았다. 둔대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올해 예순둘이

다. 둔대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반월로 다녔다. 여기서 반월국민 학교까지 거리가 3km, 2.8km 정도 된다. 여기서 삼천리골로 해서 논사 이를 걸어 걸어다녔다. 애들이 다니기는 한참 먼 길이다.

질문: 중학교 이후로는 어디로 갔나?

김오중: 중학교는 반월중학교로 갔고 그 뒤로는 안양, 안산, 수원으로 나 갔다.

질문: 마을이 개발로 없어진다.

김선학: 마을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말할게 없이 마음이 울컥한다. 갈 곳도 없고, 아직 갈데도 안 정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디를 가겠나.

주석


- 1 군포시민신문,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00세대 늘려' 5,444호 건설, "당초 LH가 계획한 개발계획은 4800여 세대 였지만 5444세대로 늘었다" <http://www.mediagunpo.co.kr/8022>
- 2 군포시(1999), 군포시사, 948p
- 3 군포시(2010), 군포시사 별책1 군포길라잡이, 140p
- 4 경기도(1987), 경기도 지명유래집, 337p
- 5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2004),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157p
- 6 국립문화재연구소(2011), 한국인의 일생의례 (경기도편), 491p
- 7 군포시(2008), 대야동 마을지 ; 주민의 삶과 이야기, 181p
- 8 군포시(2008), 대야동 마을지 ; 주민의 삶과 이야기, 23p



08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한 생활상 변화와 전망

최진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동탄2신도시의 일곱가지 테마
 3. 동탄 4동~동탄 7동
 4. 동탄2신도시의 개발과 생활상의 편익
 5. 동탄2신도시 바람직한 생활상의 전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도시(new town)는 광의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를 의미하나, 협의로는 ‘새로이 개발된 독립된 도시’를 의미하며, 이를 지칭하는 유사한 용어로는 신지역사회(new community), 도시 내 신도시(new town in town), 위성도시(satellite town) 등이 있다.

신도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와는 구별된다. 신도시는 생산이나 유통 및 소비의 기능을 골고루 갖추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담을 그릇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그릇을 잘 빚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생애 최고의 행복을 꿈꾸며, 이러한 소중한 꿈을 갖고 찾아든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동탄2신도시가 있다. 화성시의 동부권에서 진행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는 흔히 북,동,남동탄으로 나누어 불리고 있다. 이는 2기 신도시 사업 중 가장 넓은 신도시이다.

동탄2신도시는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6갈래의 자연 물길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분당의 1.8배 규모이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다. 서울에 집중된 교통과 경제의 축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주택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주거 및 문화 거점 도시로 푸른 자연환경과 일과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마련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해 2019년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완료했고, 입주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현재도 건축 중인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 완전한 도시의 모습으로 완공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시간이 지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나고 들게 마련이다.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농촌형의 과거의 모습이 떠나간 자리에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 모습들은 과거라는 이름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의 지역의 모습과 변해가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도시에서 사람들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동탄2신도시의 일곱 가지 테마

동탄2신도시 규모는 24만 km^2 로서, 먼저 조성된 근처의 동탄1신도시(9만 km^2)와 동탄 일반산업단지(2만 km^2)까지 합치면 35만 km^2 로 대한민국의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30%에 달하는 녹지율에서 보이듯이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간에게 유익한 삶을 계획하고 있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 구상도 (동탄LH 사업본부)

는 동탄2신도시는 일곱 가지 특별한 테마를 갖고 만들어질 계획이다.

- 1)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한국적 신도를 상징하는 커뮤니티 시범단지 조성
- 2) 글로벌기업의 본사와 지사를 유입하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 3) 실용음악, 미디어, 뮤지엄 테마 등 젊고 활기찬 문화디자인 밸리
- 4) SRT, GTX로 역동적인 첨단비즈니스 허브도시 동탄테크노 밸리
- 5) 주거 및 쇼핑 레저활동이 가능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조성
- 6) 미래형 정주를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신주거문화타운
- 7) 고품격 실버타운

7가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계획된 동탄2신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옛 모습과 새로운 변화상을 우리 삶에 비춰 살펴보고자 한다.

3. 동탄 4동 ~ 동탄 7동

화성시는 경기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시로서 면적이 693.92㎢로 경기도 내에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화성이 시로 승격된 2001년 인구는 21만 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당시 면적이 훨씬 작았던 광명시나 군포시, 시흥시 등의 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다. 그러나 꾸준한 인구증가로 2016년 60만, 2018년 2월 70만을 돌파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인구 6위 도시로 도약하면서 화성시의 인구가 3배나 불어난 것이다. 그 중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개발현황과 주민 생활상의 편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에 동탄2신도 화성시 행정구역도(화성시청)

시(기존 동탄1신도시의 동쪽 지역. 경부고속도로와 인접)는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로 그 성장 가능성에 많은 주목받았다. 동탄2신도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면 청계리, 중리, 영천리, 신리, 목리, 장지리, 산척리, 금곡리, 방교리 등의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18~2019년 들어서면서 완공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로 인한 인구수도 90만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현재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말에 동탄8동이, 2021년 하반기에 동탄9동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동탄4동은 청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탄5동은 영천동과 중동을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동탄6동은 오산동과 장지동, 방교동, 금곡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탄7동은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조성될 동탄8동에 현재 동탄6동에 속해 있는 장지동이 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필자가 이사 올 당시만 해도 주소는 동탄면 청계동이었으며, 근처에 목리초등학교와 신리고등학교가 있었다. 2015년 6월 30일 개교한 목리(木里)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 화목한 학교를 의미하는 '청목(淸睦)'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신리고등학교는 지명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7년 3월 신리(新里)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가 2018년 3월 1일 창의(creativity)고등학교로 개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의지를 담아내는 의미라고 한다. 이렇듯 계획된 도시의 학교들은 자연에서 아이디어 얻어 만들어졌던 정겨운 지명을 대신해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담아 교명을 변경하는 추세인 듯하다. 도시적 감성과 첨단이 주는 세련미만 찾는 것은 고유한 것들을 잃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형이 바뀌고, 변형된 산자락에 무성했을 나무들도 거의 사라진 변화된 상황에서 옛 지명을 무조건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신도시 개발 전의 마을 입구(동탄LH 사업본부)

산을 허문 곳에는 아파트와 실버타운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필자는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깊게 잘려 나가는 산자락에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주변에서도 목리라는 지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목리(木里)는 도시적 이미지를 고려해 목동(木洞)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골목길이나 공원 한귀퉁이에 옛 지명의 흔적을 남기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전통이 반영된 고유의 지명이 살아있는 공간을 계획도시 가운데 남겨둬서 도시적 삶을 공유할 수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충전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도시 개발 전의 목리 버스정류장과 주택 모습(동탄1내 사업본부)

신도시 개발은 목리라는 지명뿐 만 아니라 목리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농촌마을에 삶의 흔적도 사라지게 했다. 하루에 몇 대 정도만 지나갔을 법한 버스정류장과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새겨진 벽화도 시행사의 개발 전 사진기록으로만 남겨질 뿐 더 이상 정겨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마당에서 붉은 태양초를 늘어놓은 한가로운 전원의 풍경도 이젠 사진첩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신도시의 개발은 사람들의 편익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 시간의 흔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수집과 기록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전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 도시적 삶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서 과거를 기억하다’라는 테마전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탄4동~동탄7동에 이르는 동탄2신도시는 2019년 하반기에 동탄8동이 조성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구역을 나누어 발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며 나누는 계획도시가 내세우는 일곱 가지 특화도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거의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4. 동탄2신도시의 개발과 생활상의 편익

동탄2신도시의 슬로건은 ‘도시에 감동하고 생활에 감탄한다.’이다. 신도시에서 살아가고자 사람들 대부분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 삶의 질적인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 혹은 사회적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시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에 동탄2신도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서 편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계획도시로서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시대에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에 특별한 노력이 맞물려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2026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화성시는 노노(老NO)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48.6%에 이른다. 그렇기에 화성시에서는 그들의 노후 빈곤과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노노(老NO)카페를 추진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열정만큼은 늙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노노(老NO)카페는 소득창출과 함께 노년층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살기 좋은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 노노(老NO) 카페는 동탄 2신도시에도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일하는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일 하면서 소득창출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어울림 노노카페



어울림 로컬푸드 직매장

신도시에 살아가면서 먹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출처가 확실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화성 시에서는 ‘도농복합도시 화성’의 이점을 살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기획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동탄 2신도시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신도시의 주민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장에서는 매일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매장에 공개하고 라벨을 붙여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부터 소분하여 포장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출하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 2014년 개장 첫 해 300개의 농가에서 시작한 후 참여하는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현재, 1,600개로 증가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사회적 이슈를 공유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계획도시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동탄2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왔다. 그렇기에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어울림축제를 열거나 버스킹 공연, 썸머 캠프, 음악회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탄4동에서는 2016년부터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주민화합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필자는 동탄4동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비롯하여 주민자치계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동탄2신도시는 2018년에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SRT)가 동탄역에 개통되어 강남까지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고 부산까지는 2시간여가 걸린다. 그리고 2021년에 서울 삼성동과 동탄을 잇는(39.5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될 예정이다.

2021년 GTX 개통이 완료되면 화성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광주까지 2시간 이내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도착면과 화성시 동탄면을 잇는 고속도로가 2022년 준공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2신도시는 생활의 편리성과 문화,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자족적인 기능도시로서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SRT 노선도(이데일리)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

구분	종목	면적(㎡)	비율(%)
주거	총계	24,374,874	100.0
	단독주택	2,879,966	11.8
	공동주택	21,494,908	88.2
	기타주택	0	0.0
상업업무용지	총계	14,334,994	58.9
	업무시설용지	1,095,147	4.5
	상업시설용지	47,362	0.2
	업무시설용지	88,684	0.4
공공시설용지	총계	3,850,470	15.8
	학교	1,111,582	4.5
	공공공지	620,393	2.6
	공원	948,804	3.9
기타	총계	184,085	0.8
	도로	9,877	0.0
	공원업무시설	121,025	0.5
	기타	144,276	0.6
기타	총계	208,293	0.9
	문화시설	19,813	0.1
	체육시설	17,801	0.1
	문화시설	29,672	0.1
기타	총계	88,968	0.4
	문화시설	49,442	0.2
	문화시설	267,097	1.1
	문화시설	51,580	0.2
기타	총계	76,401	0.3
	문화시설	37,548	0.2
	문화시설	443	0.0
	문화시설	45,255	0.2
기타	총계	28,240	0.1
	문화시설	146,213	0.6
	문화시설	146,963	0.6
	문화시설	4,141,253	17.3
기타	총계	3,648	0.0
	문화시설	35,645	0.1
	문화시설	1,448	0.0
	문화시설	417,537	1.7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 계획
(동탄NH 사업본부)

5. 동탄 2신도시 바람직한 생활상의 전망

신도시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질 좋은 삶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의 구현을 위해 문화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문화와 예술 및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 도시로서의 개념이 사람들이 전망하는 신도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으며 연대감을 조성하여 연령이나 계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삶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도 힘들어 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화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연령층을 고루 배려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시설을 운용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신도시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신도시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환경속에서 접할 수 있는 숲 조성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동탄 2신도시에는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청계공원, 중앙공원 등 여러 개의 공원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가까운 곳에 산림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공간을 파괴하지 말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목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필자가 2015년 여름에 이사를 왔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햇살이 눈부신 허공을 깨우는 새소리에 숲속에서 아침을 맞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분명 자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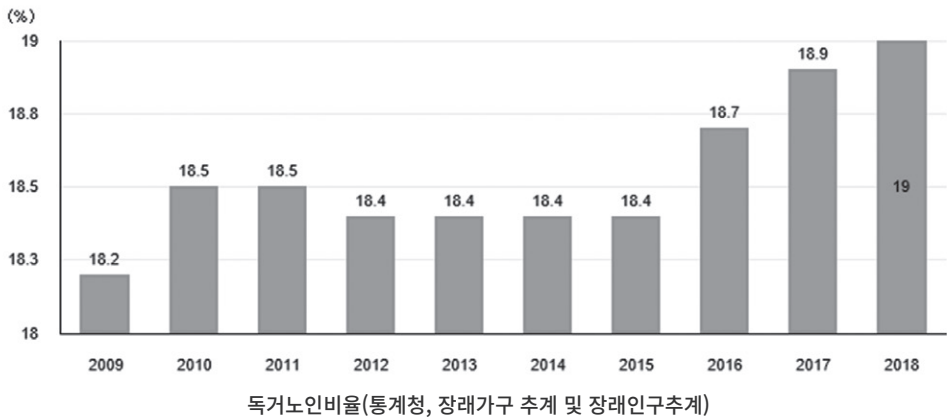
인간을 공존해 나갈 때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파괴되어 가는 산림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개발 욕구에 제재를 가하고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지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본다. 다행히 사람들도 산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라 더 이상 훼손이 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산림을 활용하여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장을 조성하고, 도시화속에서 유아를 위한 산림체험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숲체험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의 이해와 유아들이 긍정적인 정서, 원만한 인격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면서 숲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숲 안내자 양성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산림교육의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숲 안내자들을 양성시켜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생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의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신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육아용품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시기가 있으므로 다양한 육아용품을 나누는 ‘육아 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동화책이나 유모차, 장난감 등의 육아용품이 필요한 가정들에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동탄2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더 이상 육아용품이 필요 없는 가정에게서 육아용품을 후원받아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의 나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유아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나눔과 배려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물품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배려를 실천하게 될 것이며, 물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원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선순환 형식의 새로운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순환의 나눔이 독거노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다방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필자는 동탄2신도시에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상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자족적인 기능을 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질 좋은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된 신도시가 지녀야 할 최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삶의 여유와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신도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09

민족시인 노작^{露雀} 홍사용의 고향, 동탄의 오늘과 미래

허행운

동탄신도시, 시인의 문사적(文士的) 기개(氣概) 문학관과 노작로 등으로 남아...
유년시절과 학창시절...꺾이지 않았던 치열한 민족문학으로의 길
문예동인지 <백조> 창간...단 한 줄도 친일 글을 쓰지 않았던 민족시인
노작의 문학관, 시대적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주체적(主體的) 각성(覺醒)
“가장 어진 조선의 심장이 이날 또 하나 멎었나니...”
문학관, 문화센터...노작(露雀)의 문학정신 계승하는 문화 클러스터
허민 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 “문학관은 시민과 함께 해야...”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써…… / 그러나 시왕전(十王殿)에서도 쫓기어 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 “맨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젓 주셔요’하는 그 소리였지요마는 / 그것은 ‘으아’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 이것은 노상 왕(王)에게 들리어 주신 어머니의 말씀인데요 / 왕(王)이 처음으로 이 세상(世上)에 올 때에는 어머니의 흘리신 피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 그날에 동네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무엇이냐”고 쓸 데 없는 물음질로 한창 바쁘게 오고 갈 때에도 / 어머니께서는 기꺼움보다도 아무 대답도 없이 속 아픈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 빨가숭이 어린 왕(王) 나도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서 발버둥질 치며 “으아”소리쳐 울더랍니다 / 그날 밤도 이렇게 달 있는 밤인데요 / 으스름달이 무리 서고 뒷동산에 부엉이 울음 울던 밤인데요 / 어머니께서는 구슬픈 옛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일없이 한숨을 길게 쉬시며 웃으시는 듯 한 얼굴을 얼른 숙이시더이다 / 왕(王)은 노상 버릇인 눈물이 나와서 그만 끝까지 쉴게 울어 버리었소이다. 울음의 뜻은 도무지 모르면서도요 / 어머니께서는 졸으실 때에는 왕(王)만 혼자 울었소이다 / 어머니의 지우시는 눈물이 젖 먹는 왕(王)의 뺨에 떨어질 때면 왕(王)도 따라서 시름없이 울었소이다 / 열한 살 먹든 해 정월(正月) 열 나흘날 밤 맨재탐이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인데요. 명(命)이나 긴가 짧은가 보라고 / 왕(王)의 동무 장난꾼 아이들이 심술스러울게 놀리더이다. 모가지 없는 그림자라고요 / 왕(王)은 소리쳐 울었소이다. 어머니께서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 나무꾼의 산(山)타령을 따라 가다가 건너 산(山)비탈로 지나가는 상두군의 구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 / 그 길로 웅달우물로 가자면 지름길로 들어서면은 짚레나

무 가시덤불에서 처량히 우는 한 마리 파랑새를 보았소이다 / 그래 철없는 어린 왕(王)나는 동무라 하고 쫓아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서 무릎을 비비며 울었소이다 / 할머니 산소 앞에 꽃 심으러 가던 한식(寒食)날 아침에 / 어머니께서는 왕(王)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그리고 귀밑머리를 단단히 따어 주시며“오늘부터는 아무쪼록 울지 말어라” / 아 그때부터 눈물의 왕(王)은! 어머니 몰래 남모르게 속 깊이 소리 없이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 누런 떡갈나무 우거진 산(山)길로 허물어진 봉화(烽火)뚝 앞으로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며 어실렁거릴 때에 바위 밑에 돌부처는 모른 채하며 감중연하고 앉았더이다 / 아 뒷동산 장군(將軍)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뜰구름은 얼마나 많이 왕(王)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王)이로소이다 /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王)!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 있는 땅은 모두 왕(王)의 나라로소이다 /

<나는 왕이로소이다>

시인을 배출한 고을은 근사하다. 여기저기에 어른 주먹만 한 돌맹이들이 뒹굴고 있어 붙여진 돌모루, 아궁이에 생기는 그을음처럼 숲이 짙다는 뜻으로 마을 뒷산 기슭을 가리키는 이름인 먹실[墨室],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의미로 먹실 뒤쪽을 가로 지르는 도랑인 현량개[賢良浦]…. 시인은 일제의 서슬 푸른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 숲이 들어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옛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반석산 기슭의 옛 풍광이다.

동탄(東灘)이라는 지명도 동쪽의 여울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동탄동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며 흘러가는 오산천이 바로 그‘동쪽의 여울’이다. 그래서일까.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그 마천루(摩天樓) 같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 사이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개여울을 잔잔하게 흐르던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하늘에 비구름이 잔뜩 몰려오면 어미 무덤이 떠나려 갈 것 같아 큰소리로 울어대던 청개구리 소리도 아련하다.

바쁜 일상생활 탓인지 행인들이 켜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곳은 걸모습으로는 여느 신도시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뒤로는 뒤편을 등지고 앞으로는 개천을 둔 배산임수(背山臨水) 형세의 우리네 전통적인 풍수를 갖췄다.

백로가 노닐었다는 현량개는 아쉽게도 반석산 그늘에 묻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분명 쪽빛 하늘을 받치고 있던 야트막한 능선과 웅기종기 붙어 있는 채마밭들도 지금은 옛 흑백 사진첩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잃어버린 풍광이 아름다운 까닭이다. 예로부터 현인(賢人)들은 추함은 아름다움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아름다움이 이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물론 늘씬하고 세련된 아파트들과 날렵한 빌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도시공간이다. 그만큼 우리의 물질문명도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보로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것들도 많다. 무릇 외형적인 진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진화도 이에 못지않아야 한다.

시인의 고향인 화성시 동탄동 반석산 기슭이 그렇다. 그래서 이곳에는 1세기 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울분을 작품 하나하나에 녹여냈던 시인의 문학정신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 반석산을 둘러싼 시인 고향의 정서도 오롯이 그의 작품 속에 녹여져 있다. 그 정서는 토속적이면서도 늠름하다.

동탄신도시, 시인의 문사적(文士的) 기개(氣概)

문학관과 노작로 등으로 남아...

동탄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로 대표되는 노작(露雀) 홍사용(洪思容) (1900~1947년)의 고향이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있는 반석산은 시인이 유년시절 뛰놀았던 최상의 놀이터였다. 반석산은 화성의 허파다. 이 산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반석산은 멸종위기 동물 2급으로 분류된 삶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등의 서식이 확인됐던 생명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그런 반석산을 올려다보면 문득 시인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 된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시인은 유년시절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된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수리부엉이와 붉은배새매, 삼 등 소중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던 생명의 보고(寶庫)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이때부터 그 소박하고도 토속적이면서도 민족주의적

인 시심(詩心)을 키웠다.

오산천에서 반석산을 끼고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 시인의 호를 탄 노작마을이 반석산을 배경으로 아스라하게 펼쳐진다. 아직은 카페와 찻집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인의 문학정신을 느낄 수 있는 노작마을만의 특성을 갖춘 문학마을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작마을 앞을 지나는 길이 바로 시인의 호를 탄, 길이 3km로 이어지는 노작로(露雀路)다.

동탄 신도시는 노작 홍사용이란 시인을 배출했기에 신도시 한복판에 시인의 호를 탄 거리가 있는 문화적인 풍족함과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길을 따라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미디어센터 등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노작홍사용문학관 등으로 이어진다. 반석산에도 시인의 호를 탄 노작공원이 조성됐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시비(詩碑)가 있는 시인의 묘역도 있다. 오산천 인근에는 반석산을 따라 노작마을도 반듯하게 조성돼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앞을 출발해 반석산 내 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이 3.7km의 둘레길도 조성됐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의 흔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시인이 하늘에서 이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나지막한 메시지도 들린다.

사실 시인이 태어난 곳은 이곳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용수골마을(옛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151)이다. 이곳에도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생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화성시 동탄동 반석산 기슭은 수원, 화성과 용인 등이 한곳에서 만나는 곳이다. 어렸을 적 시인은 이곳에서 수원 읍내까지 발품을 들여 걸어 다녔다고 한다.

유년시절과 학창시절…꺾이지 않았던 치열한 민족문학으로의 길

노작은 시인이기도 했지만, 당시로선 몇 명 되지 않던 초기 연극인이기도 했고, 소설과 수필 등은 물론 문학평론도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는 나라 잃은 시대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모든 재산을 문예지 ‘백조’ 창간

과 신극운동 등에 아낌없이 헌납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먼발치로 밀려난 옛 시인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생전 그의 문학 행보는 분명 가시밭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형극(荊棘)의 고난을 겪었기에, 일제의 서슬 퍼런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늠름하고 당당하게 모국어로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작품에 담을 수 있었다.

시인은 자신을 위해선 시집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민족을 위해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깨끗한 선비정신으로 완벽하다고 자인하지 않으면 작품까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민족·문단사 암흑기와 격변기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제의 탄압에도 단 한 줄의 친일 글도 남기지 않았다.

노작의 생애는 크게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그리고 시와 소설과 희극, 평론 등에 끊임없이 독립의 의지를 담았던 시절 등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시인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옛 지명상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과 지척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옛 지명상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아버지 홍철우(洪哲祐)와 어머니 능성 구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비록 화성시 동탄동 인근인 용인시 기흥동이었지만, 본적은 화성시 동탄동 반석산 기슭이었다.

부친 홍철우는 대한제국 통정대부(通政大父) 육군헌병부위를 지낸 충렬지사였다. 그가 태어난 1900년에는 이미 백부와 함께 용인과 화성 일대에서 법씨 천석을 뿌리던 지주였다. 그래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지금은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동탄동 반석산 기슭은 노작의 고향으로 시심(詩心)을 키울 만큼 잘 생긴 마을이었다. 청년시절 ‘문화사(文化社)’를 만들어 <백조> 발간에 도움을 준 홍사충은 그의 재종형이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백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조모와 어머니 슬하에서 그는 귀한 외아들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어려서 <맹자>와 <통감> 등도 읽었다.

노작은 태어난 지 3개월(100일)만에 아버지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1기생으로 합격하면서 부친을 따라 서울 재동으로 올라갔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백부의 양자로 입적됐다. 그러면서 본적지인 화성시 동탄동 반석산 기슭으로 이사하게 된다. 이후 부친이 그를 위해 만든 사숙(私塾:예전에,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에서 한학을 배우고 열일곱 살이 되던 해 다시 홀로 서울로 올라가 휘문의숙에 입학했다. 그때가 1915년, 3·1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이었다.

1919년은 약관(弱冠)의 나이였던 청년 홍사용에게도 중요한 시기였다. 일제의 서슬 퍼런 압제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자주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외침은 들끓처럼 전국으로 확산됐던 시기였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당시 휘문의숙을 졸업했던 시인은 서울에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약관의 청년에게는 민족의식과 독립투쟁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시기였다.

시인은 1919년 3·1운동에 시위 학생 선두에 섰다 체포돼 3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루고 풀려난다. 이후 같은 해 6월 다시 낙향했다. 휘문의숙 재학 중 성적은 조선어와 한문, 습자, 도화 등이 우수해 상위권이였다. 본격적으로 문학에 열중한 건 3·1운동 이후 민족적 울분과 조국 독립에 대한 정열과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항일투쟁정신 등이 계기가 됐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植民統治)는 본 궤도에 오른다. 우리 민족은 질곡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더 이상 무력에 의존해서는 우리 민족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민족저항운동이었던 3·1 운동은 단지 식민통치 당사자인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파장이 미쳤기 때문이다.

문예동인지 <백조> 창간…단 한 줄도 친일 글을 쓰지 않았던 민족시인

시인의 청년시절은 결코 간단찮았다. 3·1운동 이후 고향에서 산수와 벗해 독서에 열중하고 시상에 잠기기도 하면서 문학의 발아기(發芽期)를 맞는다. 당시 같이 은거했던 휘문의숙 동기인 정백과 함께 <청산백운(靑山白雲)>이란 시를 썼다. 그들은 항상 남모르는 웃음을 웃으며 무시로 청천(靑天)에 떠가는 흰 구름을 유연히 바라보면서 살았다.

앞서, 휘문의숙 재학 시절 정백은 물론, 월탄 박종화 등도 만나 문학에 탐닉하게 된다. 낙향한 후 노작은 정백과 현량개에 은신하면서 수필과 시를 쓰고 월탄 박종화에게도 자주 서신을 보내 문학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뜻을 둔 지 4년, 기획한 지 2년이 지난 1922년 1월, 드디어 문예동인지 <백조>를 사재를 털어 창간한다. <백조>는 이후 1923년 5월 통권 3호까지 나온다. 노작의 <백조> 창간에는 재종형인 홍사중의 협력이 주효했다. 홍사중을 수차례 설득해 <백조>를 창간할 수 있었다.

그의 문학적인 스펙트럼은 연극으로도 확대된다. 마침내 근대적인 연극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토월회에도 가입했다. 1923년이였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문예부장직과 무대감독, 연출, 각색, 번안, 희곡작가 등 다양하게 매진했다. 격랑의 물결, 일제의 억압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한 지식인 청년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전망의 세계는 바로 연극이었다. 원래 시와 연극은 한 몸이었고 연극은 관객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충동적이고 구체적이며 대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예술장르로 가장 확실하게 조선 백성과 대면할 수 있는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1927년에는 박진과 이소연 등과 함께 '산유화회'를 결성하고 1930년에는 홍해성과 최승일 등과 함께 신흥극단을 결성한다.

시인의 독립을 위한 문학정신도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순탄하지는 않았다. 앞서, 1927년 극단'산유화회'를 만들어 자신이 쓴 희곡 <향토심(郷土心)>을 갖고 자신의 연출로 공연에 나섰다. 마침 월남 이상재가 별세하자, 사회장 준비에 온통 나라가 분주했다. 이 틈을 타 관객들을 조선극장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 야심으로 상연했다.

1928년 4월 초파일 행사의 하나로 <태자(太子)의 출가(出家)>를 공연했고 이차돈의 죽음을 그린 <흰젖>이란 희곡을 썼다. 성과는 모두 좋지 않았다. 그의 삶 후반부는 방랑으로 얼룩졌다. 여름엔 모시 두루마기, 겨울에는 솜두루마기에 화류목 단장을 짓고 팔도를 유람했으며 그의 발길 닿지 않은 데가 없었다.

한 때는 충남 강경과 원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1944년 이화여전에 한차례 학생들 앞에서 인사만 나눈 후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희곡 <김옥균전>을 쓰다 일제의 검열로 붓이 꺾였고, 일제에 의해 주거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방 이후 근국청년단을 조직, 청년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1947년 1월 7일 폐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노작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홍신선 시인은 '홍사중의 정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민족의 강점기인 20세기 초중엽 노작 홍사용 선생은 친일의 글 한편도 쓰지 않으셨다. 올곧은 문사적(文士的) 기개(氣概)가 어둡고 추웠던 저 궁핍의 시대에도 그렇게 선생으로 하여금 외홀로 형형한 호롱불을 켜 드시게 한 것이었다. 또 우리 신시와 신극운동의 선구자로서 척박한 겨레 마음에 근대문화의 씨앗을 묻고 크게 싹 틔웠으니 가히 선생은 겨레의指南(指南)이시자 우리 근대시의 우뚝한 한 봉우리이셨도다.”

노작의 문학관, 시대적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주체적(主體的) 각성(覺醒)

노작이 주도해 1922년 창간했던 문예동인지 <백조>는 근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편집은 노작이 맡았지만 발행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1호는 배제학당 교장이었던 아펜젤러가 담당했고, 2호는 보이스 여사, 3호는 러시아에서 망명한 휘루웨로를 내세웠다.

창간호에는 월탄 박종화의 시 <밀실로 도라가다>와 이상화의 시 <말세의 희탄>, 나도향의 소설 <젊은이의 시절> 등이 실렸다. 2호에는 박영희의 시 <꿈의 나라로>, 노작의 시 <봄은 가더이다>, 박종화의 시 <흑방비곡> 등이 게재됐다. 3호에는 이상화의 시 <나의 침실로>, 노작의 시 <흐르는 물을 붙들고서>와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마는>, 나도향의 소설 <여이발사>, 박종화의 소설 <목매이는 여자> 등이 실렸다.

노작은 한국 낭만주의 사조 문학을 이끌어 온 문예동인지인 <백조> 창간을 주도한 동인이면서, 당시 종행무진 횡행했던 문학의 맹목적인 서구 모방과는 달리, 전통적인 맥락에서 시를 창작했고 민족적인 정서를 시를 통해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시인은 순수 연극운동을 위해 ‘토월회(土月會)’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토월회는 현실인 흙[土]을 도외시하지 않고, 달로 대표되는 이상[月]도 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토월회는 1922년 2월 일본 유학생인 박승희가 중심으로 결성한 전문극단으로, 당시 유행했던 신파극에 대항해 본격적인 근대극 운동도 펼쳤다.

노작은 문예부 책임자를 맡아 1924년 1월 토월회 제3회 공연 때 <회색꿈>이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번역하고 연출도 맡을 만큼 열성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사용은 작품들을 통해 민족의 아픔과 정한을 표출하면서 일제에 저항했다. 그의 희곡들은 관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민족주의를 담았다.

노작의 문학관은 전통 지향적, 민족주의, 낭만적 세계인식 등을 바탕으로 그의 민요론인 <조선은 메나리나라>를 통해 민족의 녀, 민족의 리듬을 추구했다. 그의 작품에는 나라를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구체적으로 표출됐다.

“가장 어진 조선의 심장이 이날 또 하나 멎었나니…”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전후기 두 단계로 나뉜다. 전기는 <백조> 시대부터 1928년까지로 볼 수 있고, 후기는 그 이후에 해당된다. 전기에는 자유시와 산문시 등을, 후기에는 민요시를 창작하는 이원적(二元的) 시작활동을 보였다.

전기는 장르상으로 자유시 계열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전기의 시들은 감상과 낭만 등을 기조로 한 애상과 향토성의 정서, 다분히 자전적인 것이기도 한 초기 시의 특색, 즉 한국 낭만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백조>를 비롯해 <동명>이나 <개벽> 등에 실린 초기의 산문 시편의 기조는 ‘꿈’, ‘낭만’, ‘감상’, ‘허무’, ‘신비(神秘)’등과 같은 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전기시가 갖는 산문 정신 지향과 확대 지향성 등은 3·1운동 실패로 인한 시대 감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후기에는 민요적인 시에 치중했다. 노작은 1928년 5월 <별건곤(別乾坤)> 12~13호에 <조선은 메나리나라>를 발표하면서 민요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후에는 민요적 시와 시조 등을 발표했다. 후기의 민요시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요 사상과 울조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 관념이 엿보인다.

후기 시의 이러한 민요적 울조는 그의 의도적인 시적 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시대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나라 잃은 망국민의 슬픔을 민족 고유의 전통성으로 환기함으로써 끊어져 가는 명맥을 붙잡고자 했다. 후기 민요시로 의 전환은 민요의 본질을 계승, 시대적인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주체적(主體的) 각성(覺醒)으로 압축된다.

산문시부터 민요시로 형태상의 시적 전환에도 노작의 시작(詩作)에 일관되는

특색은 향토적인 정서와 낭만적 정조다. 그의 문학 각 장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문학의 특성은 민족주의, 민중의식, 낭만주의 등이다. 문학 활동을 통해 식민지 한국의 해방을 갈망하고, 민족적 혹은 공동체적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노작은 늘 청빈한 생활 속에 지조(志操)를 지키면서 살았다. 시인 조지훈은 <시와 인생> 가운데서 그를 가리켜 “눈을 감으면 몇 십 년을 하루같이 흰 모자에서부터 흰 신까지 신고 다니던 그 깨끗한 모습, 술은 마실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날 썰 무렵까지 앉은 자리에서 벽에 한번 기대지도 않던 그 단정한 모습, 불기(不羈)의 민족감정 때문에 글 쓸 자리를 고르다 못해 남 먼저 붓을 꺾고 만 그 정신이 역력히 살아온다”고 설명했다. <백조> 간행과 극단 운영에 가산을 탕진하고 적빈(赤貧) 속에 죽은 그는, 한국 서정시의 개척자이기도 했다.

노작의 낭만적인 향토성과 민족적인 민요적 울조는 당시 시대상황과 긴밀하다. 그는 나라를 잃은 망국민의 비애와 한을 전통 민요라는 형식에 담아 스러져 가는 민족정서의 명맥을 잡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고 친일의 글을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

가장 어진 조선의 심장이 / 이날 또 하나 멎었나니 / 조선의 아들이며 /
다친 새 모양 다리 오그리고 / 가오셨을 영원한 소망의 길 / 아쉽게 불탄
그 애달픈 청춘의 실상 / 죽지 않는 하나 호롱으로 / 이 땅의 뒤따른 젊은
예지를 길 밝혔나니 / 주름주름 남아 스민 겨레의 흐느낌을 / 아아 당신
어찌 못다 울고 가셨나이까 /

시인 조지훈은 이처럼 조사(弔詞)를 통해 문사적(文士的)인 기개(氣概)를 간직했던 올곧은 선비, 노작을 기렸다.

그의 대표작인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읽으면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모자의 슬픔이 아련하게 펼쳐지고 있다. 화자의 존재가 '모가지 없는 그림자'로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주체성이 없는 상태를 암시하면서 조국의 암울한 형편을 일깨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烽火 쪽 앞으로 쫓긴 이’를 노래한다는 구절에선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운동 일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눈물의 왕은 조국의 주권을 잃은 자를 비판적이며 감상적인 감각으로 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작 홍사용 선생 연보(年譜)

- 1900년 음력 5월17일 출생
- 1907년 휘문의숙 입학 전까지 사숙에서 한학 공부
- 1912년 원효준과 결혼
- 1916년 휘문의숙 입학. 서울 의주로에서 하숙
- 1919년 휘문고보 졸업 3·1운동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6월 낙향
정백과 함께 합동 수필 <청산백운> 저술
- 1920년 월탄 박종화와 정백 등과 함께 <문우> 창간. 이 잡지에 <커다란 집의 찬 밤> 발표
- 1921년 詩 <비오는 밤> <동명>에 발표. 문예동인지 <백조>와 사상지 <흑조> 창간 준비
- 1922년 문예동인지 <백조> 창간. 詩 <봄은 가더이다> 등 3편 <백조>에 발표
- 1923년 詩 <나는 왕이로소이다> 등 8편 <백조>에 발표
詩 <해 저문 나라에>와 <어머니에게> 등 3편 문예동인지 <개벽>에 발표
- 1924년 토월회 문예부장직 역임. 연극 <회색의 꿈> 연출. 창작 희곡 <산유화> 집필
- 1927년 박진, 이소연 등과 함께 극단 산유화회 결성.
희곡 <향토심>과 번역 작품 <소나기> 연출
- 1929년 희곡 <제석> <불교> 56호에 발표
- 1939년 희곡 <금옥군전> 썼으나 총독부의 검역에 걸린 후 절필
- 1947년 1월7일 폐환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별세

문학관, 문화센터…노작(露雀)의 문학정신 계승하는 문화 클러스터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 반석산 일대는 노작홍사용문학관을 비롯해 노작공원과 화성시 미디어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노작 홍사용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공간들이 잇따라 들어서 있다. 이 앞으로 지나가는 길도 시인의 호를 따 노작로다. 노작 홍사용문학관 뒤편 반석산 기슭에는 그의 시비(詩碑)와 함께 묘역도 있다. 노작로에 조성된 공간들은 시인의 울골은 문학혼을 일깨워주는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이 공간들을 이용하면서 노작 홍사용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등 시인의 반듯하면서도 울골았던 문학정신을 담은 공간들이 조성된 시점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인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3·1운동 직후 몇 년 동안 낙향해 은거했던 청년시절, 반석산과 반석산 기슭, 그리고

오산천 일대 등은 그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었다. 앞서, 시인의 묘역도 반석산을 오르는 길목에 조성된 바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곽에 중핵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를 건설, 서울의 집중형 공간 구조를 탈피해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40만 명 규모의 동탄 신도시를 지난 200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문화유적 등을 조사하면서 동탄동 반석산 기슭에 노작 홍사용의 묘역이 있고, 시인의 문학적 고향이었다는 점에 착안,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 노작홍사용 문학관에 이어 동탄복합문화관과 화성시 미디어센터 등을 잇따라 건립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오산천에서 동탄복합문화관까지 반석산 기슭에 카페와 찻집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노작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화성시 미디어센터도 건립됐다. 특히 화성시 미디어센터는 시인이 시는 물론, 소설과 수필, 희곡과 연극 등에도 심취했던, 당시로선 멀티미디어 예술가였던 점을 수용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시인의 문학적인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문학교실,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반석산 기슭인 노작근린공원에 건립됐다. 지난 2008년 5월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총 건축면적 907㎡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은 노작의 문학적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시 낭송회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홀, 다수의 창작문학 관련 도서를 비치한 문학 전문도서관 등으로 꾸몄다.

특히 문학전문도서관은 2층에 마련된 북카페테리아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학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2층은 시인의 친필을 비롯해 유품 전시공간을 조성, 선생의 문학정신과 독립정신 등을 엿볼 수 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북카페테리아와 창작교실 등 강의실도 갖추고 있다. 전시실에 전시된 선생의 친필 유적 5점을 비롯해 노작의 유물 및 관련 서적 84점은 시인의 유족인 홍승준 씨가 소장해 오던 것을 문학관에 영구 보관해 달라며 기증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시인의 올곧은 문학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 노작문화제와 노작 홍사용 창작단막극제, 노작문화상, 문예

지 <시와 희곡> 발행 등이 그것이다. 작가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문예 강좌와 방학 청소년 문예교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 문학이 함께 하는 음악회, 시인과 함께 걷는 시숲 길, 문학현장 답사, 산유화극장 정기 공연, 시민극단 연극동아리 등도 진행되고 있다.

노작문화제는 시인의 고고한 삶과 문학정신을 기념하는 축제이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문화예술 장르인 문학을 통해 시민 모두 함께 체험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다. 노작문화제를 통해 문학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 동아리의 성과도 듣고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문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공연과 전시, 체험 등도 이어진다.

노작 홍사용 창작단막극제는 근대문학과 신극운동을 이끌었던 노작의 문학사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됐던 노작의 작품 활동이 후속 세대를 통해 다시 이어 나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작품이 접수되고 10월 공연이 이뤄진다.

노작문학상은 노작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활동을 펼친 중견 시인에게 수여됐지만, 2018년부터는 한 해 동안 출간된 시집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시집에 대해 수여되고 있다.

문예지 <시와 희곡>은 우리 시대 외화내빈(外華內貧)한 정신구조 속에서 시와 희곡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장르들의 만남을 통해 노작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잇고 경기남부의 고품격의 인문학적 성찰을 담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시는 희곡을 만나 새로운 숨결로 호흡하고 희곡은 시를 만나 연극 이전의 문학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 강좌는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초빙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창작하는 과정까지 이끌어 새로운 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학청소년 문예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 사회성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기간 중 명사를 초빙,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은 이재훈 시인과 함께 ‘문학관 詩네마실-영화와 함께 문학을 읽다’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문학관에서 영화와 시를 감상하고 영화 속 작가의 생애

를 탐구할 수 있다.

문학이 함께하는 음악회는 작가와 음악가를 초빙해 작품과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를 제공한다. 시인과 함께 걷는 시숲 길은 문학관 뒤편에 위치한 반석산 에코벨트에서 자연의 향기를 느끼면서 건강과 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학현장답사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 문학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답사지와 관련된 새로운 지역의 문화도 습득하고 자연 경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산유화극장 정기 공연은 전문 예술인을 초빙,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민극단 연극동아리는 연극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와 배우 등을 초빙한 가운데 연극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배우와 스태프 등으로 참여해 연극을 만드는 동아리다. 배움에 대한 결과물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한다.

화성시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쉽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쉼터(체험, 상영, 전시 등)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미디어센터는 시와 수필, 소설 등에 이어 희곡과 연극까지 문학의 모든 장르를 섭렵했던 노작의 문학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됐다. 또한 미디어시네마 운영을 통해 영상 문화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VR 체험 운영을 통해 시민의 4차 산업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미디어 교육으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연령별, 대상별로 추진해 일상 속에서 미디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교육 수요자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일반인, 미디어 전문가, 교육자, 개인, 단체 등 수요자 요청에 의해 시설, 공간, 인력 등도 지원한다. 미디어 동아리 지원과 축제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환경도 마련하고 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노작로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반석아트홀과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문예아카데미, 스포츠센터,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은 최대 무대시스템과 대연습실을 갖춘 공연시설인 반석아트홀을 비롯해 각종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동탄아트스페이스와 각종 문화강좌들이 진행되는 화성문예아카데미 등을 통해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스포츠센터와 필라테스와 요가 등

을 배울 수 있는 다목적실도 운영되고 있다.

허민 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 “문학관은 시민과 함께 해야...”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지난 2010년 3월 개관한 이래 작지만 내실 있는 공간 구성과 콘텐츠 등으로 동탄을 단순한 고층아파트단지로 이뤄진 획일적인 신도시에서 문학과 예술이 접목되는 문향(文鄉)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문학 애호가와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교양 등을 채워주는 교양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허민 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등을 들었다. 문학평론가인 그는 시인인 손택수 관장과 함께 동탄을 홍사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 여느 신도시와 차별화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문학관 차원에서 문학잡지를 출간했다고 들었다.
문학잡지를 발간한 문학관은 노작홍사용문학관이 최초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문학관이 84곳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학잡지(문예지)를 출간한 곳은 노작홍사용문학관이 처음이다. 단순히 노작 홍사용 시인의 문학세계만 관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작의 올곧은 문사(文士)의 기개(氣概)가 살아 숨 쉬는 문학정신과 동탄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노작 홍사용 선생은 80여 년 전 미디어 운동을 주창하고 활동했다. 문예지 <백조>를 창간했고, 미완의 사상지인 <흑조>도 기획했다. 시인의 유지를 받들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예지로 만들 계획이다.

문예지의 명칭은 무엇이고, 몇 차례 발간했는지 궁금하다.

문예지 명칭은 <시와 희곡>이다. 시인이 희곡도 창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반간지(半刊紙: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발간하는 잡지) 형식이다. 지난해 2차례와 올해 들어와 상반기 1차례 등 모두 3차례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와 희곡>으로 발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명칭도 <백조>로 변경할 계획이다. 노작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창간하셨던 문예동인지 <백조>를 복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와 희곡>에는 화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이 운영하고 있는 창작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강생 가운데 벌써 2명이 등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창작수업을 들은 두 분이 등단했다. 엄청 큰일이다. 문학관 개관 이래 전국을 봐도 이런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시, 소설 동시에 등단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내일을 여는 작가’ 소설부문 신인상 당선은 지역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를 시작으로 ‘문학은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문학관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사람들이 문학 앞에서 절망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꿈은 절망 앞에서 탄생한다. 그 기술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문학관이다. 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듯, 문학관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민들 앞으로 찾아가는 문학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동탄 북광장 무대에서 '시' 버스킹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 뮤지션은 음악으로 버스킹을 진행했다. 동탄 남광장 주민자치센터 시민들과 함께 문학관과 연합해 북 콘서트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의외로 시민들이 좋아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갈망하고 있다. 글쓰기는 세상과의 소통이다.

문학관을 찾아오는 것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
문학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학관은 액체처럼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체 같으면 무덤 속의 관과 같다. 액체처럼 흘러 스며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항리도 찾아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주민자치센터와 만나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앞으로도 시를 읽는 퍼포먼스를 여는 것처럼, 시민들을 찾아가는 문학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문학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노작(露雀) 홍사용 선생은 어떤 분인가.

노작은 평생 시는 물론, 소설과 수필, 희곡 등에 천착(穿鑿)하셨고, 근대적인 문예지인 <백조> 발간을 주도했으며, 연극운동에도 헌신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문학의) 장르적 경계에 갇히지 않고 옅곧게 지사(志士)와 문사(文士)로 대표되는 선비의 길을 가신 분이시다. 시인의 호인 노작(露雀)에 그분에 대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슬‘露’에 참새‘雀’를 써서 ‘이슬에 젖은 참새’라는 뜻이다.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가 아니라 참새다.

작지만 우리 곁을 지켜주고 노래하는 이슬 같은 투명함을 보여주는 시인이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이 민족을 배반하고 변절해 일제에 부역할 때도 홍사용 시인은 자기 연결성과 순정을 지킨 분이다. 그가 남긴 작품이 비록 많지 않지만 그의 한편은 100편의 명작과 맞먹는 중량감을 갖고 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이유다.

시인의 문학혼 후세에 물려주는 건 온전한 시민의 몫

동탄은 서슬 푸른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온 몸으로 일제의 압제에 저항했던 민족시인 노작 홍사용의 문사적(文士的)이고 올곧은 조선의 선비혼이 투영된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반석산 기슭은 시인의 유년시절과 청년 시절 문학혼이 절절하게 배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노사홍사용 문학관과 노작공원, 노작로 등을 비롯해 동탄복합문화관과 화성 미디어센터 등 문화공간들이 설립됐다. 비록 설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화성시 등 관(官)이 주도했지만, 앞으로 이들 공간을 통해 후세들에게 시인의 넘치는 문학정신을 물려주는 것은 온전히 현재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적어도 반석산을 걸을 때, 잠깐이라도 노작 홍사용을 기억할 수 있음은 행복한 유산이다.



화성시 동탄동 돌모루 반석산 기슭에 위치한 노작홍사옹문학관. 건너편으로 하늘을 찌를듯 올라간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올려다 보이고 있다.



화성시 동탄동 돌모루 반석산 기슭에 위치한 노작홍사옹문학관. 자주색 건물에 흰색 글씨로 ‘노작홍사옹문학관’이라고 적힌 건물 왼쪽으로 하늘을 찌를듯 높이 올라간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올려다 보이고 있다.



문학관 옆에 세워진 노작 홍사용의 <봄은 가더이다> 詩碑.



문학관 옆에 세워진 노작 홍사용의 <해 저문 나라에> 詩碑.
시인의 흑색사진 초상화가 눈길을 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뒤편 반석산에 조성된 노작 홍사용 묘역.
<나는 왕이로소이다> 詩碑



노작홍사용문학과와 시인의 묘역이 위치한 반석산 뒤쪽으로 하늘을 찌를듯 올라간 고층 아파트들이 우뚝 서있다. 문학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솟대를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장승처럼 차량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오산천에서 홍사용 문학관으로 가는 길목에 홍사용 문학관과 노작공원을 알리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이 길(노작로)을 따라 동탄북합문화센터와 화성시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오산천에서 노작홍사용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노작로에 위치한 동탄북합문화센터



오산천에서 노작홍사용문학관으로 이어지는 노작로에 위치한 화성시 미디어센터



허민 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은
"문학세계만을 관조하기보다 문사의 기개를
동탄과 접목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작 홍사용 선생
노작홍사용문학관 제공



1923년 9월18일부터 1주일간 조선극장에서 2회 공연을 마치고 토월회 회원들과 함께 한 노작 홍사용 선생(원 부분). 노작홍사용문학관 제공



일제강점기 시절 화성시 동탄동 일대. 논과 밭이 있던 곳에 지금은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멀리 노작 홍사용 시인의 유년시절 추억이 담긴 반석산이 보인다. 노작홍사용문학관 제공



10

구리문화, 그 흔적의 어제와 오늘

김명희

들어가며

Ⅰ. 구리시 개관

Ⅱ. 개발로 사라진 자연마을

Ⅲ.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들어가며

구리시는 경기도와 양주군에 속하다가 1980년에 양주군과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이 되었고, 1986년 구리시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구리시의 역사는 이웃한 양주, 혹은 남양주 등과 겹쳐지는 역사 서술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구리시만의 독자적인 역사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득, 구리라는 도시만의 문화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양주, 남양주 시절 보다 지금의 구리와 가장 닮은 1986년 시 승격 전후의 구리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분은 아니더라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가 구리의 전통마을의 고유한 역사, 생태민속자원 조사연구, 문화자원 활용에 매진한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구리문화만이 가진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 구리시 개관

구리시는 총 면적은 33.31km²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31%를 차지하는 전국 시·군 중 면적이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행정구역은 갈매동·동구동·인창동·교문1동·교문2동·수택1동·수택2동·수택3동 등 8개동이 있다. 인구는 2019년 1월 기준 약 20만 명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1,820.14km²인 홍천군. 땅의 크기 차이는 약 55배에 반하여 인구는 구리시가 홍천군보다 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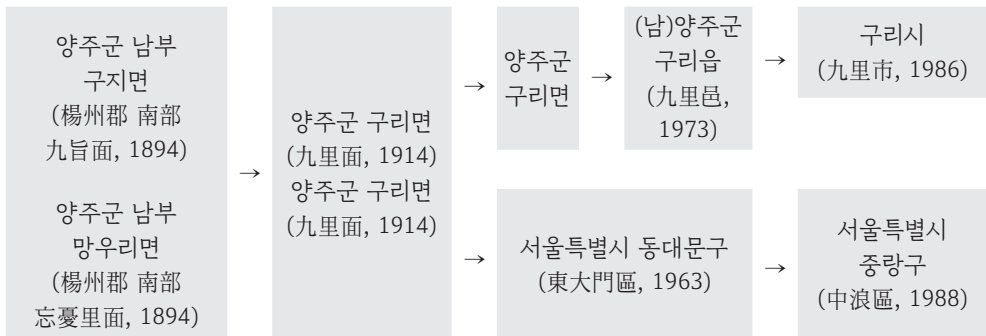


경기도 행정구역



구리시 행정지도

배 정도로 많다. 전체적인 지형은 지대가 낮고 평야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서울시와 경기 동부를 연결하는 동시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 결절지답게, 철도 2개(중앙선, 경춘선), 고속도로 2개(서울외곽, 세종포천), 간선도로(북부), 국도 4개(6.43.46.47번), 주요교량 3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대교, 암사대교 연결), 지하철 2개(8호선, 6호선) 등이 도시와 맞닿아 있다.



구리시 행정구역 변천사 (참고 문헌: 양주시/역사)

구리의 상권은 좁은 면적과 산발적인 거주개발로 중심상권이 취약한 인근 남양주의 특성과 결합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 인구를 합한 '89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 변화가' 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향후 남양주에 상업시설이

정상화될 경우 구리방향 이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양주 인구 수요를 바라보며 진행되는 구리 상권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I. 개발로 사라진 자연마을

자연마을의 시·공간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생산노동의 장소에서 여가 오락을 위한 장소로 변하거나 취락개선 사업이라는 명목 앞에 사회 생태적 모순과 갈등을 겪는 등 도시화 과정의 변화에 중심에 서 있다. 갈매동과 토평동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자연마을로서 개발로 사라져가는 전래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갈매동은 40년 동안 구리시 북쪽에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09년 12월 3일 갈매공공주택지구(43만평)로 지정 고시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었다. 2011년 전통마을에 대한 기록보존의 필요성을 느낀 구리향토사연구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구술 기록조사와 2010. 11. 17. ~ 2011. 12. 21. 구리시가 성신여대에 위탁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갈매동의 역사성과 구리문화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갈매동은 역사적으로 구한말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인 옛 양주군 노원면 지역이었고, 1995년까지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었다. 그렇다면 같은 구리시 안에 있어도 보금자리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같은 구리지역이라는 동질감이 크지 않았던 동네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진행해보니 오랜 역사성과 생활사 속에서 구리문화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막연했던 분리의식의 허상을 그 터에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상기시키기 위해서 갈매동의 토지와 주민의 삶, 공동체 질서 등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갈매동의 공간과 정서의 특징

갈매동을 비롯하여 사노동·인창동 구리시 북부지역은 40~100m에 달하는 구릉지로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층이 두꺼워 과수원 등 농지이용이 많았던 곳이다.

197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문리나 토평동, 딸기원 등 구리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탓에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40-50대 이상 장년, 노년 인구가 많았다.

갈매마을은 검암산(구릉산) 과 인접한 177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동구릉 왕실묘역과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는 농경마을이다. 동구릉에 영향 받은 왕실장례풍습이 전래된 점으로 봤을 때, 마을의 기원은 왕실의 의례비용을 충당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던 배후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있다.



갈매마을의 위치(해동지도 양주목_규장각 소장)

1970년대 초반 갈매천, 도당, 담터 중심에서 1970년 후반 협동마을, 막골, 담터 등에 이주민이 정착하고, 1980년대 갈매초등학교와 갈매주민센터 근처 마을입구가 변화한다. 취락구조의 특징은 갈매마을은 남북으로 갈매천이 흐르고 있고 갈매천을 따라 47번 국도가 마을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국도 북쪽이 담터 부분으로 원래 노원면에 속해 있던 곳이며, 국도 남쪽이 사노리에 속해 있던 곳으로, 전체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있는 구조이다.

갈매동은 행정구역상 9통으로 나뉘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갈매동에 형성된 자연마을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이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갈매동 주민들은 갈매동을 크게 1~5통과 6~9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5통은 자연지명이 협동마을, 도촌·안말·아랫말·정촌말 등으로 다시 나누어

지지만 하나의 공동체(마을)로 인식되며, 6~9통은 자연지명을 따라 담터라는 다른 하나의 공동체(마을)로 인식된다.

갈매동의 큰 두 마을은 각기 따로 도당굿을 지내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도당굿은 1~5통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당굿을 일컫는다.



갈매동 자연마을(1~5통)



갈매동 자연마을 지도(6~9통)



농촌에서 도시 주변부로 편입해 가는 갈매마을의 변화상

2011년 조사 당시(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 갈매동의 가옥은 1950-198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1950년대 목조 한옥과 1970년대 후반부터 지어진 벽돌 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들이 남아있었다.

2011년 갈매동 자연마을에 대한 구리향토문화연구소 구술사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갈매동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매동 사람들은 갈매동을 홍수가 잦았던 교문리, 수수, 조밥만 먹던 토평동 보



갈매동 15대째 살고 있는 집



갈매동 가옥 일반

다는 생활하기 좋은 공동체였노라 자부한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보니 큰 부자는 없어도 가난한 사람 없이 골고루 잘사는 동네라고 여긴다. “교문리 사람들이 갈매동 사람들을 촌놈들로 하대했다”, “딸을 낳으면 갈매동으로 시집보내라”는 말들은 생활환경이 다소 나았던 당시 갈매동의 문화를 보여주는 은유로 여겨진다. 갈매동 사람들은 1970년 갈매국민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1시간 이상 떨어진 교문리 인창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다고 한다. 특히 동구릉 사이를 걸어 다니며 버찌열매를 따먹던 선명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구리시 원도심 인창초등학교를 매개로 구리 중심권과 같은 생활권이던 갈매동은 1950년-60년대 퇴계원과 구리지역의 학군이 달라짐에 따라 생활권 분리를 겪



1970.1.14. 경향신문



1990.4.13. 동아일보

게 된다. 따라서 갈매동사람들의 주생활권이 청량리, 경동시장으로 이동했고 구리원도심과의 정서적 경계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갈매동이 농촌마을로 번성했을 당시에 노동력은 대체로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에 의해 보충되었다. 갈매동 사람들은 구리시 본토박이는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구리시를 이주민들이 많았던 도시로 생각했다. 갈매동 사람들의 문화적 자긍심의 원천은 산제사와 농업, 동구릉과 관련이 깊다.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1958년~1959년 쯤 450년 동안이나 고유제를 지내오던 주산이 국유림이 되자 마을은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800평에 대한 비용지불을 요청받게 되었다고 한다. 가용자금이 없었던 당시 개인대출을 받아 충당하거나 이후 방앗간, 창고 등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신앙 구역에 대한 공적인 간섭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불하받은 땅과 발생한 소득으로 기금을 운용한 결과, 300평의 마을공동 소유 땅이 남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비를 제공하여 짓게 된 노인정 1호라는 상징성을 통해 공동체적인 자부심을 획득했다. 또한 1961.5.16. 군사구테타 이후 근대화 미신타파 기조 하에 자칫 단절될 수 있었던 산제사 전승을 “일본사람 밑에서도 했는데 왜 못하느냐” 밀고 나갔던 주체적인 기억도 문화적 긍지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도당굿, 대동회, 품앗이, 척사대회 등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풍속과 그린벨트 지정 이후 비록 거주지는 외곽으로 밀려났으나 별내면 선릉뜰까지가 갈매농부들의 활동반경이었다는 회상 속에는 오랜 기간 갈매동이 유지해온 농민적 자부심이 배어 있다. <김경락(1930년생), 구리시 갈매동 201번지 자택에서 구술 내용 / 2011,3. 25>에 연구자의 생각을 덧붙임



마을척사대회 품앗이 (2011.2)



마을척사대회(2011.2)

조선왕릉 동구릉에 인접한 마을로서 갈매동에는 왕릉장례 문화를 민간에서 접목시킨 구리만의 독특한 장례의식인 갈매동 회다지가 전해진다.



회다지1-갈매동장례의식-달구질을 하고있는 모습



회다지2-갈매동장례의식-노자걸기



회다지3-갈매동장례의식-노제



회다지4-갈매동장례의식-하관준비



회다지5-갈매동장례의식-사자밥



2009년 9월 4일 갈매동회다지 /구리문화원 재현

2009년 9월 4일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소장 박명섭)는 갈매동 회다지를 발굴하고 향토사 연구회 회원들이 자료를 조사, 정리했다. 동구릉 주변인 갈매동, 사노동, 담터에서만 행해지는 회다지는 달구질을 할 때 광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 밖에서 달구공으로 다지는 특징을 보이는 장례 속성을 말한다. 차마 부모의 시신을 밟을 수 없다고 해서 매장 중에 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소고기를 넣은 국을 끓이는 등 30리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왕실장례문화의 영향은 갈매동만의 자부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구리시 남쪽 교문동에는 이 같은 문화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견지로 보면 정작 구리를 떠올릴 때 원도심보다 같은 구리라는 일체감이 다소 떨어지는 갈매동이 오히려 구리 전체를 상징하는 동구릉 문화를 대변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역설과 마주한다. 그동안 우리는 왜 갈매동을 같은 구리라고 느끼지 못했을까? 갈매동의 잦은 행정구역의 변동이 오히려 같은 구리라는 의식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구릉과 갈매동 문화의 관련성은 구리시계 안에서 갈매동을 대하는 공간, 행정, 정서적 거리감을 좁혀가며 앞으로 구리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6.25 폭격 때도 떠나지 않았던 전래적 터전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보금자리

국책사업은 주민들에게 겹으로 들어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도청과 시청, 주민공론화와 관련된 비화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지만, 갈매동 보금자리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길 바란다는 전래적 삶의 주체들의 조언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갈매동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거치며 자급자족, 주체적인 자기선택을 가졌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공적인 영향과 간섭에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해갔으며,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2. 도시화에서 갈매마을 전통의 설자리 찾기

40년 그린벨트는 전통마을의 모습을 60년대, 90년대 도시화 초기 포화를 빚겨나는 방어막이 되었고, 그 역사성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농경생활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미풍양속을 간직해 온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특히 ‘갈매동 도당굿’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5호, 1995. 8월 지정) 은 500여년 이상 우리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축제로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경로효친 사상과 고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갈매동에



갈매동-협동마을 주민들이 마을 개천에 다리를 놓는 모습



최복희(부녀회장)



목축



묘가 많은 협동마을 뒷산



협동마을 뒷산에서 최복희 남매



보금자리 주택 개발에 따른 갈등

위치한 ‘갈매도당굿 전수관’을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 현재로선 마을을 지켜온 전통문화와 원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은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여겨진다. 구리시 갈매동에서 마을의 안녕함과 풍요를 비는 마을 굿인데, 때론 전통문화 보전 및 전수의 개념이 아닌 미신과 무당으로 치부하는 듯 한 의식도 여전히 강하다.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이전에 의식의 전환과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물이 드는 땅에서 살아간 토평동 자연마을 사람들

교문동, 토평동, 동구동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조사는 2012년 5월에 진행되었다.

토평동은 90년, 96년 택지개발로 구리시에서 가장 빨리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동쪽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 수석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조건과 서울의 진입이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통학권인 동시에 유흥시설이 없고, 주택동 변화가가 매우 가까워 돈과 차만 있다면 살기가 좋아 의외로 땅값이 비싸다. 지하철만 빼고 있을 건 다 있는 동네이다. 별말, 돌섬, 토막리, 장자마을처럼 구리시 남쪽 한강근처에 형성된 자연마을들이 속해 있기도 하다.

구리시 남단에 살았던 자연마을 사람들은 물 때문에 인창리, 교문리, 검배로 빈번한 피난을 다녔고, 헬리콥터를 이용하기 위한 돈대를 만들어 대비하기도 했다. 구리북쪽 갈매동처럼 인창초등학교를 다녔고, 한강과 물놀이 문화가 익숙하다. 돌섬은 점토지가 아니라 사토지로 논보다 밭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며 참외, 가지가 재배되었다. 돌섬은 모래와 왕사, 자갈 등 한강의 부산물과 급류에 대한 기억을 가진 마을이며, 토막나루는 서울로 나무를 실어 나르는 나룻배가 머물던 곳이다. 교문동을 포함한 남쪽 사람들이 물이 들지 않는 농업마을 갈매동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별말사람들은 언제 사라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갈매 도당굿보다 규모가 컸고,



도막나루



도막나루 터



돌섬



돌섬 셋강



벌말 돈대



돈대 도당나무

방송에 나갈 정도로 유명했던 벌말 도당곳을 기억한다. 특히 구리시 원도심인 수택리 큰무당이 집도했으며, 마을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지내는 대동곳으로 아주 멀리 청량리까지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작 구리시를 대표하는 도당곳으로 구리시지에 기록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토평동 벌말의 마을신앙에는 정제(井祭), 즉 우물고사가 특징이다. 우물고사는 음력 7월 초하루 복중 더위에 진행된다. 제의가 많이 쇠퇴하여 마을 토박이 몇몇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장이 제관을 대행한다고 한다. 제물은 삼색실과와 소머리 1두를 준비한다. 7월 1일 밤 12시경 느티나무에 제물을 올리고 세 번 절한 후 술을 따르고 소지를 올리면 제사가 끝난다.

<이매화 (토평동 벌말, 1935년 생, 여) / 이성실 (토평동 벌말, 1931년 생, 남) 구술> 일부 편집

벌말과 갈매동은 구리시의 남쪽과 북쪽에서 물과 산이라는 삶의 경계를 극복하면서 살아온 생활환경을 가진 까닭에 각자 고유한 문화와 상대방에 노골적인 경쟁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근대화를 빌미로 폐기가 주장되어 온 전통을 지키며 가난하거나 부자인 사람들이 똑같이 보태고 나누는 상생의 문화를 전승해 왔다는 공통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로 자기색깔을 지키면서 같은 면모를 드러내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서울과 가장 가

까운 위성도시 구리가 직면한 도시화에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을것 같다. 원조 터전의 성격에서 새로 들어오는 도시공동체와 어울려 전승될 공통 주제들을 만들 수 있다면, 획일적인 개발로 균질화 되어가는 도시들이 새로운 고유성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III.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

구리시는 약 33.31km² 전체 면적에 20.50km²인 61.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 23.7% 보다 약 2.6배 높은 비중이다. 수도서울과 가깝다는 강점은 오히려 꾸준한 인구증가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도시 밀도 증가는 원도심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을 압박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인구수용을 늘려가게 만드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발은 어쩔 수 없지만, 갈매동과 토평동 자연마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현대도시가 들어설 곳에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선 이해는 새로운 공동체성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개별지역 측면에서 입주자들에게 앞으로 살게 될 삶의 터전이 지닌 공간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성 강화에 신경 쓰는 이들에게는 강화조건과 저해요인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군편제와 행정구역의 조정이 인창초등학교와 동구릉이라는 문화적 점이지대를 만들거나 생활권 분리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공적인 제도가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공동체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문헌에 기록된 것, 과거에서 전래된 것, 현재 문화적 지향과 그것의 실천과정 모두가 구리문화의 독자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기본조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구리시는 도시개발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토박이의 이주와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유무형 문화자원의 유실에 대비해야 한다. 전근대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1960년대부터 최근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

분류, 기록하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앞서 현존하는 마을들이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확인했다. 흩어져있는 마을의 자료를 묶고, 해석하는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구리시통계연보』(구리시, 2008)
『지방행정구역요람』(행정자치부, 2000)
『경기민속지』(경기도박물관, 1998)
『구리시지』-역사와 문화-(구리시, 1996)
『구리의 역사와 문화』(구리시, 1996)
『동구문화재』(남양주문화원, 1984)
『한국사』(진단학회, 1981)
『경기도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79)
『양주군지』(양주군지편찬위원회, 1978)
『경기도향토교육자료지』 I (경기도교육위원회, 1974)
『한국사전유적유물지명표』(김원룡, 1965)
『경기도지』(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57)
구리시(www.guri.go.kr)
『구리시 개발-뉴타운, 보금자리- 예정지역
(갈매, 수택, 인창동) 향토문화자료 보고서 2012』구리향토사연구회
『갈매동 도당굿』(주강현, 『구리시지』 상, 구리시, 1996)
『공감하는경기학 사업결과 자료집』 구리와 함께 (경기문화재단, 2018)
『나무위키』구리시
『구리 상명대학교박물관 기록』2012
『구리 토평동의 우물고사와 도당굿 [九里土坪洞一]』작성자 김용호



11

수원 산드래미 마을의 변화와 삼성전자

양훈도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
산드래미는 어디인가
원천리천과 마을의 형성
느티나무
행정구역의 변화
1960년대까지 산드래미 살림살이
삼성전자의 입지와 성장
산드래미의 완벽한 탈바꿈
산드래미의 미래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

산드래미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이 시작된 마을이다. 마을의 역사는 조선 중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0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마을은 1970년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들어온 시점을 전후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과 맞닥뜨렸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입지와 확장의 과정에서 산드래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을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오늘날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사라진 마을도 여러 곳이다.¹

이에 비해 산드래미는 상당수 선주민(토박이)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수많은 장소는 사라졌지만, 애초에 마을이 생겨났을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 거목이 지금도 살아 있다. 아쉽게도 아랫마을 느티나무가 최근에 고사했으나, 윗마을 느티나무는 여전하다. 아랫마을 느티나무도 형태는 남아 있다. 이들 느티나무는 선주민은 물론이고 도시화 이후 이주한 매탄동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다.

지역 현대사의 주역은 산업화·도시화를 몰고 온 기업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며 삶을 이어온 주민이어야 마땅하다. 흔히 마을은 산업화·도시화의 그늘에서 희생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전통 농경사회에 대한 기억과 조사·연구는 소중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모시켜 왔는지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마을 정체성과 도시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통찰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산드래미 마을의 변화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축적된 성과가 많지 않다. 산드래미는 급격한 도시화 후에도 선주민의 정착 비율이 높고, 느티나무 보호수라는 상징물이 남아 있다. 특히 현대 수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인접한 마을이어서 그 변화 과정을 조사·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헌 조사와 구술 인터뷰를 병행했다. 문헌 자료는 2014년 발행된 『수원시사』 20권 가운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수원시 지명총람』(1999), 『산드래미 향토회 명감』(1994)을 참고하였다. 산드래미와 관련된 다른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술 인터뷰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8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가운데 5인은 산드래미 토박이이며, 3인은 산드래미와 관련된 인사다. 연령대는 80세 이상 3인, 60대 3인, 50대 2인이고, 성별로는 남성 5인, 여성 3인이다. 인터뷰 일시와 대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7월 1일 11시~13시(120분)	이필대 남 83세 산드래미향토회 회장
2. 2019년 7월 4일 12시~13시30분(90분)	김준기 남 63세 시인(인계동 출신)
3. 2019년 7월 9일 12시~13시30분(90분)	이병덕 남 60세 전 매탄4동장
4. 2019년 7월 18일 15시~17시(120분)	김교순 여 83세 산드래미 65년 거주 김남숙 여 90세 산드래미 69년 거주
5. 2019년 8월 27일 19시~21시(120분)	진흥국 남 63세 전 수원시의회 의원 최정호 남 58세 민생안정정책연구소장 류명화 여 54세 매탄4동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산드래미는 어디인가

산드래미라는 지명은 ‘산드레미’로 표기되기도 한다. 어원은 ‘산둘레미’다. 즉, 산을 둘러싸고 형성된 마을이라는 해서 ‘산둘레미’라 하다가, 부르기 쉽게 산드레미, 산드래미로 변해갔다고 추정된다. 한자로는 산남동(山南洞)이라 표기한다. 직

역하면, 산의 남쪽 마을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지명과 한자 지명은 차이를 보인다. 산의 둘레와 산의 남쪽은 다르다. 그렇다면, 산드래미의 산과 산남동의 산은 같은 산인가, 다른 산인가?

1994년 12월에 건립된 ‘산드래미 기적비(記蹟碑)’(이하 기적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수원시(水原市)에서 동남(東南)쪽 십여리(十餘里) 한봉산(漢峰山) 하(下)에 산드래미 즉 수원군(水原郡) 태장면(台章面) 매탄리(梅灘里 : 산남리)라는 마을이 위치(位置)한다.”² 기적비에 따르면 산드래미는 한봉산 아래라는 의미가 된다.

한봉산은 현재 매탄1동사무소와 구매탄 단지를 재건축해 건립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자리를 가리킨다. 개발의 과정에서 깎여 산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산이었다. 지금도 주변 지형을 보면 오르막 경사가 확연하다.

“매탄1동사무소 자리가 바로 한봉산 넘어가는 한봉재였어요. 산드래미에서 한봉재를 넘고, 지금 성빈센트 병원이 있는 언덕을 넘어야 시내로 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산을 두 개 넘어야 지동시장에 갈 수 있었다고. 한봉재가 이제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마을에서 언덕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했지요. 낮에도 여자들은 혼자 가기 무서워했을 정도로 험했어요. 시내에서 일을 보고 마을로 넘어 올 때, 몇 사람이 모여야 출발했거든.”(진흥국)

『수원 지명총람』에 한봉산 고개는 ‘함봉재’·‘민살로 고개’로 소개되어 있다. 이 역시 활음조 현상으로 추정된다. 고개 길목에 성황당이 있어서 ‘함봉재 성황당’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산남이 한봉산의 남쪽이라는 점은 확인했다. 그러면 산드래미의 산도 한봉산일까? 최정호 씨 설명은 좀 다르다. “산드래미의 산은 우리 마을 가운데 있던 야산 언덕을 가리킵니다. 지금 매탄4동사무소가 있는 자리 위쪽이 언덕의 정상 쪽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마루터기, 언덕 동남쪽에 형성된 마을을 아랫말, 북쪽 부근 마을을 웃말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산 둘레에 형성된 마을 맞잖아요.” 마을 한복판 언덕을 산드래미 사람들은 상산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종합해 보면, 산드래미라고 할 때 산은 한봉산의 동쪽 사면의 야산 언덕을 가리

킨다. 한봉산 자락이 동쪽 원천리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작은 언덕(상산봉)을 형성했고, 이 언덕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산남리의 산과 산드래미의 산은 크게 보면 같은 산이다. 오늘날 지형만 보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서 산드래미’라는 설명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다.

원천리천과 마을의 형성

산드래미 뒤로 한봉산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원천리천이 있다. 원천리천은 원천저수지(현 광고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다. 원천리천은 한봉산 동쪽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수원의 구실을 해왔다. 산드래미에서 동쪽 원천리천 건너는 드넓은 평야였다. 기적비에는 “동(東)쪽은 지식들이요, 서(西쪽)은 장승백이로 이곳에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평야(黃金平野)는우리의 조상(祖上)들이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백여만평(百餘萬坪)”이라 기록되어 있다.

인계동 출신 시인인 김준기 씨는 삼성전자 단지가 들어선 자리는 물론이고, 원천저수지 아래부터 동탄까지 논이 펼쳐져 있었다고 기억한다. 지식들은 산드래미 동쪽 원천리천 건너 들판의 이름이다. 지식들 옆은 구운들이라 불렀다. 지식들은 현재 삼성전기와 여자기숙사가 있는 자리 일대를 가리키며, 장승백이는 현재 위브하늘채 아파트(옛 신매탄 아파트) 일대 들의 지명이다. “지금 매탄4지구 자리는 선주리들, 보뜰이라 불렀죠.” (최정호)

원천리천 건너만이 아니라 한봉산 아래 별판은 대부분 농경지였다. 산드래미 사람들은 이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기적비’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다. “수원인(水原人)의 식량(食糧) 공급처(供給處)인 이 마을은 원천저수지(遠川貯水池)의 풍부(豊富)한 용수(用水)로 전천후(全天候) 영농(營農)을 했으며 비옥(肥沃)한 토양(土壤)은 이를 뒷받침했다.

‘기적비’에 따르면 산드래미 마을이 형성된 시점은 1500년경이다. 흥양유씨(興陽柳氏) 세웅공(世雄公)이 낙향하여 세거하며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90년쯤 뒤에 여산송씨(礪山宋氏) 시신공(時愼公)이 한봉산(漢峰山) 하에 세거지로 삼

았으며, 다시 40년 뒤인 1630년경에 여양진씨(驪陽陳氏) 경명공(鏡明公)이 산남리에 터를 잡았고, 1730년경에는 수성최씨(隋城崔氏) 대웅공(大雄公)이 오산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돼 있다.

1500년으로부터 치면 마을의 내력이 500년이 넘고, 수성 최씨 집안이 이주한 시점으로 봐도 300년 가까이 된다. 1730년이면 정조(正祖)가 화성을 축성하고 수원의 중심을 옮겨오기 약 70년 전이다. 이후 여러 성씨가 차례로 산드래미에 터를 잡아, 12 성씨(姓氏)가 “대(代)를 이어가며 한집안 같이 평화(平和)롭고 인심좋은 농촌(農村)마을을 이루고 살아왔다.” 1994년에 발간된 <산드래미 향토회 명감>에 실린 성씨를 살펴보면, 송씨, 진씨, 최씨, 유씨가 많고 윤씨, 김씨, 이씨, 차씨, 양씨 등 10여 가지 성씨가 보인다.

앞에서 산드래미는 지명을 낳은 한봉산 자락 야산 언덕을 기준으로 아랫마을, 윗마을, 마루터기로 나뉜다고 했다. 기적비 비문에는 여기에 셋터[신기(新基)]가 추가되어 있다. ‘셋터’도 산드래미라는 것이다. 기적비는 아울러 마루터기도 ‘마르퇴기’라고 표기하고 있다. 마루터기나 마르퇴기냐는 발음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을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현재 삼성전기 정문 앞으로 원천리천 위에 놓인 다리는 삼성교라 불린다. 삼성교 앞으로 난 도로(인계로)는 인계동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다. 삼성전기 정문에서 삼성교 지나 동탄원천로를 건너자마자 오른쪽(북쪽)으로 느티나무가 보이는데, 이 느티나무가 아랫마을 느티나무다. 기적비는 이 느티나무 옆에 서 있다. 산드래미 아랫마을은 느티나무에서 인계로를 건너 매화공원 초입 매탄성당 앞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는 인계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매탄4동, 남쪽은 매탄3동으로 소속이다.

마루터기는 아랫마을 느티나무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매탄4동사무소(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혜교회 있는 쪽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현장에 가보면, 이 길은 오르막이다. 언덕의 정상 부근이 여기였고, 이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 마을을 마루터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루터기는 산드래미 마을들 가운데 집이 가장 많았다. 김남숙 씨와 김교순 씨는 “마루터기에 집이 다닥다닥 붙

어 있었다”고 표현했다. 산드래미 전체 100여 호 가운데 마루터기가 50호 이상이 었다는 것이다.

윗마을(웃말)을 마루터기에서 서북쪽 사면에 형성된 마을이다. 매탄4동 사무소에서 서쪽으로 몇 골목 가면 느티나무 보호수가 서 있는 ‘산샘 어린이공원’이 나온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 ‘산드래미 노인회관’ 건물이 있다. “느티나무 좀 못 미처에 웃말 마지막 집이 있었어요.” (진흥국) 웃말을 지나 몇 블록 가면 매탄공원이다.

“새터는 아랫말에서 지금 매탄4지구 아파트들이 들어선 자리에 있던 마을입니다. 새터도 산드래미로 치기도 했죠.”(이필대) 새터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 들어선 마을이라는 의미일 터이다. “새터는 ‘아래 산드래미’라고 불렸어요.”(진흥국) 새터는 산드래미이기도 하고, 산드래미가 아니기도 한 셈이다.

최정호 씨의 집이 있던 터는 지금 ‘수성빌딩’이 들어서 있다. 최 씨가 소장인 ‘민생안정정책연구소’는 수성빌딩 3층에 있다. “옛날 우리 집 마당이 바로 여기 3층 높이쯤 됐어요. 우리 집이 마을 남쪽 끄트머리쯤에 있었지요. 우리 마당에서 보면 저기 병점까지 훤히 보였다니까요. 여기서 마루터기로 가려면 언덕을 두 개쯤 올라가는 격이었어요.” 진흥국 씨네 집은 현 매탄4동사무소 바로 위였는데, 최 씨네서 진 씨네로 가려면 언덕길을 두 차례나 힘들게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지형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만큼 깎아낸 것이지요.”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 산드래미 인근에 동네가 하나 더 들어섰다는 점도 기록해 두어야 할 듯하다. “1970년대 초쯤에 웃말에서 논을 두 배미 정도 지나서 공군관사가 지어졌지요. 지금 한국 2차 아파트에서 매탄공원 사이예요. 한 50채였어요. 방 둘, 부엌 하나짜리 똑같은 집이 들어섰지요. 공군에서 관사라고 지었는데, 실제 들어와서 산 공군 가족은 몇 집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넘겨받아서 들어왔을 겁니다.”(진흥국) 공군관사촌은 산드래미와는 별도의 동네를 형성했다.



개발되기전 산드래미 약도. 산드래미 사람 최중천씨가 그렸다. 위쪽이 동쪽이다.
마루터기의 가장 높은 지점이 상산봉이라 표시되어 있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받은 사진, 출처‘역사사랑방’)



현재의 산드래미와 매탄동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다.

느티나무

산드래미에는 두 곳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느티나무는 세 그루다. 아랫마을 느티나무는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나란히 있고, 윗마을 느티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거목으로 버티고 있다. 이들 느티나무는 개발 시기에 마을은 완전히 바뀌어도 수백 년 풍상을 견디며 한 자리에 서 있다. 산드래미를 산드래미로 인지하게 해 주는 존재가 이들 느티나무다.

보호수 지정번호가 ‘경기-수원-12’인 윗마을 느티나무는 수령이 46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내판에 지정일 기준 420년으로 기록돼 있고, 지정일이 1982년 10월 15일이므로, 환산하면 457살이다. ‘기적비’에 새겨진 흥양 류씨 세옹공이 세거 터를 잡은 지 60년쯤 지난 뒤요, 여산 송씨 시신공이 오기도 전이다.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으나, 산드래미가 형성되기 전 혹은 형성될 무렵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느티나무의 높이(수고)는 19.1m이고, 가슴 높이(흉고) 둘레는 5.1m다. ‘웃말 느티나무를 지나면 집이 없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나무는 동구를 지키는 마을 수호나무 격이다.

보호수 지정번호가 ‘경기-수원-17-1,2’인 아랫마을 느티나무 가운데 첫 번째 나무는 수령이 300년 이상, 두 번째 나무는 35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내판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첫 나무가 270년, 둘째 나무가 320년으로 적혀 있다. 수고는 첫째가 17m, 둘째가 18m이고, 흉고둘레는 첫째가 2.8m, 둘째가 3.4m이다. ‘기적비’ 기록에 전주면, 수성 최씨 대웅공이 이주해 온 시점(1730년) 전후가 된다.

문제는 아랫마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완전히 고사했다는 점이다. 2018년 여름 강풍으로 일부 보호수가 손상을 입자, 관내 보호수 보호조치에 나선 수원시는 아랫마을 느티나무 두 그루도 가지를 대폭 잘라내고 천으로 감아 두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두 그루 모두 싹을 틔우지 못했다. 2019년 8월 현재 두 그루는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치는 그대로 있으나 천으로 감긴 두 그루는 동치와 큰 가지만 남은 모습으로 서 있다.

아랫마을 느티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지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추정에서부터, 누군가 농약 등을 뿌리에 뿌려서 죽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사목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산드래미의 상징물이므로 과거 모습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아예 아랫마을 느티나무 자리에 박물관 겸 마을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윗마을 느티나무도 건강한 편은 아니다. 여전히 무성한 가지와 잎새를 보이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일부 가지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가을 김장철이면 윗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대대적으로 김장을 담가요. 노인회관은 물론이고 이웃돕기 김장까지 하지요. 그런데,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 염분이 많은 물을 느티나무 아래다 그냥 버리곤 했어요. 아마도 그 영향으로 나무가 시들지 않았나 싶어요. 동네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금물을 버리지 않은 뒤에는 그래도 느티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에요.”(류명화)



아랫마을 느티나무.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윗마을 느티나무.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고사하기 전 아랫마을 느티나무.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소장)



윗마을 느티나무 옆 산드래미 노인회관.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행정구역의 변화

산드래미가 속한 산남리는 원래 수원군 장주면 소속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크게 개편하면서 매탄리와 산남리를 합쳐 매탄리라고 했고, 장주면은 태장면이 되었다. 따라서 산드래미는 1914년 수원군 태장면 매탄리가 되었다. 해방 후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자, 산드래미는 화성군 태장면 매탄리로 주소가 바뀌었다.

수원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1963년 1월 1일자로 화성군 태안면 매탄리는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매탄리는 원천리와 함께 묶여 수원시 매원동이 되었다. 1985년 12월 매원동은 매탄동과 원천동으로 분리된다. 1988년 수원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자 산드래미는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소속이 되었다.

1990년 1월에는 매탄동이 매탄 1동과 2동으로 나뉘었는데, 산드래미는 매탄2동 소속이었다. 1990년 12월 매탄2동은 또 한 번 매탄2동과 매탄3동으로 분동되었고, 산드래미는 여전히 매탄2동이었다. 1993년 권선구에서 팔달구가 분리되면서, 산드래미의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이 되었다. 이듬해인 1994년 7월 매탄2동은 다시 매탄 2동과 매탄4동으로 분동되었는데, 이 때 산드래미는 매탄4동 소속이 되었다.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자 산드래미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으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점은 산남리라는 지명이 1974년 공문서에서도 보인다는 점이다. 진흥

국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 수원농지개량조합이 1974년 11월 1일자로 발행한 고지서를 보면 고지 대상이 수원시 산남1리 진대용(陳大鏞)이라고 돼 있다. 진대용 씨는 진흥국 씨의 부친이다. 1974년이면 이미 수원시 매원동으로 행정구역이 편제된지 10년이 넘는 시점인데도, 관례처럼 산남리라는 지명은 계속 쓰였던 듯하다.

산드래미 개발 시기와 맞물리는 1985년에서 10년 간 산드래미의 주소 변화도 주목된다. 매탄동과 원천동이 분리되고, 구제가 실시되고, 분동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연초에 매탄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뉘었다가, 연말에 다시 2동이 다시 2동과 3동으로 분동됐다. 인구 증가가 가팔랐다는 얘기다. 1990년 연말 매탄2동과 매탄3동이 분할될 때, 동의 경계는 삼성전기 정문 앞 도로가 기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산드래미 아랫마을 일부(인계로 남쪽; 아랫마을 느티나무 건너)는 매탄3동 소속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까지 산드래미 살림살이

1960년대까지 행정구역은 달라졌을지라도, 산드래미는 농촌 마을의 모습을 유지했다. 세 마을 합해 100호 정도로 큰 촌락을 이루었지만, 농사가 주업이었다. 원천리천 건너와 마을 주변은 논이었고, 뒤편 한봉산(한봉재) 못미처에는 밭이 많았다.

김교순 씨(83세)는 21세에 용인에서 산드래미 진씨네로 시집왔다. 1950년대 말이다. “산드래미는 광우리[광주리] 하나 해 가지고 시집오는 동네라고 했지. 뭐 광우리냐고? 광우리에다 채소나 고구마 같은 거 담아서 지고 나가 지동시장 가서 팔아야 했으니까, 광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겠어.” 김남숙 씨(90세)도 18세에 평택에서 산드래미 송씨네로 시집왔다. 1940년대 말이다. 김남숙 씨 역시 지동 시장으로 “광우리 장사” 다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산드래미 농사가 논농사와 밭농사가 “대략 반반 수준이었어요.”(진흥국) 그러나 김남숙 씨와 김교순 씨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근교 채소 농사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 듯하다. 현 매탄공원에서 성일 아파트, 동남 아파트, 삼성 1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삼성 2차 아파트가 들어선 동수원로 일대까지 밭이 많았다고 한다.

공동묘지까지 위치했던 산자락이니, 일굴 수만 있으면 밭을 개간했다고 추정된다.

“별 보고 일어나서 채소 광주리 이고, 한봉재 넘어서, 빈센트 병원 고개 넘어서 지동시장에 가서, 다 팔고 돌아오면 한밤중이야. 아이들은 시부모님들한테 맡겨놓고 장사를 다녔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산드래미에 밭 굶는 사람은 없었어.”(김교순) 물론 근교농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적비 내용처럼 “수원의 식량 공급처”인 논농사에도 힘을 쏟았을 것이다.

산드래미에는 1960년대 중반 무렵에야 전기가 공급됐다. “산드래미에 전기가 들어온 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 전에는 호롱불을 켜지.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검댕이 가득하곤 했지.”(진흥국) 산드래미 토박이들은 마을길이 자주 진창이 되곤 했다고 기억한다. “장화 없인 못 살아. 어찌다 시내에서 급하게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산드래미 가자고 그러면 내리라고 그래요. 멀고 길이 질어서 안 간다고.”(김교순)



산드래미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나누고 있다.
1970년대로 추정된다. (매탄4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제공)



부녀들의 나들이. 역시 1970년대로 추정된다.
(매탄4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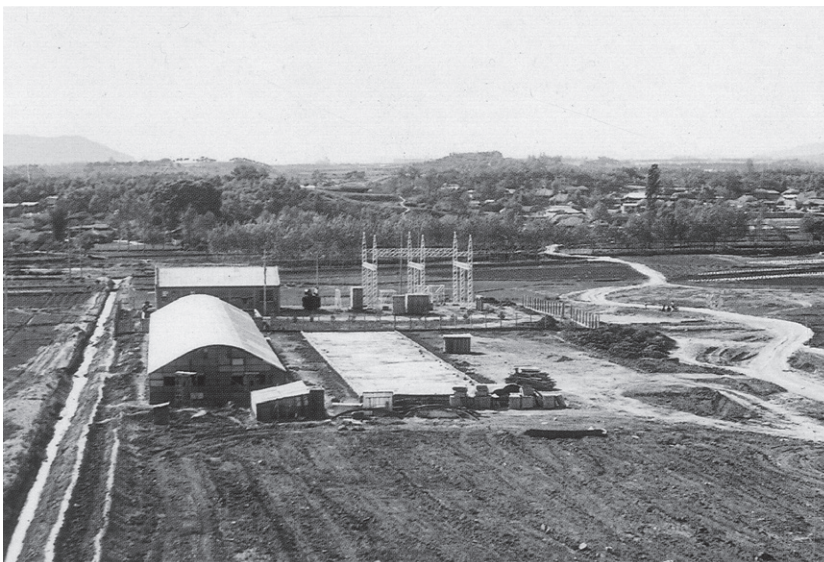
산드래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름답고 여유로웠던 고향의 모습도 많다. “원천리천 독방에 미루나무가 30여 그루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다.”(이필대)든지, “원천리천 모래가 참 고왔어요. 굵은 모래, 가는 모래 해서 모래밭이 지금 삼성전기부터 저 아래 삼성전자 밑에까지 확 펼쳐져 있었죠. 하천 폭이 한 30미터라고 한다면, 장마철 외에는 2미터 정도만 물이 흐르고, 그 옆으로는 모래밭이었죠. 중학교 때까지는 여름에 원천리천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천렵도 하고, 놀기도 하고.”(진흥국) “삼성3차 앞에 보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만든 보. 시내 애들도 여름에 많

이 놀러왔죠. 고기가 많아서 족대를 대면 한 가득 씹 잡았지요.”(최정호)

삼성전자의 입지와 성장

산드래미의 변화는 삼성전자가 수원에 공장을 짓고 성장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1960년대 말 전자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삼성은 1970년대 들어 내놓은 가전제품이 잇따라 히트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수원 경제의 중심축도 섬유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이동했으며, 수원은 인구가 급팽창하는 도시가 되었다. 산드래미는 이 흐름 속에서 한적한 농촌 마을을 벗어나 완벽한 도시 동네로 변모해 나갔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1969년 초 정식으로 세워졌다. 삼성은 이미 전자산업을 미래 유망 분야로 보고 준비를 진행했다. 삼성은 전자산업에 진출하되, 처음부터 공정을 수직계열화하기 위해 대형 전자단지를 구상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수원 시 매탄동에 45만 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20년사』에 1969년 수원공장의 여자기숙사라고 소개되어 실린 사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제공) 그러나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1970년에 완공되었다. 진흥국씨는 여자기숙사 자리는 ‘제일복장’ 건물이었다고 기억한다.



1974년 수원 삼성전자단지 전경. (『삼성전자 20년사』 수록.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진))



1975년 삼성전자와 산드래미 마을의 자매 결연식.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소장)

삼성이 왜 매탄동을 전자산업 공장 부지로 선택했을까? 당시 제3공화국 실세 가운데 한 사람인 국회의원 이병희가 유치했다는 수원 사람들의 증언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매탄동은 입지 조건이 유리했다. 우선, 1968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서울-신갈 구간이 완공되어 접근성이 좋았다. 개발되지 않은 농경지와 구릉지대여서 매입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이 현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자리 일대와 매탄동 농경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다가 매탄동으로 결정했다는 설도 있다. “성대 자리는 용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매탄동을 찍었다고 하지요.” (최정호)



【좌】 개발 직전 텃밭.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산드래미가 수원의 근교 농업 마을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진흥국 씨 소장)



【우】 개발 직전 산드래미 마을. 멀리 신매탄 아파트(현 위브하늘채 아파트)가 보인다. (진흥국 씨 소장)

수원공장 부지는 산드래미 앞 지식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논이었다. 매입은 순조로웠을까?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삼성이 사들인 논 전체를 보면

산드래미 사람들 논은 많지 않았어요. 지식들에도 일부 있었지만, 산드래미 사람들 논은 선주리들 쪽에 많았지요. 하여튼 말통골, 원통, 나참말 그런 마을 사람들이 논이 많았는데, 다 농사꾼이니까 반대를 했죠. 그런데 삼성이 평당 300원을 불렀다가 주민이 반대하니까 400원을 쳐줬지요. 당시 시세는 평당 200원 수준이었는데, 곱절을 준다니까 다들 찬성으로 돌아섰죠.”(이필대)

삼성이 부지매입에 별 어려움은 없었던 듯하다. 공장은 1969년 10월에 착공되어, 1970년 7월 일단 완공됐다. 공식 기록으로는 그 해 3월에 라디오 공장, 전해콘덴서 공장, 금속공장, 여자기숙사를 먼저 지었고, 이어서 TV 공장을 세웠다고 되어 있다. 공장의 경영 주체는 삼성산요전기 주식회사였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고, 삼성전자와 일본 산요가 합작해서 설립한 삼성산요는 전자 부품 생산 공장이다. 삼성과 일본 NEC(Nippon Electric Corporation)가 합작한 삼성NEC는 TV 용 진공관과 브라운관을 생산했다.

하지만 진흥국 씨의 기억은 좀 다르다. “여자기숙사 자리에 처음에는 제일복장이 들어왔어요. 제일모직이 그 때는 제일복장이라고 했죠. 전기 회사가 먼저 지어졌고, 전자는 일부 건물만 있었지요. 켄셋[Quonset을 말함]이 다섯 동, 블록 건물이 2동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 옆으로 남쪽으로 코닝 자리까지 전부 잔디밭이었어요. 잔디는 중앙개발이 길러서 골프장 등에 공급했구요.”

초기 수원공장은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가 활용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진 씨는 1980년까지 수원공장 모습은 그랬다고 기억한다. 진 씨는 1974년부터 3년 정도 삼성코닝에서 근무하다가, 1977년 군에 입대했다고 한다.

삼성산요는 수원공장이 지어진 후 1970년부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과 부품 생산에 들어갔다. 그 해 11월에는 진공관식 TV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삼성이 시중 판매용



1976년 12월 대통령 지원금 100만원으로 지어진 산드래미 새마을 공장 준공식.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소장)

TV 생산에 들어간 시점은 1972년으로 기록된다. 이어 1973년 ‘마하 506’이라는 상표로 흑백 TV를 내놓았고, 1975년 히트 상품인 ‘이코노 TV’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TV 생산이 주목되는 이유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삼성의 종업원이 크게 늘어난 게 TV 라인이 활성화되면서였지요.”(최정호)

삼성전자의 초기 종업원 규모는 정확한 통계를 입수하지 못했다. 『수원시사』에 실린 자료를 원용하여 추정하면, 1968년 수원시 취업자의 절반 이상(51.4%)이 섬유 업종에서 일했고, 규모는 2,678명으로 집계돼 있다. 전기·전자 업종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1975년이 되면 전기·전자 업종 피고용인이 4,505명(구성비 23.3%)으로 기록돼 있다. 대부분 삼성전자가 고용한 인력이다. 이후 1977년엔 전기·전자 고용규모가 5,627명(26.3%), 1978년 1만2,470명(41.2%), 1979년 1만7,553명(43.6%), 1984년 2만754명(53.23%), 1987년 3만518명(62.75%)으로 급증한다.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가 모두 삼성정기와 삼성전자 소속은 아니지만,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성장한 것은 확실하다.³

삼성산요전기는 1974년 삼성전기로 이름을 바꾸었고, 삼성NEC는 삼성전관이 되었다. 삼성전자는 1973년 본사를 수원으로 옮겼다. 1976년에는 ‘하이콜드’라는 브랜드의 냉장고를 출시했고, 경상남도 울주에 있던 전탁공장을 수원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국내에서 컬러TV가 송출되지 않았음에도 컬러TV 생산에 들어가 수출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1978년 세계 1위 흑백TV 생산회사가 되었다. 그 해 말 삼성의 TV 누적 생산 대수는 500만 대를 돌파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크게 늘어나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양에 맞추어 다양한 공장을 부지 내에 계속 증축해 나갔다.

1980년대 들어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더욱 규모가 커졌다. 삼성이 자동화사업(FA), 방송통신기기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1984년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용인 기흥에 반도체통신 공장부지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1988년 말 경에는 종업원 3만8,000명, 매출액 3조7,000억 규모의 국내에서 가장 큰 전자업체가 되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던 삼성전자는 1990년대 중반 수원공장을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른바 ‘백색가전’ 라인을 광주광역시로 옮겨 갔다. 삼성전자의 본사를 비롯해

연구 시설은 여전히 수원에 남았지만, 수원‘공장’의 시대는 이로서 막을 내렸다.

산드래미의 완벽한 탈바꿈

삼성 수원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1970년대 초만 해도 산드래미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부 농토가 공장 부지로 바뀌었지만, 근교 농업 소출을 한봉재 넘어 지동시장으로 내다 파는 생활은 계속되었다. 일부 젊은이만이 수원공장에 취직했을 뿐이다. 그런데, 생산라인이 늘고 고용규모가 급증하면서, 산드래미 사람들은 공장 직원들에게 방을 세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력이 부족한 삼성은 전국을 돌며 직원을 모집하던 때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버스 대놓고 졸업생들을 데려오던 시절이었어요. 제일복장 자리가 기숙사로 바뀌었어도, 직원들이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세를 놓기 시작한 거죠.”(진흥국)

시멘트 블록으로 건물을 짓는 집이 늘어났다. 가족들의 살림 공간 외에 방을 들일 수 있을만한 곳이면 사랑채고, 마당이고 이른바 ‘별방’ 같은 가건물을 들인 듯하다. “방을 18개까지 만들어서 세 줬지요, 뭐. 지을 돈은 계를 뭉기도 했고, 마을 금고에서 빌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텃밭에 예닐곱개 방을 만들었는데, 나중엔 18개까지 되더라고요.(웃음)”(김교순) 여유 공간이 있는 집은 다 그랬다고 한다. “주유소 뒷집이 우리가 지은 집이에요. 거기가 우리 텃밭이었는데, 세를 놓으려고 텃밭 앞에 지었지. 지금도 남아 있을 걸.”(이필대)

“그 무렵 여자 공원들 월급이 육천원에서 팔천원쯤 됐다고 합니다. 방은 작으면 월세가 천오백원이고, 크면 이천원이었지요. 큰 방은 2~3명이 함께 썼지요.”(최정호) 산드래미에 식당이나 유흥시설은 들어서지 않았다. “들어설래야 들어설 수가 없었지요. 왜냐 하면, 시골에서 일하러 온 직원들이 방 월세 내고, 자기 용돈 조금 남기고는, 전부 집으로 송금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게다가 삼성이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잔업 특근 시키는데 와서 자고 출근하기 바빴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진흥국)

산드래미에는 음식점도, 술집도 생길 수 없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월급 날 삼성 직원들은 시내에 나가 회식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다. “삼성 월급날에는 남문 중앙

극장 근처가 바글바글했어. 봉급날 하루 저녁에 몇 억이 풀린다던가 그런 소문도 있었지요.”(이필대)

삼성 공장이 마을 앞에 들어선 덕분에 산드래미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월세 수입’이다. “삼성 공장이 가동되고 얼마 안 되어서 원천리천 물이 오염되더라고요. 삼성 공장 때문이 아니라 원천 저수지 근처에 제지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인데, 어쨌든 삼성 직원이 늘어나고, 생활용수가 유입되니까 더러워지는 건 당연했지요. 원천리천 옆으로 그 좋던 모래는 제방 공사 한다면서 중앙개발이 다 파내서 어디로 가져가 버렸지요.”(진흥국) 그래도 월세 수입은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원래 산드래미는 밥 굶는 동네는 아니었어. 시장에 채소 내다 팔고 해서 먹고 살만 했지요. 그런데 애들 공부 시키려면 돈이 들잖아. 그 돈은 월세 받아서 해결했지.”(김교순)

70년대 산드래미에 변화를 꿈으려면 새마을 공장을 지은 일이다. 새마을 공장은 삼성과 직접 관련은 없다. “새마을운동 바람을 타고 대통령 하사금이 100만원 내려왔어요. 그 돈으로 새마을 공장을 지었지. 산드래미가 삼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삼성에서 공급하는 재료를 가져다가 부품을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했지. 여러 집이 새마을 공장에서 부업을 했어요.”(이필대)



산드래미 사람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세놓던 방들. 1980년대 중반에 찍은 사진이라 1970년대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방을 연속적으로 지은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진흥국 씨 소장 사진 재촬영. 진흥국 씨는 개발 당시 산드래미 사진 앨범을 소장하고 있다.)

정작 산드래미가 크게 변모한 계기는 1980년 초반부터 시행된 매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다. 1982년경에 신매탄 아파트 단지(현 위브하늘채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후 산드래미에도 변화가 붙어닥쳤다. “84년인가, 85년인가 우리 집도 철거한다고 계고장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셨거든. 나는 직장 때문에 서울 가서 살 때인데, 아내가 서울에서 아침에 내려와서 아버지 병수발하고 저녁에 올라오고 그랬지.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현장에 나왔다가 그 사정을 듣고 철거를 미뤄줬어요. 아버지가 198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까지 카도머리(거리 모퉁이)에 좋은 자리를 하나 남겨줬다 주더라고. 그래서 살던 집 철거하고, 대토 받은 자리에 집을 지었지요.”(이필대)

매탄지구 택지개발이 이뤄진 이유는 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주택난 때문이었다. 수원시 인구는 도시계획이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1971년 17만5,715명이었던 인구가 1980년에는 31만757명, 1984년 40만2,319명, 87년 50만6,6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은 1970년 3% 수준에서 1980년 7.1%, 1987년 9.4%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수원시의 첫 번째 대응은 매탄동을 비롯한 동수원 일대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결국 산드래미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어나갔다. “산드래미는 기존 자기 소유 땅을 택지개발 후 주는 방식을 위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원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남았지요.”(진흥국) 택지개발이 끝나고 나서 산드래미를 떠난 원주민은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 새마을 공장은 용도를 다 했다. 공장 부지를 팔아 주민들이 나누어 갖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차라리 향토회를 조직해서 마을 친목을 다지고, 봉사활동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매각한 돈 1억 원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사라진 마을이 향토회를 조직해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걸요. 향토회를 조직한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산드래미 출신으로는 내가 네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내가 10년 넘게 향토회장을 맡고 있지요.”⁴(이필대)

1960년대까지 거의 다 초가집이었던 산드래미는 새마을운동으로 슬레이트 집들로 바뀌었고,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세를 놓기 위해 임시로 지은 집들이 늘어섰던 마을에서, 양옥으로 바뀌었다. 원래 송씨네 종산이었던 자리는 매탄공원으로 변했다. 동수원로를 따라 1988년 매탄 성일과 삼성1차 아파트가, 1989년에는 삼

성2차, 현대, 동남 아파트가 지어졌다. 1993년에는 삼성전기 북쪽 끄트머리 맞은 편에 삼성 3차 아파트가, 그 위로 한국 2차 아파트가 들어섰다. 한봉산 자락 동쪽 야산 언덕을 중심으로 용기종기 살아가던 산드래미와 매탄4동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 산드래미와 뒤편 주택가는 원룸이나 투룸으로 다시 짓는 집이 늘어났다. 산드래미를 기억하는 노인들을 하나 둘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떠나고 있다.



【좌】 아랫마을에서 매탄4동사무소로 가는 길. 동사무소 자리에서 더 올라가야 마루터기의 정상이다. 지반을 상당히 깎아냈지만, 여전히 경사가 있다. 동사무소를 지나면 경사도가 더 올라간다.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우】 원천교 쪽에서 본 삼성전자 단지 모습.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산드래미의 미래

수원 출신 시인 김준기는 ‘산드래미 연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그 여름/ 황톳빛으로 넘쳐 흐르던/ 산드래미 냇가/ 냇가에서 잃어버린 까막 고무신 한 짝” (‘산드래미 연가’ 일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인의 소년기 추억으로 소환되는 산드래미 냇가는 완전히 변모했다. 1970년 삼성전자 수원공장 준공은 산드래미 도시화의 신호탄 격이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산드래미는 변해 버렸다.

산드래미 사람들은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면서 삶을 이어왔다. 구술 인터뷰 대상이 한정된 관계로, 산드래미 선주민 가운데 산업화·도시화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향을 등지거나 회상 자체를 꺼리는 사람까지 찾아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구술을 음미해 보면, 산드래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변화 속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포착하고자 했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2019년 8월 현재 산드래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랫마을 느티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 죽은 나무를 들어내고 예전 느티나무를 작품화한 조형물을 본디 위치에 설치하는 방안, 그 자리에 마을회관을 짓고 느티나무는 작은 모형물로 전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랫마을 느티나무는 1994년 향토회가 조직된 이래 정월대보름에 동제를 지내고, 윗놀이 대회를 하던 장소다. 산드래미 사람들만이 아니라 매탄4동, 넓게는 영통구에서도 관심을 갖는 상징물에 해당한다. 널리 중지를 모아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느티나무가 사라지면 산드래미 역시 추억 속의 지명으로 그저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산드래미를 포함한 매탄4동의 모습은 매탄공원을 경계로 확연히 구별된다. 산드래미와 예전 공군관사촌은 주택가가 되었고, 서쪽 방향은 동수원로를 따라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산드래미 북쪽 일대도 삼성3차 아파트, 한국2차 아파트, 백자 아파트가 차지했다. 원천리천 건너는 삼성전기다. 산드래미와 그 주변 주택가와 앞과 옆 아파트 단지는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별도의 생활권처럼 보인다.

2017년 통계에 매탄4동의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나타난다. 매탄1~4동을 합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가동과 동수원 개발로 수많은 인구가 매탄동으로 들어왔고 또 떠나갔다. 다시 말해, 산드래미는 매탄동을 낳았지만, 더 이상 산드래미 사람들의 산남리, 매탄동이 아니다. 이제는 달라진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새롭게 공존과 화합의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매탄4동의 2010년 중반부터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수의 상징성을 살려, 윗마을 느티나무에서는 여름마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아랫마을 느티나무 인근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웃말 느티나무 옆이나, 아랫말 느티나무 옆에 산드래미의 각종 자료를 모아 보관하는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듯해요. 아직 재원 문제로 엄두를 내지는 못하지만요.”(류명화) 산드래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 영상 자료, 각종 문서 기록 등을 모을 수만 있다면, 훌륭한 아카이브가 가능할 것이다. 아카이브 작

업은 산드래미를 넘어 수원 현대사의 중요 단면을 드러내주는 사료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 이번 조사·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좌】 삼성전기 정문. 정문 앞 삼성교를 지나 대로를 건너면 오른쪽에 아랫마을 느티나무가 있다.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우】 삼성교 북쪽 징검다리.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 산드래미 사람들은 이처럼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논을 돌보았을 것이다. (2019년 8월 18일 직접 촬영)

주석

- 1 매탄동의 옛 마을은 산드래미 외에도 말통골(삼성전자와 영통 사이의 마을), 역말(법원사거리 일대) 등이 있었다. 이들 마을도 역사도 유서 깊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드래미가 가장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역말은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며, 말통골은 현재도 있다.
- 2 『수원시 지명총람』 478쪽에서 재인용. 이하 기적비 비문은 이 책에서 인용했다.
- 3 『수원시사 6』, 293~331쪽.
- 4 “원래 매각대금은 5,50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에 마을회관 건립기금 2,000이 더해지고, 이후에 불어나서 1억 원이 된 거지요.” (진흥국)



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 조사

이재범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내용
- IV. 결론 : 연구 기대성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는 최근 10여 년간에 걸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서수원자이 아파트,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동문힐 아파트 등 1천 가구 내외의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주변의 상황도 농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급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10여 년 전 의왕과의 경계 지역으로 새마을 도로로 연결되던 지역은 지금은 갓길이 넓은 2차선으로 이어지고 교통량도 급증하였다. 이 밖에도 주변의 문화 환경도 바뀌어 왕송저수지(의왕시)를 이용하는 많은 답사객들로 붐빈다.

• 목적

입북동 일대는 생활영역의 변화에 따른 문화 인프라의 확충으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입북동 지역의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기억과 정서를 바로 알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여 미래의 정책 결정 방향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는 비단 경기도 지역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 유사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 1단계 : 문헌조사 대상
- 2단계 : 현지 답사를 통한 변모된 상황 파악.
- 3단계 : 대상자 면담 - 현재 남아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들(5인).
도시화 이후 입주한 현 주민들(5인).

III.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 현재 입북동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의 명칭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적으로 법정동으로서의 입북동만을 다루고자 한다. 행정동으로서의 입북동은 두 법정동이 있는데, 입북동과 당수동이다. 입북동과 당수동은 거리의 이격 정도가 심하여 문화나 역사, 그리고 발전 단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법정동으로서의 입북동만을 취급하고자 한다.
- 조사 분야는 입북동의 유래를 비롯하여 행정상의 변화, 문화, 생활 등 제반시설의 변화를 포함한다.
-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포함한다.

2. 행정구역의 변천

입북동은 경기도 수원시의 서쪽에 위치한 법정동이며 행정동이다. 행정동으로서의 입북동은 입북동과 당수동이라는 두 법정동을 관할한다.

수원시는 고구려 때는 매홀군(買忽郡),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수성군(水城郡)이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 성종(成宗) 때는 이곳에 도단련사(都團練使)

를 두었다. 1018년(현종9)에 수주지사(水州知事)를 배치, 1271년(원종12)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고쳤으며, 1310년(충선왕2) 수원부가 되었다.

1362년(공민왕11)에는 군으로 환원되었다가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 다시 도호부로 고쳐지고, 세조(世祖) 때는 진(鎭)을 두어 한성(漢城)을 수호하는 4진 중의 하나로 삼았다. 1793년 수원유수부로 바뀌었으며, 1895년(고종32) 한때 인천부(仁川府) 관할의 수원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의 2등군이 되었다.

1914년 3월 수원군 수원면(水原面)이 되었으며,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고, 1949년 수원읍을 분할하여 수원시로 승격시키고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였다. 1963년 주변의 20개 리를 편입하였으며, 1967년 6월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되었다.

1983년 2월 전국행정구역 조정으로 용인시 수지면(水枝面) 하리(下里)·이의리(二儀里)의 2개 리가 편입되었다. 1987년 화성군 매송면(梅松面) 금곡리(金谷里)·호매실리(好梅實里)가 편입되었다. 1988년 7월 장안구·권선구 2개 구가 신설되었고, 1993년 2월 팔달구가 신설되었다. 1994년 권선구에 입북동·당수동을, 팔달구에 영통동이 각각 신설되었다.

1995년 권선구 곡선동이 권선동과 곡선동으로 나뉘고,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 일원이 팔달구 매탄3동에 편입되었다. 2003년 11월 영통구가 신설되었다. 2004년 현재 4구 4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권선구(勸善區)

권선구는 입북동의 상위 행정 기구로서 수원시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47.17km², 인구 35만 1053명(2015년 현재). 구청 소재지는 탑동이다.

본래 수원군과 화성군 지역으로, 1988년 행정구역이 기존의 동(洞)에서 구(區)로 바뀔 때, 장안구와 함께 신설되었다. 그리고 12개 동으로 편제한 뒤 명칭을 권선구라 하였다.

1987년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를 서둔동으로, 호매실리를 평동으로 편입하였다. 1990년 매탄동이 매탄1·2동으로, 같은 해 매탄3동이 분동되었고, 1991년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분리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될 때 5개 동이 분동되었고, 1994년 화성군 반월면(半月面) 입북(笠北)·당수리(棠樹里) 일원을 신설된 입북동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1995년 곡선동에서 권선동이 분동해 관할 동이 12개로 되었다.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 개청시 매교·매산·고등동이 팔달구로 편입되고 2016년 1월 11일 금호동이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분동되었다.

북쪽에 여기산(麗妓山, 105m), 남서쪽에 칠보산(七寶山, 239m), 남쪽에 고금산(古琴山, 86m) 등이 있으나 전 지역이 낮은 구릉성 산지에 가까운 지형이다. 하천으로는 황구지천(黃口池川)·서호천(西湖川)·원천리천(遠川里川) 등이 있다. 동부의 수원천(水原川)은 복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일부 지역이 시중 도로로 활용된다. 이들 하천은 모두 구의 남북 방향으로 종단한다.

거의 전 지역이 도시화되어 있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농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논·밭의 경지면적이 제일 넓다. 축산업으로 한우·젓소·돼지·닭·오리 등이 사육되는데, 특히 한우·젓소·돼지 사육수는 시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많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관련 종사자들도 수만 명에 달한다. 지역적인 특징은 경기도청·수원비행장이 위치한 행정·농업·안보의 핵심지역임과 동시에 수원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해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시의 색채만이 가득한 수원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일정하게 병존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두루 갖춘 곳이기도 하다. 교통은 경부선 철도와 함께 수도권 전철이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수원역을 통과한다. 그리고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철도가 이곳에서 합류한다.

1번 국도가 의왕시와 화성시를 남북으로 연결되어 구 동부를 종단한다. 그리고 42·43번 도가 구의 동서남북을 종횡으로 연결한다. 기타 여러 시도와 도로망이 형성되어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교동에 팔달산 지석묘군과 화성축성 당시 화성군 봉담면에 있던 것을 이전해 중창했다는 수원향교가 있다. 그리고 서둔동에 향미정(杭眉亭)이 있다.

세류(細柳)·장지(長芝)·평(坪)·고색(古索)·오목천(梧木川)·평리(坪里)·호매실(好梅實)·서둔(西屯)·탑(塔)·구운(九雲)·금곡(金谷)·권선(勸善)·입북(笠北)·당수

(棠樹)·곡반정(谷泮亭)·대황교(大皇橋) 등 16개 동이 있다.

- 입북동

입북동(笠北洞)은 권선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 당수동, 남쪽에 구운동과 금곡동, 동쪽에 울전동, 북쪽에 군포시로 연결되어 있다. 입북동의 명칭은 갓(笠)띠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입북동은 수원시의 가장 서쪽이며, 주변의 시·군 단위에서도 가장 외곽에 치우친 지역이었다. 군포시의 최남단, 안산시의 극동, 화성시의 가장 북쪽 지역들과 가깝게 있다. 그러므로 입북동은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변방에 위치하여 발전이 늦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입북동은 과천~의왕 고속도로와 지근거리에 있고, 서해안 시대에 있어서 인천과 가까우며, 인천공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KTX 역이 설치될 수원역과 가까워 중요한 주택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입북동은 개발의 방향에 따라 여러 시군의 주변부가 아닌 여러 시군의 종합적인 허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대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래 안산군 월곡면 지역으로서, 갓되(笠山) 뒤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갓뒤 또는 입북이라 불리었다. 1895년(고종32) 안산군에 편입되어 월곡면 입북리가 되었다가,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변경 때 수원군 반월면 입북리가 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9년 8월 15일 수원을 지역이 수원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시로 승격되었을 때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로 편제되었다.

이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된 것은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해서이다. 이 때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고, 현재 당수동과 함께 행정동 입북동을 이루는 법정동이 되었다.

행정동으로서의 입북동은 모두 17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통은 법정동 입북동에 1, 2, 3, 4, 7, 14, 15, 16, 17통이 있으며, 당수동에 5, 6, 8, 9, 10, 11, 12, 13통이 있다. 통의 성립 조건이 3~4백 호의 취락이 형성되었을 때이므로, 각 통은 그 조건에 부합되었을 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입북동의 1, 2, 3, 4, 7통과 당수동의 5, 6, 8통은 자연부락으로 통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취해진 조치이며, 그 밖의 통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설정된 행정구역이다. 즉 10~12통은 인정아파트, 12~13통은 쌍용아파트, 14~15는 자이아파트, 16~17통은 레이크아파트이다.

행정동 입북동은 자연부락과 아파트로 2원화 되어 있다. 법정동 입북동 마찬가지로 2원화 되었는데, 현재의 14~17통은 본래 자연부락이 있었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14~15통에 해당하는 자이아파트 지역은 밀양 박씨의 세거지였다. 밀양 박씨는 이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입주하여 50호 이상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약 15호 정도가 이 지역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은 사라지고. 자연부락도 완전히 소멸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밀양 박씨는 자이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자이아파트는 921세대에 인구 3,300여 명이다.

16~17통에 해당하는 레이크 아파트는 그 변화가 자이아파트보다 더 심하다. 이

지역에는 (경주) 김씨가 밀양 박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주해 와서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레이크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집성촌은 완전히 해체되 현재는 2가구 정도가 레이크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본래 입북동에서 가장 큰 자연부락이었다. 그리하여 통을 배정할 때 1통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통을 없애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의 유래를 남기기 위한 상징으로서 1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이크아파트 일대는 도시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 레이크아파트는 1·2단지가 있으며, 1단지는 569세대에 1,700여 명이며 2단지는 797세대에 2,400여 명이다.

3. 입북동의 유래와 자연지명

한편 이 일대는 토착적인 지명 유래가 남아 있다. 지명에 대하여 이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전래되어 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둔다.

• 갯띠[笠北]

입북리는 갯띠라고도 불렀다. 갯띠의 유래에는 세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번째 마을의 지형이나 지세가 북쪽으로 삿갓(笠)을 쓴 모양과 같다는 설로서 풍수지리 사상과 관련이 있는 지명 유래이다.

두 번째 갯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비롯된 다소 풍자화된 이야기다. 옛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나타난 한 여인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삿갓으로 변을 덮고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전설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입북동 3통(벌말) 지역에는 갯을 만드는 재로로 사용되었던 갯띠 풀이 많았는데, 그곳의 북쪽이라 하여 입북리라고 불렀다는 지역의 생산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모두, 삿갓, 갯띠풀, 북쪽과 연관되어 입북 또는 갯띠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입북리에는 대입북(큰 갯띠)과 소입북(작은 갯띠) 마을이 있다. 대입북은 현재 입북 1통 지역인데 이 지역의 자연마을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마을 또한 가장 컸다. 현재 레이크아파트가 들어섰다. 소입북은 현재 입북 2통과 7통 지역으로

입북동의 유래



입북동

입북동은 예전에 갯마을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① 이 지역의 생김새가 갯을 쓴 모양과 같다. ② 이곳에서 용변을 보던 선비가 갑자기 나타난 여인을 보고 놀라 갯을 덮어놓고 달아났다. ③ 입북동의 벌밭 지역에는 옛부터 갯을 만드는 재료인 갯마뚤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세 이야기 모두 갯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대입북(큰갯마-입북 1봉), 소입북(작은 갯마-입북 2·7봉)으로 형성되어 있다.



예전에 가구 수가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의 도시화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길 건너가 자이아파트이다.

- 갯띠뿌리 방아다리 주막다리

이 세 이름은 모두 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현재 형제 주유소와 서수원 변전소 사이를 말한다. 입북동에 있는 갯띠 뿌리는 갯띠의 아래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방아다리는 옛날에 방앗간이 있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 거리는 옛날에 주막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었다.

- 염수골 뜰

염수골 뜰은 지금의 성균관 대학교 식물원의 뜰을 말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변전소가 있고 잡목이 있다. 앞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봉지뜰

봉지뜰은 대입북과 소입북 사이의 뜰을 말한다. 의왕 ~ 고색간 도로 건너 대입북과의 사이에 있다.

- 사낙골(산악골, 山岳谷)

입북동 산 28번지에 있었던 마을이다. 작은 갯띠와 강짓말 사이에 있었다. 현재 서수원 교회 뒤쪽의 고지대인데, 산악골, 혹은 사낙골이라고 불렀다. 광주촌 사람들이 도둑이 자주 출몰해 살기가 힘들게 되자 이 곳으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막상 오고나니 이번에는 거지가 많아 마을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스님이 시주를 왔다. 마을 사람들은 가뜩이나 거지가 많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스님까지 시주를 왔다고 박대를 했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거지나 없애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껄껄한 생각이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뒷산의 산허리를 끊어 놓으면 거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대로 뒷산의 허리를 끊었다. 그러자 정말 거지가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길손들의 발길마저 끊겨 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

어지자 마을에도 폐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뒷산의 허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맥(人脈)이었던 것이다. 인맥이 끊어지자 사람들의 왕래가 사라지고 후손들도 끊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밤밭(栗田) 마을로 옮겨 살게 되었다. 그리고 자손들도 번창하였다고 한다.

- 신선거리

입북 6통 마을 회관 앞 뜰을 신선거리라 불렀다. 마을의 지세가 신선들이 노는 형상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벌터

입북동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뜰이 넓다고 하여 벌터라고 불렀다. 벌터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입북동 3통에 해당한다.

4. 입북동 주변 환경 상황

입북동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1·2·3 통으로 구성된 재래 마을이다. 그리고 14·15통으로 구성된 자이아파트, 마지막으로 16·17통으로 구성된 레이크아파트이다. 그리고 3통이 있으나, 이 일대는 초가집과 기와집이라는 요식업체를 중심으로 부락의 형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재래 마을

재래마을은 면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이며, 전통적인 농촌 자연 취락이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는 취락이다.

재래마을 주변 업종 현황

연번	업종	업소	수량
1	갤러리	세진갤러리	1
2	공인중개사	행복부동산, 우리공인중개사, 자이부동산	3

연번	업종	업소	수량
3	교육기관	입북초등학교	1
4	교육시설	종합영어 마스터클럽, 튠튼영어마스터클럽, 아이엘음악학원, 레인보우 미술학원, S&M수학전문학원, EBS스스로배움터, 나무와열매영·수학원, 예다함태권도,	8
5	기간시설	수인산업도로, 울전로, 입북로, 송신탑, 서수원 변전소, 이정표, 버스(마을버스25, 마을버스25-2, 시내버스11-1, 시내버스5-4) 버스정류소 5개소	8
6	농장	수정농장	1
7	미용실	레드헤어, 미용실 꼬까머리, 머리애봄, 아가페 미용실	4
8	서비스업	입북카센타, 인테리어, 스크린골프, 나이스피싱, 윤스휠수리, 밧데리할인매장, 크린토피아, 코먼컴퓨터, 대명철비철물, 사진스튜디오부영이, 자동차판매(TOUGH COUNTRY)	11
9	요식업	장장정정(횃집), 명덕수산, 엄마네밥상, 상하이, 백년갈비, 호연, 고향식당, 청학동부대찌개, 감골오리	9
10	유통업체	무한유통, 드림종합상사, 매직업소용식기세척기, 해피라인이불 총판도·소매, 인디안웰메이드, 인디안아울렛, 정도에스지청소용품, 청정마트, 광원슈퍼, 세븐일레븐, 니드펫트리(반려동물용품), HN농수산마트, 백앤샷, 동화유통, 일양로지스택배, 세정아울렛	16
11	의료시설	한국삼성가정의학과, 다나약국	2
12	제조업체	스마트가방제조, 천일상사PVC, 제이에이앤티텔레콤, 대승토탈하우징, 대한리드, 안산편백, 유성정밀, 동호이엔지, 정광엔지니어링, 선인기전, 에스엔이지, 지엠테크, 에너지테크, 우신방화문, 국일산업, 한일건재, 에프시이노베이션, 세진공업사, 동산마루, 한맥가구, 두현테크	21
13	종교시설	풍성한교회, 기쁘다교회, 온마을교회, 사랑의교회, 서수원교회, 양의문교회, 입북동성당	8
14	주거시설	그린주택, 웅비아파트, 삼안주택, 동양빌라, 금산빌라, 밀레니엄빌라, 광원8차빌라, 광원9차빌라, 그린맨션, 명륜빌라, 명문빌라, 동양아파트, 편백나무타운하우스	13
15	주유소	에스오일(형제주유소), SK충전소	2
16	카페&케이크	카페, 커피가, 파리바게트, 부영이카페	4
17	행정기관	입북동행복복지센터	1
18	어린이집		

• 자이아파트

본래는 밀양 박씨를 중심으로 집성촌 50여 호를 중심으로 발전한 자연 취락이었으나 현재는 소멸하고 자이 아파트가 들어섰다.

자이아파트 주변 업종 현황

연번	업종	업소	수량
1	갤러리		
2	공인중개사	황금돼지공인중개사, GS자이공인중개사, 서수원자이공인중개사	3
3	교육기관		
4	교육시설	자이창조하는미술, 입북도미넌트음악학원, 해법영어·수학교실, 예다함태권도	4
5	기간시설		
6	농장		
7	미용실	오로디헤어클럽	1
8	서비스업	자이세탁,	1
9	요식업	본스치킨	1
10	유통업체	LG25	1
11	의료시설		
12	제조업체		
13	종교시설	우리마을교회	1
14	주거시설		
15	주유소		
16	카페&케이크		
17	행정기관		
18	어린이집	자이박스맘어린이집, 꼬리별굿맘어린이집, 서수원하늘숲어린이집, 꿈그린모테소리어린이집, 꼬마천사어린이집, 자이하나생태어린이집	6

• 레이크 아파트

본래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던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자연취락이었으며, 큰 갯띠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다. 현재는 김씨는 거의 이주하였고, 레이크아파트가 들어섰다.

레이크 아파트 주변 업종 현황

연번	업종	업소	수량
1	갤러리		
2	공인중개사	왕송푸르지오부동산, 대우부동산, 입북공인중개사, 서사모부동산, 푸르지오부동산	5
3	교육기관		
4	교육시설	뮤엠영어, 라온미술, 멜로디음악학원, 뉴엔젤음악학원, 레몬미술학원, 용인대태권도, 예다함태권도원, 해법수학셀파	8
5	기간시설		
6	농장		
7	미용실	더샤프미용실	1
8	서비스업	점핑다이어트, 크린토피아세탁	2
9	요식업	꾼들이만든떡볶이	1
10	유통업체	편의점CU, 착한농산물마트, 세븐일레븐	3
11	의료시설		
12	제조업체		
13	종교시설	늘사랑교회	1
14	주거시설		
15	주유소		
16	카페&케이크		
17	행정기관		
18	어린이집	수피아어린이집, 에코푸르지오어린이집, 예술랑어린이집	3

5. 입북동의 도시화

입북동의 도시화는 서수원자이 아파트가 건립되면서부터 진행되었다. 923세대의 자이아파트는 약 2,500명의 거주민이 입주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이전까지 농지로 있었던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이에 필요한 교육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입북동 일대는 크게 3구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재래

마을이다. 두 번째가 서수원자이 아파트 지역이다. 세 번째는 대우 레이크 푸르지오 지역이다.

재래마을의 경우는 서수원자이 아파트, 대우 레이크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나 구조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 웅비 아파트와 그린 아파트는 개·중축이 없었고, 일대의 산업구조나 생활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소규모 제조업, 여러 물품들의 유통업, 소형 아울렛 등 종래에 있었던 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은 소규모 상업 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이아파트와 인접한 차도 부근이 거주 공간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수원 자이아파트



푸르지오 레이크 아파트

현재 파리바게트, 커피가, 삼성가정의학과, 다나약국 등의 시설과 HN마트와 같은 대형 시설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시설들은 재래마을과 자이아파트, 레이크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입북동 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촌락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전반적인 소비중심 공간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비하면 아파트 지역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특히 같은 아파트임에도 자이와 레이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자이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성대역과 가까워(마을버스 5분 이내) 단지 내 상업화나 편의시설 증가 등이 초기 준공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이는 상가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크게 자체 내 상업화 등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3, 세탁소1, 미용실1, 본스치킨1, 태권도교육장1, 피아노학원1 등 단지 내에는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성대역과 재래마을쪽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단지 내 상가를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레이크는 상대적으로 변화가인 성대역과 거리가 멀다보니 자체 독

립적인 생활권 요소를 갖추어 갔다. 레이크는 1단지와 2단지가 4차선으로 분리되어 상가가 마주 보고 있다.

재래마을과 아파트와의 주요 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의 구분은 앞 장에서의 구분 방식을 따랐으며, 업종의 구분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이므로 앞으로 국가에서 정한 산업 분류 방식에 따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업종별로 본 재래마을·자이아파트·레이크아파트 비교

연번	업종	재래마을	자이아파트	레이크아파트
1	갤러리	1		
2	공인중개사	3	3	5
3	교육기관	1		
4	교육시설	8	4	8
5	기간시설	8		
6	농장	1		
7	미용실	5	1	1
8	서비스업	11	1	2
9	요식업	9	1	1
10	유통업	16	1	3
11	의료시설	2		
12	제조업	21		
13	종교시설	8	1	1
14	주거시설	13		
15	주유소	2		
16	카페&케이크	4		
17	행정기관	1		
18	어린이집		6(?)	3

위 표를 보면 입북동 환경 변화의 패턴을 알 수 있다. 우선 재래마을과 아파트는 업종의 구분이 다르고 그 양적 부문에 있어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하여 자이와 레이크는 다소 미세한 양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입북동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상업시설의 이원화 경향이 강화된다. 재래마을과 아파트는 각각 4개의 통으로 구성되어 인구에 양적차이는 거

의 없는 상황에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의미는 양면성을 가진다. 한쪽 측면은 재래마을의 생활공간화, 아파트의 거주공간화로 생활시설을 수용하는 재래마을은 다양한 인프라로 자족적인 생활공간을 갖출 수 있는 장점, 아파트는 오히려 외부의 시설에 의존적인 거주 공간이 된다는 단점으로 읽을 수 있다. 반면에 재래마을이 아파트 수요만을 바라보고 경쟁적으로 상업시설을 증축한다면 교통혼잡과 상권분배를 포함해 재래마을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입북동 아파트 주민들의 욕구와 생활에 필요한 산업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고급 브랜드 자동차 판매소, 고급 카페와 스튜디오 등은 입북동 재래마을의 기존 생활패턴과는 대조적일 수 있는 새로운 업종들의 출현이다. 아파트 내부에는 거주민 만을 위한 1차 상점들이 주를 이루고, 아파트 바깥 재래마을에 아파트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위한 2차 상점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자칫 상업시설의 이원화가 거주공간의 위계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입북동 도시화 확대와 인접 지역과의 관계 변화

입북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밀집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종전까지 3층 이상의 거주 공간이 거의 없었던 입북동에 15층 이상 건물의 출현은 재래 마을의 경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첫번째 종교 시설과 의료 시설의 확장이다. 소규모였던 종교 시설은 대규모 다수의 시설로 확충되었다. 기독교가 다양한 교파별로 등장하였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입북동 성당의 건립이다. 종래 울전동 성당의 구역으로 편성되었던 입북동 성당이 건립됨으로 독자적인 구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두번째 어린이집의 증가이다.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거나(레이크),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주간에는 거주지를 비우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의 연령대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래마을의 주 연령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세번째 갤러리와 스튜디오, 카페, 그리고 케이크를 판매하는 점포들의 증가이다. 이 점포들은 재래마을에 위치하지만 주 이용자들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종래

에는 엄마네밥상, 고향식당, 청학부대찌개 등 전통적인 한정식 위주의 식당들만 있었는데, 아파트가 등장한 이후로 서구적 취향의 카페와 케이크점들이 증가했다. 한정식 식당들은 제조업체 근무자들을 수료한 공간이지만, 카페와 케이크점은 아파트 주민들의 여가, 편의적인 공간이다.



입북동의 의료시설

이와같이 입북동은 연령, 직업, 생활방식이 다른 재래마을과 아파트, 제조업체, 상업시설 종사자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거주환경을 띠는 공동체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지내며 간헐적으로 접촉하다보니 거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른 특별한 충돌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입북동 거주민의 인식

입북동의 변화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면담 방식을 택했다. 대상자는 원주민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아파트 건립 후의 입주자 가운데 약간 명을 선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들의 신상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거주 기간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 이주 시기, 직업, 거주지의 변화, 수입의 변화, 자녀들의 교육 수준, 전 시기와 현재의 차이, 앞으로의 기대 등을 질문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경우만을 수록하였다.

가. 입주민 1 : 자이 거주, 2009년, 건축계 종사, 서울 강동구에서 이주

주거 공간으로서 쾌적한 공간으로 자연 환경으로서는 만족. 서울 강남권과의 교통도 원활하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정도로 사당과 연결되어 서울의 강북지역보다 더 가까워 경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들이 둘인데, 교육문제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다. 강남권은 원래 꿈도 꾸지 못하지만, 처음 입주시에는 성균관대학교의 식물원 자리에 삼성의료원이 들어선다고 하여 기대가 컸다. 삼성의료원이 들어서면 입북동의 도시화가 신속히 진행되며,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가격 상승 등 많은 부가가치가 형성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삼성의료원의 건립이 주변 대형 병원들의 반대로 좌초되고, 다시 삼성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하였으나 이 계획 또한 무기한 연기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 실망이 크다. 현재는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도 입주 가도 되지 않은 주택 가격에 쉽게 이주하기도 어렵다. 단지 생활의 불편이 적고 직장인 인덕원인 관계로 거주에 큰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있다. 교통편이 증가하여 수원역과의 소통이 활발하고 성대역으로도 7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가장 큰 불만은 아파트의 가격이 10년 전 입주할 때보다도 5,000만원 정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기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서수원 변전소를 이전하고, 성대 식물원을 개발하여 병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빨리 추진하기를 바란다.

나. 입주민 2 : 밀양 박씨. 350년 전 이주민의 후손. 자신의 3층 건물에서 임대업

350여 년 전부터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밀양 박씨 가운데 한 집안으로서 입북동에서 3층 건물을 지어 입주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종래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다. 주변의 변화는 자신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예전에는 입북동에서 의왕, 부곡까지 걸어다녔다. 초등학교도 부곡에서 졸업하였으며,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이었다. 현재 입북로는 도로의 폭은 넓어졌으나, 그 노선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길로 많은 보부상들이 다녔다.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금곡까지는 도보로 다녔다. 지금은 생활권이 성균관대역이 중심이 되었으나, 예전에는 입북동이 중심지역이었다.

지금의 성균관대역은 울전동으로 밤밭이었는데 공동묘지가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성균관대역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입북동이 종속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천천동도 입북동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앞지르고 있다.

입북동은 지금도 수인산업도로가 있어서 유통업과 소형 제조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자이아파트가 예전 자신들의 세거지였던 밀양 박씨의 집성촌이 있던 지역이다. 밀양 박씨는 다 외지로 가고 15호 정도만 남아 있다. 레이크아파트는 김씨가 세거하였으며, 밀양 박씨 집성촌 보다 훨씬 컸으나, 지금은 1호 정도만 남아 있고, 거의 해체되었다. 입북동은 아주 다른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

입북동에 소형 제조업체가 많은 것은 개발과 관련하여 지가를 높게 설정하였는데, 아직도 그 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공장화하여 유지하고 있다. 이 일대가 정리되어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바램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8. 입북동 주민의 역사와 전승에 대한 기억

입북동 원주민들에 있어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전승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자이아파트가 들어선 시기가 2009년이므로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구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나 그 비중은 입북동 전체의 면적에 비하여 10% 미만의 범위이다. 대부분의 농지나 야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아파트들은 본래 취락지역을 개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절대적인 면적의 비중에는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입북동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휴일에도 주변의 위락시설이 없으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다. 큰 갓때, 작은 갓때 등 버스 정류소에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을 통하여 대략 알고 있으나, 큰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입북동의 개발이 이러한 상태도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갓때[筵]에 대한 기억의 전승이 끊길 우려가 있다.

9. 입북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

입북동은 현재 재래마을과 아파트 단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아파트의 건설로 입북동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입북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건설이 입북동의 전통적인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아파트의 입지가 원래의 취락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 현상만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재래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파트 인구의 증가로 농촌 마을이 아닌 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 서구적 위락시설과 입북동 성당과 서수원교회 등 대형 종교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종래의 농로가 도로로 연결되어 2차선 내지 4차선의 차도들이 고속도로와 연결되었다.

한편 입북동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가로 성장한 성균관대역으로 인해 이미 예전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치는 상실하였다. 교통요충지인 성균관대역을 중심으로 입북동 또한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보다 더한 기간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중심의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의 취락지역 이외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더 이상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의 염원대로 병원이나 연구개발센터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안정적인 생활 거주지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 연구 기대성과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는 최근 10여 동안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급변했고, 원주민들에서 새

로운 이주민들로 교체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입북동의 변화 가운데 이 글을 통해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전래마을과 아파트로 나누어진 상업시설의 이원화 구도였다. 입북동의 전통과 고유성과는 무관한 주거 공간인 아파트, 아파트생활에 부속된 상점과 부대시설들을 수용하고 있는 전래마을의 모습에서 일시적인 편의공유와 세대와 정서가 다른 다양한 삶속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위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서로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북동의 전통문화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위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주변의 도시보다 변방에 위치한 덕에 개발이 늦어진 입북동에는 입북동의 과거와 현재를 고증해 줄 전래 농촌마을 시절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남아있다. 원주민의 증언을 통해 점점 희미해져가는 입북동을 기록함으로 입북동 원주민의 도시화 기억과 인식이 담긴 입북동의 역사가 새로운 입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같은 터전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동질감 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13

경기도 지역 석탑의 조영 특징과 전개 과정

이서현

- I. 머리말
- II. 석탑 현황과 양식 특징
- III. 경기도 지역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에는 삼국시대 불교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백제부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4세기 후반부터 한산주에 사찰을 지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불교의 유입 이후 경기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상, 석탑, 승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미술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는 개별 유물에 대한 고찰, 사찰 또는 사지에 조성된 유물에 대한 연구, 지역별 조성 현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² 이밖에 특정 시대에 조성된 불교조형물을 다루는 연구 속에서 경기도 지역에 조성된 불교조형물이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³ 그러나 경기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파악하여 전체 불교조형물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경기도 지역 불교조형물을 각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성과도 많지 않다.⁴ 이 중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여 석탑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1편 확인된다.⁵ 이 선행 연구는 경기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조성된 석탑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지정된 석탑 23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 지역에 남아 있는 석탑 가운데 지정된 석탑은 1998년 이후 현재 29기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정 석탑을 대상으로 하여도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정 석탑

29기를 기본으로, 석탑의 형태가 양호하고 양식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비지정 석탑, 경기도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반출된 석탑 등의 상황까지 고려한 경기도 지역 내 석탑은 약 47기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 내 유일한 현존 전탑인 신륵사 다층전탑까지 포함한다면 불탑의 수량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20여 년 전에 이뤄진 만큼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을 새롭게 하여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경기도 지역 석탑 48기를 새롭게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정리, 분석 및 종합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건립시기, 분포, 양식 등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경기도 지역에서 석탑의 확산과 전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와 아울러 다른 유형의 석조미술과 양식공유 현상 및 연관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석탑 현황과 양식 특징

경기도 지역⁶에는 신라~조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의 폐사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폐사지는 5,393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총 536개소의 사지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많은 곳은 47개소의 연천군이며, 그 다음으로는 44개소의 안성시, 다음으로는 용인시에서 42개소가 확인되었다.⁷ 아마도 사찰의 건립과 함께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 있는 석탑 수량은 사지의 개소 보다는 현저히 적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지정문화재를 포함, 비교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47기의 석탑과 1기의 전탑을 포함하여 총 48기를 대상으로 삼았다.⁸ 그러나 사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탑재 일부가 출토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경기도 지역 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48기의 석탑 현황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석탑 29기, 비지정 석탑 16기, 전탑 1기, 국외 반출 석탑이 1기, 도난 1기로 구분된다. 지정 석탑의 경우 선행 연구가 발표된 1998년 이후 7기의 석탑이 새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⁹

경기도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553년 경에 신라에 편입된 이후 고려가 들어서기 전까지 신라의 영역에 속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신라의 영역이었지만,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¹⁰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발굴조사 결과 하층기단은 9세기 통일신라 석탑의 하층기단을 재사용 하였던 것이 확인¹¹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하층기단 상부의 석탑은 전형적인 고려 석탑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 석탑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 석탑이다. 49기의 탑 중에서 통일신라 석탑 1기, 조선 석탑 6기인데 비해 고려 석탑은 41기로 압도적인 수량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조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지역 대부분에 고려 석탑이 남아 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남아 있는 수량은 주로 1~2기가 확인되는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등은 5기 이상씩 분포하고 있어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성은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죽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천은 설봉산 주변으로 현재의 이천 시내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주는 남한강 주변과 신륵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은 특정한 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건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15기, 고려 중기는 7기, 고려 후기는 19기로 파악되고 있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석탑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 중기~후기에 걸쳐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 전반적으로 석탑 건립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4기 정도 확인되는데, 절반 정도가 서울·경기 지역에 건립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 내 건립된 석탑을 보면,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팔각 칠층석탑,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등 6기가 확인된다. 현등사를 비롯하여, 수종사, 신륵사, 회룡사¹² 등이 수도인 한양과 지

리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조선 왕실의 원찰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사가 전대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왕실과 종척들에 의해 시행된 불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의 조선시대 석탑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¹³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 및 양식특징

연번	석 탑 명	지역	지정현 황	시 기	기단부					탑신부				상 륜 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 신 석	옥개석			
					탱 주	상층 기단 받침	탱 주	부 연	초층 탑신 받침		옥개 받침	탑 신 받침	물끓 기 흙	
1	어비리 삼층 석탑	용인	유형 문화재 63호	통일 신라 말	1	2단	1	각형 1단	2단+별석	양우주	4단	호형 2단	有	
2	하판리 지진탑	가평	문화 재자료 17호	고려 후기	-	-	1	-	2단	-	4단	1단	-	-
3	용암 사지 석탑	고양	비지정	고려 전기	-	-	-	-	각형2단	양우주	4단	각형 2단	-	-
4	상운사 석탑	고양	비지정	고려 전기	1	-	1	-	2단+별석	양우주	4단	2단	-	-
5	연주암 삼층 석탑	과천	유형 문화재 104호	고려 전기	-	2단	×	각형1단	3단	양우주	4,3, 3단	2단	有	노반, 양화
6	문원리 삼층 석탑	과천	문화재 자료 39호	고려 후기	안상	-	양우 주	×	1단	양우주+ 문비	3단	1단	有	-
7	아차산 삼층 석탑	구리	유형 문화재 205호	고려 후기	-	-	-	×	2단	양우주	3단	-	-	-
8	봉업 사지 오층 석탑	안성	보물 1808호	고려 전기	-	-	-	-	1단	양우주+ 문비	5단	2단	-	-
9	매산리 오층 석탑	안성	유형 문화재 279호	고려 전기	-	3단	양우 주	호형	각호각 3단	-	3단	1단	有	-
10	죽산리 삼층 석탑	안성	보물 435호	고려 전기	-	2단	양우 주	×	연화문	양우주	4단	2단	-	-
11	신창리 삼층 석탑	안성	비지정	고려 전기	-	2단	양우 주	각형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12	죽림리 삼층 석탑	안성	유형 문화재 78호	고려 전기	-	-	-	×	호각2단	양우주+ 문비	4단	2단	-	노반

연번	석 탑 명	지역	지정현 황	시 기	기단부					탑신부				상 륜 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 신 석	옥개석			
					탱 주	상층 기단 받침	탱 주	부 연	초층 탑신 받침		옥개 받침	탑 신 받 침	물 꽂 기 홈	
13	일죽 죽림리 삼층 석탑	안성	유형 문화재 제130호	고려 후기	1	-	양우 주	×	-	-	4단	-	-	노반
14	청룡사 삼층 석탑	안성	유형 문화재 179호	고려 중기	-	각호 각 3단	1	호형	각호각 3단	양우주	4단	1단	-	-
15	도기동 삼층 석탑	안성	비지정	고려 후기	-	-	양우 주	×	-	양우주	1단	-	-	-
16	장원리 삼층 석탑	안성 (현 도안)	문화재 자료 59호	고려 후기	-	-	양우 주	-	-	-	4단	2단	-	-
17	삼막사 삼층 석탑	안양	문화재 자료 76호	고려 후기	-	-	1	×	3단	양우주	3단	-	-	-
18	중초 사지 삼층 석탑	안양	유형 문화재 116호	고려 중기	-	별석 각형 2단	양우 주	각형1단	각형 1단	양우주	4,4, 3단	2단	-	-
19	미륵 당지 석탑	안양 (현 의왕)	비지정	고려 후기	-	-	-	-	-	양우주	3단	1단	-	-
20	지평리 삼층 석탑	양평	유형 문화재 112호	고려 전기	-	-	-	-	-	양우주+ 사방불	4단	2단	-	-
21	용천리 삼층 석탑	양평	유형 문화재 164호	고려 전기	-	2단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노반, 복발
22	창리 삼층 석탑	여주	비지정	고려 중기	안상	연화 문	×	호형	2단		3단	-	-	-
23	하리 삼층 석탑	여주	유형 문화재 180호	고려 중기	-	호각 형 2단	양우 주	각형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24	신록사 삼층 석탑	여주	문화재 자료 21호	고려 후기	-	2단	1	호형	연화문	양우주	3단	2단	-	-
25	신록사 다층 전탑	여주	보물 91호	고려 후기	-	-	우주	-	-	-	2단	3단	-	노반, 복발, 보륜 등
26	공세리 오층 석탑	용인	보물 92호	고려 중기	안상	연화 문	양우 주	호형	×	양우주	3단	1단	-	-
27	서봉사지 석탑재	용인	보물 225호	고려 중기	-	-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

연번	석 탑 명	지역	지정현 황	시 기	기단부					탑신부				상 륜 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 신 석	옥개석			
					탱 주	상층 기단 받침	탱 주	부 연	초층 탑신 받침		옥개 받침	탑 신 받침	물끓 기 흙	
28	마북동 석탑	용인	문화재 자료 133호	고려 후기	-	-	-	-	연화문 별석(?)	양우주	3단	1단	-	-
29	용천리 오층 석탑	용인	보물 226호	고려 전기	-	-	양우 주	-	-	양우주	4단	2단	-	-
30	용덕사 석탑	용인	유형 문화재 194호	고려 후기	-	호각 형 2단	1	낮은호 형	각호각 3단	양우주+ 문비/향 로	4단	1단	-	-
31	중리 삼층 석탑	이천	문화재 자료 42호	고려 전기	-	호각 형 2단	양우 주	각형1단	각호각3	양우주	5단	2단	-	-
32	관고동 오층 석탑	이천	비지정	고려 중기	-	-	-	-	호각형 2단	-	4,3,3, 3,3	1단	-	-
33	안흥사 오층 석탑	이천 (현 서울)	비지정	고려 전기	1	1단	1	각형 1단/물 끓기흙	각호각호 4단	양우주	5단	1단	有	-
34	갈산동 오층 석탑	이천	비지정	고려 전기	-	-	-	-	각형 1단	×	3단	-	-	-
35	후안리 오층 석탑	이천	비지정	고려 전기	-	-	-	호형	각호각형 3단	-	3단	1단	有	-
36	이천 오층 석탑	이천 (현 일본)	유형 문화재 186호	고려 전기	-	각형 2단	1	각형1단	각형 2단	양우주	5단	2단	-	-
37	운계 사지 삼층 석탑	파주	유형 문화재 106호	고려 후기	-	-	-	-	-	양우주	3단	2단	-	-
38	심복사 석탑	평택	비지정	고려 후기	-	-	-	각형1단	호각형 2단	양우주	4,3,3	2단	-	노반
39	동사지 오층 석탑	하남	비지정	고려 전기	1	1단	-	각형1단	각형 1단	양우주	5,4,4, 4,3	1단	-	노반
40	동사지 삼층 석탑	하남	비지정	고려 전기	안상	2단	1	각형1단	호각형 2단	양우주	5,4,4,	1단	有	-
41	용주사 오층 석탑	화성	비지정	고려 중기	안상	-	위패 형	호형	1단	양우주/ 문비	4,4,3, 3,?	2단	-	-
42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 석탑	화성	-	고려 후기	-	1단	양우 주	-	호각형 2단	양우주	3단	1단	有	노반, 복발, 양화 등

연번	석탑명	지역	지정현황	시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석	옥개석			
					탱주	상층기단받침	탱주	부연	초층탑신받침		옥개받침	탑신받침	물받기홈	
43	현등사삼층석탑	가평	비지정	조선전기(1411)	안상	연화문	연주형	옥개형	연화문	우주+탱주	3단	1단	-	-
44	수종사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비지정	조선전기(1493)	안상	연화문	원형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3단	2단	-	복발
45	신륵사다층석탑	여주	보물 12호	조선전기(1473)	운족형	연화문	운룡문	연화문	-	양우주	3단	1단	-	노반
46	묘적사팔각칠층석탑	남양주	보물 13호	조선전기(15C)	안상	연화문	원형, 안상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3단	2단	-	복발
47	회룡사오층석탑	의정부	유형문화재 212호	조선전기(15C)	운족형/안상	안상+연화문	額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2단	2단	有	-
48	청원사칠층석탑	안성	비지정	조선전기(15C말)	안상	-	우주	연화문	-	양우주	2단	1단	-	-

III. 경기도 지역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

먼저 경기도 지역 석탑의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구역 상 16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안성시로 총 10기의 석탑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용인과 이천에 6기가 남아 있고, 여주 5기, 안양 3기 순이다. 가평, 고양, 과천, 남양주, 양평, 하남, 화성 등은 2기, 구리, 의정부, 파주, 평택 등은 각 1기의 석탑이 남아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주로 경기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매우 변방지역에 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전처럼 강화해야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미술의 확산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점¹⁴과 경기북부 지역 역시 다수의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장이었고, 현재에도 군사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을 것¹⁵이라는 점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기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이다. 이 지역의 석탑은 9기로 전체 경기도 지역 석탑 수량에 비하면 20% 미만에 해당하여 집중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등 조선시대 석탑의 분포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들 사찰은 대부분 조선 초기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거나 왕실 원찰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자연석 기단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과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¹⁶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석 기단의 발생은 통일신라 석탑의 변화 유형의 하나로, 자연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삼는 발상을 통해 하층기단을 생략하여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한 것과 전형양식의 기단 전체를 생략하여 자연석으로 기단을 대치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¹⁷ 두 유형은 모두 경주 남산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지적 특징은 고려시대에 높은 지대이거나 강을 끼고 넓은 시계를 확보하는 위치에 불탑을 건립하여 佛力에 의한 山川裨補 思想의 뜻이 담겨져 있는 裨補塔의 성격을 갖는 석탑들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비보탑 성격의 석탑은 주로 산 정상 of 자연석기단 석탑으로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다.¹⁸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은 모두 강변에 위치하여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하여 건립한 유형¹⁹으로 사찰 가람의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비보적 성격’으로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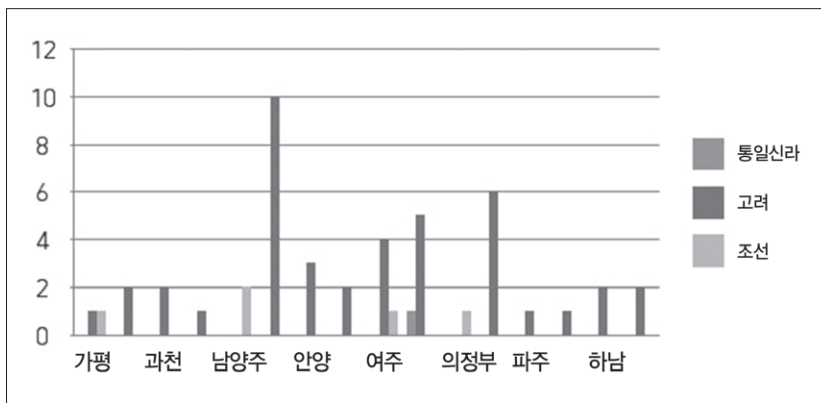
경기남부에 39기의 석탑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안성, 이천, 용인, 여주에 27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역시 분포 특징이다. 이들은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석탑이 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성은 대부분 죽산을 중심으로 한 곳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어 죽산이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皆次山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介山郡으로 바뀌고 고려 940년(태조 23)에 竹州로 승격된 곳이다. 죽주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해왔다. 삼국시대 고구려나 백제는 현재의 서울에서 이천을 거쳐서 충주와 청주 방면으로 진출했고,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충주를 발판으로 한강 하류로 진출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남북과 동서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 죽주지역이었다.²¹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은 사찰의 건립으로 이어지는데, 고려시대 죽주는 봉업사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는 고려 건국 직후인 925년 能達이 주도한 대규모 불사가 봉업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²²

이천은 호법면 후안리에서 발굴된 후안리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중리, 관고리, 갈산동 등 설봉산과 북하천 사이 이천 시내 부근에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다. 이천 지역은 조선시대에 呑川驛, 阿川驛, 仍邑院, 貫川院²³ 등의 驛院이 있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1895년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利川府移屬陰竹縣邑誌』에 의하면 음죽현에서 북쪽은 利川大路로 통하고, 동쪽은 竹嶺大路로 통하며, 서남쪽은 鳥嶺大路로 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쪽에서 영남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령이나 조령을 넘어야 하는데, 당시 이천대로를 통하여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²⁴ 한편, 설봉산의 설봉산성은 신라 지방군사조직인 南川停이 설치되었던 군사·행정의 요충지였다. 官庫里의 옛 지명은 官後里로 조선시대 進上米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천지역은 군사적, 행정적 뿐만 아니라 물자의 수송에도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鎭山으로 정상 부근에 영월암이 있으며 영월암 마애여래입상(보물 제822호)으로 볼 때 나말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이천 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²⁵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석탑이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 석탑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있는데,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용천리 오층석탑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고려중기 이후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안성, 이천과 달리 용인 내에서 특정한 곳에 석탑이 집중 건립되기 보다는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주는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 신륵사 다층석탑 등 신륵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창리 삼층석탑, 하리 삼층석탑 역시 신륵사와 마주보는 남한강변 부근으로 여주의 석탑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양쪽 강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주는 신륵사 외에 고려초기부터 대찰로 번창한 고달사에 원종대사 혜진탑과 고달사지 부도, 원종대사 혜진탑비 등 뛰어난 조각수법을 보이는 불교미술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고려초기에는 고달사가 여주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고달사는 조선시대에 서서히 쇠락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말 나옹선사가 신륵사에서 입적한 이후 조선시대에는 신륵사가 여주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⁶ 신륵사의 사세는 조선초기 영릉의 원찰로 확정되면서 1472년(성종 3)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최전성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신륵사 다층석탑이 건립되었으며, 원찰로서 국가의 지원과 함께 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시군별 석탑 분포 현황

다음으로 건립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통일신라 1기, 고려전기 20기, 고려중기 8

기, 고려후기 13기, 조선 6기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고려전기와 고려후기에 집중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통일신라 석탑은 9세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거의 건립되지 않았다. 그동안 신라 불교문화가 전파된 현황에 대해 신라 일반형 삼층석탑의 북방한계는 금강산-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²⁷-인제 한계사지 삼층석탑-홍천 물걸리사지 삼층석탑-횡성 중금리 삼층석탑-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안성(봉업사지) 죽산리 삼층석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²⁸ 이를 통해 보면 상대적으로 강원지역보다 경기지역에는 신라 석조미술이 소수만 남아 있다.²⁹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지역 신라석탑의 북방한계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까지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비리 삼층석탑이 경기도 지역 내 현존하는 유일한 신라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전기 석탑은 대부분 안성, 이천에 집중 건립되었으며, 양평, 하남, 용인에서 소수 확인된다. 안성과 이천에 고려전기 석탑 건립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분포현황에서 검토하였다. 고려중기 석탑은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화성 등지에서 비교적 소수 확인되는데, 고려전기 석탑 건립의 영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후기 석탑은 19기로 가장 많이 확인된다. 고려후기 석탑은 경기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건립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에 석탑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남아 있는 석탑이 대부분 고려후기~조선전기에 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약간 의아스럽다. 고려 건국 직후 석탑 건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통일신라 전형석탑 양식을 기본으로 변화를 보이거나, 백제석탑 양식을 계승한 석탑, 평양 일대에서 평면 팔각형 석탑이 다수 건립되어 백제와 고구려 석탑을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과는 달리 고려만의 새로운 양식의 석탑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³⁰ 물론 경기북부 사지 중 고려전기부터 사찰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있고,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 등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불도 일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에는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석탑 건립의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기북부에는 석탑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석조미술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는 불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전기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고려전기에 개성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개성-장단-적성-양주-의정부-서울로 통하는 길과 장단-임진나루-파주-고양-서울로 통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전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온 길이고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종 21년(1067년)부터 남경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양주를 거치지 않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으로 통하는 즉,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파주-(혜음령)-고양 교통로가 새로운 교통로가 각광받게 되었다.³¹ 어쩌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경기북부의 동쪽에 해당하는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은 고려전기에 대형 불사가 성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석탑을 포함하여 불교미술 조성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³²

마지막으로 양식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었다. 이들 석탑은 각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큰 틀에서 한국 석탑사의 양식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는 공간 영역 속에서 석탑의 양식 변화 흐름을 살펴본다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나름의 주목할 만한 양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기도 지역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고양 상운사 석탑에서 초층탑신받침을 별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에서 초층탑신받침은 갑석 상면에 받침이 조출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받침을 별석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등장한다.³³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다시 별석의 초층탑신받침을 올리는 형식은 보령 성주사지 건립된 석탑 4기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초층

탑신받침의 변화는 1층 탑신받침 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별석받침을 감입하는 방식, 초층탑신받침 자체를 연화문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탑신받침을 1층 탑신석 하단에 모각하는 방식과 별석받침을 양련형 또는 복련형의 연화형으로 조성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³⁴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신라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성주사지 석탑과 같이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다시 별석 탑신받침을 올린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올린 별석 초층탑신받침에 양련의 연화문을 장식한 예는 고양 상운사 석탑이 유일하다.³⁵ 이러한 고려석탑의 초층탑신받침의 변화는 통일신라부터 탑신에 안치된 사리에 대한 상징성을 강화하고 고려석탑이 고준화되면서 상승감을 높여주기 위한 시각적 목적 등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³⁶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상운사 석탑은 어비리 삼층석탑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고려시대에 들어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⁷

다음으로 고려시대 석탑은 석탑 양식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계승양식과 고려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승양식은 신라, 백제, 고구려 석탑 양식을 계승하는 석탑을 가리키며, 고려양식은 고려시대 석탑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갖춘 석탑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 고려석탑을 보면, 신라계 석탑과 고려양식 석탑이 대부분이다. 신라계 석탑도 적지 않으나, 아무래도 고려석탑 양식을 보이는 석탑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는 석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고려의 친신라정책과 그들이 수용했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중앙에 진출했던 옛 신라세력에 의해 개성과 인접 지역에 신라계 석탑 건립이 촉진되었던 것이고, 반면 후백제 세력은 무신란을 전후하여 모두 몰락하였기 때문에 후백제 세력이 그들의 문화를 경기도 지역에 이식시키지 못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국한하여 발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⁸

세 번째, 고려시대 석탑의 결구방식 특징 중 하나인 탑신을 여러 매의 석재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구방식을 조합식³⁹ 또

는 적층식⁴⁰ 등 연구자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탑신을 구성하는 석재를 2매 이상의 석재를 수직으로 적층하거나, 가로방향으로 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결구 방식은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이천 오층석탑 등 주로 경기남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결구방식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주 서오층석탑, 안동 하리동 오층석탑, 강진 금곡사지 삼층석탑, 화순 한산사지 삼층석탑, 장성 천방사지 오층석탑, 제천 소악사지 삼층석탑 등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비교하면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의 크기는 통일신라 말에 이르면 기단부 규모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레 줄어들고, 사용하는 부재도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신라 말 석탑은 대부분 탑신은 1석으로 조성하는데, 고려시대 석탑의 크기가 전대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탑신석을 여러 매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이 사용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통일신라 말에 소형화된 석탑을 다시 대형화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을 여러 매의 석재로 나누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엄조식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단부 조식을 살펴보면, 안상만 새기거나 안상과 연화문이 동시에 조식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은 하층기단 각 면에 안상을 3구씩 조식하였는데, 전형적인 연화형 안상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보이고 있다. 여주 창리 삼층석탑은 하층기단이 면석과 갑석이 단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면석부 각 면에 안상을 2구씩 조식하였고, 갑석 상면은 복련의 연화문으로 장엄하였다.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은 현재 하층기단 면석부가 땅속에 묻혀 있지만, 각 면에 안상을 4구씩 안상이 조식되어 있다고 한다.⁴¹ 갑석 상면은 큼직한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모서리 귀꽃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의 소형 석탑인데, 기단 지대석은 1매의 판석으로 조성하였고 측면에 2구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기단부 장엄 종류 중 특이한 사례는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인데, 단층기단으로 1석으로 조성한 지대석 측면에 안상을 3구씩 조식하였고, 기단 면석에 위패모양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위패형 장식은 주로 범종이나, 석종형 부도에` 조각되는 경우가 많고 석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륵사 다층석탑의 경우 기단은 불대좌형으로 하층 면석은 파도문, 상층 면석엔 운룡문을 조각하였으며, 대칭되는 갑석부는 상하로 연화문을 새겨 장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상대갑석 상면을 연화문으로 장엄한 석탑으로는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이 있다.

탑신에 새겨지는 장엄은 주로 門扉인데 내부 공간을 조성하여 감실을 표현하는 경우와 표현에 새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1층 탑신 남면의 중앙에 한단 안으로 들어서 공간을 조성하여 감실을 표현하고 있다. 감실 주변으로 장식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 다른 재질로 문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칠장사에 있는 죽림리 삼층석탑은 1층 탑신 한쪽 면에 장방형의 문비를 새겼는데 가운데 음각선을 세로로 새겨 문짝을 표현하였으며 양면에 원형의 문고리를 양각하였다.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의 1층 탑신에도 문비가 새겨져 있는데, 얇은 음각선으로 전체 문비를 구획하고 가운데 세로의 음각선으로 문짝을 표현하였으며 그 중앙에 자물쇠 고리가 조각되어 있다. 용인 용덕사 석탑은 한 면에 자물쇠 고리를 새긴 문비가 있고 반대 면에 향로를 조각하여 탑신 내부 사리에 대한 장엄 의사를 높이고 있다. 용주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도 2줄의 돌대로 문비를 구획하고 내부에 자물쇠형 고리를 조각하여 문비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양평 지평리 석탑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옥개석에 장엄을 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파주 운계사지 삼층석탑은 옥개석 하면에 옥개받침이 전각부와 만나는 모서리에 꽃잎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옥개석 모서리에 풍경을 걸기 위한 구멍 주변을 꽃잎모양으로 장식하는 사례는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성주 동방사지 칠층석탑에서 확인되기도 하나, 옥개석 하단 모서리 부분에 꽃잎모양 장식이 새겨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용인 마북리 석탑은 기단부도 남아 있지 않고 탑신석도 1층만 남아 있어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1층 옥개석 낙수면에 구름문양이 양각되어 있어 매우 특이한 사례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 48기의 석탑을 대상으로 석탑의 건립시기, 분포 현황에 따른 조영 특징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된 이후 고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지역에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성행하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 보다는 경기남부에 집중 건립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이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도 기인하지만, 경기북부에는 석탑을 건립하는 대형 불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이 남아 있어 꾸준히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고려시대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는데, 고려 전기에 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으며, 고려후기에 경기도 전역에 걸쳐 석탑이 건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가까운 지역과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석탑이 건립되어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석탑 건립은 지역적 특수성, 즉, 교통의 요지인 곳에 주로 건립되는데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에 불사가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석탑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는 성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은 별석 초층탑신받침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것과 백제계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신라계 석탑과 고려양식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탑신 결구 방식과 탑신 제작 방식에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탑 장엄 조식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글을 마치면서 이 글에서 경기도 지역에 국한하다보니 다른 지역의 석탑과 좀 더 세세한 비교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경기 지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경기도 지역의 석탑뿐만 아니라 석조부도, 석불, 마애불 등 다른 불교 석조미술 유형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어비리 삼층석탑



2. 하판리 지진탑



3. 용암사지 석탑



4. 상운사 석탑



5. 연주암 삼층석탑



6. 문원리 삼층석탑



7.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8. 봉업사지 오층석탑



9. 매산리 오층석탑



10. 죽산리 삼층석탑



11. 신창리 삼층석탑



12. 죽림리 삼층석탑



13.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14. 청룡사 삼층석탑



15. 도기동 삼층석탑



16. 장원리 삼층석탑
(도난)



17. 삼막사 삼층석탑



18. 중초사지 삼층석탑



19. 안양 미륵당지 석탑



20.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21.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22. 여주 창리 삼층석탑



23. 여주 하리 삼층석탑



24. 신륵사 삼층석탑



25. 신륵사 다층전탑



26.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27. 용인 서봉사지 석탑재



28. 용인 마북동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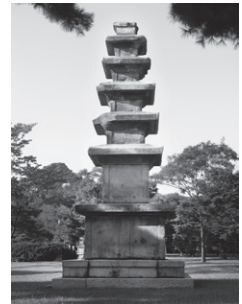
29.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30. 이천 중리 삼층석탑



31. 이천 관고동 오층석탑



32.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33. 이천 갈산동 오층석탑



34.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35. 이천 오층석탑



36. 파주 윤계사지 석탑



37. 평택 심복사 석탑



38.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39.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40. 용주사 오층석탑



41.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42.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43.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44.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45. 회룡사 오층석탑



46.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 1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불교 공인 이듬해인 385년 漢山州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켜 그 절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三國遺事』 卷3 興法 難陀闢濟條 “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 度僧十人, 此百濟佛法之始”)으로 볼 때 서울지역에는 이미 4세기 후반부터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 일 것으로 생각된다.
- 2 이은창, 「龍仁 漁肥里의 三層石塔」, 『고고미술』통권67호, 한국미술사학회, 1966, pp. 168~169; 朴慶植, 「安養 安養寺의 七層塼塔과 龜趺」, 『文化史學』 제11· 12· 13호, 韓國文化私學會, 1999, pp.617~685; 朴慶植, 「安養 中初寺址에 대한 考察」, 『實學思想研究』 14집, 역사실학회, 2000, pp.85~112; 박경식, 「경기도 안성시의 석불과 석탑에 관한 고찰」, 『고문화』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0, pp. 71~109; 황보경, 「河南地域 佛教遺蹟에 대한 研究」, 『古文化』56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0. 12, pp. 181~213; 엄기표,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3, pp. 161~188; 황보경, 「漢江流域 신라 佛教遺蹟의 현황과 특징」, 『신라사학보』12호, 신라사학회, 2008. 04, pp. 213~271; 오호석,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선사와 고대』31, 한국고대학회, 2009, pp. 259~287; 이순영,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239~271; 엄기표, 「하남 춘궁동 3층과 5층 석탑의 건립시기와 의의」, 『선사와 고대』34, 한국고대학회, 2011, pp. 305~331; 최성은, 「죽주(竹州) 장명사지(長命寺址) 석불 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pp. 515~536;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 1~36; 김훈래,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3, pp. 77~113; 엄기표, 「남양주 水鍾寺의 조선시대 舍利塔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131~164; 최성은, 「평택 深福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동국사학』6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pp. 235~266; 이서현,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pp. 90~119 외 다수.
- 3 석탑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경기도 지역 내 고려~조선시대 석탑이 많은 관계로 이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도 지역 석탑이 비교 검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홍대한,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은주, 「고려시대 신라계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송지현, 「조선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등.
- 4 박경식, 「경기도의 석조미술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9호, 1998, 6, pp. 65~80; 박경식,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지정된 석등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8호, 한국문화사학회, 2002. 12, pp. 173~190.
- 5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p. 95~122.

- 6 경기도는 현재 행정구역 상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의 접해 있고, 서쪽은 인천과 서해, 동쪽은 강원도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황해도와 닿아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은 신라~고려까지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지만 조선 초 한양 천도 무렵부터 점차 오늘날과 유사하게 자리잡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내 석탑을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 글의 서술과정에서 사용하는 “경기도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 내 소재하지만, 기증 등을 통해 移建되어 경기도 내 사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휴전선 이북에 포함된 지역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하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서울은 경기도 지역과 거의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생각되나, 수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경제·행정·문화가 집약된 지역으로, 불교미술 역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서울지역에 조성된 불교미술은 제외하였다. 서울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엄기표, 「서울지역 佛教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造美術을 中心으로-」, 『郷土서울』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pp. 145~206.

- 7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사지총람』, 2010.
- 8 본 논문은 석탑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도 포함시켰다. 이유는 신륵사 다층전탑이 경기도 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탑이면서 신륵사 내에 건립된 다른 석탑들의 분포와 건립시기를 파악하는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무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특별히 전탑으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전체 연구대상을 모두 칭할 때는 ‘석탑’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9 박경식 선생의 1998년 논문에서는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도 경기도 석탑으로 포함하여 지정 석탑을 23기로 보았으나,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행정구역 변천을 보아도 인천지역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 10 경기도 지역 내 통일신라 불교미술은 불상의 경우 최근 죽산리 석불입상이 통일신라 불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되었으며, 당간지주는 장의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이 있다.
- 11 경기도박물관, 『고려 왕실사찰 봉업사』, 경기도박물관, 2005, p. 206.
- 12 회룡사는 고려 우왕 10년(1384)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도하고 조선 태조 4년(1395)라고도 전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회룡사라는 寺名으로 불리게 된 것은 태조 7년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와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여 회룡사 또한 왕실과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韓國寺刹全書』 “高麗辛禡十年(甲子)無學大師初創…朝鮮太祖四年(乙亥)無學王師 初創 現今無學土窟是也 七年(戊寅)太祖自咸興回駕 臨幸於此 爲王師擴張 改名回龍...”)
- 13 이순영, 「조선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260~261.
- 14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 28~29.
- 15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 110.

- 16 여주 신록사 삼층석탑과 다층전탑의 경우 여주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경기남부 지역에 해당하나, 신록사가 남한강 북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두 탑이 모두 북쪽 강변의 암반 위에 자리하고 있어 입지적 측면으로 본다면 한강 이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변의 자연석 기반을 사용한 경우로 포함하였다.
- 17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 247.
- 18 홍대한, 「高麗時代 塔婆 建立에 反影된 裨補風水」, 『역사와 경계』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3, pp. 76~77.
- 19 비보탑 성격의 석탑을 모두 ‘자연석기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세운 석탑과 자연암반 자체를 기단으로 삼은 석탑은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도 자연석 기단 석탑은 괴체석기단 석탑의 영향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순영, 위 논문, 2018, p. 247.)
- 20 경기도 지역 내 현존 전탑은 신록사 다층전탑이 유일하다. 그러나 안양의 안양사에도 태조 왕건이 건립한 칠층전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사 칠층전탑 역시 비보풍수적 성격이 건립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지석, 「安養寺 七層塼塔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7호, 한국문화사학회, 2007. 6, pp. 675~695.)
- 21 정성권, 앞 논문, 2013. 3, pp. 4~5.
- 22 능달은 청주 호족 출신으로 왕건의 개국에 기여한 인물로, 그가 죽주에 파견되어 불사활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왕건이 궁예의 지지기반이었던 청주세력을 비롯하여 죽주에 남아 있던 친 궁예적인 호족세력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경기도박물관, 위 보고서, 2002, p. 526.)
- 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利川都護府, 驛院條.
『東國輿地志』, 利川都護府條.
- 24 엄기표,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3, p. 177.
- 25 영월암에는 보물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 외에도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대좌(나말려초), 영월암 삼층석탑(고려), 석조여래좌상(나말려초) 등의 석조미술품이 남아 있다.
- 26 신록사에는 석탑 외에도 보제존자 석종, 탑비, 석등, 팔각원당형 승탑, 원구형 승탑 등 조선초기부터 불교미술품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7 이순영, 「신라 향성사지 3층 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 『신라사학보』35, 신라사학회, 2015, p. 127.
- 28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38.
- 29 이는 문화전파 경로로서 당시의 교통로가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순영, 「강원지역의 신라 석조미술 확산과 전파경로-인제 한계사지 석조미술을 중심으로」, 『豪佛 鄭永鎬 博士 八旬頌祝紀念論叢』, 2015, p. 400.

30 홍대한,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327~329;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15~18.

31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4차』, 2006, pp. 50~51 및 p. 66.

32 실제로 양주는 양주 회암사지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에 불교미술이 집중되어 있고 의정부는 망월사, 회룡사 등에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불교미술이 다수 남아 있다. 또한 연천은 심원사에 조선시대 석종형 승탑이 다수 남아 있는 등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불교유적과 석조미술이 다수 확인된다.

33 최초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일반형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등장하는 것은 8세기 후반부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순영,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32, 신라사학회, 2014, pp. 389~432.

34 고려석탑의 탑신받침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대한, 「高麗初 石塔의 塔身받침 造形特性에 관한 研究-塔身받침의 起源과 變化를 중심으로-」, 『文化史學』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 615~620.

35 별석받침을 연화형으로 변형한 석탑은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원주 서곡사지 삼층석탑,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논산 관촉사 삼층석탑 등에서 볼 수 있다.

36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 252.

37 이서현, 앞 논문, 2019, p. 113.

38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 112.

한편,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은 안내문에 백제계 석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석탑의 3단 옥개받침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각형 3단 옥개받침 형식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오층석탑의 옥개받침과 친연성을 엿보이기는 하나, 아차산 삼층석탑 3단 옥개받침 중 제일 위쪽의 1단은 모서리를 깎아 치석하여 차이가 있다. 2층과 3층 옥개받침은 2단인데, 마찬가지로 위쪽 1단은 모서리를 깎아 치석하였다. 기단부도 완전하지 않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9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3.

40 홍대한,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285.


41 李殷昌,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미술사학연구』통권58호, 한국미술사학회, 1965, pp. 80~81.



14

연천 지역의 금석문에 관한 연구

고희상

- I. 머리말
 - II. 연천지역 묘비의 종류별 명칭과 내용
 - III. 연천지역의 암각문과 금문
 - IV. 연천지역 묘비의 분포 및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천지역의 금석문에 관한 자료는 연천군에서 2014년에 발간된 『연천금석문대관』에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희귀 금석문등 총 51기를 채탁(採拓) 수록하여 연천의 금석문에 관한 연구의 기본적인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추가하여 연천 지역 금석문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능묘비등 금석문에 새겨진 자료들을 통해 연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들을 고찰하여 스토리텔링하고 학술적 연구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연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천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흔적인 금석문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기도에 발간된 『경기금석문대관』(1990)과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한국금석문 종합정보시스템”에서의 금석문 정보를 활용하고, 연천군에서 발간한 연천 『향토사료집』(1995), 『연천군지』(2000)와 2014년에 발간된 『연천금석문대관』을 바탕으로 금석문을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 범위는 연천지역의 금석문과 해외로 반출된 금석문에 대해 기술하며,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을 모아서 제작된 시기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연천지역 금석문의 종류별 명칭에 따른 분류로서 연천지역 능비(陵碑)를 신도비와 능표로 분류하고, 그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묘비의 신도비, 묘

갈, 묘표의 개념과 종류를 분석하며, 사찰에 세워진 사비(寺碑)의 탑비와 사적비를 조사하고, 일반 사적비, 송덕비, 암각문의 종류와 분류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된 연천지역의 금석문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금석문의 개요

금석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돌이나 금속에 어떤 형태의 문자나 도형을 새겨 놓은 것이다. 본래 청동기나 철기 등 금속 기물에 새겨진 금문(金文)이나 비(碑), 묘지(墓誌), 각석(刻石), 조상기(造象記), 마애(磨崖)등 석재에 새겨진 석문(石文)을 말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어 거북이 배 껍질과 동물 뼈에 새겨진 갑골문(甲骨文)이나 비단에 쓰인 백서(帛書), 죽간(竹簡)과 목牍(木牘), 벽돌이나 와당에 새겨진 문자들, 신용의 징표로 사용된 인장의 문자, 고분이나 철기 등에 쓰인 글씨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문자 기록 자료를 포함하기도 한다. 금석문의 가치는 역사고증학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역사서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롭게 제공해주며, 역사서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등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대체적으로 비석은 비문의 서두에 나오는 비의 제목에 의해 그 종류를 나뉘보면 능 앞에서 세워지던 능비(陵碑)에는 신도비(神道碑), 능표(陵表)가 있고, 묘 앞에 세워지던 묘비에는 신도비, 묘갈(墓碣), 묘표(墓表)등이 있다. 그리고 사비(寺碑)에는 탑비(塔碑)와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의 생애를 기록한 승려비, 사찰과 관련된 사적을 기록한 사적비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천지역의 금석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II. 연천지역 묘비의 종류별 명칭과 내용

1. 연천의 왕릉 경순왕 능표

연천의 왕릉은 경순왕(신라 제56대 왕 : ? ~ 979)릉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릉이다.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여 재위8년의 신라 마지막 왕이 되었으며, 항복 후 왕건에 의해 태자의 지위인 정승공에 봉해 졌고, 유화궁을 하사 받았고, 녹 1천석과 함께 경주를 식읍으로 받아 사심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왕건 태조의 딸 낙랑공주와 다시 결혼하였다. 고려에 항복한 지 43년 후인 고려 경종 4년(979년)에 사망하였으며, 장남면 고랑포리 산 18-2에 묻혔고, 경순(敬順)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경순왕릉은 조선 건국 이후 오래도록 잊혀 오다가 1747년 영조 때 발견되어 1748년 (영조24년) 감사 김성운과 첨정 김응호등이 봉축하고 제사하였으며, 또 6·25이후 방치되었다가 1975년 사적 제244호로 지정되어 지금의 형태로 정화되었다.

능비는 1747년에 건립되었고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대석은 문양이 없이 단조롭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122cm, 비신높이는 103cm이며, 너비는 48cm, 두께는 19.5cm이다. 앞면에 “신라경순왕지능(新羅敬順王之陵)”이라고 되어있으며, 경순왕릉의 신도비로 추정되는 비가 있으나 비문이 심하게 마멸되어 전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비신 중간과 하단의 일부분에서 10자 정도가 확인 될 뿐이다.

2. 연천의 신도비

1) 신도비의 건립 목적과 특징

신도비(神道碑)란 임금이나 고관(高官)의 무덤 앞이나 또는 연고지(緣故地)의 길목에 세워 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하며 대개는 무덤 동남(東南)쪽에 위치한다. 신도(神道)란 말은 망인(亡人)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나라에서는 종이품(從二品) 이상 관리(官更)들에게 한하여 세우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에는 삼품(三品) 이상 관직자 무덤 앞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이품(二品) 이상의 관리(官更)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 하였고² 왕의 신도비로는 건원능(建元陵: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에 있는 이태조의 신도비)과 홍릉(洪陵)의 고종황제(皇帝)의 신도비가 있으며 한편 공신이나 석학 등에 대하여는 왕명(王命)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³

그렇다면 신도비를 건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비주(碑主)의 위업과 덕을 기리고 애도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묘소로 가는 길을 지칭하는 ‘신도(神道)’를 장식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비주의 위업과 행적을 기록하여 가문을 과시하고 현양하기 위함이며, 넷째는 신도비 건립을 조상에 대한 효행이며 보본(報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천의 신도비도 종2품 당상관 이상의 품계를 가졌던 대상자에 한하여 건립하도록 제한하였는데, 김첨경·김홍주·김시환등 강릉 김씨 묘역의 신도비 3개와 윤인함·윤호·심덕부 묘의 신도비 3개등 6개이며, 특히 강릉김씨의 대가를 이룬 김첨경·김시환·김상성 묘의 경우 묘갈·신도비, 묘비·신도비, 묘갈·묘비 등을 세트로 같이 세워놓고 있다.

2) 신도비의 분포 및 현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도비의 분포도를 보면 연천읍 통현리에 강릉 김씨들의 신도비가 4개소로 가장 많고, 미산면이 3곳, 백학면과 청산면에 각 각 1개소씩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도비가 건립된 시기로 볼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신도비는 심덕부(1328-1401)의 신도비이다. 이 비는 1563년(명종 18) 8월에 건립되었으며, 현손인 대광보국승록대부 우의정 통원(通源)이 찬하고, 현손 가선대부 전주부윤 전(銓)이 서와 전을 하였다. 규모는 비좌 높이 18cm·너비 118cm·두께 70cm, 비신 높이 175cm·너비 76cm·두께 23cm, 이수 높이 67cm·너비 85cm·두께 34cm이다. 이 비신은 전란

으로 많은 상흔을 입고 비문의 박락 및 판독이 지극히 어려워져서 신도비의 좌측에 새로운 신도비가 건립되었다.⁴

이중에서도 김시환 신도비는 향토문화재 13호로 지정되어 있고, 윤호 신도비는 문화재자료 137호, 윤인함 신도비는 향토문화재 9호로 지정되었다.

아래의 표는 연천지역에 있는 전체 신도비의 현황이다. 수록기준은 1945년 12월 이전에 건립되고, 음기(陰記)가 있는 금석문으로 한정하였다.

연천지역 신도비 현황

구분	비 명	소재지	년대	찬	서	전
1	심덕부(沈德符)	미산면 아미리 산110	1563	沈通源	沈銓	沈銓
2	김첨경(金添慶)	연천읍 통현리 산5-5	1635	李廷龜	申翊聖	申翊聖
3	우복룡(禹伏龍)	미산면 백석리 산18	1694	趙 綱	禹鼎來	禹弘成
4	윤인경(尹仁鏡)	백학면 노곡리 산12	1733	鄭士龍	尹陽來	閔鎮遠
5	김득원(金得元)	연천읍 통현리 산5-2	1734	金始煥	金尙奎	金尙奎
6	김홍주(金弘柱)	연천읍 통현리 산5-5	1742	李光佐	徐命均	趙顯命
7	김시환(金始煥)	연천읍 통현리 산6-1	1745	李宗城	曹命教	鄭羽良
8	윤 호(尹 壕)	미산면 아미리 산131	조선중기	魚世謙	任士洪	?
9	윤인함(尹仁涵)	청산면 백의리 산26	1939	閔丙承	金甯漢	尹容植

3) 연천지역에서 반출된 신도비

다음은 일본으로 반출된 신도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본으로 반출된 신도비는 현재 두 비 정도로 보이고, 그 첫 번째 신도비는 낙선군 이숙(樂善君 李瀟, 1641 - 1695) 신도비이다. 낙선군 신도비는 낙선군 묘역 입구의 도로변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일제강점기 때에 밀반출되었다고 전해 온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낙선군신도비명첩(樂善君神道碑銘帖)』(奎 10186)에 의하면 신도비의 건립연도⁵는 1721년(영조3)이며, 비의 크기는 37.7×22cm 이고, 박필성(朴弼成) 찬하고, 여성군 이즙(李楫)이 글씨를 쓰고(書), 서평군 이요(李橈)가 전(篆)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해제에 보면 낙선군 신도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다.

『낙선군신도비명첩(樂善君神道碑銘帖)』(奎 10186)은 京畿道 楊州郡 負辛原⁶에 있는 낙선군 이숙(李瀟)(1641-1695)의 신도비의 탁본이다. 건립 연대가 1727년(英祖 3)인데 아마도 이 당시 탁본인 듯 자획이 정교하고 탁본 역시 完好(훌륭하게 갖추어져 원만)하여 거의 肉書(손으로 쓴 것)나 다름없다. 전수(篆首)는 <유명조선국왕자낙선군 증익정헌공지신도비명⁷>, 비제(碑題)는 <유명조선국왕자악선군점오위도총부도총관 증익정헌공지신도비명 병서⁸>이다. 금평위(錦平尉) 박필성이 글을 짓고 전수(篆首)는 이요, 그리고 본문은 이준이 썼다.⁹

두 번째 기술하는 신도비는 1689년(숙종 15)에 세워진 이명(李溟)의 신도비¹⁰이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판부리에 있다가 지금은 일본의 경도대학(京都大學)에 있다. 서체는 해서(楷書)이고 찬자는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된 허목(許穆, 1595~1682)이다. 서자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예서에 뛰어나 많은 비문을 썼던 윤심(尹深, 1633~1692)이고, 각자는 이서우(1633~1709)이다. 이명(1570~1648)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자연(子淵), 호는 구촌(龜村)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으로 정랑 이정빈(李廷賓)의 아들이다. 저서로는 『구촌유고(龜村遺稿)』가 있다.

명(銘)은 간단명료하게 잘 표현하였는데, 운(韻)을 넣어 넉 자 한 짝으로 귀(句)를 이루며, 서술(敍述)하고 찬양(讚揚)을 하였다. 그 명(銘)은 다음과 같다.

위엄이 있으면서 관대할 줄 알며 확고하면서도 편안할 줄 알았네.
군셈으로 의를 행하셨으니 크도다 큰 생각이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안정시켰도다.¹¹

이렇게 해외로 반출된 신도비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잊혀 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반출된 신도비를 되찾아 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좀 더 면밀히 해외로 반출된 묘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연천지역에 많이 남지 않은 신도비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민통선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신도비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여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연천의 묘갈

1) 묘갈의 명칭

조선시대에 갈(碣)이라는 용어는 묘갈(墓碣)에만 사용되었는데 갈제(碣題)에 의한 좀 더 정확한 명칭은 묘갈명병서(墓碣名并序)이다. 묘갈이란 명칭은 찬자(撰者)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었는데, 묘갈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를 보면 묘갈명(墓碣銘), 묘갈(墓碣), 갈명(碣銘), 갈음기사(碣陰紀事), 묘갈식(墓碣識), 갈음명(碣陰銘), 묘갈기(墓碣記), 묘갈명후(墓碣銘後), 묘갈음기(墓碣陰記), 묘갈후서(墓碣後徐), 묘갈비(墓碣碑), 묘갈후기(墓碣後記), 묘갈문(墓碣文)등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묘갈명이 사용되었다. 찬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비슷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묘갈에 의하면 실제 입석 시에는 갈제를 묘갈명병서(墓碣名并序)라 하였고, 다른 명칭은 많이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묘갈의 입석(立石)기준

묘갈은 사대부층이 주로 입석하였지만 왕실과 서인층에서도 세운 기록이 보인다. 영조 19년(1743년)에 영조가 정릉(貞陵)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다음 참봉 유성제에게 헤진 옹주의 묘갈 길이가 얼마나 되나 질문하는 기사가 있었다.¹² 묘갈 역시 숙종대에서 정조대까지가 입석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연천지역 면단위의 묘갈 분포도를 보면, 연천읍 5기, 군남면이 2기, 백학면이 7기, 미산면이 4기, 왕징면 2기, 신서면이 2기 등 총 22기이다.

연천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입석된 묘갈은 조선 중종(中宗) 8년(1513년)에 세워진 허원(1457~1511)의 묘갈이다. 아래 표를 보면 연천지역의 묘갈 입비가 활발한 시기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조선현종 8년(1667년) 대부터 정조대(1778년)까지이다.

아래표의 연천지역 묘갈 현황의 수록 기준은 신도비와 같이 1945년 12월 이전에 건립되고 음기(陰記)가 있는 금석문으로 하였다. 이진무의 묘갈은 향토문화재 19호로 지정되었고, 허목 묘갈은 기념물 184호이다. 김상성은 향토문화재 13호, 신호의 묘갈은 향토문화재 15호로 지정되었다.

3) 연천지역 묘갈 현황

구분	비 명	소재지	년대	찬	서	전
1	허원(許瑗)	왕징면 강서리 산 90-3	1513	金安國	金安國	
2	박언(朴堰)	백학면 두일리 산149-4	1565	鄭惟吉	李澤	-
3	권희(權禧)	백학면 두현리 산167	1667	鄭斗卿	許穆	-
4	김여추(金汝秋)	신서면 답곡리 산157	1671	-	-	-
5	박동망(朴東望)	신서면 대광리 산10-9	1673	朴世采	朴泰維	呂聖齊
6	권익중(權益中)	백학면 두현리 산167	1678	許穆	沈益顯	-
7	이진무(李晉茂)	군남면 왕림리 산38	1680	許穆	許穆	-
8	문화유씨(文化柳氏)	미산면 광동리 산187-2	1680	慶寂	慶寂	-
9	허목(許穆)	왕징면 강서리 산48	1682	許穆	許穆	-
10	권대유(權大有)	백학면 두현리 산64(삼정동)	1697	權階	朴慶後	
11	이적길(李迪吉)	미산면 유촌리 산156-1	1699	柳尙運	趙相愚	-
12	윤리(尹理)	백학면 노곡리 산12(향길동)	1721	鄭濤	申鉉	-
13	윤석(尹皙)	백학면 노곡리 산12(향길동)	1731	李宜顯	尹陽來	俞拓基
14	박필영(朴弼英)	연천읍 와초리 산114-1	1738	朴弼周	李宗德	-
15	김상규(金尙奎)	연천읍 통현리 산6-6	1747	金尙星	金尙翼	金尙翼
16	백유함(白惟咸)	군남면 황지리 산38	1751	金集	尹文舉	-
17	김상성(金尙星)	연천읍 통현리 산5-3	1778	李福源	曹允亨	徐命膺
18	서종섭(徐宗燮)	미산면 마전리 산23	1805	徐邁修	徐有恂	徐龍輔
19	임계중(任繼重)	연천읍 동막리 산17-1	1859	申錫遇	洪錫鍾	洪在龍
20	원훈(元訓)	백학면 학곡리 산43	1927	元英植	元裕秉	元昌義
21	김잠(金岑)	연천읍 읍내리 산1-1	1932	李淞	金益薰	金益承
22	신호(申浩)	미산면 유촌리 산140-2	1944	閔丙承	張遇聖	申鉉國

4. 연천의 묘표

1) 묘표의 입석기준과 명칭

묘표는 왕실과 관료층 그리고 일반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인이나 서민들까지도 입석할 수 있었다. 서민의 경우 그 크기가 두 자[尺: 약60cm]로 한정되어 있어 만약 이를 어기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반면에 양반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묘표의 특징은 비부에 있어 귀부를 사용하지 않고 방부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정조 대 이후의 비좌는 거의 문양을 새기지 않았으며, 모양도 장방형에서 사다리꼴로 변모하였다.¹³

묘표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묘표(墓表), 묘표음기(墓表陰記), 묘표명(墓表銘), 석표(石表), 소표(小表), 묘표문(墓表文), 묘기(墓記), 묘표식후(墓表識後), 묘표후기(墓表後記) 등 10여 가지에 이르지만 묘표라는 표제를 사용한 찬자(撰者)가 대부분으로 묘표음기나 묘표명이 약간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뿐이다. 이렇게 보면 보편적인 명칭으로 묘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용어도 그것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천묘표의 특징

연천묘표의 특징은 건립연대가 조선 초기(1392년~1506년) 묘표는 13기, 조선중기(1506년~1637년)에 건립된 묘표는 19기, 조선 후기(1637년~1897년)에는 38기인데, 숙종(제19대 왕, 재위:1674년~ 1720년) 때부터 정조(제22대왕, 재위:1776년~1800년)때까지는 모두 30기로 조선시대에서 비를 많이 세우던 이 시기에 집중 된 모습을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5기가 있다.

신서면 하공장골에는 본관이 우봉인 김씨 집성촌이 있었던 관계로 김봉과 그 아들인 오위도총부부총관 김우서를 비롯한 우봉 김씨 묘역에 모두 4기가 있다.

신서면 답곡리에는 동래 정씨인 정지명, 정유창, 정래주(1680-1745), 정기서의 4위와 기서의 부인인 파평윤씨 1기등 총 5기를 모신 묘역이 있다. 1929년에 묘표

를 건립하였다.

또 신서면 답곡리 산 157에는 김순정의 3위가 모셔져 있으며, 연천읍 통현리에 는 김종윤외 4위가 있고, 군남면 왕림리에 조정위외 4인, 중면 횡산리에 이공전 외 2인, 미산면 백석리에 이해외 3위가 모셔져 있다. 낙선군 묘가 향토문화재 1호, 강릉 김씨묘역(김시혁의 묘표) 향토문화재 13호, 윤성 부원군 박정우묘는 향토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다.

3) 연천지역 묘표 현황

구분	비 명	소 재 지	년대	찬	서	전
1	홍길문(洪吉畋)	장남면 판부리 산24	조선초기	-	-	-
2	이완(李琬)	중면 횡산리 산146	조선초기			
3	이양소(李陽昭)	중면 적거리 산21	조선초기			
4	이혜(李諫)	미산면 백석리 산 28-2(분석산)	조선초기			
5	이지(李枝)	연천읍 와초리 산 102	조선초기			
6	박종우(朴從愚)	장남면 반정리	조선 초기			
7	홍의로(洪義老)	백학면 두일리 산149-4	1428			
8	강석덕(姜碩德)	왕징면 강내리 산174-4	1461	姜希孟	姜希顔	-
9	이공전(李恭全)	중면 횡산리 산146	1456			
10	홍원용(洪元用)	장남면 판부리 산24	1468	洪道常	-	-
11	이윤인(李尹仁)	미산면 백석리 산14-1	1472	姜希孟	-	-
12	왕순례(王순례)	미산면 아미리 산 9(염창굴고개)	1485			
13	이이(李頤)	미산면 백석리 산 28-2 (분석산)	1499			
14	김종윤(金宗胤)	연천읍 통현리 산6-1(건정동)	1515	鄭應昌		
15	김봉(金鵬)	신서면 답곡리 산 157	1539			
16	이정조(李鼎祖)	중면 합수리 산(수화동)	1542			
17	이헌(李軒)	중면 합수리 산(수화동)	1542			
18	박귀수(朴龜壽)	백학면 두일리 산149-4	1567			
19	김우서(金禹瑞)	신서면 답곡리 산 157	1589			
20	우승선(禹崇善)	미산면 백석리 산 18 (분석동)	1609			
21	김지수(金之壽)	신서면 답곡리 산 157	1615			

구분	비 명	소 재 지	년대	찬	서	전
22	이소(李韶)	미산면 백석리 산 28-2 (분석산)	1618			
23	김수성(金粹成)	신서면 답곡리 산 157	1662			
24	강진소(姜晉昭)	군남면 옥계리 산41-2	1666			
25	김순정(金順正)	신서면 답곡리 산 157	조선중기	-	-	
26	김충로(金忠老)	신서면 답곡리 산 157	조선중기			
27	이원빈(李元賓)	미산면 백석리 산 28-2 (분석산)	조선중기			
28	진양윽씨(晉陽柳氏)	백학면 노곡리 산12(향길동)	조선중기			
29	윤돈(尹惇)	백학면 노곡리 산12(향길동)	조선중기			
30	경식(慶寔)	미산면 아미리 산187-2(연화골)	1682			
31	남계(南械)	백학면 두일리 산126(고동)	1695	南九萬	南九萬	
32	이회(李瀕)	미산면 유촌리 산156-1	1690	李迪吉	李糖	-
33	정지교(鄭之橋)	신서면 도신로102길 우측 산	1692	鄭彦泰	鄭彦泰	
34	정유정(鄭有徵)	신서면 도신로102길 우측 산	1692			
35	윤리(尹理)	백학면 노곡리 산12	1721	鄭湍	申鉉	-
36	흥양이씨(興陽李氏)	백학면 노곡리 산12(향길동)	1721	鄭湍	申鉉	
37	이숙(李瀟)	청산면 궁평리623	1726			
38	조태억(趙泰億)	전곡읍 마포리 산35-2	1729	趙趾彬	趙趾彬	-
39	박필명(朴弼明)	연천읍 와초리 산114-1	1733			
40	김유(金濡)	왕징면 작동리 서석동	1734	李光佐	尹淳	-
41	박태정(朴泰定)	신서면 답곡리 산255	1741	朴世采	朴弼明	-
42	조정서(趙正緒)	군남면 왕림리 354-1	1750	趙明履	趙明履	-
43	김양남(金揚南)	전곡읍 고릉리 산77-1	1753	金尙星	金尙翼	-
44	조정위(趙正緯)	군남면 왕림리 산 181-1	1754			-
45	조명복(趙明復)	군남면 왕림리 산 47-2	1754			
46	조덕중(趙德中)	군남면 왕림리 산 47-2	1754			
47	조정순(趙正純)	왕징면 작동리 산131-1	1756	俞拓基	趙明鼎	
48	김시혁(金始赫)	장남면 원당리 산40-3	1761	金尙喆	蘇軾/顏眞卿	
49	기계윽씨(杞溪俞氏)	연천읍 통현리 산(건정동)	1765	金尙翼	蘇軾/顏眞卿	
50	김홍권(金弘權)	연천읍 통현리 산	1766	金始煥	金尙集	-
51	김상익(金尙翼)	연천읍 통현리 산10-2	1778	金魯鎭	尹東哲	-
52	김응구(金應九)	신서면 도신리 652(점촌)	1784		김복성	

구분	비 명	소 재 지	년대	찬	서	전
53	김재구(金載久)	장남면 자작리 산92-2	1805	金載瓚	黃運祚	-
54	구수훈(具樹勳)	미산면 동이리 산38	1807	金載瓚	金履度	-
55	김노진(金魯鎭)	미산면 동이리 금굴산	1818	金啓溫	蘇軾/柳公權	
56	김계훈(金啓渾)	연천읍 통현리 산5-2	1818	李晩秀	朴宗薰	-
57	남헌교(南獻敎)	백학면 백령리 산95	1881	南廷益	南廷益	
58	조지빈(趙趾彬)	전곡읍 양원리 산13-1	조선후기			
59	김충정(金忠貞)	연천읍 통현리 산(건정동)	조선후기	金始煥	金尙圭	
60	부평이씨(富平李氏)	연천읍 통현리 산505	조선후기	金始煥	金尙圭	
61	정지명(鄭之明)	신서면 답곡리 산 92	1923			
62	정유창(鄭有昌)	신서면 답곡리 산 92	1923			
63	정래주(鄭來周)	신서면 답곡리 산 92	1923			
64	제주고씨(濟州高氏)	신서면 대광리 산(원두동)	1928	尹秉柱	尹秉柱	
65	박정(朴鼎)	백학면 두일리 산149-4	1938	朴淵仁	朴淵仁	

5. 연천지역 사적비 및 청백비

구분	비 명	소 재 지	년대	명문
1	조린 청백비	연천읍 읍내리 산3	1604	“城主趙公遴清白碑”
2	석대암 지장영험비	신서면 내산리 산	1635	“地藏靈驗碑”
3	허훈 애민 선정비	연천읍 읍내리 산3 (망곡산 남향)	1709	“縣監□公混□□愛民善政碑”
4	연천아전 김진룡비	군남면 옥계1리 268	1722	“捐財輔後 軍民咸頌”
5	서유방 선정비	연천읍 현가리 71-1(연천문화원)	1789	“化流一道 澤及殘縣”
6	임기창 영세불망비	연천읍 고문리413-1	1888	訟事正是進非退 設行講信以明倫彝
7	윤익원 청백비	연천읍 읍내리 산3	조선후기	“縣監 尹公益元 淸”
8	정원화 장학기념비	미산면 마전리5-3	1926	마전보통학교 부지 희사
9	박씨 대공덕비	신서면 내산리 342-1	1935	심원사와 석대암에 재물헌납
10	신상균 송덕기념비	미산면 광동리 82	1941	광동리 유지 일동 건립

6. 연천지역의 태실비(胎室碑)와 사비(寺碑)

1) 화억옹주(和億翁主) 태실비

화억옹주 태실비는 1728년(영조4년)에 건립되었고, 이 비는 비좌하엽(碑座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엽과 비신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대석은 문양이 없이 단조로운 형태다. 앞면에 “雍正六年八月初三日申時生翁主阿只氏胎室”¹⁴로 음기 되어 있다.

2) 제월당(霽月堂) 경헌(敬軒) 대사비(大師碑)

이 제월당(1544~1633) 대사비는 유형문화재 제138호이며, 소재지는 신서면 내산리 342-1(심원사)에 있다. 건립연대는 1636년(인조14년) 8월이며, 글쓴이는 신익성(申翊聖)이고, 두전을 쓴 이는 이광(李珣)이며, 추기를 쓴 이는 밀언(密言)이고, 세운 사람은 운현(雲玄)이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는 271cm, 비신의 높이는 171cm, 너비는 81cm, 두께는 24cm이다.

비석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헌은 그의 범명이고, 허한거사는 자호(子壺)하였으며 그가 거처하는 곳을 제월당이라 명명하였다. 15세에 천관산(天冠山)에 들어가 옥주선사를 좇아 승려가 되었다. 선조11년(1578년)에 득도하게 되며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에 참여하였고, 선조가 선사에게 좌영장(左營將)을 배수하였으나 잠시 군문에 머물다가 곧 바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으며, 깊은 산중에 은거하며 풍악으로, 치악산으로 혹은 다시 보개산으로 옮겨 다녔다.

銘은 다음과 같다. “속세를 떠났으니 천리에 합치되었으며 변함없이 수행함은 만고에 항상 빛나리로다.”¹⁵

3) 취운당(翠雲堂)대사비

1652년(효종 3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원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대석은 자

연암반에 세우고 시멘트로 보강시켰다. 유형문화재 제138호이며 현 위치는 신서면 내산리 342-1(심원사)에 있다. 글 지은이는 정두경(鄭斗卿)이며, 두전과 글을 쓴 사람은 윤순거(尹舜舉)이고 세운 이는 흥위(興位)이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243cm, 비신높이 188cm, 너비 75cm, 두께 23cm이다.

취운당(1575~1651)은 조선 중기의 선사(禪師)이다. 15세에 인정(印靜)을 따라 출가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가 서산대사의 문하에서 10여년을 수행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축수굴에 들어가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였고, 운달산에 들어가서 5년동안 거처하였고, 이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 갑술년(甲戌年만, 1634년 인조12)에 보개산에 들어가서 16년을 머물렀다. 만년에도 고행 정진하였으며, 열반에 들기 직전에 계송(偈頌)을 청하자 취운선사는 “죽음과 삶은 한 이치로서 항상 적(寂, 體)하고 항상 조(照, 用)하거늘 어찌 죽음과 삶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미 죽음과 삶이란 것이 없다면, 임종 게를 어디에 쓰겠는가?”¹⁶라고 하였다.

나고 죽음이 한 이치이니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추는데 이미 나고 죽음도 없는 데 계송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의미이다.

III. 연천의 암각문과 금문

1. 연천의 암각문(巖刻文)

암각문이라는 것은 암(巖)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파르고 험한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에 새겨 넣은 글이다. 따라서 암각문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탁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암각문을 정의해보면 암벽에 새겨진 글자이며, 말 그대로 특정한 사실을 오래도록 전하기 위하여 암벽에 새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실을 지각변동이 없는 한 대대손손 알리기 위한 방법이다.

연천의 암각문들도 임진강가의 깎아지른 천연 석벽에 새겨놓아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천의 대표적인 암각문은 기

록으로 보면 새겨진 시기적으로 볼 때 ‘웅연 암각문(熊淵巖刻文)’, ‘잠두봉 암각문’, ‘징파도 암각문’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옥호대(玉壺臺) 암각문과 마전군수 나선(羅禎) 선정비 형태의 암각문이 있다.

1) 웅연 암각문과 미수 허목

‘웅연 암각문’은 일명 ‘웅연석문(熊淵石文)’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암각문은 왕징면 강내리에 있는 임진강가의 웅연(일명 괴미소)라는 곳에 툇 솟아오른 흑색 변성암 재질의 큰 암석에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천연적으로 바위에 새겨진 글이다.

이 암각문의 전체 높이는 수면에 약 2m 정도로 강 쪽 방향의 수직면에 괴기한 글씨가 자연적으로 새겨져 있다. 지금은 군남 댐이 생겨서 반 정도가 물에 잠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곳은 연천 출신으로 조선중기 대학자이자 경세가이신 대 선현인 미수허목(1595~1682)과 매우 관련이 깊은 유적지이기도 하다.

허목은 전서체로 동양의 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으로 이곳에 자주 놀러 와서 ‘웅연석문’에 관한 몇 가지 글을 썼다. 이곳을 방문하여 그 석문을 감상한 허목은 돌로 된 글에 대해 푸른 색 돌에 검은 색 글자가 이상야릇하고 대단히 기괴하여 무어라 형언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허목은 「석문기(石文記)」에서 말하기를,

“돌로 된 글은 용이나 뱀, 초목의 형상과 같은 종류로 변화가 기괴하여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다. 푸른색 돌에 검은 색 글자는 이끼에도 묻히지 않았다. 이전에 한 수령이 돌을 쪼개어 몇 글자를 떼어 냈는데, 2촌 깊이 정도의 돌을 떼어 내도 돌의 글자는 2촌 그대로이다. 이것은 귀신의 글이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옛 나루터 수풀 언덕에 글자 문양이 있는 돌이 존재한다. 사람이 거주한지 100년이 된 연후 그 글이 비로소 나타났으니 글자가 본래 돌과 함께 생긴 것인가 아니면 기의 변화로 감응을 해서 귀신이 빚어낸 것인가. 석록노인은 기록한다.”¹⁷⁾

고 하였다. 허목은 그 돌로 된 글에 대해 대단히 감명 받아서 사람이 쓸 수 없는 귀신의 글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사실 많은 서예가들은 미수허목의 동방 제일 전서체를 중국 상고시대 문자를 바

탕으로 특유의 전서체(篆書體) 글씨(혹은 미전체(眉篆體)라고도 함)를 완성했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미수 허목의 전서를 연구한 논문은 이 ‘웅연석문’의 감상을 계기로 그 만의 독특한 전서체를 형성하였다¹⁸고 보는 데 필자가 보기에 허목 선생은 이 중국 상고시대 문자와 특히 이 ‘웅연석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방 제 1의 전서체를 완성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허목은 ‘웅연석문’을 통해 그의 전서에 자연의 이치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특히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그는 글씨를 단순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웅연석문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강건한 기상을 담아 생명감을 불어 넣음으로서 자연의 이치를 형상화 하였다.

2) 징파도 암각문과 휴암 백인걸

징파도 암각문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휴암 백인걸(1497-1579)¹⁹과 관련된 유적으로 연천 북삼리와 군남면 삼거리를 연결하는 임진강 징파 나루터의 북삼교 다리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m 정도 지점의 천연 절벽에 새겨져 있고, 전체적인 필체는 해서체(楷書體)로 된 암각문이다. 새겨진 글자는 “休菴公 白休菴公釣臺 後孫 郡守翼洙”(휴암공 백휴암공조대 후손군수익수)²⁰라고 되어 있다.²⁰ 이글은 휴암공 백인걸의 낙시하는 곳으로 그의 후손인 군수 익수가 새겼다는 뜻이다. 구한말 함경도 벽동군수를 역임했던 휴암공의 10대 후손인 서옹 백기수(1854-1944)²¹가 휴암공이 행한 효행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새긴 암각문이다. 이곳에 얹힌 이야기는 효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휴암의 후손들은 휴암이 어머니에게 효행을 실천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던 그 낙시터에 담긴 휴암의 효심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널리 알리고 본받기 위해 암각 한 것으로 보인다.

3) 잠두봉 암각문과 한문홍

이 암각문은 미산면 아미2리 송의전 동쪽 깎아지른 잠두봉의 수직절벽의 정상부 바로 아래에 있는 석벽에 음각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약 300cm, 세로로

250cm넓이이다. 변성퇴적암 수직 평면에 조선 후기 마전군수²²를 지낸 한문홍(韓文洪, 1787-1790)이 정조 13년(1789년)²³에 퇴락한 송의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난 후 느낀 감회를 “송의전을 중수하고”²⁴라는 제목으로 칠언율시의 2수를 지어 그 내용을 잠두봉 석벽에 새겨놓았다. 모두 76자이며 해서체로 되어있다.

4) 옥호대(玉壺臺) 암각문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암각문의 명문은 ‘옥호대(玉壺臺)’이고, 연천읍 옥산리 산 51-5(동산이골)에 있으며, 두 개의 암벽 중 좌측 바위에 새겨져 있고, 글씨는 세로로 음각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35cm, 너비는 10cm이다.

5) 마전군수 나선(羅禎) 암각문

이 암각문은 미산면 동이리732(나루터 바위)의 미수 허목을 제향하는 미강서원지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의 현무암 수직 절벽에 새겨져 있다.

이 암각문은 비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5cm 두께로 직사각형의 음각선을 나타냈으며 전체 높이는 110cm, 폭 50cm 크기이며 명문은 두 줄로 “군수 나선공영세거사(郡守羅公禎永世去思)”라고 새겨져 있다.

마전군수 나선은 1692년(숙종18) 3월22일 ~ 1693년 6월 6일까지 재임하면서 미강서원 건립과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기에 임기가 끝난 뒤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암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정비는 비석의 형태를 갖추고자 했으나 비석은 아니고 암각문으로 봐야 한다. 특이한 것은 현무암 자연면에다 음각을 한 것인데, 보통은 화강암에 음각을 하고 구멍이 많이 뚫린 현무암에는 음각을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글을 새긴 것은 미강서원과 가까운 이곳에서 그의 공을 더 드높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연천의 금문(金文) : 청동반자 (기유명보리사반자 : 己酉銘菩提寺盤子)

1) 금문(金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논하는 금문(金文)은 연천 지역에서 출토된 금문(金文) 중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 청동반자인 기유명보리사반자(己酉銘菩提寺盤子)의 명문(銘文)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보통 금문이라 함은 본래 청동기나 철기 등 금속 기물에 새겨진 글을 말하는데, 금(金)은 고대로부터 금속의 대표적 성격을 띠는 글자이기 때문에 금문의 “金”은 중국 고대 청동(靑銅)을 의미한다. 바로 금문은 청동기를 주조할 때 주물 틀(거푸집)에 새겨 넣은 글자이기도 하며 음각해서 써 넣기도 한다. 그래서 금문의 다른 이름으로 청동기에 대표적인 유물인 악기류(樂器類)의 금고(金鼓), 쇠북(鐘)이나 예기류(禮器類)의 솥(鼎)의 이름에서 유래해 종정문(鐘鼎文)이라고도 한다.

이 기유명보리사반자는 일명 금고(金鼓)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에 기록된 명문(銘文)을 중심으로 한 금석문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으며 명문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다양한 생활상과 문자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미술사분야로서의 연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즉, 금고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서 우리는 금고 그 자체의 명칭과 제작시기, 시납(施納)사원(寺院) 및 발원문(發願文), 시납(施納)자와 제작자, 중량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금고에 기록된 명문들을 토대로 각명(刻銘)방법과 조성시기, 제작자의 신분과 발원문의 내용 및 발원자의 신분, 그리고 시대적인 조성배경 등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유명보리사반자 (己酉銘菩提寺盤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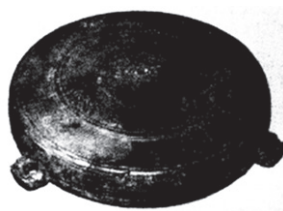
기유명보리사반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동금고(靑銅金鼓)이다. 금고(金鼓)는 금구(金口), 금구(禁口), 반자(盤子, 飯子, 般子, 鉸子), 판자(判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사찰의식법구의 하나로서 지금도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나 대중

을 불러 모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찰의 전각 내·외부나 처마 밑에 나무로 간단하게 걸구한 시렁(架)에 걸어놓고 그것을 망치모양의 북채로서 쳐서 소리 내도록 하였다. 그 소리는 범종만큼 크거나 깊은 공명을 지니지는 못하였으나 맑은 고음을 내어 범종과 함께 가장 널리 제작된 범음구(梵音具)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 반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66년 연천군 백학면 원당리 주암산 남쪽 기슭 지하 4척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며, 출토 시 반자와 더불어 와편(瓦片)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유(己酉) 7월 일. 대덕(大德) 자송(資崇)이 특별히 임금의 만수무강(聖壽天長)과 스승과 부모 및 법계(法界)의 중생들이 함께 악계(樂界)를 증명하기를 발원하고 조성(造成)하여 보리사(菩提寺)에 시납(施納)하였다. 반자(盤子)의 무게는 13근이 들어갔다²⁶

이 금고의 형태는 원반을 이루어 표면은 평탄하고 안쪽면의 구연(口緣) 등이 일 반적인 형태에 가깝다.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던 관계로 푸른 녹이 전면에 덮여 있고, 측면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양 고리 사이에 보수한 흔적이 있을 뿐, 거의 완전하며 표면 안쪽 부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명문은 안쪽 면 주연(周緣)에 새겨져 있는데, 제작 시기는 기유년(己酉年)이고, 발원자는 대덕자송(大德資崇) 및 발원문, 절의 명칭은 보리사(菩提寺), 무게 등이 기록되어 있다. 크기는 지름 37cm, 너비 6.5cm이며, 제작 시기는 간지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양식적인 면을 검토해 볼 때 1369년(공민왕 18)으로 추정된다.²⁷



기유명보리사반자모습

IV. 연천지역 묘비의 분포 및 특징

연천지역에서 묘비의 유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아래의 연천읍·면별 묘비현황을 보면 전체 묘비가 많은 읍면은 연천읍, 미산면, 백학면, 신서면 순이며, 신도비는 연천읍이 4개소로 가장 많으며, 미산면이 3곳이다. 연천읍의 특징

은 강릉 김씨 문중의 묘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연천읍 통현 1리에 소재되어 있는 김침경의 묘를 비롯하여 7개소의 묘소가 있다. 신서면은 그중 묘표가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미산면은 묘표가 11개소, 연천읍과 백학면은 각각 9개소로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2~6개의 묘소들이 면(面)별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묘소들을 묘주의 신분·시대를 보면 연천지역 만의 특이성으로 몇 가지가 나타난다.

그 중 첫째는 묘주의 신분이다. 묘주의 신분이 밝혀진 묘비를 기준으로 보면 왕릉 1개소, 왕족 묘 2개소, 무신 묘가 8개소, 문신 묘가 54개소로서 문신 묘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²⁸

두 번째는 시대 별 구분으로 연천지역에는 조선 초기(1392~1506)의 묘비 중 신도비와 묘갈은 없으나 묘표는 13기가 있다. 조선중기(1506~1637)에는 신도비가 3기, 묘갈은 1기가 있으며, 묘표는 9기가 있다. 조선 후기(1637~1897)에는 신도비가 5기가 있으며 묘갈은 18기가 있고 묘표는 38기가 있다. 근대(1897~1945)에는 신도비가 1기가 있고, 묘갈은 3기가 있으며 묘표는 5기가 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조선후기에 묘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반적인 경기도 지역에서의 묘비의 입비와 궤를 같이 한다. 경기도 지역의 입비는 조선 초기에는 사대부나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에 의해서만 거의 이루어지다가 현종대²⁹에 이르면 중·서인들의 묘비 입석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모든 계층에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들이 묘비의 입석을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 및 확인 받고 피지배층에 대한 우월감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듯이 중(中)·서인(庶人)들도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중후기에 이르러, 그들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고 또 신분상승의 욕구를 묘비에 담아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인층의 행동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들은 중·서인들 묘표의 실태조사에 따른 강제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였다. 각종 비를 활발하게 세우던 시기는 숙종(1675~1720)부터 정조(1777~1800)대 까지였다. 이 시기는 문화사적인 면으로 볼 때 진경(眞景) 시대라 불리던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 조선의 문화가 화려하게 만개하고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그 문화의 근원이 되는 조선 성리학이라는 고유 이념이 이때에 이르러 완벽하

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입비된 조선시대의 능묘 비는 총수량의 40.9%를 차지한다.³⁰

이와 마찬가지로 연천지역의 묘비의 입비도 조선시대 후기에 세워진 묘비가 전체묘비 수 96기의 62.8%에 해당될 정도로 시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조선 후기에 압도적으로 묘비가 많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연천 읍·면별 묘비 현황³¹

읍면 묘비별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	장남	계
능표										1	1
신도비	4			1	1	3					9
묘갈	5		2		7	4	2	2			22
묘표	9	3	5	1	9	11	3	14	5	5	65
계	18	3	7	2	17	18	5	16	5	6	97

V. 맺음말

연천지역의 금석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 그 규모나 수적으로 비교적 열세이다. 그러나 몇 가지 특이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라의 왕릉인 경순왕릉과 왕족 묘가 있는 등 숫자가 많지 않은 적은 규모이지만 금석문이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건립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연천이라는 땅이 가지는 사통팔달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천지역의 묘비에 대한 전체적 연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휴전선과 매우 인접한 상태로 군사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다수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자유로운 출입과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여러 기관에서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을 파악하고 통합하여 연천지역의 묘비들을 각각의 목록 작업으로 정리함으로써 세월이 지날수록 풍우에 부식과 마멸, 도난 등을 통해 유실되고 있는 연천지역 금석문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일조하기

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 작업을 통해 사라져가는 금석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금번의 연구는 한정된 지면관계로 신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좀 아쉬움이 많으며, 후일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못 다룬 묘주의 신분·시대·묘향·형태·규모·합장 여부·석물의 재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연천지역 만의 특이성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금석문은 단순한 탁본의 정리, 판독문 제시에서 벗어나 연천지역 역사 인물에 대해 가치 있는 능묘비의 건립과정과 이를 담당했던 인물을 시대별로 깊게 소개함으로써 역사스토리텔링을 통해 연천지역 금석문 소재지를 돌아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역미수기언』(Ⅰ,Ⅱ,Ⅲ,Ⅳ,Ⅴ,Ⅵ), 민족문화추진회, 1989(中版).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연천군지』 상권, 도서출판 큰기획, 2000.

연천군지 편찬위원회, 『연천군지』 하권. 도서출판 큰기획, 2000.

연천문화원, 『향토자료집』 이화상사. 1995.

김우림,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김민규, 『조선시대 능묘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9

이민석, 『조선시대의 능묘비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논문, 1996.

조연미, 『조선시대 신도비 연구』, 숙명여자대, 석사논문, 2000.

김윤숙, 『미수허목의 전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1.

심현섭, 『미수 허목전서의 연원과 특징』, 서예와 문화 제2호, 성균관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07.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 불교미술, 동국대. 1988.

박태호 저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2006.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

- 1 연천문화원 향토사위원장, 철학박사
- 2 이민석, 『조선시대의 능묘비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논문, 1996. pp.66-67.
- 3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위키백과
- 4 상계서, pp.647-648.
- 5 “崇禎戊辰紀元後百年再丁未(1727)十月日立”
- 6 규장각 해제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부신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기인 듯하다. 낙선군묘가 연천군에 있고 ‘부신원’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부신지원(負辛之原)으로 표기해야 하며, ‘부신의 언덕’ 즉, ‘신좌(辛坐)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 7 “有明朝鮮國王子樂善君 增諡靖憲公之神道碑銘”
- 8 “有明朝鮮國王子樂善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 增諡靖憲公之神道碑銘 并序”
- 9 서울대 규장각
- 10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 11 “威而能寬, 確而能安 以剛行義, 景也大慮, 惠民定也”
- 12 『영조실록』 19년 8월 20일(庚午)
- 13 박태호『장례의 역사』서해문집, 2006.
- 14 “응정 6년(1728년 영조4)8월초 3일 신시에 태어난 응주 아지씨의 태실”
- 15 “而睽於人而合於天, 而恒而行萬古常鮮”
- 16 “死生一理, 恒寂恒照有, 何死生既無死生, 何以偈爲余曰來偈之不爲,”
- 17 『記言別集』卷之九, 「石文記」 石文. 類龍蛇草木形. 變化怪詭. 不可名狀. 石靑字黑. 苔蘇不沒. 前有一邑宰剝斷之. 剝得數字而去. 石剝深二寸. 石文二寸. 此鬼神之文也. 最古不可知. 古渡林樾岸. 有文在石. 人之居且百年. 然後其文始出. 文本與石俱生耶. 抑氣化之感. 鬼神成之耶. 石鹿老人. 記.
- 18 김윤숙 『미수허목의 전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18-33.
- 19 [1497년(연산군3)~1579년(선조12) = 83세]. 조선 중기 중종~선조 때 활동한 학자·문신.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이다. 본관은 수원(水原)이고, 주거지는 서울과 파주이다. 아버지는 왕자 사부(王子師傅)백익견(白益堅)이고, 어머니 단양우씨(丹陽禹氏)는 사직(司直)우종은(禹從殷)의 딸이다. 조광조(趙光祖)와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고, 송인수(宋麟壽)·유희춘(柳希春)·이이(李珣)·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다.
- 20 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지』(상)권. 도서출판 큰기획, 2000. p688-689.

- 21 승정원일기 1902년(임인년)7월22일, 고종39년 양력8월25일 벽동 군수(碧潼郡守) 백기수(白冀洙)를 의원면직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 22 당시에는 연천군이 아닌 마전군이었음.
- 23 경기도관찰사인 서유방의 장계에 의해 정조가 승의전의 중수를 하명했다는 기록이 있음
- 24 “重作崇義殿”
- 25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불교미술 vol.9 1988. 참조.
- 26 “己酉七月日 大德資崇特爲聖壽天長師僧父, 母及法界衆生供證樂界願以造成納菩提寺盤, 子入重十三斤印, “『韓國金石全文』中世下(1984)]]
- 27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
- 28 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지』상권, 연천군, 2000. p.620.
- 29 조선시대 제18대 왕(재위 1659~1674). 효종의 아들이다. 효종의 상례(喪禮)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服喪問題)에 서인의 기년설(基年說:1년설)을 채택하고, 어머니 인선왕후가 죽자 2차 복상문제에서 남인의 기년제를 채택, 재위 중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쇠퇴해졌다.
- 30 박태호 저『장례의 역사』서해문집, 2006.
- 31 이 자료는 2014년에 연천군에서 발행한『연천금석문대관』을 기준하였으며, 그 밖의 사적비, 청백비, 태실비, 사비, 암각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15

경기만의 고려뱃길 唐人島 ~ 龍骨 답사보고

임종삼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분석
- III. 신주와 객주가 온 고려 뱃길
- IV. 맺음말



I. 머리말

1123년 6월12일, 북송(北宋)의 사절단이 예성항에 도착했다. 정사(正使) 노운적(路允迪)이 휘종(徽宗)의 조서(詔書)를 고려 인종(仁宗)에게 전하러 왔다. 이에 제할관(提轄官) 서공(徐兢)은 신주(神舟) 2척과 객주(客舟) 6척에 약 158명의 사절단을 인솔하였다.

북송이 고려에 사절단을 보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지난 해 4월에 승하한 고려 예종(睿宗)의 영면을 추모하는 일이었고, 그 둘은 요동에서 일어난 신흥세력 대금(大金)의 침공을 대비한 송·려 동맹이었다.

북송의 수도 개봉(開封)과 고려의 수도 개경(開京)의 이름에서 보듯 두 나라는 이전부터 매우 친밀했다. 개봉의 청명절(淸明節)을 그린 북송의 풍속화 <淸明上河圖>¹에 갓(黑笠)을 쓰고 말을 탄 인물은 고려의 사신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 세 차례나 북송을 다녀온 한림학사 김부식(金富軾)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등 조공무역과 문화를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북송의 사절단은 개경에 32일 동안 머물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서공은 고려의 문물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휘종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책의 이름이 『宣和奉使高麗圖經』이다. 그러나 휘종과 서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송은 대금의 침략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 전란에 서공이 편찬한 두 질의 『고려도경』도 훼손되고 말았다. 武를 소홀히 하고 文에 치우친 휘종의 정치적 종말이었다.

서공이 저술한 『고려도경』에는 사절단이 오고간 해로가 자세히 기록되었다. 그러나 900년 전의 지명이므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고려도경』에 기록된 서남해안의 도서를 9개월에 걸쳐 답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만의 고려 뱃길을 밝혀보았다.

II. 선행연구 분석

A. 『고려도경』의 항로 비정

경기만의 항로 비정에 오류가 발견된다. <표 1>은 선행연구자들이 비정한 고려의 뱃길이다. 필자가 답사하지 못한 군산도 이전 항로는 생략하였다.

<표 1> 고려도경의 항로 비정

월일	연구자 고려지명	祁慶富	森平雅彦	문경호	임종삼
6/7	群山島	고군산도	선유도	선유도	고군산군도 선유도
6/8	馬島	-	안흥반도	안흥정	마도 안흥정
6/9	九頭山	태안반도	위도	팔봉산	팔봉산(八峰山)
	唐人島	-	선갑도	태안 의항리 부근	난지도(蘭芝島)
	雙女焦	-	각흘도	-	육도(六島) 입파도(立波島)
	大靑嶼	대부도	문갑도	풍도	대부도(大埠島) 메추리섬
	牛心嶼	-	-	선재도	선재도(仙才島)
	和尚島	-	-	영흥도	영흥도(靈興島)
	葉老寺	-	-		양노봉(養老峰)
	聶公嶼	-	-	팔미도	팔미도(八尾島)
	小靑嶼	-	-	월미도	무의도(舞衣島)
6/10	紫燕島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永宗島)
	急水門	강화해협 (손돌목)	손돌항	손돌목	항산도(項山島)
	蛤窟	한강	갑곶	강화도 남산	강화군 화도면 내리
	龍祠				마니산 참성단

6/11	分水嶺	-	문수산	강화 용정리	석모대교 양안 (진강산-해명산 사이)
	龍骨	-	월곶	용구물	교동도 대룡리(大龍里) 교동읍성 용고을
6/12	禮城港	예성항	예성항	예성항	예성항

B. 객주와 신주의 크기

북송 무역선 객주의 길이는 약 30m로 판별이 났다. 그러나 신주의 크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는 크다. <표 2>는 선행연구자들이 해석한 객주와 신주의 크기이다.

<표 2> 객주와 신주의 크기

배 이름	고려도경	김대식	문경현	임종삼
객주(客舟)	길이 10장	길이 32m	길이 30m	길이 30.4m
	너비 2.5장	너비 7.8m	너비 7.5m	너비 7.6 m
	높이 3장	높이 9.4m	높이 9m	높이 9.1m
신주(神舟)	객주 길이, 너비, 높이의 3배	길이 94m	길이 43.27m	길이 50.1m
		너비 24m	너비 10.8m	너비 16.3m
		높이 28m	높이 12.9m	높이 12.9m
남해(南海) 1호선	길이 30.4m, 너비 9.8m (1987년, 광저우 동양강 해역에서 발굴된 목선으로 객주의 크기와 비슷하다. 필자 임종삼은 남해 1호선 넓이의 3배로 신주의 크기를 가늠하였다.)			

C. 선행연구 분석

경기만의 고려 뱃길 비정 오류는 다음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 조류의 흐름, 시각, 풍향 해석에 무리가 있었다.
2. 리아스식 해안과 서해안 갯벌 항로의 이해가 부족하였다.
3. 돛과 나침반을 이용한 고려의 항해 기술을 간과하였다.

4.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의 급격한 지형 변화에 있었다.
5. 고려시대의 지명 이해와 현장 답사의 제약에 있었다.
6. 북송 사절단의 목선 신주 크기의 불명확성에 있었다.

D. 해결 방안

『고려도경』에 등장하는 고려 뱃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역의 특징이 고려된 합당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나, 조류를 무빙-워크(moving-work)로 이해하자. 서해안의 항해는 조류(潮流·밀물)와 조락(潮落·썰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경기도 인천을 뱃길로 다녀본 노년의 선장들은 이렇게 말한다. “들물에 배를 띄우면 한물에 간다.”

아산에서 인천을 6시간이면 간다는 의미다. 밀물에 배를 띄우고 바람에 돛을 올리면 그 속도는 두 배로 빠르다는 것이다.

둘, 육계도(陸繫島)가 되는 지형을 고려하자. 경기만에 위치한 대부분의 섬들은 썰물 때에 육지와 연결된다.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제부도(濟扶島)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과 암초로 이루어진 리아스식의 해안이라 항해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평저형(平底形)의 배를 이용한 항해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셋, 나침반(羅針盤)은 新羅의 針盤이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나침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신라 문무왕 9년(669년) 정월, 당의 승려 법안(法安)이 와서 天子의 명령으로 磁石²을 구하였다. 그해 5월, 급찬 기진산(祗珍山) 등을 보내어 자석 두 상자를 당에 바쳤다.’

이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3대 발명품으로 알려진 나침반은 신라의 것이다. 이 정밀한 나침반으로 고려와 북송의 선사들은 황해를 건너 다녔던 것이다.

넷, 12세기 강화도 지형을 다시 살펴보자. 대한민국에서 강화군만큼 지형이 크게 변한 곳은 없다. 이는 간척사업의 결과인데 현재의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가 이에 해당된다.

1232년(고종 19년)에 고려 정부는 몽골의 침략을 피하여 개경(開京)에서 강도(江都)로 천도하였다. 이때 무려 10만의 인구가 강화군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대단위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본래 7개의 섬이었던 강화군은 이후 3개의 섬으로 연결되었다.

다섯, 경기만에 살아있는 옛 지명을 참고하자. 고려시대 지명 군산도(群山島)는 현재의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이다. 고려시대 지명 마도(馬島) 안흥정(安興亭)은 지금도 마도 안흥항이다. 서공이 다녀간 900년 전의 고려 지명은 아직도 면면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지도와 현재의 지형도를 비교하고 현장답사를 병행하면, 옛 지명은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여섯, 신주와 객주의 항해 방식을 고려하자. 신주는 북송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매우 크게 건조되었지만 안전에는 취약했다. 항해 중 돛대가 꺾이고 키가 부러지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에 비해 객주는 12세기 동아시아 최고의 무역선이었다. 길이 34m, 너비 11m, 깊이 3.7m의 신안해저선³과 유사하였다. 서공은 객주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통나무와 커다란 방(枋)⁴을 엮어서 만들었다. 위는 저울대처럼 평평하고 아래는 칼날처럼 기울어졌는데 풍랑을 헤치고 항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객주에 쓰인 방(枋)을 박달나무로 풀이하였다. 설명을 덧붙이면 박달나무를 용골로 써서 침저형의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객주의 용골에 쓰일만한 크기의 박달나무⁵는 강원도 함백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박달나무(枋)

III. 신주와 객주가 온 고려 뱃길

A. 서남해안의 고려 뱃길

북송의 사절단이 항해한 뱃길은 고려의 조곡운반 뱃길이다. 고려시대의 조운 제도는 건국 초기부터 12조창(漕倉)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세의 곡물과 특산물을 수납하여 조창에 모아두었으며 조창의 포구에서 선적하여 예성항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였다.

1. 군산도(群山島)⁶

북송의 사절단이 지금의 고군산도에 이른 것은 1123년 6월 7일이었다. 고려시대 군산도에는 사신을 맞이하는 관사(館舍)와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다. 고려의 해양 행궁 송산행궁(崧山行宮)이었다. 서금 일행은 배에서 내려 전주지사 오준화, 한림학사 김부식이 베푸는 영접을 받았다. 소나무가 울창한 암봉으로 이루어진 선유도는 글자 ‘송(崧)’을 그대로 닮았다. 고군산도 선유도(仙遊島)⁷에는 아직도 해신(海神)에게 제사하는 오룡묘(五龍廟)⁸가 존재한다. 이곳에서 고려청자 파편이 꽤 수집된다.

2. 마도(馬島)⁹

북송의 사절단이 마도 안흥정에 머무른 것은 6월 8일이었다. 마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의 마도가 확실하다. 지금도 옛 이름 그대로 마도로 불리고, 마도 해역에서 고려시대의 배 4척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청주목사 홍약이가 사절단에게 연회를 베푼 안흥정의 위치는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58-7로 확인된다. 약 2,000평의 밭과 나지막한 산지에서 고려청자, 청화매병 등이 수습되었다.¹⁰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강한 물살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 그래서 난행량(難行梁)과 요아진(凹牙鎭)으로 불렸다. 마도 해역에서 수많은 닻돌이 발견되어 고려

조운 뱃길의 중간 기착지였음이 확인되었다.

3. 구두산(九頭山)¹¹

북송의 사절단이 마도를 출발한 것은 6월 9일 오전 8시였다. 날씨는 청명하고 남풍이 아주 강했으므로 배들은 아주 빠르게 달렸다. 사절단의 배는 구두산(10시), 당인도(12시), 화상도(오후2시)를 지나 자연도(오후4시)에 정박하였다.

사절단의 배가 8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약 110km였다. 안흥에서 인천까지 평균 시속 14km로 달렸다는 계산이다. 풍선(風船)으로 이 먼 거리를 8시간에 항해하였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팔봉산¹²은 본래 9봉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제일 작은 봉을 빼고 팔봉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이면 그 작은 봉우리가 자기를 넣지 않았다고 율었다는 전설이 있다. 팔봉산의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바닷물이 깊숙이 밀고 들어온다. 태안반도의 암초에 파손되는 조운선의 안전한 뱃길을 개척하고자 운하를 뚫던 곳이다.

B. 경기만의 고려 뱃길

경기만(京畿灣)은 한반도 서해 중부에 위치한 해역이다. 남양만·아산만·해주만 등의 작은 만(灣)과 굿(串)이 많아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다. 강화도를 비롯하여 영종도·영흥도·용호도와 덕적군도 등 크고 작은 130여 개의 섬들이 산재한다. 해안선의 길이는 528km에 달하고 만구는 서쪽으로 열려 있다. 구두산을 지난 사절단의 배는 경기만으로 들어왔다.

1. 당인도(唐人島)

사절단의 배는 6월 9일 12시경에 당인도를 지났다. 서공은 당인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a-1. 唐人島 未詳其名 山與九頭山相近 是日午刻 舟過島下

-당인도,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 그 산(섬)은 구두산에 가깝다. 이날 낮 12시 쯤 배가 이 섬 아래를 지났다.

a. 당은군(唐恩郡)과 당진현(唐津縣)은 당나라의 당주(唐州)였다.

남양반도(南陽半島)와 당진반도(唐津半島) 일대는 신라와 고려시대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이 된 지역이다. 당은군(現 화성시)과 당진현(現 당진시)이 당나라의 당주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 삼국시대 당항성(党項城)¹³에는 당성(党城)과 당항진(党項津)이 딸려 있었다. 당성은 당항성의 주장성이었고 당항진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대당포구였다. 신라 선덕왕 11년 8월, 백제와 고구려가 공모하여 당으로 통하는 길을 끊자, 왕이 당 태종에게 사신을 보내 급함을 알렸던 지역이다. 당의 사신 유인궤와 신라 사신 김삼광, 김인문 등이 이곳을 통해 당과 신라를 오갔고, 당나라에 불교 유학을 나섰던 원효와 의상이 머물렀던 곳이다.

나·당연합군이 승리한 후, 당항성과 당항진의 이름은 당은군(唐恩郡)¹⁴과 당은포(唐恩浦)로 바뀌었다.

둘, 2016년에 한양대 문화재연구소는 당성(唐城) 1차 성벽조사에서 ‘唐’자 기와를 발굴하였다. 삼국시대의 지명 당항성(党項城)의 당(党)자가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의 지명 당은군(唐恩郡)의 당(唐)자였다. 당성이 한때 당나라의 당주(唐州)였다는 실체를 밝히는 획기적인 발굴 성과였다.

셋, 『宋高僧傳』 「義湘傳」은 원효가 성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본국(本國) 해문(海門)¹⁵ 당주계(唐州界)에 이르러 창파를 건널 거함(巨艦)을 찾아다니는 조어도중(條於道中)에 고우(苦雨)를 만났고 고우를 피하여 토굴에 들었다가 감묘불이(龕墓不二)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서 본국은 신라, 해문은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를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발행된 남양도에 근거한다.



南陽圖

‘아니, 한반도에 당주, 당은군, 당진현이라니?’

언뜻 통일신라는 주체성을 잃은 정부였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신라 또한 중국 산둥반도의 보타도(현 石島)에 신라방(新羅坊)을 두었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법화원과 적산포에 머물며 해상무

역을 주관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결국 양쪽 나라가 해상무역의 거점을 두고 교류한 물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양반도의 당항성은 해문으로 열린 대당외교의 관문이었다. 남양도(南陽圖)에서 海門을 찾아보면 남양반도가 커다란 섬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반쯤 열린 반도(半島)가 아니라 350도로 열린 섬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나·당연합군 시기에 唐은 백제의 도성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도성에 안동도호부를 두었으며, 신라의 도성에도 계림도독부를 두고자 하였다. 신라의 영토까지 넘보았던 唐은 남양반도와 당진반도를 당주로 삼았던 것이다.

b. 당진, 평택, 화성시는 당 유민들의 정착지였다

대당총관 소정방은 당군을 철수하면서 부장 이무(李茂)를 한반도에 남겨 두었다. 나·당 전쟁 이후에도 이무는 한반도에 남아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스렸다. 이후 황해도 연안군에 정착한 이무는 연안(延安) 李씨의 시조가 되었다.

당나라 말기, 당의 유민이 신생 고려로 많이 건너왔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경기도 화성(華城)과 평택(平澤), 충청남도 당진(唐津) 등이었다. 고려 정부에서는 이들을 선별하여 받아 들였는데 남양 洪씨, 평택 林씨, 면천 卜씨 등이다.

면천 복씨의 시조 복지겸(卜智謙)의 선대는 당의 한림학사였다. 오계의 난을 피해 바다를 건너와 당진시 면천면에 정착하였다. 이들의 정체는 당의 유민으로 추정되지만, 백제 또는 고구려 유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양(南陽), 평성

(彭城), 면천(沔川)이란 지명은 당에서 건너온 것이다.

c. 당인도는 당진시 난지도이다.

자료 a-1에서 사절단의 배는 당인도 아래를 지났다고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당인도는 대호지만 어귀의 난지도일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난지도는 대당총관 소정방의 군대가 머물렀던 섬이다. 그 흔적은 아직도 난지도에 남아 ‘말마금’으로 불린다. 군마의 도망을 막은 울타리가 말막음이고 그 경계가 곧 당현(唐峴)이었다. 당진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이름이다.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운주(運州) 소속이었고, 고려 예종 원년(1105)에는 감무(監務)를 두어 관리하였다. 당진의 난지도가 고려 뱃길의 중간 기착지였다는 근거이다.

난지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섬에 난초와 지초가 많아 난지도(蘭芝島)라 하였다는 설. 풍도와 난지도 사이의 물살이 몹시 거세어 배가 다니기 어려우므로 난지도(難知島)라 했다는 설이다.¹⁶



난지도 해역

난지도(難知島)설에 따르면 사절단의 배가 당인도 아래로 항해한 이유가 설명된다. 구한말 한반도 침탈에 목적을 둔 청·일 전쟁은 풍도해전(豊島海戰)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군함에 쫓긴 청의 군함 ‘광을(廣乙)’은 풍도해역에서 좌초되었다. 여섯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육도(六島) 부근이었다.

풍도해역은 암초가 많은 급류인데다 수시로 안개가 발생하는 난행지다. 그러므로 사절단의 배는 난지도의 남쪽 해역으로 항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시의 대호지만과 아산만은 내륙 깊숙한 해로다. 대호지만의 삼길포와 도비도항은 서해 도서의 여객터미널이고 아산만의 당진항과 평택항은 지금도 대중국 무역항이다. 신안해저선과 객주에 비교되는 길이 34.78m의 청룡카페리호가 하루 3회 도비도와 난지도를 왕복한다. 따라서 물길의 특성과 최적화된 해로 이용의 지

속성으로 보아 서공이 기록한 당인도는 난지도에 비정될 수 있다.

2. 쌍여초(雙女焦)

당인도(12시)를 지난 사절단의 배는 쌍여초를 만났다. 두 개의 바위섬으로 추정되는 쌍여초는 육도(六島)¹⁷와 입파도(立波島)¹⁸로 판단된다. 서공이 기록한 쌍여초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a-2. 쌍녀초는 그 산이 매우 커서 도서와 다름없다. 앞산에는 초목이 있지만 그리 깊고 조밀하지 않다. 뒷산은 좀 작다. 두 산 가운데가 끊어져 문(門)처럼 되어 있으나 아래에 암초가 있어 배가 지나가지는 못한다. 이날 배가 당인도를 거쳐 이 암초를 지나갔는데 바람이 매우 강해져 배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a. 육도

자료 a-2에 따르면 쌍여초의 하나는 육도로 판단된다. 그 모습이 중후한 여인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육도는 여섯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 끝늑섬(말육도), 가운데늑섬(중육도), 육도, 중육도, 정초리섬(미육도), 물우녀로 이루어졌다. 정초리섬은 정(釘)의 끝처럼 뾰족하다. 물우녀는 바위 두 개가 서 있는 곳이다. 물우녀의 ‘여(磯)’는 썰물 때는 들어나고 밀물 때는 잠기는 바위(礁)를 가리킨다.

동여비고(東輿備攷)는 육도를 대저지(大楮只), 중육도를 소저지(小楮只)¹⁹로 표기한다. 여기서 大楮와 小楮는 大姐와 小姐로 읽힌다. 大姐는 ‘큰언니’를 말하고 小姐는 ‘아가씨’를 이르는 말이다.



육도



입파도

육도와 중육도 사이는 문처럼 느껴진다. 그 거리는 약 600m이다. 밀물과 썰물 때에 이곳을 흐르는 물살이 거세다. 풍선이나 노를 젓는 목선이 지나기 어려운 곳이다. 난지도 북쪽 3km 지점에 위치하나 그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 303이다.

b. 입파도

자료 a-2의 또 다른 쌍여초는 입파도로 판단된다. 그 모습이 날씬한 여인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입파도는 보살(菩薩)의 형상이다.”

이 말은 궁평항과 입파도를 오고가는 경기도선 선장들이 소개하는 단골메뉴다. 들물 때에 입파도는 바다에 누운 보살의 모습이고, 날물 때에 입파도는 하늘에 뜬 와불의 형상이다. Naver 지식백과에서 검색되는 항공사진은 더욱 뚜렷하다.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려는 보살’을 가리켜 ‘파라밀다(波羅密多)’로 부른다. 그래서 섬의 이름이 입파도로 명명된 것으로 판단한다. 대당 유학길에 오르던 신라의 유학생들이 붙인 이름으로 추정된다.

화성팔경으로 불리는 입파홍암(立波紅岩)은 석문(石門)처럼 보인다. 난지도 북쪽 9km 해상에 위치하나 그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입파길 54이다. 서금이 기록한 쌍여초를 육도와 입파도에 비정한다.

3. 대청서(大靑嶼)

쌍여초 다음에 등장하는 대청서는 대부도(大埠島)로 판단된다. 대부도는 선감도, 탄도, 불도, 구봉도, 측도, 고래뿌리, 메추리섬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도(大埠島)²⁰의 옛 이름은 연화부수지, 낙지섬이었다. 연화부수지(蓮花浮水地)는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다. 신라의 입당 유학생 등이 지어 부른 이름으로 추정한다.

낙지섬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 섬의 형태를 가리킨 이름이다. 조선시대의 이름

대부도(大部島)에 그 뜻이 오롯이 담겨 있다. 部는 ‘거느리다, 나누다, 분류하다’의 뜻을 가지기 때문이다. 2004년, 대부도 해역에서 고려시대의 조곡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굴되었다. 낙지잡이 어민이 발견한 이 배는 ‘대부도선(大埠島船)’으로 명명되었다. 이 배에서 청동순가락을 비롯한 고려시대의 유물 4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이로써 대부도 해역이 고려의 뱃길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대청서를 대부도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고래뿌리와 메추리섬에 비정한다.

4. 우심서(牛心嶼)

대청서 다음에 등장하는 우심서는 선재도(仙才島)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동여비고 남양도에 소우도(小牛島)²¹, 여지대전도 남양도에 소우(小牛)로 등장한다. 대부도와 영흥도를 잇는 선재도는 두 개의 작은 섬을 거느린다. 측도(側島)와 목도(木島)다. 측도에는 봉화를 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높은 산봉우리도 아닌 측도의 봉화대는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측도는 소의 심장(心臟), 목도는 소의 우랑(牛囊)의 형태와 흡사하다. 서공이 기록한 우심서를 선재도에 비정한다.

5. 화상도(和尚島)

사절단의 배는 오후 2시경 화상도를 지났다. ‘화상(和尚)’이란 불교교단에서 가르침을 내려 주는 교사(教師)를 일컫는다. 아도화상, 나옹화상 등의 고승을 일컫는다. 서공이 기록한 화상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a-3. 화상도는 산세가 중첩되어 있어 골짜기와 숲이 깊다. 산 속에는 호랑이와 이리가 많다. 옛날 불도를 배우는 자가 그곳에 살았는데, 짐승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엽노사(葉老寺)가 그 유적이다. 이런 까닭에 고려인들은 그것을 화상도라고 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쯤 배가 그 옆을 지나갔다.

자료 a-3의 화상도는 당인도에서 2시간 거리의 매우 큰 섬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면 시간과 거리상으로 화상도는 영흥도일 수밖에 없다. 영흥도의 두 봉우리는 국사봉(國思峰)과 양노봉(養老峰)이다. 국사봉은 개경을 바라보며 멸망한 고려를 생각하였다는 봉우리다. 그 주인공은 고려 말의 왕족 익령군 왕기(王琦)로 알려진다.

영흥도(靈興島)²²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중국에서 오던 배가 풍랑을 만나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어 침몰 직전에 있었는데, 거북이 한마리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 육지로 인도해주었다. 그 뒤 신령이 도와준 섬이라 하여 영흥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양노봉 절골에는 시대 미상의 절터가 존재한다. 이 절터에서 조선 초기의 기와 조각과 백자 파편이 무수히 출토된다. 서공이 기록한 엽노사로 추정된다.

필자는 엽노사(葉老寺)의 의미를 두 가지로 추정한다. 그 하나는 ‘뽕나무 고목이 있는 절’이다. 그 둘은 ‘두 개의 해로에 위치한 절’이다. 葉은 ‘초목의 잎, 뽕나무, 끝, 갈래, 가지’의 뜻을 가지고 葉老는 옆길(側路)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영흥도 해상에서 목선이 발견되었다. 갯벌에서 발견된 배는 8세기~9세기 신라시대의 배로 밝혀졌다. ‘영흥도선(靈興島船)’으로 명명된 이 배에서 무역 화물이었던 철제 술 12점이 발굴되었다.

지금도 영흥도 안쪽 해상으로 인천-대부도-풍도-육도를 왕복하는 여객선이 운항된다. 영흥도 바깥 해상으로는 거대한 화물선이 인천항과 평택항을 오고간다. 그 중에는 중국의 화물선 大唐(Great Tang)호도 정기적으로 지나다닌다.

6. 섭공서(聶公嶼)

화상도 다음에 등장하는 섭공서는 팔미도(八尾島)²³로 추정된다. 멀리서 보면 뾰족한데 가까이 가면 담장과 같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절단의 배가 자연도(紫燕島·영종도)에 정박하기 1시간 전에 지난 섬이기 때문이다. 팔미도는 인천항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한다. 동산처럼 작은 섬이지만 그 역할이 대단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이곳에 섰다. 6.25 한국전쟁 때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장군이 상륙한 초점이다.

7. 소청서(小青嶼)

섭공서 다음에 등장하는 소청서는 무의도로 판단한다. 사절단의 배가 자연도(영종도)에 정박하기 1시간 전에 지난 섬이기 때문이다. 무의도는 영종도 남쪽 1.4km 위치에 있으며 부속 도서로 실미도, 해녀도, 사렴도, 팔미도 등이 딸려 있다.

무의도(舞衣島)²⁴는 섬의 생김새가 ‘여인이 춤추는 모습’, ‘갓옷을 입고 투구를 쓴 장수가 칼춤을 추는 모습’을 닮아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그 외 무리(茂利)를 한자로 쓸 때 무의(舞衣)로 잘못 표기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 중기의 여지대전도는 무의도를 무리도(茂利島)²⁵로 표기한다. 지금도 섬의 북동쪽에 큰무리선착장, 남동쪽에 떼무리선착장이 있어 무리도로 불렸음이 확인된다. 무의도 호룡곡산(246m)과 국사봉(230m)에 올라서면 인천국제공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8. 자연도(紫燕島)

6월 9일 오후 4시, 사절단의 배는 자연도에 정박하였다. 서공이 기록한 자연도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a-4. 이날 오후 4시경에 배가 자연도에 정박하였다. 이곳이 곧 광주(廣州) 경내이다. 산에 의지하여 관사(館)를 지었는데 경원정(慶源亭)이라는 방(榜)이 있다. 경원정 곁으로 임시 막사 수십 칸이 있으며 주민들의 초가집도 많았다. 그 산 동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연도라 이름했다.

6월 10일 신묘일 오전 8시 경, 서북풍이 불어 8척의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도할관 오덕휴와 제할관 서공은 상절(上節)을 모시고 채주(采舟)를 타고 관사에 갔다가 제물사(濟物寺)에 들렀다. 연풍 연간의 사신이었던 고(故) 좌반전직(左班殿直) 송밀(宋密)을 위해 반승(飯僧)을 마친 후 배로 돌아왔다. 오전 10시쯤 조수를 타고 전진하였다.

자료 a-4에서 사절단의 배가 정박한 자연도는 현재의 영종도이다. 섬 중앙의 백운산(白雲山, 256m)에 원효와 의상이 세웠다는 백운사(白雲寺)가 있다. 철종 5년(1854년)에 흥선대원군이 백운사를 중창하면서 용궁사(龍宮寺)로 개칭하였다.

섬 동쪽 중산동에 구읍나루터가 있다. 영종도와 인천항을 잇는 세종호가 매 30분마다 왕래하는 큰 나루터다. 서공이 기록한 경원정은 구읍나루터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종도 구읍나루터

제할관 서공이 상절을 모시고 간 제물사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시에 현존하는 제물포역(濟物浦驛)으로 그 대강의 위치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산 동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제비가 많이 날아...’에 등장하는 섬의 정체는 ‘월미도’로 판단된다. 월미도(月尾島)²⁶

는 어을미도(於乙味島), 돌미도(突尾島)등으로 불렸다.

제비가 많이 날아다녀서 자연도로 불린다는 기록은 건강부회로 보인다. 자연도와 경원정은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섬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자연도(紫燕島)의 연(燕)은 ‘제비 燕’과 ‘잔치 燕’의 뜻을 가지며 월미도(月尾島)의 미(尾)는 ‘연미복(燕尾服)’에 소통하기 때문이다.

9. 급수문(急水門)

6월 10일, 자연도를 출발한 사절단의 배는 급수문에 도달하였다. 서공이 기록한 급수문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a-5. 10시에 조류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날 오후 2시경, 急水門에 도달하였다. 그 관문은 섬과 다른 것이 흡사 굽이치는 무협의 강 흐름과 같다. 산으로 둘러싸여 굴곡을 이루면서 앞뒤로 맞물려 있는데 그 양쪽 사이가 물길이다. 물의 형세가 산골짜기에 묶여 놀란 파도가 해안을 치고 구르는 돌이 벼랑을 뚫는다. 우레처럼 요란하고 천군의 쇠뇌와 바람을 쫓아가는 말이라 해도 그 급한 물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곳에 이르르면 땀을 펼쳐서는 안 되고 다만 노(櫓)를 저어 조류를 따라 전진해야 한다.

「12세기의 동아시아의 신주 뱃길」²⁷에서 문경현은 급수문을 손돌목(孫斗項)

으로 보았다. 사절단의 배들이 염하(鹽河)의 손돌목을 통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고려도경』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자가 급수문을 선돌목에 비정하였다. 그러나 필자 임종삼은 북송의 신주와 객주가 손돌목을 지났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급수와 급수문은 구분되어야 한다. 강화도와 김포군을 경계하는 염하는 급히 흐르는 강물이다. 그 모습은 썰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물이 손돌목을 지날 때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급수다.

조운선이 염하로 진입하는 문은 남문과 북문 두 개다. 염하의 북문은 한강과 연결되는 월곶리와 보구곶리이다. 염하의 남문은 초지대교 부근의 항산도와 소항산도이다. 두 섬이 이루는 문은 급한 물길 염하강의 입구다. 그러므로 급수문이다.

둘, 염하의 손돌목은 조운선 최대 난파지역이었다. 물살이 빠르데다가 강 북판에 암초가 솟아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손돌목(孫丕項)을 선돌목(立丕項)으로 표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형이다.

조선 건국 초기 19년 동안 손돌목에서 난파된 조운선의 수효가 무려 106척이나 되었다. 태조 4년(1395)년에 16척²⁸, 태종 3년(1403년)에 30척, 태종 14년(1414년)에 60척이었다. 1395년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한 해이다. 이때부터 조선의 조운선은 염하를 거쳐 한양의 마포로 운항하였던 것이다.

셋, 손돌목의 덕포진(德浦鎭)에는 ‘舟師孫丕公之墓’가 있다. 뱃사공 손돌의 애석한 죽음을 위로하여 제사를 지내던 장소다. 그런데 손돌묘(孫丕墓)는 결코 한 사람의 묘로 보기 어렵다. 이곳에서 조난당한 수천 명의 원혼을 위로한 묘지로 보인다. 그것은 매년 음력 10월 20



손돌목

일을 기하여 김포군에서 손돌묘에 제례한 일로 증명된다. 북송의 사절단이 이렇게 위험한 손돌목으로 신주와 객주를 몰았을 이유가 없다.

넷, 염하의 손돌목돈대(孫丕項墩臺)는 신미양요(1871년)가 벌어진 격전지였다. 미 해병대의 상륙정도 지나가지 못한 물목이다. 하물며 최소 43m~최대 94m의

신주가 지나기는 더욱 불가능한 길이다.

다섯, 썰물 때의 손돌목은 모터보트로도 거슬러 오르기 힘든 물목이다. 『江華部誌』는 염하를 이렇게 표기한다. ‘물 흐름이 빠르고 격렬해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름이 높다. 삼남(三南)의 선박이 이곳으로 모인다. 한양으로 가려는 자는 모두 그렇다.’

여섯, 6월 10일 오후 2시는 조락(潮落)의 시각이었다. 당일, 강화도의 물때는 11시가 만조(滿潮)였다. 오전 10시에 자연도를 출발한 사절단의 배가 급수문에 도달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이미 썰물이 한참 진행된 시각이었다.

사절단의 배가 오후 2시에 도착한 것은 썰물을 타기 위해서다. 그 해답은 Naver 지도가 제공하는 강화도 남부해역지도²⁹ 한 장에 모두 담겨 있다.

위성지도에는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깊은 물길이 뚜렷하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석모도로 이어지는 깊은 물길도 확연하다. 사절단의 배는 회백색의 낮은 수심이 아니라 비취색의 깊은 물골로 향해하였던 것이다. 염하의 입구(급수문) 향산도에서 썰물을 타고 좌회전하였다고 판단한다.



강화도 남부 해역

일곱, 향산도와 동검도는 이정표였다. 초지대교 어귀에는 4개의 섬이 위치한다.

항산도(項山島)와 소항산도(小項山島), 동검도(東檢島)와 세어도(細於島)다. 이곳에서 밀물과 썰물은 크게 두 줄기로 갈라진다. 한양과 개경으로 향하는 해로이다.

한양으로 가는 배들은 항산도를 지나 염하로 들어간다. 그러나 개경으로 가는 배들은 항산도에서 좌회전하여 동검도를 지나간다. 항산도(項山島)의 ‘項’에 ‘길목’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여덟, 서공이 기록한 고려 뱃길은 1급 군사 기밀이었다. 요동에 들어선 대금의 침공을 대비한 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뱃길은 자세히 그리고 비밀리에 기록해야만 했다. 제할관 서공은 고려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을 것이고, 고려의 조운선을 타고 염하를 답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홉, 북송 사절단의 목적지는 개경이었다. 그러므로 사절단의 배는 염하의 남문인 항산도에서 좌회전한 것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과강(過江)이 아니라 도강(渡江)의 의미다. 자동차로 초지대교를 건너는 것처럼 항산도에서 좌회전하여 동검도를 지났던 것이다. 강화도에 딸린 동검도와 서검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오고가는 조운선을 검색하던 관문이었다.

10. 합굴(蛤窟)

6월 10일, 급수문을 지난 사절단의 배는 합굴에 정박하였다. 서공이 기록한 합굴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a-6. 오후 5시가 다되어 합굴(蛤窟)에 정박하였다. 그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았으므로 주민도 많았다. 산등성이에 용사(龍祠)가 있는데, 주인(舟人)들이 오고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급수문의 물빛과 비교하면 황백색으로 변하였다.

자료 a-6에서 사절단의 배가 정박한 합굴의 위치를 ‘강화군 화도면 내리 후포항’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 후포항의 물빛은 급수문의 푸른 물빛과 달리 황백색이다. 합굴은 수심이 얇은 너른 갯벌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둘, 마니산에서 상봉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에 참성단(塹星壇)이 있다. 필자는 마니산 참성단을 고려와 북송의 주인(舟人)들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던 용사(龍祠)로 판단한다.



참성단

셋, 상봉(上峰)³⁰의 높이는 해발 254m로 나지막하다. 해발 469m 마니산의 서쪽에 위치한다.

넷, 상봉 아래 마을의 이름은 큰말, 막은골이다. 큰말은 많은 수효의 민가가 있는 마을이고, 막은골은 물막이 공사로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또 마을 앞에 위

치하는 작은 섬의 이름은 곳창뫼다. 세곡을 보관하던 사창을 두었던 산이므로 곳창뫼(串倉뫼)다.

다섯, 당일 오후 2시에 급수문(항산도)을 지난 사절단의 배는 오후 5시에 합굴(후포항)에 닿았다. 항산도에서 후포항의 거리는 약 30km이다. 평균 시속 10km로 항해하였다는 의미다.

여섯, 합굴의 의미는 대합(大蛤, 白蛤)이 많이 나는 소굴(巢窟)이라는 의미로 본다. 대합조개는 조수의 흐름이 좋은 갯벌에서 많이 난다. 물 빠진 갯벌에서 황소발자국 같은 흔적을 뒤지면 어른 주먹 크기의 대합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흔한 풍경이었으나 지금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갯벌의 풍경이다. 지금도 강화도 화도면 동막리 갯벌은 경기만에서 대합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소로 손꼽힌다.

일곱, 합굴의 지명은 굴암돈대(窟岩墩臺)에 살아있다. 강화도의 수십 개 돈대의 하나인 ‘굴암’에 ‘합굴’의 의미가 전해진다. 굴암돈대는 화도면의 맞은편인 양도면에 위치한다.

여덟, 진강산(鎭江山)³¹ 자락에 고려 제21대 희종의 석릉이 위치한다. 희종은 즉위 원년(1205년)에 무신 최충헌을 문하시중 진강군개국후(晋康郡開國侯)에 봉했다. 식읍(食邑) 3천호에 실봉 3백호의 진강군이었다. 진강군의 합굴이 먹고 살기 좋은 고을이어서 주민도 많았다는 기록에 부합한다.

아홉, 후포항 들머리에 ‘선수약수(船首藥水)’가 위치한다. ‘뱃머리 약수’라는 의

미의 오래된 우물이다. 먼 바다를 향해하는 배에 쌀보다 우선하는 것이 물이다. 그것은 서남해를 횡단한 사절단의 배가 고섬섬에 정박했을 때의 일로 확인된다. 고섬섬의 주민들이 사절단에 제공한 것은 항아리에 담은 물이었다. 이에 북송의 사절단은 물을 가져온 고려인들에게 쌀로 사례하였던 것이다. 합굴의 위치를 강화군 내리의 후포항에 비정한다.

11. 분수령(分水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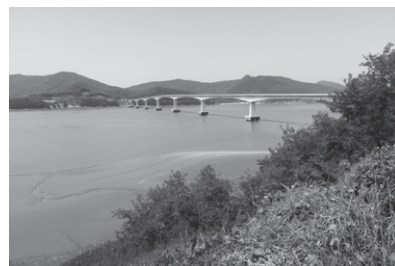
6월 11일, 사절단의 배는 합굴을 출발하였다. 분수령에 올랐다가 비를 피하여 머물렀다. 서공이 기록한 분수령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a-7. 분수령은 곧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바다이다. 여기서부터 바닷물이 나누어진다. 물빛은 다시 매잠을 지날 때처럼 흐렸다.

자료 a-7에서 분수령은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바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바닷물이 나누어진다.’고 했다.

필자는 두 조건을 충족하는 분수령을 석모대교가 놓인 혈구진으로 본다. 신라의 수군기지이자 무역기지였던 혈구진은 청해진, 당성진과 함께 당과 신라와 일본을 잇는 신라의 해진이었다. 해상 교역과 해상 방위의 요충이었다. 혈구진(穴口鎭)에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바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석모해협은 강화도 진강산(해발 441m)과 석모도 해명산(해발 327m)이 마주보는 형국이다. 그리고 석모대교 밑을 지나면 곧 바로 바닷물이 분할되는 교동도 해역이다. 교동도를 좌회전하면 황해도 연안으로 가고, 교동도를 우회전하면 경기도 개경으로 가는 뱃길이다. 석모대교가 놓인 혈구진은 분수령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이다.



석모대교

‘분수령’은 산경표(山經表)를 설명할 때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백두대

간(白頭大幹)을 설명할 때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³²이라는 낱말이 등장한다. 설명을 덧붙이면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석모대교에서 교동도를 바라보면 조망이 멋진 세 개의 산이 나타난다. 석모도 삼산면의 상주산(264m)과 강화도 하점면의 별립산(400m)과 교동도 교동면의 화개산(269m)이다. 상주산과 별립산과 화개산이 이 지역의 바다를 3분할하는 것이다. 서공이 기록한 분수령을 석모대교가 놓인 혈구진에 비정한다.

12. 용골(龍骨)

분수령을 지난 사절단의 배는 용골에 정박하였다. 6월 11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a-8. 6월 11일 임진일 아침에 비가 시작되었다. 낮 12시 쯤 潮落이 시작되면서 비가 더욱 심하게 쏟아졌다. 국왕이 유문지로 하여금 先書를 보내왔다. 정사가 예를 갖추어 받았다. 오후 6시쯤 전진하여 龍骨에 정박하였다.

자료 a-8에서 당일 낮 12시 조락에 고려국왕 인종이 선서(先書)를 보내왔다. 짐작하건대 고려국왕이 보낸 선서는 6월 12일 예성항에 입항을 안내하는 자료이었을 것이다.

사절단의 배가 움직인 것은 오후 6시 조류의 시각이었다. 해거름에 배를 띄워 용골에 정박하였다. 분수령(혈구진)에서 용골(교동도)의 거리는 약 10km이므로 1시간의 항해로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교동도 대룡리에 고려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교동읍성이 위치한다. 교동읍성에 아주 오래된 우물 용정(龍井)이 존재한다. 1413년 3월 13일, 수군첨절제사 윤하(尹夏)가 태종 이방원에게 보고한 사항이다. ‘교동현(喬桐縣) 수영(水營)의 우물에 黃龍이 나타났다’는 기록의 주인공이다.

교동도 남산(진망산)에는 사신당(使臣堂)이 위치한다. 송나라 사신들이 뱃길의 안전을 제사하고 묵어가던 객관이 있었던 장소다. 그 연유로 대빈창(大賓倉) 또는 남산포(南山浦)로 불린다.

필자는 사절단의 배가 정박한 ‘용골’을 ‘용고을’로 본다. 용골의 ‘골’을 못골, 동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The central focus is the Seonam-gate, a traditional Korean gatehouse with a tiled roof and stone walls. To the left of the gate is a large pile of rocks, and to the right is a stone wall. The foreground is a dirt path, and the background shows some modern buildings and trees.

314 새기름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두번째 신속한 고려인의 통신. 북송의 사절단이 고려의 바다에 들어왔음을 봉화와 파발로 신속하게 알렸다. 그러므로 전주목사, 청주목사, 광주목사는 미리 객관에 나아가 북송의 사절단을 영접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휴대폰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고려인의 자비로움. 배고픈 백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음식 시수(施水)였다. 그 모습에 감격한 서공은 시수(쌀죽)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왕성의 장랑에는 10칸마다 장막을 치고 불상을 설치하며, 큰 독에 뭍은 죽을 저장해 두고 국자를 놓아 두어 왕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게 하는데, 귀한 자나 천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 승도들이 이 일을 맡는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가 꽤있다. 북한산 도선사의 점심 공양과 관악산 연주암의 점심 공양 등이 그 일예이다. ‘다일공동체’의 ‘밥퍼’ 최일도 목사의 무료급식은 2018년 30주년을 기록하였다.

네번째 비취빛의 고려청자. 서공은 북송청자보다 화려한 고려청자의 비색(翡色)을 극찬하였다. 서공이 언급한 고려청자 중의 하나는 <청자참외문양병(靑瓷瓜形瓶)>³³이다. 고려가 이 시기에 북송에서 참외 씨앗을 들여왔음을 알려주는 근거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하는 청자참외문양병은 고려 인종의 능에서 발굴된 것이다. 고려 인종 왕해(王楷)가 북송의 사신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던 청자술병이어서 더욱 이채롭다.

다섯번째 강화군의 지형변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변한 지형은 단연코 강화군의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이었다.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도(江都)로 이전한 이후, 강화군은 급속도로 변모하였다.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개경의 이주민이 강화군의 지형을 변경시켰다.

여섯번째 해양강국 고려. 군산도-마도-자연도와 합굴-용굴을 거쳐 예성항과 개경에 이르는 길은 동아시아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지금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여객터미널이 위치한 영종도는 그 이름 그대로 세계로 향하는 긴 활주로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여객터미널은 고려 개경의 해상 주작대로였다.

남북 평화통일이 되면 고려의 도성 개경에 가고 싶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는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가고 싶다. 군산도에서 출발하는 조운선을 타고 마도와 당인도, 화상도와 자연도, 합굴과 용골을 거쳐 고려의 수도 개경에 가고 싶다.

참고문헌

1. 『고려도경』, 서금 지음, 조동원 외 역, 황소자리출판사. 2005.
2. 『고려와 고려도경』, 경기문화재단, 2018.
3. 『고려와 고려도경』, 경기도박물관, 2018.
4. 『그림으로 읽는 고려도경』, 김대식 역, 역사인. 2013.
5.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6
6. 『바다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윤명철, 사계절출판사, 2000.
7.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8. 南陽圖,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18세기.
9. 水原圖, 동여비고, 양산 천성암 소장, 1682.
10. 新羅九州郡縣叢圖, 청구도, 김정호, 1834년.
11.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홍보자료, 2018-2019.
12. Daum지도, 인터넷포털사이트 Daum.
13. Naver지도, 인터넷포털사이트 Naver.

주석

- 1 清明上河圖, 북송(北宋), 1120년경, 북경고궁박물관.
- 2 磁石, 삼국사기(上),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6, pp.155-156.
- 3 신안해저선, 14세기 최대의 무역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에서 발굴, 중앙박물관.
- 4 방(枋), 「고려와 고려도경」, 경기문화재단, 2019년, p.20.
- 5 박달나무,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 176-12.
- 6 군산도(群山島), 『고려도경』, 서금 지음, 조동원 외 역, 황소자리출판사. 2005.

- 7 선유도(仙遊島),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고군산군도에 속한 섬.
- 8 오룡묘(五龍廟),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위치한 海神堂.
- 9 마도(馬島), 『고려도경』, 서금 지음, 조동원 외 역, 황소자리출판사. 2005.
- 10 전호신, 「서금의 고려도경에 나타난 안흥정 위치에 관한 고찰」, 제9회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2, 2018.
- 11 구두산(九頭山), 『고려도경』, 서금 지음, 조동원 외 역, 황소자리출판사. 2005.
- 12 팔봉산(八峰山), 대한민국 구석구석, 백과사전.
- 13 당항성(党項城),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p.117.
- 14 당은군(唐恩郡),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p.267.
- 15 海門, 「남양도」, 18세기 후반, 31×42cm,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 16 난지도(難知島), Naver 지식백과.
- 17 옥도(六島), 디지털안산문화대전.
- 18 입파도(立波島), 네이버 지식백과.
- 19 소저지(小楮只), 「동여비고」, 수원지방도, 1682년, 양산 대성암.
- 20 대부도(大埠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1 소우도(小牛島), 「동여비고」, 수원지방도, 1682년, 양산 대성암.
- 22 영흥도(靈興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3 자월도(紫月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4 무의도(舞衣島), Daum백과.
- 25 무리도(茂利島), 여지대전도, 1725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26 월미도(月尾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7 「12세기의 동아시아의 신주 뱃길」, 『고려와 고려도경』, 문경현, 경기문화재단, 2018년. P.25.
- 28 조운선(漕運船),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7일 무진.
- 29 강화도 남부해역, Naver지도, www.naver.com/
- 30 상봉(上峰),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 31 진강산(鎭江山),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 32 산경표와 산자분수령, 고등교과서 『한국지리』, 천재교육출판부. 2012.
- 33 청자참외문양병(靑瓷瓜形瓶),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

정제두 사상과 현대사회

정원철

1. 연구 동기 및 목적
2. 현대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서양철학
3. 유학 철학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
4. 한국인의 가치관과 유학
5. 철학하는 경기지역문화를 위한 제언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우리 사회의 현실

2019년 김운태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특징과 해법』 발제문에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논하였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빈곤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2010년 이후 ‘헬조선’ 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 건강은 어떠한가? 정신건강 역시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가 도처에서 붕괴하고 난도질당하는 것을 수시로 접할 수 있다. 아직도 붕괴시킬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가 찾기도 어렵다. 대체 언제까지 그러한 뉴스에 언제까지 가슴 뛰다가 체념하기를 반복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연유로 누구의 손에 망가지는지를 살피고, 그 대책을 숙고해야 한다. 이명현은 그의 논문 ‘한국 철학의 전통과 과제’에서 한국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 논구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그 역사적 지평에서 제기되었던 물

음들에 대해 응답해 놓은 옛 철학적 언어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옛 사람들이 안출해 놓은 철학적 유산과 오늘의 세계의 철학자들이 제기해 놓은 철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응답의 문헌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이 모든 철학적 언어들은 오늘의 이 땅의 철학도가 논리의 메스를 들고 해부하여야 할 일감이다.”

2) 우리의 정신적 구심점은?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의 문화를 주도한 사유재산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다. 그에 대응한 신헌리주의가 출현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에 위치하여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온 우리의 역사와 잠재 의식에는 공자의 유학과, 도가, 불가의 사상이 샤머니즘의 바탕 위에 흐른다. 토속 문화에 외래문화가 찾아 들어 상호 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상사이고 문명사이니, 현재는 혼란스러워도 동서양 사상의 혼재가 질서를 되찾고, 한국인의 성정에 맞는 사상과 철학이 정립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이다. 중국에서 전래한 유교와 불교를 한국인의 성정에 적합하게 소화하였듯이, 과학문명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서구 문명 역시 우리의 체질에 맞게 소화해 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입한 문명에 단지 순응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정신적 구심점을 찾아, 그를 중심에 세우고 서양의 사상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각인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는 다원주의가 오늘의 대세라고는 하지만, 삼킬 듯 덮쳐오는 외래의 철학에 단편적이며 산발적 대응으로는 주체적 수용을 이룰 수 없다. 서구에서 새로운 사상을 전할 때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거센 파고에 우리의 현재는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피고, 발견하는 문제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처방을 내야 한다.

사상이란 이식하자마자 바로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숙성하여야 그 사회의 정신적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단군 이래로 전통의 사상을 숙성시켜왔다. 이기론의 성리학을 국시로 하는 조선시대만 하여도 동양의 전통 철학을 공유하며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상이 단절되는 시절을 거쳤다. 그리고 광복 후 현재 79년을 지나면서는, 우리의 본래 철학이나 사상과는 연원이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을 국시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 철학과 사상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수백 년의 숙련 기간을 지닌 유럽의 제국과는 토양이 다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갑작스런 도래로 서구의 사상인 자유민주주의가 주인이 되었고, 전통 사상은 손님이 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전통 사상에서 취해야 할 장점이 꽤 많은데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여 버렸듯이 하루아침에 서구 사상으로 덮였다. 헌법 전문에 쓰인 헌법 정신을 살펴보아도 그러하고, 지식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전통 유학의 정신은 거론되지 않는다. 본래부터 이어 온 전통 사상과 철학이 지금은 낯선 객이 되었다. 주객을 다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한국의 전통 사상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한 것을 인식하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철학과의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개 무심하다. 원효, 최치원, 이이, 이황, 정제두, 정약용, 최한기 등 선각자의 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과제만을 쫓는다. 필자는 우리의 전통 철학 중에서, 각인이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매사에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할 것을 주장한 경기도의 전통인물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3) 동서양 철학의 비교 고찰

동양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현대 한국 사회를 도덕이 무너진 사회라고 개탄하지만 그를 타개할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효 운동 이외의 창조적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양철학을 전공한 이들도 한국의 경제, 사회를 나름대로 분석, 진단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내재한 동양 철학의 무형 자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학문의 잣대로 진단 분석만 할 뿐이니 그들의 주장은 한낱 구호로 그치고 말 뿐이다. 아니 주장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겸허한 분석

에만 그치기 일쑤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하나로 응집시킬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통합된 하나의 잣대로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빛으로 분출하는 스펙트럼을 펼치고, 그 빛을 다시 모아 하나의 통합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의 한 빛이고자 한다. 필자는 동양 철학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서양 철학에 정통하지 않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정통하지 않은 면이 멀찍이서 객관화의 시각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동양철학의 한국화

동양의 철학은, 철학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은 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부국강병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자백가의 사상으로 일어나 근대까지 지속하여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유학은 정치철학으로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었고, 불학은 지역 내 지배층과 민중 모두의 정신세계를 관장하였고, 노장 철학은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학은 한반도에서도 부흥하여, 통일신라 때부터 국학과 독서삼품과로 관리를 양성,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진골 귀족의 거센 반대에도 관리 양성 지원 제도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고려에서도 과거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관료 선발의 중심 역할을 하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기(理氣)철학으로 무장한 성리학을 국시로 하여 500여 년간 한반도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현재 한국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의식 바탕에는 유학의 잔재가 남아 있다.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잔존하고 있다.

조선조는 고려조와 같이 고대양반과, 중인, 상민과 천민의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지배층의 정치철학은 유학이었다. 조선은 유학을 수단으로 통치한 나라였다. 성리학(性理學)의 이(理)는 삼강오륜의 도덕률을 말하며, 성리학은 신분계급과 가부장, 종법 질서를 주로 하는 명분론적 질서로 정치, 사회를 이끌었다.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천(天)의 개념을 인간이 구현하는 것을 도덕으로 한 것이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야 학문이 다양해졌다.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정제두가 양명학을 수용하여 이론 체계를 세우고, 이익의 경세치용의 학

문이 정약용으로 이어졌다. 정제두로 비롯한 한국양명학은 정동유, 이견방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과 고종의 특사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정사로 파견된 이상설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다. 또한 정약용의 실용 학문은 이후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서 세계 경제 대국의 일원이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서양 철학의 한국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된 서구 사상이 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친 서양 철학이 있다. 21세기에 이른 대한민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사상을 일별하여야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양의 정치제도와 사상에 대한 일별이 필요하다. 최초의 서양문화는 그리스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는 폴리스를 터전으로 성장한 도시 국가로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오리엔트로 전파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낳았다. 서양 문명은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화가 상호 대립, 화합하며 발전하였다.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470~399 B.C.)가 등장하면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며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믿고 추구하는 철학자였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문답법으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려 하였는데, 한국의 현대인에게도 상식화된 격언이다. 그의 제자 플라톤(427~347 B.C.)은 초월적 이데아를 상정하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는 사물의 본질인 형상(形相)이 독자적 이데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 속에 내재한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함께 서양 철학의 두 조류의 근원이 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중세 교부시대 논증의 방법론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하는 중세 철학은 신과 세계와 인간에 관한 통일적인 질서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근거를 추구하였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민주제에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왕정이었으나, 이내 시민의 공동체가 되었다. 폴리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에 대한 봉사를 인식하는 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지키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결속한 전사공동체였는데, 이들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자유민이었다. 기원전 7세기 중엽에 화폐를 사용하며, 자유로운 농민과 상인이 활동하는 평범한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 노예를 부렸지만 노예는 타국에서 돈을 주고 사왔다. B.C. 508년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는 10개의 지연 부족, 데모스를 만들고 50명씩의 평의원으로 된 500인회를 구성하여 정무를 처리하였다. 이 데모스에서는 구민명부를 만들고 구민자치를 하였으며, 폴리스에 내보내는 50명의 대표를 추천으로 뽑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유사하다. 그리스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민주주의 싹이 트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철학 사상을 싹 틔운 것이다.

한편 오늘날 극성을 이루는 개인주의적 사고는 서양 근세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17~18 세기에 자리 잡았다. 그로티우스의 이성자족론과 같은 합리주의를 기초로 한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자유평등, 기본적 인권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데 신일지라도 바꿀 수 없으며, 개인의 천부적 불가양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으면 혁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을 이끈 철학이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반영되었다. 서구의 근대 자연법 사상은 경험론, 공리주의, 실증주의로 분화 발전한 경험 중심의 자연법과 대륙 합리론과 독일 관념론, 계몽사상으로 발전한 이성 중심의 자연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법 사상은 과학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다. 서구 현대 철학은 헤겔 철학의 반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생 철학과 실존철학이 싹트었으며,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등장하고, 실용주의, 분석철학이 발전하였다.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후 실존주의의 영향이 짙었으나,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의 뼈대 위에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제 이론이 모두 함께 한다. 작금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 질서로 인하여 불평등과 비인간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쌓이는 가운데, 해체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2. 현대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서양철학

1) 사회계약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와 정체는 서구문명에서 비롯하였다.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며, 주권의 행사는 민주적으로 한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루소(1712~1718)로 대표하는 사회계약론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오늘날 한국의 철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철학이나 동서양 철학을 수용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은 17세기 이래의 계몽시대 철학자 홉스와, 로크, 루소 세 사람의 철학에서 비롯하였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로크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존재하며, 정부의 통치는 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위임과 신탁의 대의민주제 사회계약을 주장하였다. 주권재민, 3권 분립, 법에 따른 통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양립을 강조하였다. 홉스와 로크의 사상을 이어받은 루소는 시민 간 합의한 결과이자 시민이 형성한 공공선을 정부가 따라야 하는 사회계약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사회적 불평등 원인을 사유재산에 의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 계약에 입각하여 국가가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근대의 조선은 왕위 계승을 적자와 장자로 하는 주나라 종법(宗法)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유학의 도덕 이념으로 통치하는 전제 군주제였다. 위민(爲民), 애민(愛民)을 주장하는 민본주의를 내세웠으나,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주권재민의 공화국과는 차이가 크다. 국민이 국가에 충성한다는 개념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은 국가 체제가 바뀌면서 혼란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

2)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지나쳐 자연을 훼손하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일이 많아졌다.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의 폐단과 겹쳐져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한편, 생시몽, 콩트와 실증주의적 사회학자, 미국의 실용주의자 등은 추상화한 개인은 계몽 시대의 편협한 피상적 도그마라고 비난한다. 사회적인 개인관을 주장한다. 드 보날드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인간을 구성한다고 하며, 브레들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서구 철학에서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발달,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대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주의와 프라이버시

루소의 사회계약론 출발점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도구로만 봉사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다.’라고 말한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미국 독립선언,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에도 나타나는데, 인류라는 가족 전체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생득적 존엄성의 인식이 천명되어 있다.

서구 중세는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의 육체인 영원성을 갖는 것은 법, 바른 질서라는 개념에 젖어 있었다. 개인의 신체는 죽지만 바른 질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유기체론적 명제는 공동의 신체정치라는 통합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개인은 사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속으로 완전히 편입된다.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개인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되었다. 피치노(이탈리아, 1433~1499)는 중세 관념과 융합시켜, 인간의 영혼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 자연의 중심, 모든 것의 중간, 세계의 연결, 모든 것의 얼굴, 우주의 연대, 접합점이라고 하였다. 맥타그라타는 ‘가치의 개인주의’라는 글에서 ‘개인만이 목적일 뿐이요 사회는 수단에 불과하며, 국가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라고 하였다.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은 개

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인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관점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프라이버시란 ‘공적 세계 속의 사적 존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란 자신이 선택한 바를 행하고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밀은 프라이버시를 ‘자기 자신의 선을 자기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세 유럽까지 없던 관념임을 다음과 같은 아렌트(독일, 1906~1975)의 말에서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란 글자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 인간의 능력 중 가장 고귀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 사적인 생활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세계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자, 야만인처럼 공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인간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박탈이나 결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근대적 개인주의를 통해서 사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자유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다. 자유주의는 ‘프라이버시 영역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떠한 원리로 프라이버시 사적인 영역의 경계를 그을 것인지, 어디서 간섭이 나오는지, 간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하였으나, 개인의 자유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싹텄다. 인간 한 사람 한사람이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자기 완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간관과 개인의 자발성 보장이 곧 사회 발전의 조건이라는 사회관이 근대사회의 자유주의 이념이다. 사회계약의 관념, 계몽사상, 자유방임 정책론이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평등을 ‘평등한 자유’로 해석한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것이 곧 자유의 능력, 선택의 능력이며, 타인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조건 이외에는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자유의 능력으로 인간은 존엄성을 갖는 것이고, 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등의 공동체주의적 사고와 대립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도덕이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이를 정치적으로 구현하려 한다. 개인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란 없다고 한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람이 사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인적 선호를 충족시켜 줄 도구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 구현을 중히 여기는 면에서 공헌하였으나,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의 부작용이 속출하여 다른 개인과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졌다.

자유주의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사회계약적 개인주의가 있다.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데, 공동선을 중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가치를 도외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나, 어떤 악을 행하는 일도 공동선을 위한다는 근거로 정당화할 수 있다. 공동선을 개인적 선의 총합으로 보다보니, 개인의 선호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는 거친 개인주의라고도 하는데, 특히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간섭을 경계한다. 자유가 지나쳐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저해하거나 불평등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사회계약적 개인주의는 앞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은 사회계약적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국체와 정체를 지니고 있다.

3) 신헌리주의

구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의 붕괴 이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는 경쟁할 상대마저 없어졌다.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질서가 부상하였고, 경쟁주의와 실용주의가 강화되었다. 중세의 강한 도덕주의의 부패 권력을 비판하는 근대 자유주의의 등장처럼, 유럽 복지국가 관료의 무능을 돌파하려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공동체주의를 따돌리고 앞장서 나간다. 혹자는 한국 사회가 서구사회보다 더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본다. IMF 이후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경제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근대적 시민운동과 다른,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졌다. 심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줄 잇고 있다. 신헌리주의의라 일컫는 롤스, 퍼포, 하버마스의 등장도 주목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 역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진정시킬 대안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버드의 성인으로 불리는 롤스(미국, 1921~2002)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선을 직접 실천하였다.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연구하여 자유주의에 평등주의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 평등, 복지 증진 세 가지를 조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전원 합의를 통해 선택하는 원칙이다. 프랑스 사회당에서 그의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분배 정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있는 과학철학자로 꼽히는 칼 퍼포(영국, 1902~1994)는 가설을 경험적 증거로 반증하는 반증법을 주장하였다. 퍼포는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의 명제는 무의미한 언명이라 하였다. 퍼포가 말하는 합리주의는 실수와 오류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통해, 자기비판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독재를 거부하는 사회가 된다고 말한다. 모든 독재는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론적 독단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는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열린사회라고 한다. 플라톤이 완성한 전체주의와 유토피아를 비판하고, 헤겔과 마르크스의 역사법칙주의를 비판하며, 전체주의의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최악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악과 불의에 의한 인간 고통의 구제를 공공정책의 최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군의 하버마스주의자들은 하버마스의 이론이 1990년대 시민들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이상 국내외적으로 극좌파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학문성과 실천적 함의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근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겪는 주요한 고통이 의사소통행위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의 상징적 재생산, 즉 사회화, 사회통합, 문화적 전승을 위해서는 의사소통행위가 필수적이다. 의사소통행위는 서로 간에 한 쪽 혹은 다른 쪽에 의해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사소통행위의 합리성은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도달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하버마스는 언어적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영역을 '생활세계'로, 화폐나 권력에 의해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와 행정의 영역 등을 '체계'로 규정한다. 하버마스는 근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로 보았다. '소외'나 '인간의 사물화'는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로 침범하여, 언어적 합의가 아닌, 화폐나 권력으로 대치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제정된 법을 바탕으로 체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대안으로 한다. 체계가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되 자유로운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확립한 개인적, 사회적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신합리주의는 이성의 절대화도, 이성의 주관화도 거부하며 보편성을 모색하는 현대 실천철학이다. 이들은 좋음이 배제된 옳음을 거부한다. 중세적 금욕주의나 칸트적 의무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무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이며, 무용함이라고 생각하며, 형이상학적 마력에 빠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형이상학 없는 정의관을 세우려 한다. 도덕론은 봉건 시대의 유물이며, 최소도덕론으로 가름한다. 신합리주의 철학은 작은 도덕을 선호하며, 의무나 책임 중심적 담론이 아닌 권리 중심적 담론을 지향하는데,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딛고, 자율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

3. 유학 철학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

본 장에서는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맹자에 이르는 시원유학(始原儒學)과, 맹자의 오륜(五倫)에 음양오행을 삼강을 산입한 동중서(董仲舒)를 살피고, 성리학의 탄생 배경과 조선조에서의 적용에 관하여 살필 것이다. 그리고 성리학의 옷을 입은 채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사회 발전의 모델을 고민한 양명학과 실학의 정제두와 정약용을 소개한다.

1) 선진유학과 동중서

선진유학(先秦儒學)

선진유학은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원시적 확립기의 유학을 말하는데, 공자·맹자·순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데 원시유학(原始儒學)이라고도 한다. 중국 고대 하은주의 선왕(先王·요·순·우·탕·문왕·무왕·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으로 덕화(德化)를 실현하려는 철학이다. 도덕적·정치적 사상체계를 가리킨다.

공자는 주대(周代)의 전통 문화를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유가(儒家)의 골격을 세웠으며, 맹자는 공자의 인간론을 진심론(盡心論)으로 발전시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순자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설을 유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공자의 인간론과 예론(禮論)을 체계화하였다. 이후 선진유학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다. 한당(漢唐) 시절에는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에 적합하게 운용하였으며, 송명(宋明) 시절에는 도교와 불교 관념론의 자극으로 이기설을 도입하며, 사변적 성격으로 체계화한 성리학을 탄생시켰다. 성리학의 이기론은 당시의 신분제의 명분을 제공하고 중화적 세계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를 내포하였다.

동중서(董仲舒)

동중서는 하늘과 인간은 밀접한 상호 관계가 존립한다고 하며, 음양오행의 이론과 유가의 정치 사회 철학을 한데 결부시켰다. 우주에는 10대 요소가 있다고 하

였다. 천,지,음,양,목,화, 토,금,수와 인의 10대 요소를 꼽았다. 천지의 변함없는 도(道)는 음양의 연속으로, 양이 하늘의 덕행이라면 음은 하늘의 형벌이다. 하늘은 양을 신임하지만, 음은 믿지 않고, 하늘 역시 희노의 기를 가지고 있으며, 애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하늘은 서로 대응하므로 끼리끼리 짝이 되고, 하나를 이룬다. 맹자가 말한 천인합일과 음양오행의 이론을 혼연일체로 만들었다.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연의 상징인 하늘과 땅, 목, 화, 토, 금, 수가 음양으로 성하고 쇠하는 그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다보니 유가철학을 국시로 받아들인 조선은 음양의 이치대로 신분차별을 정당시하고, 상하구분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인간 존엄성의 평등을 오랜 세월 추구하지 못하였다. 동중서가 한대(漢代) 유학에 음양오행을 산입한 결과였다.

동중서는 성리학과 조선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동중서는 사회 윤리 부문에서 유가철학과 음양론을 결부시켜, 맹자의 오륜을 음양 오행의 조화로 해석하고, 삼강이라는 신분제적 사회윤리를 엮어냈다. 인(仁)을 나무와 동쪽에, 의(義)를 쇠와 서쪽에, 예(禮)를 불과 남쪽에, 지(智)를 물과 북쪽에 연계시키고 신(信)을 흙과 중앙에 위치시켰다. 삼강오륜의 도덕률을 완성시켰다. 동중서가 만든 삼강(三綱)은 남녀 평등을 비롯하여 차별을 철폐한 현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이다. 오륜(五倫)을 변함없는 도덕률로 여기어 충서(忠恕)의 유학을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리학과 조선

성리학(性理學)은 주희(朱熹)가 집대성하여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성리학은 이(理)의 보편화를 통해 도덕과 명분론적 질서를 주장하며, 인간은 각각의 계층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불가와 도가처럼 우주적 형이상학을 도입한 성리학은 이기론 철학으로 정치적 명분과 질서를 합리화하는 사상체계였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기 원나라를 통해서였다. 왕조 교체를 전후한 시기에 불교 비판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정도전(鄭道傳 : 1337~98)·권근(權近 : 1352~1409)은 성리학의 이기론·인성론에 바탕을 두고 불교의 초세속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유교적 심성 수양은 윤리도덕의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며, 불교적 심성 수양은 현세를 초월한 정신적 해방을 그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시작하였다. 성균관에서도 유교교육의 기본 교재로 <소학>을 채택했고, 사서(四書)의 학습을 주로 하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널리 보급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은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으로, 수기치인의 윤리 도덕적 완성을 위하여 철학적으로 근거를 찾는 학문이다. 성리학은 태극과 이기론 연구를 통하여 인간 심성의 내적 움직임에 주목하였다. 예(禮)학은 심성의 외적 표현으로서 성리학과 표리를 이루었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대개 이기(理氣)성정(性情)과 예설(禮設)에 관한 논의가 주로 되어 있다. 국가의 변란인 임진, 병자 양란 후에도 무력을 증강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보다는, 예학을 발전시켜, 삼강오륜을 튼튼히 하였다. 성리학적 사회를 성숙시키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성리학은 조선 말기 제국주의 침탈 시기에도 유교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위정척사 운동으로 국난에 대처하였다. 조선은 나라를 다스림에 문치로 일관하여,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엄청난 문명사적 기록을 남겼으나, 그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3) 양명학과 실학

정제두와 한국양명학

한국 양명학의 역사는 중종 16년(1521)에 박상과 김세필이 양명의 전습록을 시로 화답하며 변척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558년 홍인우와 남언경이 양명학 토론하는 것을 보면, 당시까지는 양명학을 자유롭게 논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73년(선조 6년) 이황이 경연석상에서 양명학을 배척한 이래로, 임진왜란 당시 명의 원병으로 왔던 송응창, 쇠황 등이 양명학 공인

을 요청하고, 만세덕은 중국처럼 육왕을 문묘에 종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조선 조정은 거부하였다. 이후 남인과 노론 세력도 양명학을 배척하였고 소론의 정제두가 홀로 양명학을 이어갔다.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150년 가까이 주자학과 공존하였으나, 조선은 이황의 사문난적으로 규정 후에 수면 위로 올라서지 못하였다.

정제두 선생은 조선 선비 중 처음으로 자신이 양명학을 존송함을 알리고, 처음으로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정인보는 그의 저서 ‘양명학 연론’에서 정제두 선생을 ‘아주 총박(綜博)한 학설을 세워 왕문(王門) 제자(諸子)중으로도 미치지 못할 대저를 남긴 이’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자적 논리를 구축하여 실심(實心)으로 일관된 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이후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정제두 선생은 안산의 추곡(楸谷-현재 시흥시 화정동)에서 학변과 존언을 저술하였다. 「학변(學辯)」에서 정주학(程朱學, 주자학)의 이원론적 학문 방법과 지리하고 번잡한 학문 태도를 비판하면서, 양명학의 일원론적인 심성론(心性論)을 정리하였다. 정제두의 「존언(存言)」 3편은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 3편에 필적하는 정제두 선생의 주저(主著)로서, 「학변」과 함께 조선시대 유일의 양명학 이론서라 할 수 있다.

임진, 병자 양란 전후의 한국 사회는 변화의 욕구가 커지면서 양명학이 선비들의 주목을 받으며, 실학을 받아들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정제두 선생과 그 후학들은 실심(實心)에 입각한 실행(實行)을 학문의 요점으로 삼고, 지행합일의 삶을 추구하였으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증학, 역사학, 음운학 등의 실학(實學)에 동참하였다.

구한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양명학이 다시 등장한다. 정제두 선생의 가학(家學)으로 명맥을 잇던 양명학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수구적 위정척사론과 진보적 개화사상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사회진화론을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입장에서 수용한 중국 양계초의 영향을 받은 박은식은 양명학을 중심으로 개화자강(開化自強)의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을 펼쳤으며, 만국평화회의에서 국권 회복을 주장하러 파견된 정사 이상설 역시 양명학 정신을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였다. 최남선도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인보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시까지 양명학자로서 정치일선에서 활동하였다.

정약용과 실학

정약용(1762~1836)은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대표적 실학자다. 그는 피폐한 농촌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실용지학(實用之學)·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하면서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세유표>·<목민심서>·<흙흙신서>를 저술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평등한 직업분화와 직업의 전문화를 강조하고 사회분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상업적 이윤을 긍정하고 상업을 농업과 분리시켜 대등하게 발전시키며, 조세개혁을 통해 상인을 보호하며 해외 상업을 발전시키려 했다. 또한 동전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도모했다. 수공업의 기술도입론을 강조했다.

정약용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각각 존재와 당위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했다. 성리학의 계급성과 불평등한 인간관을 비난하고 선진유학에서 그 규범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천인분리를 상정하면서도 절대적인 인격적 주체자로서의 하늘의 존재를 별도로 언급하였는데, 하늘은 모든 인간과 개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라고 하였다. 또한 기질에 따른 인간성의 차등을 비판하였으며, 국가의 교육, 과거,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론으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했다. 인간이 외적 환경에 좌우된다고 보아 사회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주관적 심성 문제에 치중한다거나 도덕적인 호소에 의한 해결방안을 내세우는 주자학과 대별되는 실제적 주장이다.

정약용은 도덕이나 규범은 마음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이 있는 후에야 성립된다고 실천을 중히 여겼다. 지행합일을 이야기하는 양명학과 같은 기조다. 단지 양명학에서는 마음에 선한 이치가 있어 자신의 마음 가는 길을 살피 행(行)할 때에 비로소 지(知)라고 말하는데, 지행합일에 있어서는 정약용과 정제두의 이는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같다.

4. 한국인의 가치관과 유학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상, 신앙, 언론, 행동, 집회, 재산 소유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회다. 자유민주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신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창조적 능력’을 고창한 이후로,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개인의 독립, 자유와 재산 소유권, 협동체로서의 정부 수립권, 혁명권이 강조되어 미국 독립선언의 원형이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자유방임적 경제원리를 병행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한국 사회도 미국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재난도 함께 닥쳐,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거쳤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숙성화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개인적 자유란 인간의 역사적 제관계와 사회성이 단절된 원자적 인간의 추상적 자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다. 전통의 시대에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던 한국사회는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며 살아가는지 살펴보았다.

1) 뉴스로 살펴보는 지역민의 가치관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부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누워 있는 아이를 발로 짓누르기조차 하는 일이 반복하여 보도된다. 심지어 바늘로 찌르기도 한다. 일부 보육교사들의 잘못이지만, 이러한 가학적 심리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그러한 행위를 하는 보육교사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보육에 임하는 것일까?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의 문제도 한 몫할 테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가 전혀 없는 것이 출발선일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와 아이, 아이의 부모와의 유대감이 없는 것도 문제다. 우리 사회가 각자 자신의 일만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가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단절의 일상화가 주 범

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교육은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에 전혀 속수무책이다.

딸과 다투다가 딸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어머니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식탁 위에 놓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딸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쟁반을 집어 던졌다. 화가 난 엄마는 흥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낸 것이다. 가정 내 폭력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은 자주 뉴스에 등장한다. 여전히 쇼킹하지만 여전히 빈번한 뉴스거리다. 도처에서 가정이 지상의 낙원이라는 일반적 개념이 깨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 파괴 현상이 점차 일반화하도록 방치해도 좋을까? 우리의 가정 대체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수십 년 전만 하여도 빈곤하여도 부모에게 효도를 중히 여기고, 사랑의 훈육을 하면 눈물로 뉘우치던 가정은 되찾을 수 없는 것인가? 아직도 첫 월급을 타서 부모에게 드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아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혼자된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 일부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가정 내 평화, 가정 교육은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까?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다 발전시켰다. 일명 ‘사적연락 금지법’이다. 울산경찰청내 실무자 모임에서 제안하여 실행하였다. 경찰청장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직원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규정이기예, 언론기관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는 터에 보다 발전적 사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바람직한가, 인간 사회가 서로 소통하여 화기에애하여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래에 ‘사적연락금지법’ 기사를 싣는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없애고, 성추행 등으로 인한 ‘미투(Me Too)’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1일부터 조직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연락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법이지만,

실제로는 선언적인 문화운동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규정은 없다. 사적연락금지법은 “모든 직원은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직장 내 상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일과 중’에만 유효함을 명심하고, 일과 이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하급자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등 안부 연락이나 “소주 한잔 하자” “재밌는 영화 나왔던데 같이 보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등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직장 내 상급자가 이성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해 퇴근 후 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장급 이하 20~30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에서 제안해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확장 일로에 있는 범죄를 어떻게든 피하고 보자는 대책을 양산한다. 다수의 뜻만 모이면 법 내에서는 어떤 규정의 제정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수의 뜻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시대의 흐름이나, 지역 정서의 영향을 받거나, 눈앞의 문제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단견적 해결책을 생산하는 것이 문제다. 조직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조직이 있다. 공식 조직 외 사적인 모임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조직은 사람 사는 사회가 된다. 학계와 예술계에서는 도제식 조직으로 전승한다. 스승과 제자라는 인연은 공식적이기도 하고 비공식적이기도 하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사적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일이 뉴스에 나온다. 그를 어찌해야 하는가. 일과 시간의 공식적 인간관계로 이외의 만남을 법으로 금해야 할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적 인간 관계 금지를 처방전으로 내놓고는 한다. 정말 비공식 인간관계의 말살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까? 인간관계를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개인주의의 핵심은 사적인 영역,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한다. 개인의 권익 확대로 인한 타인의 프라이버시의 침범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별 문제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법을 제정하면서 시민들인 이전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인

데,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는 법을 고시하였으니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이 부재하다. 가정에서도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자리잡는 것에만 머리를 맞대지, 인성교육은 갈수록 줄어든다. 자녀 교육도 점점 교육기관에만 의존한다. 어느 곳에서든 간에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는 순간 부딪히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야 한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윤리 도덕만을 반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상호 소통, 이해의 조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공 지능의 과학 문명 속에서 점차 수단화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고 대하는 가치관의 정립과 교육이 절실하다.

인간이 왜 존엄한 것인지.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어떠한지, 타인의 존재의 이해와 배려는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다. 산산조각 난 가정, 가정의 권위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여건도 주재할 사람도 없고, 사회와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나오는 인간 부재, 인간 소외의 현상이 날로 심각하다. 교육자의 진심이 왜곡된다면 진정한 교육을 펼칠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교직을 그저 직장으로만 여기고,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퇴근한다면 참다운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제도적으로 인성교육을 권장하지만 가르칠 스승이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또한 인성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회의 자식을 키울 것인가. 어린이의 인권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성장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성교육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불어 쟁점이 되었다. 갈수록 목표로 가는 길이 멀어진다. 한 교사가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체벌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교사는 지난달 초 이 남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자 회초리로 엉덩이를 두 차례 때렸으며 안쓰러운 마음에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교사의 체벌은 아동학

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2) 생활 습관으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 현대는 다원주의(多元主義)이며,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생각을 하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해도 된다. 서구에서 비롯한 자유의 개념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여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여러 가치관, 상호 충돌하는 가치관조차도 법에서 제재하는 충돌만 없으면 존치가 가능한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때문이다.

근자에 금수저, 흑수저라는 유행어가 있다. 과거에는 신분이 달라 쳐다보지도 못하던 높은 곳을 지금은 누구라도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경제적 차이가 과거의 신분제 만큼의 차이를 드러내다보니, 자조적으로 생긴 유행어가 금수저, 흑수저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금수저, 흑수저의 차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한 신분의 차를 인정해야 한다. 그 차이에 화를 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우매함보다는 적응하여 기민하게 자신의 자녀는 흑수저가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한 금수저와 흑수저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하니, 경제력의 차이를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는 방법 밖에는 없다. 즉, 황금만능주의에 서둘러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으니 인간적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하지만 이대로 비인간적인 사회현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행복이 물질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면의 행복을 구가하는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양의 사상인 유교와 도교적 전통이 강하고, 불교 역시 흥하던 땅에 살어온 한국인은 현재 어떠한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는가. 광복이후 미국을 위시로 한 서구

문명이 물밑 듯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74년이나 되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나 한편 이 땅에서 꽃피운 전통적 가치관 역시 가정교육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권장하여 이어가야 할 가치관과 유보 내지는 도퇴 시킬 가치관을 구분하고,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인은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생존 경쟁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실생활을 좌지우지한다. 흡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상이다. 상대를 거꾸러뜨려야 내가 산다. 학교에서부터 그러한 공부를 한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 간에도 경쟁은 당연하다. 선택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선택을 기다리며 다시 도전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더욱 커진 급여의 격차를 인식하고, 성과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는 운택한 경제적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다. 연봉 협상이라는 제도가 정착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사회를 이끌고 있다. 노동자들의 합법, 비합법 투쟁이 항시 일어나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에 대하여 온 국민이 시시각각으로 절실하게 인식하며 산다.

둘째,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도태 당한다며, 창의적 노력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구상으로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여야 한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요구는 대중이 흥미를 느낄 새로운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동반하여 이 사회를 견인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 인공지능으로까지 확대되다보니, 보지 못하던 것을 찾아내고, 전혀 모르던 것을 찾아내고,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상을 과학문명으로 실재화한다. 예술계는 물론이고, 산업 현장에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가 무척 활발하다. 가상공간

의 체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탐구가 더욱 거세졌다. 재미있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산업화를 이끌어 온 효율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창의적 노력이 인간의 행복과 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안정이라는 말은 큰 변화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별 일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아닌가 한다. 상상 속의 무릉도원이 역동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는 땅인가, 사시사철 변함없이 꽃피고 새가 날며 음악이 흐르는 땅인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변화를 강요당하였고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지고 생활화 하였다.

셋째, 변화를 위해서라면 갈등을 당연히 여기며, 파괴도 개의치 않는다. 설거지하다보면 그릇 몇 개는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타당한 말이다. 목표를 향하다보면 일정한 노력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 그득하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을 지탱하는 주요한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위에 흙을 덮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롭게, 앞서 일어서려면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치관을 소지하다보면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되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다. 뒤에서 밀치는 놈들 때문에 앞에 있던 녀석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죽는다고 한다. 이대로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라는 이름으로 귀중한 가치, 특히 정신적 유산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인의 삶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다. 세대 간에 차이는 있지만, 젊은이들의 내면에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현실지향적 특성과 안빈낙도의 정신, 인의예지신 오륜의 가치관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현대 한국인에 내재한 전통적 가치관은 다음과 같다.

(1) 현실 지향적 특성

종교생활에 있어 현실 생활에서의 구복 신앙적 요소는 한반도를 찾아와 민중의

품에 안긴 불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나타난다.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종교가 지닌 신앙을 따르기도 하지만,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우리의 피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인 듯하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세계 경제 12위, 소득 3만불 시대를 이룩한 것은 이러한 현실 지향성이 강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유학(儒學)의 오륜(五倫)의 가치관

유교에 전혀 관심 없고, 논어 맹자의 한 구절도 모르는 젊은이일지라도 오륜의 가치관을 지닌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가치관이 여전하며,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선, 봉우유신의 가치관이 도도하게 흐른다.

① 부자유친(父子有親)

매스컴에서는 불효를 매일 뉴스로 다룬다. 그것은 아직도 효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뉴스로 다루는 것이다. 주변의 누구를 돌아보아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마음에 걸려 한다. 우리가 아는 미국사회의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하여 애 낳고 살기도 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가(儒家)에서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았는데, 지금도 그 가치관은 맹위를 떨친다. 모자유친이나 부녀유친, 모녀유친으로 번져도 다 같은 가치관이다. 또 친가뿐 아니라 처가로 적용하는 것도 역시 같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하게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야만한다는 부자유친은 고대의 유물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자애로워야 하고,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것은 같다. 부자유친의 가치관이 현대를 맞이하여 보다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부부유별(夫婦有別)

아직도 한국의 가정에서는 남녀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인식이 짙게 남아있다.

부부유별의 가치관이 관습으로 남아 있다. 가정 내 부부간의 가사 분담에 여성이 훨씬 많다. 현재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6시간 정도이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주 25시간 정도라고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노동 시간 격차는 161분이다.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지만 하루 격차는 90분 이내라고 한다.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오늘날 유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조선사회 부창부수(夫唱婦隨) 개념의 부부유별은 본래 유가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한다. 한(漢)나라의 동중서(董仲舒)가 유가의 오륜 사상에다가 음양오행 사상을 대입하여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사상을 주입한 때문이라고 한다. 본래 유가에서 말하는 부부유별은 여필종부가 아니라, 남녀의 특성에 맞게 일을 분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생각할 때에도, 그러한 개념의 부부유별은 오히려 더 소중한 개념이다.

현대 한국인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녀가 모두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아이는 남에게 양육을 맡기면서 돈 벌러 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한 편이 바깥 일을 맡고, 다른 한 편은 육아와 가정 관리를 맡는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을 벗어나서 부부유별을 적용하는 삶이 좋겠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용 노동인력으로 보는 고용지수를 활용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사람만 경제 전선에 투입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③ 장유유서(長幼有序)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다.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뿐 아니라, 나이가 조금 많으면 경어를 쓰며, 나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를 봐서 말을 놓는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음이다. 전철이나 버스에 경로석을 마련하여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르신이 앞에 서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도 많다.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바로 장유유서의 가치관이 내면에 존재하는 까닭이다. 중고생

들이 선배가 후배에게 폭력을 쓰는 대개의 이유가 하급자가 건방지고, 상급자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라고 한다. 부정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장유유서의 가치관이 학생들에게도 부지불식간에 배어 있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경어를 사용하다보니 언어가 뒤틀리기도 하지만 경어는 격조 있는 인간관계를 고양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한 관습을 지닌 우리 사회는 과학문명과 자유민주주의의 극성으로 여러 폐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모인 사회이고, 인간다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유유서를 현대에 맞게 변형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경어를 쓰던 예전의 가치관을 확대 변형시켜, 나이와 관계없이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 등에 이러한 경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유유서를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질서가 아니라, 무언가 앞서가는 이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사용하며, 뒤따라오는 이를 이끄는 연결 고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봉우유신(朋友有信)

오늘날 친구의 개념이 좁아졌다. 과거처럼 친구 간에 신의를 배신하면 고향의 친구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출입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모두가 타향에서 사는 때문이다. 도시생활에서는 서로가 단절되어 살고 있어, 친구들의 공동체가 긴밀하지 않은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와의 신용, 신뢰는 중요하며,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서구사회에 비하여 보다 더 그러하다. 우리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과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지만, 사적 친구의 모임, 동호인의 모임도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어떤 모임이든, 어떠한 사적 만남이든 간에 신의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건강한 멤버십을 고양하는 데는 봉우유신(朋友有信)이라는 덕목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3)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가치관

귀농이 우리 사회 현상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수십년간 서울로, 도시로 향하기만 하였는데, 은퇴 후에 귀촌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과 청년의 귀농 행렬이 생겨

난다. 이는 우리에게 안빈낙도의 가치관이 내재한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삶에서 지친 이들은 자연스레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자연과 벗하며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한다. 은퇴 후에 귀향하여 자연과 벗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다. 무위자연과 안빈낙도의 가치관이 있음이다. TV에서는 자연인, 자연에 산다는 프로그램이 상시 방영하며 안내한다. 한국 사회는 자연 속에서의 삶, 복잡한 도시생활과 경쟁적 사회를 피하여 사는 도가적 안빈낙도의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3) 정제두의 사상과 인성 교육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성교육법을 제정하여 개인적 차원에서의 내면적 함양과 이를 통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필자는 정제두의 양명학적 사고와 실천으로 주체성과 실천성 배양을 제시한다. 인성교육은 도덕적 판단능력인 지적 능력과 정감 능력, 실천력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제두의 철학은 주목할 만하다.

(1) 긍정적 인간관을 이끄는 양지(良知)

정제두가 제시하는 인간의 특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갖춘 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래적 선함과 능력을 서술하기 위해 양지(良知)와 양능(良能)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왕양명 역시 양지를 인간다움의 특성이자 도덕성의 근원으로 보았다. 정제두 역시 맹자와 왕양명의 학설에 동조하여 인간의 특성을 마음의 순선함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제두는 왕양명과 달리 인간과 물질의 이치를 구분하였다. 정제두의 생리(生理)와 물리(物理)의 구분은 중국 양명학에는 없는 독창적 주장으로서, 정제두는 인심(人心)의 이(理)를 생리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에는 생리가 있고, 물에는 물리만이 있다고 보았다. 마음 속의 생리(生理)가 지닌 도덕적 판단 능력이 물리(物理-물질의 이치)에는 없기에 생리와 물리를 구분하였다.

정제두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 무한히 긍정적인 인간관을 지녔다. 인간의 본성을

사람 마음[心]의 순선함이자 양지의 본체이며, 명덕으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양지를 실현할 적합한 환경만 갖추면 스스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자, 주체성을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곧 인간의 주체성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2)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심즉리(心卽理)

정제두는 외부로부터 이치를 찾는 성리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공부법은 마음이 사물을 쫓는 병통에 빠지고, 도덕적 앎과 실천을 분리시켜, 획일적이고 형식화된 학풍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정제두 역시 주희의 성리학이 주장하는 선험적 도덕성인 이(理)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주희는 심(心)에서 기(氣)를 뺀 성(性, 본성)이 곧 이(理)라고 하였지만, 정제두는 심즉리(心卽理),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마음이 도덕의 기준을 창출한다는 말과 같다. 즉 마음이 이치라는 말은 마음 자체가 이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理)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도덕 가치의 기준을 스스로 창출하므로, 각인의 마음이 주체적 자율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정제두의 한국양명학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며 주체적 자율성을 고양시키는 학문이다. 현대의 인성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자율적이며 주체적 도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제두의 심즉리(心卽理)에서 비롯하는 자율 개념은 칸트의 자율 개념과 유사하다. 칸트 역시 자유의 힘, 즉 인간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보다 선한, 보다 올바른 세계, 당위의 세계를 찾는 데서 도덕법칙이 나온다고 한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신이 제시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만든 도덕법칙이다. 인간이 자신에게 부과하고, 스스로 복종해야만 하는 법칙이라고 하였다. 정제두의 마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용어를 대입하면 두 철학자의 이야기는 같은 말이 된다. 심즉리(心卽理)라는 주장에는 자율과 자유가 들어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칸트(독일, 1724~1804)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 자신의 이념이 도덕의 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정제두(조선, 1649~1736)는 사람의

마음이 도덕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였다.

(3) 실천성을 확보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

정제두는 지식교육만을 앞세우는 공부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왕양명은 마음을 인식과 실천의 주체로 보고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정제두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다. 정제두는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를 제시하며, 체용일원을 말하였다. 체용일원(體用一元)은 본체와 작용이 하나라는 말이며, 이는 곧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의미이다. 행동이 함께 하였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하였다. 정제두의 지행합일은 사람의 생리가 지닌 도덕적 판단 능력과 실천 조리(條理) 창출의 근원을 체(體)로 삼고, 그 작용능력을 용(用)으로 삼았다. 학문이란 마음[心]인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것이며, 천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성의(誠意)를 발동하여 앎과 실천을 합일(合一)하는 학문을 강조하였다.

5. 철학하는 경기지역문화를 위한 제언

정제두와 현대한국 사회라는 글을 써 나뉘대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보고 싶었으나, 철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세상 보는 눈이 어둔한 사람이 의욕만 앞세워 어둡지 않은 논란을 제공한 듯하다. 현대 한국 사회가 동서양의 가치와 철학이 혼재한 상태이기에 동양 철학과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싶었으나 역량 부족으로 그저 동서양 철학을 엮어 놓았을 뿐이다. 본인의 역량 부족과 함께 어려웠던 점은 관련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문을 읽으면서 당해 철학자의 철학을 음미하고 싶지만 그것 역시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선학들이 애써 번역한 글을 읽고, 또 종합 또는 요약 해설서를 읽으며 조각조각 뜻을 이어 붙이면서 길을 찾았다. 술한 철학 사조 중에 우리 한국 현대와 한국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사상을 잠시나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었음은 한국인으로 60년 이상을 한국사회에서 살아온 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의 현실

에 어떠한 동서양의 철학이 착근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양철학을 개괄하고, 따로 서양철학을 개괄하면서 필자의 부족한 지식과 둔한 감각을 지팡이 삼아 떠들떠들 걸음을 옮겨보았다. 작은 연구지만 경기도의 지역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현재 자신의 삶의 바탕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경기도의 전통시대 유학자를 본다. 용인에 정몽주 선생의 묘소가 있으며, 매년 포은문화제를 개최한다. 그리고 평택에는 조선 정치 사회의 틀을 짠 정도전의 기념관이 있다. 그리고 사림의 기치를 높이 든 조광조를 모신 심곡서원이 있다. 파주에는 조선의 성리학을 반석위에 올려 놓은 이이의 묘소와 율곡연수원이 있다. 또 안산에는 실학의 선구자 이익이 있으며, 시흥시에는 한국양명학의 태두 정제두가 있으며, 남양주에는 정약용의 생가가 있다. 김포에는 의병장 조현이 있고, 연천에는 남인의 영수 허목이 있다. 간단하게 거론해 보아도, 고려, 조선의 주역이 대부분 경기도와 연계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문화 예술의 운용에 있어서도 서구의 다원주의와 융합에만 몰두하여 귀에 새로운 소리, 눈에 띄는 밝은 색채가 깃든 예술적 가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통 문화와 가치관이 보이면, 문명이 퇴보하고 있다는 듯한 사고는 대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국적도 불분명한 문화적 요소를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여기고, 잠시 뒤에는 그러한 과정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조차도 잊는 지금의 문화예술적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의 문화와 가치관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통의 유학 가치가 서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 엄연히 살아 있지만 경기도 곳곳에서 빛을 잃은 채 그저 숨만 쉬고 있다. 유학의 온고이지신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전통시대에 유학정신을 기리는 방법, 즉 명심보감이나 소학을 읽고, 사서를 읽고 암송하는 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유학의 인간관계 철학을 인성 교육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문화 예술 곳곳에 이식해야 한다.

공자 맹자의 철학을 충실히 이어받은 정제두의 양명학 정신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스스로 준칙을 만들어 행하는 주체와 자율의 철학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세운 준칙으로 살아가는 주체와 자율의 철학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천의 가치를 주장하였다. 실천은 실용주의와 관계가 깊다. 현실의 모든

문제는 실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마련이다. 뛰면서 걸으면서 생각하라는 격언과 같은 말이다. 주체적 의지로 자율적 준칙을 설정하고 앎과 실천을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오늘날의 가치관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제두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오늘날에는 신분제가 없어지고, 만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지만 조선시대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금기시하였는데, 정제두 선생은 신분제 철폐의 주장을 한 용기있는 선비였다. 또한 정제두가 펼친 양명철학은 이황이 이단으로 단정하였기에, 자신이 양명학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매장을 당하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제두는 과감하게 자신이 양명학을 연구한다고 공표하였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관습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용기있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렵다. 정제두의 주체와 자율, 실천의 정신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

필자 소개



이병권 —————

고향인 화성시 우정,장안면의 3.1운동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한신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전공했다. 시흥문화원에서 시흥과 경기도 문화유산의 답사와 지역사 연구에 대한 글쓰기를 하며, 경기만에코뮤지엄 시흥에코뮤지엄연구회와 경기학연구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조경철 —————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 연세대 사학과 졸업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 인용지수 2위(역사학,2013)
- 『백제불교사연구』, 『한국고대사』(공저), 『한국사 한걸음 더』(공저)

양경직 —————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1963년 이천군 울면 신추리 용당이(龍堂) 출생
- 어려서부터 한문학을 공부하다가 군 제대 후에 향토사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부천향토 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관동마을을 말하다』(2018), 『다시 쓰는 부천의 향토지명 舊 원미구편』(2016) 등 다수가 있다. 향토사 연구 공로로 2015년 부천시 문화상 문화부문 수상하였다.

김우규 —————

- 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보존회장
- 2017년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콘텐츠 우수상
- 2017년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상
- 2014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권익증진 표창

정해경 —————

봄의 제비꽃과 가을의 샬러리가 어울려 만발하는 불멸의 세계를 떠나, 철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스러지는 세계,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세상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송낙영 —————

- (현)고양문화원 과장
- 고양늘푸른인형극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경기도, 고용노동부)
- 고양행주취타대 창단
- 고양어린이국악합창단 창단
- 고양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도형래 —————

- 군포시민신문 편집국장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국장

최진순 —————

- 경기대 일반대학원 문예창작 석사 졸업
- 경기대 꿈의 대학 교사
- 2015년 평론부문 신인상 수상
- 2016년 논문『백석 시의 시적 형상화 방안 연구』

허행윤 —————

- 한국외대 중국어 전공
- 고려대 대학원 중국문학 전공

경기일보에서 30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발품을 들여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천착했다. 은퇴 후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명희 —————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회장
- 2016년 디지털구리문화대전 기초조사 연구 및 원고 집필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를 가진 구리시에서 산업화에 사라지는 향토문화 보전을 위해 매해 회원 공동체 향토문화자료 보고서 발간, 향토문화자료 탁본전시회를 지역민과 미래세대에 게 “우리고장 시간여행”수업을 통해 향토문화유산 의미를 전달하는 마중물 연구자이다.

양훈도 —————

29년째 매탄동 주민이다. 기자 24년차를 거쳐, 대학 강의와 연구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평화, 근현대 생활사가 관심분야다. 경기문화재단 근현대 자취 발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재범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경기대 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슬픈 궁예』, 『나의 일본 여행』 등이 있다.

이서현 —————

- 가천대학교 역사학 전공
- 단국대 고고미술사(석사), 동국대 불교미술사(문학박사)
- 현재 : 용인시청 학예연구사, 경기학예연구회 총무
-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박사논문)

고희상 —————

- 현)연천문화원 향토사위원장
- 원광대학원 철학(기학전공)박사.
- 석사논문: 『동의보감』의 생명관 연구, 박사학위 논문: 『내단학의 음양쌍수 단법 연구』

임종삼 —————

-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오산시사 편찬위원
- 경기문학인협회 고문
- 저서 ‘광개토태왕의 하나개 상륙작전’ 등

정원철 —————

-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 시흥양명학연구회장
- 대한시조협회시흥시지회장
- 시인
- (전)시흥문화원장

2019 경기지역학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 1 [흙]

집필자(연구지역)

이병권(시흥), 조경철(군포), 양경직(이천), 김우규(고양), 정해경(이천), 송낙영(고양)
도형래(군포), 최진순(화성), 허행운(화성), 김명희(구리), 양훈도(수원), 이재범(수원)
이서현(경기), 고희상(연천), 임종삼(화성), 정원철(시흥)

기획 및 진행

이지훈(경기학연구센터장)
윤소영(경기학연구센터 연구원)

발행일 2019. 12. 20.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문의 경기학연구센터 031-231-8573
편집·인쇄 조은문화사

ISBN 978-89-999-0170-6-13300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작자와 경기문화재단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019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개인연구 모음집

시흥·군포·이천·고양·화성·구리·수원·연천·경기

비매품/무료

